

이사야 1:1~2:5

주: 이사야의 원문은 비교적 어렵다고 합니다. 개역성경의 난하주에 가능성이 있는 다른 번역이 유달리 많이 달려있는 것이 그 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장 구분이 어색한 부분이 적지 않아서 '책망, 징계, 회복'을 하나의 사이클로 보면서 장을 구분하면 좋을 것입니다. 기존의 장별보다 이런 단락을 중심으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1. 이사야는 원어에 가깝게 발음한다면 '예샤야후'라고 하겠는데 이 발음은 '예수'와 '야웨'의 합성어이다. 그러면 이사야의 이름 뜻은 무엇인가?

여호와와 구원이시다: 예수라는 이름 뜻이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붙여진 이름이다.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는 정확하게 말하면 '아모츠'라고 해야 한다. 선지자 '아모스'와는 발음이 다르다.

2. 이사야가 활동한 시대는 유다왕 (, ,)의 시대였다.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의 대상은 누구인가?

웃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선지자들의 활동시기를 말할 때 보통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도 함께 언급하는데 여기에는 전혀 없다. 가령 '이사야의 승천'에 따르면 이사야는 므낫세에 의하여 톱에 걸려서 순교했다고 한다. 므낫세 왕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므낫세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유다와 예루살렘: 같은 지역이다. 사마리아와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선생님이 아무리 이러쿵 저러쿵 해도 결국은 공부하라는 얘기처럼, 이런 저런 이방 나라에 대한 언급도 있지만 배경 정도에 지나지 않고 결국은 유다에 대한 이야기이다.

유다 왕 아하스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의 बे가가 아람 왕 르신과 합세하여 친앗수르 정책을 표방하는 유다를 침략하여(왕하 16:5) 큰 피해를 입힌 적이 있었는데 다시 2차 침입을 준비하던 때이다. 아하스의 요청에 의해 앗수르는 북쪽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결국은 사마리아를 함락시켰다(BC 722년). 아하스의 뒤를 이은 히스기야는 애굽과 바벨론에 도움을 요청하였다가 산헤립의 침공을 받지만 구사일생으로 고비를 넘긴다(왕하 18:13). 유다는 앗수르와 애굽의 틈바구니에 끼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치적인 줄타기를 하다가 패망의 길을 걷게 된다. 뒤로 가면 사마리아와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의 대상은 유다이다.

3.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2)는 표현은 이사야의 서두를 거창하게 보이게 한다. 혹은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받아줄 인간이 없어서 애꿎은 하늘과 땅을 부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는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같은 표현이 신 32:1에 나온다. 이런 표현을 사용한 정확한 이유가 신 32장을 기록한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에 명시되어 있다(신 31:14-29). 무엇 때문에 하늘과 땅을 부르는지 찾아보자.

증인으로서 증인을 요구함(신 4:26, 31:28): 사고를 당한 사람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증인을 찾는 장면을 연상케 한다. '목격자 구함, ...후사하겠음' 이런 플랭카드를 걸어둔 피해자의 심경을 생각해 보자.

4. 하나님의 탄식(2-4)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야, 이 짐승보다 못한 놈들아! 배은망덕한 자식들! 우리는 이럴 때 개를 잘 들먹이는데 유대인들은 소와 나귀를... 어떤 면에서 짐승들은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다. 인간들이 은혜를 저버리는 것은 '결함 있는 지혜'의 소산 아닐까? 따먹지 말아야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얻은 지혜 말이다.

5. 이스라엘은 거룩한 나라요(출 19:6) 거룩한 백성이요(신 7:6) 여호와와 자녀로 기대되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범죄한 나라, 허물 진 백성, 행악의 종자, 부패한 자식: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아담 때부터 시작되었고, 끝없이 반복되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된다.

6. 이스라엘이 짐승보다 못한 것은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외에 한 가지 더 있다. 본문에서 찾아보자.

짐승은 매를 맞으면 말을 듣는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6)인데도 더 맞으려고 더 더욱 패역하고 있다(5).

7. 5-6절의 내용과 7-8절의 내용은 어떤 관계일까?

동일한 내용이다. 전자는 은유적인 표현이고 후자는 직설적, 혹은 사실적인 표현이다.

8. 7-8절이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영어라면 완료형이다) 내용이 과거는 아니다. '매를 더 맞으려고'(5)에서 보듯이 미래를 가리킨다. 미래를 왜 과거형으로 기록하였을까?

히브리 어법에 확실한 미래는 과거형으로 기록한다. 확실하다는 뜻이다.

9.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왜 딸이라고 불렀을까?

성전의 고귀함 때문이다. 사랑스럽고 정결한 딸이 처절한 모습으로 패어지는 아픔을 보여준다.

10. 소돔과 고모라와 달리 남기는 남았네! 그나마 은혜다! 남은 모습이 포도원의 망대, 원두발의 상직막, 에워싸인 성읍인데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홀로, 외롭게 남음: 겨우 남은 것이다(8). 그래서 소돔, 고모라의 처지가 되지는 않았다. 이왕에 멸하시려면 깨끗이 쓸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조금을 남기시는가? 멸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11. 자기를 낳고 길러준 부모를 모른다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있었다는 증거는?

1) **무수한 제물:** 수양의 번제, 살진 짐승의 기름, 수송아지나 어린양이나 수염소의 피(11)

2) **성회로 모이는 것:**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 정한 절기(13)

3) 기도함: 손을 펴는 것(15)

12. 위의 질문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는 짐승 같다고 하는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의 방식으로 섬김, 섬김을 받는 그 분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형식적으로 드림: 하나님을 섬긴다고 정한 때에 모여서 제물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헛된 제물과 가증스런 분향과 악을 행하면서 드리는 성회(13), 피 묻은 손(15)이 싫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악업을 버리라, 악행을 그치라,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라는 것이다(16-17). 제사와 악을 행하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 만약 동시에 행해진다면 외식이 된다.

13.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하시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이라고 하신 적이 있다(출 32:7). 얼마나 속이 상하면 내 백성을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시는가? 본문에서 은근슬쩍 그런 심경을 비치는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

10절의 소돔의 관원들과 고모라의 백성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관원과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망해버리고 사라진 소돔과 고모라를 왜 찾아가? 짐승보다 못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자신의 백성에게 마치 남의 자식 대하듯이 하는 표현이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향해서 소돔의 관원이라고 불렀으면 백성은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소돔의 백성들이어야 한다. 그런데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소돔이나 고모라나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악한 것도 같고, 깨끗이 멸망당하는 것도 같기 때문이다. 멸망당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소돔, 고모라의 지도자와 백성들과 똑같은 지적이다.

14. 문서설을 주창하는 자들이 10-14절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제사와 절기를 싫어한 증거'로 삼는다. 이스라엘의 종교가 발전하기 이전의 문서(소위 J, E 문서)로 취급하는 것이다. 신명기나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와 절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심하게 말하면 전혀 다른 종교라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이 어떻게 틀렸는가? 독해력 문제이다.

제사 자체가 싫은 것이 아니라 15, 16절 때문에 싫어하신다(렘 7 참고): 말씀의 의도를 고의적으로 무시한 곡해다. 제사와 절기가 싫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와 절기가 싫다는 것이다. '마음을 달라'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선물을 거절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선물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지만 선물보다는 마음을 먼저 달라는 역설적인 메시지만 경우도 있다.

15.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차를 구입한 사람들도 사고 나지 않고 사업(?)이 잘되게 해달라고 고사를 지낼까? 이렇게 고사를 지내는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신을 신으로 대우하지 않는다: 이런 고사떡을 먹고 사업 잘되게 해주는 신이 있다면 그건 신이 아니다. 그런 신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대했으니 맞아도 싸다 싸!

16. "내가 안 해준 게 뭐고?", "내가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이러면서 싸우는 부부는 누구 말이 맞을까? 이런 질문이 본문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둘 다 맞다. 문제는 생각이 다르다는 점이다. 돈만 벌어서 주면 남편 노릇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돈보다는 인간적인 대우를 바라는 부부인 경우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관계가 먼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모든 제물이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다.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규정의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은 참으로 성경적이다.

17. 하나님은 먹기 싫은 음식을 억지로 잔뜩 먹어서 배가 터질 지경이고, 꼴도 보기 싫은 자식들이 다 물려와서 북새통을 이루고, 무거워 일어날 수도 없는 짐을 지고 피곤해서 쓰러지기 직전이다. 자식들의 입에 발린 말도 다 듣기 싫다! 만신창이다. 왜 이 모양인가?

못난 자식을 많이 둔 죄다: 애당초 사랑할만한 사람을 사랑했어야 하는데 인간을 특별히 자신을 닮게 만들고, 그를 사랑한 것이 죄라면 죄다. 범죄한 인간을 끝까지 회개시켜 자신의 아들로 회복시키려는 아픔이다.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는 고통을 여럿 둔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비유하셨다.

18. 18-20절의 전후 문맥은 혹독한 책망이다. 혹독한 책망 가운데 들어 있는 이 말씀의 성격은 무엇일까?

더 혹독한 책망(20)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부름, 혹은 하나님의 본심(18)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정말 은혜의 말씀이 되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해도 듣지 않았느냐는 더 혹독한 책망이 되고 만다. 결과적으로는 혹독한 책망의 말씀이 되고 말았다.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한 마디만 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하겠다'는 데도 악다발개/억지로 대들다/ 버텼기 때문이다.

19.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못한 요소를 21-23에서 두 가지만 지적한다면?

공평(공의로운 재판)과 의리(고아와 과부를 돌아봄)가 없어짐: 하나님의 율법이 바르게 시행되는 척도는 1) 고아와 과부와 과부를 제대로 보호하는가? 2) 뇌물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는가? 이 두 가지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가장 큰 죄로 지적하고 있다(전반부)

하나님의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사라지는 것이 '공평과 의'다(후반부)

20. 슬프다는 표현이 4절과 24절에 두 번 나온다. 누가 슬픈 걸까? 어떻게 이 슬픔을 극복하는가?

하나님: '부모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이 되지는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은 견딜 수 없다' 연애중인 사람의 말이다. 하나님의 슬픔이 곧 나의 슬픔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슬플 수가 있을까?

대적에게 보응하고, 원수에게 보수하여: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겠다는 뜻이다. 자식을 대적이라고 하면서 징계를 하겠다는 마음이 오죽하겠는가? 그런다고 아픔이 덜어지겠는가?

21. 왕이 편한 복장으로 하는 말과 정식복장을 다 갖추었을 때 하는 말은 차이가 있을까? 본문 나타내시는 하나님은 어느 편인가?

정식복장을 다 갖춘 채 농담을 하지는 않는다.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성호가 세 개나 한꺼번에 사용되었다(24)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 그만큼 진지하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뜻이다.

22. 이스라엘이 상수리나무를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 야단치시는가?

우상을 세우고 섬기던 장소이기 때문이다. 상수리나무 그늘 아래서 온갖 음행을 저지르며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23. 구약 성경의 장, 절 구분은 맞소라 학파 사람들이 했는데 특히 이사야서가 제대로 단락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사야서의 가장 큰 특징은 책망과 회복이다. 따라서 책망과 회복은 한 단락으로 보는 것이 좋다. 1장에서 책망과 회복을 말하고 난 다음 다시 책망이 시작되는 곳은 어디인가?

2:6. 그런 점에서 2:5까지 한 문맥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24. 구약의 선지자들은 종말에 대해서 예언할 때 초림과 재림이 구별되지 않았다. 마치 투명한 그림이 겹쳐 보이는 것처럼 그들이 보기에 다 같은 종말이었을 것이다. 2:2-4는 말일에 대한 예언이다. 초림일까? 재림일까? 증거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들보다 잘 구별할 수 있다.

재림의 때: 칼이 보습이 되고 창이 낫이 되는 것(4)은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세상을 가리킨다. 이유는 그 분이 판결을 정확하게 하기 때문이다(3). 신약시대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같은 내용이 기록된 미 4:1-4를 참고하면 추가된 부분이 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미 4:4). 포도나무는 풍족한 소산, 부와 평화를 상징한다. 곡물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포도는 즐거움을 위해 필요하다. 먼 훗날, 전쟁도 없이 즐거움만 넘치는 세상을 그리고 있다. 바벨탑 사건으로 온 세상에 흩어졌던 만방이 이제 시온으로 몰려들 것이다.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다.

25.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라는 말씀은 결코 산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로 시온산은 높은 산이 아니라 자그마한 언덕일 뿐이다. 1:7-8에서 빼앗긴 것에 대한 회복의 약속이다. 그러면 산 이야기가 아니고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

통치권 회복에 대한 이야기이다. 작은 산들이란 주변 다른 나라들의 통치권을 가리킨다. 평강의 왕이 오시리라는 약속이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란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란 말이다.

26. '야곱 족속아 오라'(2:5)고 한다. 2:3절을 근거로 야곱 족속이 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만방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도를 행하자고 하는데 먼저 말씀을 받은 야곱 족속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7. 이스라엘의 배역한 현실을 지적하는 표현들을 전부 찾아보자.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부패한 자식, 포도원의 망대, 원두밭의 상징막, 에워싸인 성읍, 창기, 살인자, 찌꺼기, 물 탄 포도주(22, 혼잡물 25), 도적의 짝(23), 패역한 자, 죄인, 여호와를 버린 자, 외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물 없는 동산, 불티에 타는 삼오라기(31) 합계 18 가지.

이사야 2:6~4:6

1. 말일에 있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온다.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시킨 것이다. 하나님 대신 () 제사장 대신 () 하나님과 언약하는 대신 ()과 언약한 것이다.

동방풍속, 술객, 이방인: 동방은 아무래도 앗수르, 아람, 바벨론에서 들어온 이교적인 문화의 영향을 가리키는 것일 테고, 블레셋으로부터는 술법이 들어온 모양이다. 결과적으로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과 전혀 구별이 없어져 버렸다. 홍수로 심판을 작정하시던 모습과 비슷한 셈이다(창 6:3). 그리스도인들이 노는 것은 별로 화끈하지 않은 것 같은데 불신자들이 노는 것은 종류도 훨씬 다양하고,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고, 화끈해 보인다(7-8).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기나 할까? 자신과 가정과 이웃을 살리기보다는 점점 허물고 있기 때문이다.

2. 다시 책망이 시작된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7)...' 이런 이스라엘은 온갖 보물을 가득 실은 거대한 배와 같다. 이 배에 무엇이 문제인가?

'우상도 가득하다'는 표현은 항구를 항하여 즐진하게 만드는 잘못된 키와 같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복이라고 생각해도 될 일이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때(6, 8) 물질의 풍성함은 오히려 재앙의 원인이요, 타락의 동반자이다.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대는 웃시야의 52년 치세하에서 부흥하여 요담의 16년 치세기간 동안 솔로몬 때의 영광과 영화를 누렸던 시절이다. 잘 먹고 잘 산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신 17:16-17의 경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

3. 말일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2:2-4)와 현재의 이스라엘(2:6-9)이 대조적인 점을 찾아보자.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아는 것, 이스라엘은 우상이 가득한.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한 것과 칼을 보습으로, 창을 낫으로 만든 것. 여호와와 말씀이 온 이방인에게 주어지는 것(가르쳐지는 것과 이스라엘이 이방의 악한 풍습을 받아들이는 것).

4. 그 땅에 가득한 우상으로 말미암아(8) 세상이 뒤집어질 것이다. 열시받던 하나님이 홀로 높임을 받을 때 사람의 경배를 받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은 어디에 소용이 있을까?

두더지와 박쥐를 쫓아내는 데(20):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숨으려니 두더지와 박쥐가 살던 곳(바위틈, 진토)이 가장 적격이다. 이들이 쫓아내려고 우상을 던질 것이다. 풀을 던지지 왜 금, 은을 던지나? 아마 숨으려고 도망가면서도 우상을 품고 갔을 것이다.

5. 만군의 여호와와 날은 어떤 날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 날이다. 모든 높은 자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질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구원의 날이라고 기대하지만 무서운 심판 날이 될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것이다. 그 날이 어떤 날이 될 것인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에 달린 문제다. 어떤 이에겐 심판이요, 어떤 이에겐 복이 될 것이다.

6.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는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느끼게 하는 특징적인 표현을 하나만 찾아보자.

연속으로 반복되는 '모든'(2:12-16, 3:1-3): '한 놈도 빠짐없이'라는 의미인 셈이다. 3:3절에는 단어는 없지만 느낌은 있다.

7. 여호와와 진노의 대상은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11-17)?

높아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스스로 낮아진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면 스스로 높아진다. 높은 자,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높고 높은 산, 상수리나무, 높은 망대... 진짜 높임을 받을 대상이 없으므로 엉뚱한 자들이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다(교주, 제사장들). 하나님을 대리하는 목사가 스스로를 높인다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셈이 된다.

8. 사람들이 압혈과 토굴, 바위틈에 숨었는데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면 어떻게 되나(19, 21)?

압혈과 토굴에 숨은 자가 가장 두려운 것은 굴이 무너지는 일이다: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수 없다. 숨는다고 전혀 두려움이 떨어지지 않는다.

9. 자동차를 운전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태평스런 마음으로 마음껏 다니는 사람은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다.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멈춰버릴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다고 한다. 물론 웬만한 고장이야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말이다. 수많은 부품 중에 하나만 탈이 나도 움직이지 못할 가능성을 알기 때문이다. 자동차는 그렇게 완벽한 기계가 아니다. 사람은?

코만 잠시 막히면 끝이니 수에 넣지도 말라(22): 호흡이 멎으면 얼마나 버틸 수 있나? 겨우 몇 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허약한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다. 호흡은 하나님께서 불어 넣으신 생기이며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이 사람이 살아있음을 깨우쳐주는 것이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흠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시 146:4). 이렇게 허약한 인생이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굳은 맹세를 하는 것도 너무 믿으면 안 되겠다.

[3장]

10.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재하여 버리시려는 것은 '양식과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들'이다(1-3). 왜 그러시는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왜?: 마땅히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드온의 32,000 군사를 300명까지 줄이신 것과 동일하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2:22)고 했잖아.

결과?: 자격 없는 자들(아이들, 적자)이 그 자리를 대신하여 엉망진창이 되는 거지(5) 적자(赤子)는 孺자가 아니라 별거벗은 사람, 즉 갓난아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아이가 방백이 되면 무정부 상태나 마찬가지다. 이스라엘의 잘 나가는 현실과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선지자가 경고할 때 들었어야 하는데...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다는 것은 세상이 뒤집어진다라는 뜻이다. 후일에 느부갓네살이 침공하였을 때 문자대로 이루어지고 만다. '저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합 일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을 사로잡아 가매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저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에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칠천과 공장과 대장장이 일천 곧 다 강장하여 싸움에 능한 자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왕하 24:14-16)

11. 젊은이가 노인과 싸우다가 '나이 많은 것도 자랑이냐?'는 정도가 되면 막가는 세상이다. 범죄한 이스라엘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되리란 표현이 어디에 있는가?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5) 권위의 상실이다. 하극상이 난무할 것이며, 더 이상 인간 사회라고 할 수 없는 무정부 상태이다.

12. 옷 한 벌만 있어도 장관이 될 자격이 있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일지 2장의 표현을 인용하여 설명해보자.

2:7-8과 대조적인 세상이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선고이다.

13. 장관자리도 얼마나 좋은 자리인데..... 예전에 어느 누구는 장관으로 임명되었다고 너무 감격해서 대통령을 청송하는 말을 했다가 바로 여론에 밀려 자리에 앉아보지도 못했다. 그렇게 좋은 자리를 서로 하지 않으려는 세상(3:7)은 어떤 세상인가?

혼자 먹고살기에도 급급한 세상(7) 자신은 양식도 옷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의복이 있다고 생각한다?

14. 이스라엘이 당하는 재앙의 원인이 명백하게 자신들의 잘못임을 보여주는 표현들을 8-12에서 있는 대로 찾아보자.

축법(8), 자취(9), 손으로 행한 대로(11), 지도자의 잘못(12)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관련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관련이 있다.

15. 죄를 지은 사람이 숨으려하고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형편인가?

아예 죄지은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9) 양심마저 버린 상태이므로 구제불능이다.

16.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과 동일한 표현을 찾는다면?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10),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11)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절에는 이 말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심판 날에는 틀림없는 진리임이 드러날 것이다. 우리의 현실도 이와 같을 것이다.

17. 다음 말은 어떤 성격의 말인가? 가령, 변론? 징계? 훈계? 심판? ...?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땀 흘리게 하느냐?'

국문(鞫問): 국가적인 범죄행위에 대하여 왕이 친히 심문하는 재판이다. 단순한 절도나 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말이다. 한글 번역이 너무 거창한 것 같기도 하지만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리 있는 번역이라고 생각된다. 5장에 보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즉, 포도원을 잘 가꾸라고 맡겼더니 삼켜버렸다(황폐케 하였다)는 말이다. 가난한 자의 물건을 탈취하는 일이 심해지면 이 땅의 나라도 무너지게 마련이다.

18. 우리나라에서도 의문사를 당한 사람이 적지 않다. 심증은 있지만 권력 앞에 말도 하지 못한 채 속으로만 앓다가 화병으로 부모마저 일찍 죽어버린 예도 적지 않다. 군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는 사람이 자살했다고 발표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 모양이다. 이런 일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짓밟는 행위이다. 이스라엘의 그릇된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런 짓을 하고 있는가?

짓밟으며, 얼굴에 땀 흘림(15) 정치 권력자들의 범죄는 대체로 밝혀지지 않는다. 당하는 백성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처절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국문하심 앞에는 밝히 드러날 것이다.

19. 늘인 목, 육감적인 눈, 아기죽거리는 행동, 소리를 내어 시선을 끄는 행위(16절)를 현대적인 단어 하나로 말한다면?

섹시함: 이 단어는 입에 함부로 담기 곤란한 의미를 지닌 단어다. 이 단어가 어떻게 아름답다는 의미로, 공개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성욕을 자극하는 모습이 곧 아름다움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사회 분위기가 성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증거이다.

20. 지도자들이 권력을 남용하면 그에 딸린 여인들이 화장이나 장식을 지나치게 하기 마련이다. 도대체 장식품이 몇 가지나 되는가?

27까지: 피부 맛사지와 화장품을 파는 일을 시작한 제수씨가 '교인들은 돈이 안 된다'고 한다. 좋은 현상이라고 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근검절약 하느라고 화장과 피부 관리에 큰돈을 들이지 못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진정한 아름다움과 감동은 피부 관리나 치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고가품이나 명품은 불티나게 팔리고 서민들을 상대로 하는 장사는 파리 날리는 오늘의 현상은 참으로 걱정스럽다.

21. 다음 본문에서 사선으로 나눈 8부분은 같은 내용의 반복이다. 다른 표현들이 어떻게 같은 뜻이 되는지 보기처럼 _____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자.

'그 때에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 대머리가 술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24-26)

(보기) 정수리에 딱지: 머리에 버짐이 피었음 ↔ 교만하여 늘인 목

하체가 드러나게 함: 수치를 당하게 함 ↔ 아기죽거리며 행함: 긴 치마를 입고 발목에 방울이 달린 금사슬을 달고 매혹적이 자태를 뽐냄

1) **썩은 냄새:** 시체가 썩는 냄새 ↔ 향: 여인들이 남자들을 유혹하려고 뽐낸 것

2) **노끈:** 포로로 잡혀가는 끈 ↔ 띠: 예쁜 장식으로 아름답게 만든 허리 띠

3) **대머리:** 인조대머리이다. 대머리는 수치의 상징이었다. 대적이 밀어버렸다. ↔ 술한 머리털: 압살롬의 예처럼 자랑스러운 것

4) **굵은 베옷:** 전쟁으로 인한 슬픔을 표시하는 옷이다. ↔ 화려한 옷

5) **자자(刺字)한 흔적:** 전쟁의 와중에 얼굴에 칼자국이 그어짐. ↔ 고운 얼굴

적자(赤子): 벌거벗은 사람, 즉 갓난 아이

촉법: 고드려 범함

아기죽거리다: 다리를 제대로 놀리지 못하고 팔을 많이 흔들며 걷는 모습

면박: 얼굴을 가리는 얇은 천

향합: 향을 담은 용기

호신부: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준다고 달고 다니는 장식품

지환: 반지

[4장]

22.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테니 아이만 남겨 해달라는 것이다. 남자의 시새가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4:1)? 성경에서 이와 처지가 가장 비슷한 장면이 있다면?

전쟁으로 인하여 다 죽었기 때문이다. 이런 모습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싶은 열쌍진 남자들이 있을 게다.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인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에게도 이런 아픈 기억이 있다. 일제가 패망이 가까워질 때 처녀들을 무조건 잡아가니 조혼 풍습이 생겼다. 정상, 비정상 가릴 것 없이 남자들이만 하다면 시집을 보내버렸다. 무능한 남자들에게는 살판이 났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로 비극이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통해서 후손을 전하자고 하는 장면: 자신들에게 후손을 남겨 해줄 남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23. 일곱 여자의 예전 모습을 3장에서 찾는다면?

3:16-23: 온갖 장식과 화려한 옷으로 치장하고 매혹적인 자태를 뽐낼 때가 좋았지! 교만과 허영이 이렇게 무참히 무너질 것이다.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라는 것은 '○○의 아내'라는 말이다.

24. 4장 1절과 2절의 '그 날'은 같은 날인가 다른 날인가?

1절은 징계의 날이고 2절은 회복의 날이다. 장의 구분이 영 잘못된 것이다. 1절은 차라리 3장 끝에 붙여야 한다.

25. 흑독한 징계로 사람도 땅도 황폐해져 버린 곳에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일을 시작하신다. 구원이 여호와로 말미암는 것임을 잘 보여주는 표현은 무엇인가?

여호와와 썩(2) 새롭게 썩을 띄우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혹은 여호와 자신이 썩일 수도 있다. 메시아의 신적 기원을 보여준다. 썩이 자라나 소산을 맺을 것이므로 결국 같은 것이라면 땅의 소산도 메시아를 가리키고 인적 기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흑독한 징계를 말씀하시는 것은 뒤에 따라오는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위함이다.

26.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녹명된 모든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이며 무엇 때문인가?

주님 때문이며(주께서),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4) 그들을 심판하고, 더러움을 씻고, 청결하게 하시는 분은 '주'시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실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되 정하신 때가 되면 이루신다. 대한민국에 살되 대한민국 국민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온갖 불이익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하물며 생명책에 녹명되지 않았다면?

27. 산 위에서 웬 집회를 여나? 비바람과 더위와 추위를 어떻게 막고, 조명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임이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모임이다. 구름, 연기, 화염,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씌우므로(영광이 천막이 되어?)

이사야 5:1~6:13

1. 다시 책망, 징계, 회복이 반복된다. 이런 분류를 따라서 본문을 나누어 보자.

책망: 5:1-25, '화있을진저'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책망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 징계라고 볼 수도 있거나 징계의 모습은 구체적이지 않고 징계의 원인에 대한 것이 구체적이므로 책망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

징계: 26-30, 징계는 먼 나라가 쳐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다.

회복: 6:1-13,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것이 곧 회복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주의: 정확하게 답을 맞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분류하느라고 내용의 윤곽을 그리고 여러 번 되풀이해서 읽게 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

2.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에 대한 노래(16-2절)는 주제가 무엇일까? 기쁨, 슬픔, 비탄, 허무...?

허탈이 어떻게? 경상도 말로는 '허폐가 휘 ~ 딱 뒤집힌다'고 한다. 대학입시 현장에서 떨어진 당사자는 멀뚱멀뚱한데 3년간 밤낮없이 수험생 뒷바라지를 했던 어느 아버지가 땅바닥에 앉아서 평평 울더라. 세상에! 이렇게 허탈할 수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느낌은 이보다 더 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3. 가령,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이 불려가서 '어떤 사람과 그의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4-6)고 치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런 고약한 포도원이 있나? 주인의 처사가 당연하지요.' 하면서 흥분하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그 고약한 포도원이 바로 자신됨을 알고(7) 경악하지 않았을까? 나단의 지적을 받은 다윗처럼(삼하 12:7).

4. 극상품 포도나무가 어떻게 들포도를 맺을 수 있는가?

불가능한 일이다: 엄밀히 따지자면 포도나무는 죄가 없다. 땅에 문제가 있거나 농부가 품종을 착각했거나, 병이 들었거나. 이런 불가능한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다는 것이다. 책임은 농부에게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 탓이 아니냐고 우기는 사람도 있지만 어쩌랴? 그것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표현인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로 인한 고통을 겪으실 만큼 겪었다. 그럼에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다.

5. 내 사랑하는 자는 포도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4). 극상품 포도대신 들포도를 맺는 포도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버리기만 하면 되지 답을 허물 필요까지 있나? 구름까지 명하여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심술 아닌가? 심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 부분에만 관심을 유독 더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 심판보다는 좋은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관심을 가지자! 그랬기 때문에 들포도 맺는 포도원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다. 쏟은 정열을 생각하면 도저히 그냥 버릴 수 없다!

6. 이스라엘이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은 비유이다. 들포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본문의 어느 부분일까? 마찬가지로 5-6절의 포도원 허물기는 구체적으로 본문의 어디를 가리키는가?

들포도: 76-23절, 유다의 죄악상을 지적하는 부분이다.

포도원 허물기: 24-30, 유다의 심판을 예고하는 부분이다.

그러면 5장의 구성은 A(1-2), B(3-4), C(5-6), B'(76-23), C'(24-30) 인 셈이다.

7. 7절의 뒷부분은 원어로 읽어야 재맛이 난다. 다음은 중요한 단어만 원어로 바꾼 표현이다. 이런 표현 기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들에게 **מִשְׁפָּט**(미쉬파트, 공평)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חִפְזָם**(미쓰파흐, 포학)요 그들에게 **צָדִיק**(짜디카, 의로움)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הִקְצָם**(짜아카, 부르짖음, 억눌린 자의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비명소리)였도다'

word play: 전혀 의미는 다르지만 발음이 비슷한 것을 대조시킴(원어상 발음은 자세히 들지 않으면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흡사한 발음이다) 성령 받으라 - 성냥을 던지면?

8. 능력이 있어서 재산을 늘리는 것(8절)도 죄인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토지의 매매를 금한다. 설령, 팔렸다 해도 안식년이 되면 원주인에게로 돌려줘야 한다. 단순한 재산의 축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안식에 대한 법을 어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 재산의 축적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9. '남이야 굶어죽든, 얼어죽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사람(8절)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어떻게 들어주시는가?

자신의 말대로 홀로 거하게 하신다(9c): 정작 자신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사람은 혼자서 행복해질 수 없다. 다른 사람의 불행이 결국은 자신의 불행으로 돌아온다.

10. 월급으로 200만원을 받던 사람이 능력이 없다고 감봉이 되면 얼마나 줄어들까? 2, 30만원이 줄면 회사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이다. 100만원이 줄면? 나가라는 말보다 더 혹독하다. 남이야 죽든 말든 홀로 거하려는 자에게는 어느 정도 감봉처분이 될지 짐작해 보자(10)?

10분의 1로: 열흘같이 포도원이면 꽤 큰 포도원 같아 보이는데 포도주 한 바트(40두, 액체 약 22ℓ)밖에 나지 않을 것이며, 한 호멜(220ℓ 지기에는 갇신했던) 한 에바(40두, 고체 약 22ℓ)가 날 것이라. 수확이 10분의 1밖에 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1호멜 = 10에바)

11. 연회에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피리)와 포도주를 갖추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는데(마 24:38)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도 잘못이 아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행위가 여호와와 행하심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일이라면 이런 행위가 오히려 복된 것이다.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고 자신의 기쁨과 유익만을 위한 모든 행위는 범죄이다. 해적선에서 행한 모든 일이 해적의 행위이듯이. 필연적으로 음란, 치부, 향락으로 빠지게 마련이다.

12. '머리 나쁜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얼굴 못생긴 것은 참을 수 없다'는 말이 들린다. 우리 사회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만큼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뜻이다. 좀 서글픈 생각이 든다.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스라엘이 비극을 당한 원인은 ()에 대해서 ()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무관심(12) 혹은 무지(13)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돈이나 명예를 좇다가 신앙과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작은 이익을 탐하다 큰 손해를 보는 것이다.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하나님이어야 한다.

13. 사람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쌓아올린 문명도 거대한 지진이나 화산폭발, 혹은 태풍이 몰아치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 하나님을 무시한 채 평생 쌓은 노력도 어느 날 한꺼번에 날아갈 수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지진, 화산, 태풍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음부(14) 입 벌린 음부: 현대적 표현으로 하면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고 할까? 무저갱(깊이 없는 구멍)이라고도 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시 127:1)

14. 어린 양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같이 먹는 일은, 귀하고 호화롭게 지내던 살찐 자들에게는 끔찍한 일이다. 왜?

자신들의 것을 어린 양이 마음껏 먹고, 유리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것을 다 차지할 것이므로(17)

15. 거짓으로 줄을 삼아 악을 수레처럼 끌면서(18)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실 일을 빨리 하시라'고 조롱한다. 그 일이란 약속하신 심판을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가 이렇게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있으니 심판하시려면 빨리 해보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라'는 조롱이다.

16.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무슨 일에 용감하고 힘이 넘치는가(22)?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빚는데: 지도자가 고작 이런 일에 용감하고 힘이 넘친다는 것은 비극이다. 선생님이 아이를 가르치는 것보다 돈이나 밝힌다면?

17. 이사야가 말씀을 외치던 때의 이스라엘은 한창 꽃이 피어 싱싱한 것과 같다. 얼마가지 않아서 꽃이 티끌처럼 날릴 것이라고 한다. 벚꽃이 떨어져 휘날리면 눈이 휘몰아치는 듯이 아름다운데 그런 뜻인가?

꽃잎이 떨어질 때가 되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썩었기 때문이다. 줄기나 잎이 말라도 꽃잎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종족보존을 위한 끈질김을 볼 수 있는데 뿌리가 썩어서 꽃잎이 떨어질 정도라면 완전히 다 썩은 셈이다.

18. 이스라엘의 잘못에 대해서 다음 구절들은 무엇을 지적하는가?

2절: 극상품 포도나무가 들포도를 맺은 것 → 포도원을 황무케 함(5-6)

8-17절: 하나님 없이 부요한 것 → 소출이 나지 않을 것(10), 사로잡힐 것(13), 모든 것이 사라질 것(14), 타인이 취할 것(17)

18절: 거짓, 거짓으로 하는 것이 쉽다? 일이 신속히 이루어진다(급행로?)

20절: 전도된 가치관

21절: 자만

22절: 독주를 좋아함

23절: 불공정한 재판

19. 이렇게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여호와와 율법과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24) →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킬같이, 마른 풀이 불속에 떨어짐같이 뿌리가 썩었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여호와께서 노를 발하시고 손을 들어 치심 → 시체가 분토같이 됨

20. 이스라엘이 당할 심판의 내용을 정리하면 '포도원을 황무케 함(5-6), 소출이 나지 않을 것(10), 사로잡히고 주리고 목마를 것(13), 모든 것이 사라질 것(14), 타인이 취할 것(17), 뿌리가 썩었고(24), 여호와께서 노를 발하시고 손을 들어 치심으로 시체가 분토같이 됨'(25)이다. 이런 일들이 어떤 경우에 있을 수 있는가?

외적의 침입: 외적이 침입하는 모습이 운동회의 한 장면 같다. 도대체 피곤하거나 지친 놈이 없다. 먼저 본 놈이 임자라고 마음껏 탈취한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끌어버리신 탓이리라(5).

21. 심판을 당하는 이스라엘이 도움을 구할 데가 없을까 해서 둘러보면 보이는 것이라곤 흑암과 고난뿐이다. 자업자득이다. 흑암을 좋아했으니 말이다. 이스라엘이 언제 흑암을 그렇게 좋아했는가?

20절: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연락(宴樂): 잔치를 열고 기뻐함
 열락(悅樂): 기뻐하고 즐거워함

[6장]

22. 6장은 단순하게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웃시야가 죽던 해(6:1)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사야는 웃시야 왕 때 이미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사 1:1, 대하 26:22). 자격도 없이 선지자 노릇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정식으로 그를 부르신 것일까? 이사야의 소명 이야기가 아니라면 5장의 내용과 연관시켜서 무슨 내용이라고 하는 게 좋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시작하셨다는 예고이다. 만약 이것이 이사야의 소명 이야기라면 1장에서 기록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은 무효인가?

23. 웃시야는 당시 위대한 왕으로(대하 26장) 적대국인 앗수르의 기록에도 '지중해 연안 국가의 우두머리 왕'으로 나온다. 그런 위대한 왕이 죽은 것과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신 것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신뢰할 왕은 웃시야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보좌에 앉으신다는 것은 통치하신다는 의미이다. 앗수르가 새롭게 강자로 부상하고 있던 때에 위대한 왕이 죽었으니 이사야가 당연히 나라의 장래를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결국 이 환상은 이사야의 나라의 장래에 대한 기도 응답인 셈이다. 통치의 의미와 동시에 국문의 의미도 있는 셈이다. 참고로 성경에서 의인의 죽음은 새로운 역사의 전환기이다(아벨, 모세, 스데반, 예수...) 웃시야의 죽음은 앗시리아의 공격 신호탄인 셈이다.

24. 이사야가 하나님을 뵈는 것은 무슨 집일까?

성전이다(1). 위대한 왕 웃시야가 죽고 외적의 침입이 예상되는 터에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며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것이다. 그 웃자락은 위엄의 상징이고 연기는 임재의 상징이다(왕상 8:10).

25. 5장에서 죽을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뵈고 나니 죽을 자는 누구인가?

바로 자신이다: 하나님을 보아야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고기를 많이 잡은 후의 베드로의 모습에서 같은 예를 볼 수 있다. 이사야는 나라를 염려하고 있었지만 실제 염려해야 할 것은 바로 자신이었다. 먼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나라와 이웃, 교회를 구한다고 애쓰는 사람들도 많다.

26.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히 9:22)고 했는데 숯불로 죄를 없앨 수 있나?

단에서 가져온 숯불은 피 흘림과 관계있다! 이 숯은 제물을 태운 것이다. 이 숯불로 하나님께 드릴 향을 사른다.

27. 선지자가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가수가 목소리를 잃어버린 것이요, 소금이 맛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양고 없는 찌뽕은 껌데기라도 있으니 차라리 낫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이사야의 회복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고하는 것이다.

28. 부정한 이사야가 어떻게 악이 제하여지며 죄가 사하여졌는가?

자신의 비탄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스랍의 행함으로 가능케 되었다. 우리의 회개도 회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시고 정결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행함이 더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애통뿐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자식을 죽이는 일이다.

29. 부정한 입술로 여태까지 외친 하나님의 말씀은 무효 아닌가?

유효하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모습일 수 없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이런 나에게 일을 맡기셨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뿐이다. 믿은 지 아무리 오래 되어도,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 해도 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용서받은 죄인은 당당해야 하지만 용서해준 그 분 앞에서 당당할 수 없는 때가 있다.

30.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부름에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자는 참으로 복되다. 억지로 떠밀려 간 자도 복되거늘... 이사야가 어떻게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문제를 해결해주셨기 때문이다(5:7). 기도하는 이사야를 불러서 사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도 이사야가 스스로 나서기를 기다리며 필요한 조치만 취하시고,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 명령하시지 않고 눈치(?)만 주셨다(8).

31. 새로운 사명을 받은 이사야가 외쳐야 할 메시지는 무엇인가?

심판의 메시지(9-12): 이사야의 기대와는 달랐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작성된 심판은 철저하게 시행될 것이다.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이 회복되듯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그루터기를 남기는 것은 회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32. 하나님께서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고 했으니 백성이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했다는 뜻이지 하나님께서 귀와 눈을 막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귀와 눈이 있어도 보고 듣지 못하니 차라리 귀를 막고 눈을 감으라는 책망이다.

33. 흔히 '거룩한 씨'는 메시아로 본다. 그러나 문맥에 따르면 이권이 있을 수 있다. 거대한 나무가 자라났던 것이 바로 그 거룩한 씨다. 그 나무(이스라엘)가 다 잘려버리고 그루터기만 남았다. 이제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날 것이다. 그루터기에 남아있는 거룩한 씨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조상들에게 주었던 언약: 언약의 핵심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굳이 구별하지 않아도 되고 하겠지만 문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설명하자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범죄한 인류를 싹 쏘어버리고 다시 창조하는 것이 쉬울 텐데 노아를 불려서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한 것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약속 때문이었다. 계시록의 용이 여자를 괴롭히는 것도 바로 그 여자의 후손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보시는 이유가 바로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다.

스랍: 복수형은 세라핌, 천사를 가리킨다. 단수 '사라프'는 '태우다'는 뜻이다.

이사야 7:1~8:8

[7 장]

1. 이제 시기상으로 훌쩍 건너뛰어 아하스의 시대이다. 때로는 큰 일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너무나 간단하여 헛갈리기도 한다. 1, 2절이 그런 예이다. 1절은 이미 지나간 1차 침공에 관한 글이고 2절은 예상되는 침공에 대한 글이다. 1차에는 누가 유다를 침공했으며 또 2차로 침공하려는 자는 누구인가?

1차: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

2차 예상: 아람과 에브라임, 사실은 1차와 같은 왕들이다.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를 가리키고 이스라엘은 에브라임과 같은 말이다(5절).

2. 2차 침공을 예상하고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고 한다. 1차 침공을 성공적으로 물리쳤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할까? 왕하 16:5-6과 대하 28:1-15을 읽고 해답을 찾아보자.

1차 침공에서 유다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왕자와 궁내대신이 죽었고 엄청난 군사가 죽었고 엘랏도 빼앗겼다. 예루살렘만 함락되지 않았을 뿐이다. 몽고가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전국을 장악하고 있음에도 왕은 강화도에서 버티고 있으면서 전쟁에 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꼴이다. 그러니 2차 침공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한 분풀이를 엉뚱한 곳에 하는 바람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던 모양이다. 힘이 없으면 애꿎은 백성만 죽어난다.

3.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동쪽의 나라를 이렇게 괴롭히는 이유는 아마 자력지심에 있을 것이다. 침공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왕을 갈아치우려는 것(6): 유다를 곤하게 하고 파하게 하자는 말도 있으나 주목적은 왕을 바꾸는데 있다. 다브엘의 아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기까지 9왕조 19왕이 있었다. 그러나 훨씬 더 오래 존속한 유다는 1왕조뿐이다. 날만 세면 쿠데타로 정권을 뒤엎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정통성에 자신이 없다. 남쪽 유다 왕조를 뒤엎어야 직성이 풀린다는 말이다. 그들의 악한 꾀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위가 영원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4. 백성들이 전쟁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걱정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왕을 찾는데 왕이 어디에 있는가?

윗물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3): 기혼 샘에서 흐르는 물의 일부는 수로를 따라 흐르다가 농업용수로도 쓰이고 한 쪽에서는 빨래를 하기도 했다. 아하스는 이 샘물이 흐르는 수로에서 공사를 지휘하고 있었다. 예루살렘은 높은 언덕 위에 세워진 성이다. 적이 포위하더라도 함락시키기는 대단히 어렵다. 유일한 어려움이 물이다. 북동쪽 외곽 비탈에 기혼이라는 샘이 있는데 굴을 뚫어서 이 샘의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여 사용했는데 용량이 적어서 아하스는 실로암이라는 인공 샘을 만들고 그 곳으로 물이 흐르도록 굴을 뚫는 수로 공사를 하고 있었다.

5. 아하스는 예상되는 침공에 대비하여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었다. 한 가지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수로 공사였고 또 한 가지는 앗수르에 사신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다(왕하 16:7, 대하 28:16). 그에게 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며 아하스의 태도는 어떠한가?

두려워 말라: 연기나는 부지쟁이 그루터기(2)일 뿐이다. 에브라임은 65년 내에 망할 것이다(9). 하나님을 믿으라(9). 진짜다! 증거가 필요하다면 징조를 구해보라(11).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절: 그는 자신의 방법대로 준비를 거의 끝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다는 식이다. 이사야와 스알야술이 함께 아하스에게 나타난 의미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때문이다. 이사야는 '여호와와 구원이시다', 스알야술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이다.

6. 개역성경은 8-9절을 분리하지 않고 있는데 다른 역본들과 비교하면 순서상의 차이가 있다. 다른 역본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기 때문이다. 육십오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사 7:8).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녕히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사 7:9). 이 번역을 따르면 7:8절은 7:7절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인 셈이다. 그러면 아람의 악한 꾀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르신에게 주어진 통치권의 한계는 아람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아람 왕 르신에게는 예루살렘에 대한 통치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사마리아에 대한 통치권이 에브라임에 주어졌다는 것은 에브라임의 통치권이 예루살렘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다. 이 두 나라가 결코 유다를 치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믿지 않으면 서지 못한다(새로 고친 9절).

7. 적이 쳐들어오는 것이 예상되면 전쟁을 대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는 '삼가며 중용하라'고 하신다(4). 방방 뜨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 같은데 그래도 되나?

이 전쟁의 원인은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다(11c).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른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삼가며 중용하지 못하면 두려워하며 낙심하게 된다(4).

8.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 아하스를 이제는 상대하지 않으려 하신다. 그러나 아하스는 '위가 영원하리라'고 약속한 다윗의 후손이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아하스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다윗의 집이여: 아하스를 상대해서 말하는 것이 싫다. 위가 영원하리라고 약속하셨던 다윗의 집을 상대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는 선언이다.

9. 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하였다는 소식에 아하스의 마음이 녹았다(2). 그러나 이제는 올 테면 오라는 식으로 배짱이 생긴 모양이다. 예루살렘 성의 문을 닫아걸고 장기전을 치를 준비를 마친 셈이다. 이제는 누가 제일 답답한가?

하나님(11): 그게 아닌데... 문제는 아하스가 하나님을 저버린 것인데...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 아하스를 상대로 필요하다면 징조를 구해보라면서 자신을 낮추고 계신다. 도대체 누가 답답해야 하는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안심하라고 해도 안 듣고 징조를 구하라고 사정해도 안 구하고... 매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매를 들지 않으려고 온갖 애를 다 쓰는 아버지 같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라는 말은 결코 신앙적인 대답이 아니다. 차라리 기드온처럼 당돌하게 이적을 구하는 자세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암벽을 뚫어서 수로를 만드느니 예루살렘 성 한 가운데서 물이 펄펄 쏟아지는 이적을 달라고 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10.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라는 말(12)은 여호와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말인가, 못 믿는다는 말인가, 안 믿겠다는 말인가?

안 믿겠다는 말이다: 믿지 않으려는 아하스에게 증거를 보여줘 가면서 사정을 하는 판인데도 믿지 않겠다는 말이다. 밥 잘 먹으면 맛있는 것 사주겠다고 달래는 엄마와 안 먹겠다고 버티는 아이와 비슷하다. 도대체 누가 답답한 거지... 스스로 준비를 다 했으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의 극치다.

11. 애절한 사랑 고백을 거절당한 사람의 반응은 여러 가지다. 포기하고 다른 대상을 찾으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랑을 다 쏟아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이와 비슷하다. 아하스에게 끝내 거절당한 하나님은 이제 그 사랑을 다른 곳에 쏟아 놓는다. 누구에게 더 큰 사랑을 주는가?

유대인을 넘어서 온 인류에게 독생자를 주셔서 회복의 길로 나아가신다: 임마누엘의 탄생을 예고하신다. 새로운 일을 하겠다는 선언이다. 여기서 언급하는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아기는 아하스의 아들, 혹은 이사야의 아들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그것은 이적이 아니다. 마 1장에서 인용하듯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12. 아하스가 하는 일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란(13) 왕이 제대로 할 일을 하지 못하면 죽어나는 것은 백성들이다. 그것은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대상 속에는 아하스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 그가 감사는커녕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괴로운 것이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한 것이 죄라면 죄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지 않았더라면 아하스는 자기 능력으로 털끝만큼도 하나님께 영향을 끼칠 수 없다. 못난 자식을 둔 부모가 하는 말 중에 '낳은 게 죄지'라는 말이 이 경우와 가장 비슷할 것이다. 인간을 만든 게 잘못이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13. 징조를 구하라고 온통 사정을 해도 구하지 않겠다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이적을 베풀고야 말겠다는 심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적은 얼마나 큰 것일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온다(=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아하스에게는 징조로 여겨지기보다는 '남몰래 못된 짓 했ぜ지!' 하고 코웃음이나 치게 했을지도 모른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겠다는 정도는 돼야 엄청난 징조라고 하지 않겠는가!

14. 구약의 선지자는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 간격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혼재된 상태로 예언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10장 마지막과 11:6이하). 포로귀환을 예언하다가 느닷없이 훨씬 뒤에 있을 메시아의 탄생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두 사건을 동시에 이야기하기도 한다. 가령, 초림과 재림이라는 두 개의 투명한 그림을 앞뒤에 겹쳐 세우고 그것을 정면에서 보는 것과 같은 형국이다. 우리는 두 그림 사이에서 구별해서 보는 셈이다.

본문의 임마누엘 탄생 예언(14-15)에서도 이사야는 두 가지 환상을 동시에 보면서 시간 간격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마치 두 장의 사진이 겹쳐서 찍힌 것과 같은 셈이다. 두 장의 사진을 분리한다면 각각 어떤 모습인가?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 몇 백 년 후의 일이다. 이것이 아하스가 거절해버린 징조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려는 징조이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 일이 당대의 일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1) 이 아이가 당시에 태어날 어떤 아이라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징조를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과 어울리지도 않고 당대에 그럴만한 인물이 탄생하지도 않았다. 2) 이 구절이 마 1장에서 예수의 초림의 의미로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3) 계속되는 임마누엘의 역할(8:18, 혹은 11장까지)이 메시아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태어난 아이가 자라났을 때의 모습: 십여 년 후에 있을 일이다. 하나님을 배반한 아하스와 그 백성들에게 조만간 있을 심판에 대한 예언이다. 아하스가 미워하는(두려워하는) 두 왕의 땅이 폐한 바 되리라(16)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징조이기도 하다.

15.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15)는 말씀도 어렵다. 문맥을 따라가 보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반기를 드는 아하스에게 결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버터와 꿀을 먹는다는 말이 결코 좋은 말이 될 수 없다. 16절의 두 왕은 아하스가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다. 그들의 땅이 폐한 바 되는데 이유는 앗수르 왕이 오기 때문이다(17). 원수들이 망하는구나! 좋아할 일이 아니다. 앗수르 왕이 그들의 땅만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땅도 같은 모습으로 황폐화시킬 것이다(17, 18-25). 그렇다면 선악을 분별할 만한 아이가 버터와 꿀을 먹는다는 것도 같은 의미라고 보아야 한

다. 아이가 버터와 꿀을 먹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땅이 황폐화되어서 벌이 온통 집을 짓고, 짓 짜는 사람이 없어서 소가 아무데나 풀린 쪼이 버터처럼 굳어지는 상태를 가리킨다(22절 참고). 내는 쪼이 많은 것은 역으로 먹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16. 실제로 유다는 바벨론에 망한다. 신흥강국 바벨론에 대항하여 앗수르와 애굽이 동맹을 맺고 유다는 바벨론을 의지한다. 이 와중에 유다는 앗수르(36, 37장, 히스기야 시대)와 애굽(왕하 23:28-30, 요시야 때)으로부터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 이런 외적의 모습을 무엇에 비유하는가?

파리떼와 벌떼: 이것들이 떼지어 빈곳이 없도록 내려앉는다(19). 강을 끼고 있는 애굽은 해충이 많고 숲으로 우거진 앗수르에는 벌이 많았던 모양이다. 우리가 말하는 파리과 벌과 개념이 다르다. 차라리 쇠파리와 땅벌이라면 어떨까? ‘부르시리니’의 원어의 의미는 ‘휘파람을 불다’, ‘귀가 찌지는 소리를 내다’란 뜻이다. 타잔이 코끼리 떼를 부르듯이 하나님께서 파리떼와 벌떼를 부르는 모습이 연상된다.

세내어 온 삭도: 아마 아하스가 앗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곳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앗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낸 것(왕하 16:7-8)을 빗대어 하는 말일 것이다. 아하스가 의지했던 그 앗수르가 오히려 자신에게 수치를 가하는 도구가 될 것이란 선언이다.

17. 온 땅에 질려와 형극이 있는데 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가야 하는(24) 이유가 무엇일까?

땅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우글거리며 사람을 해치기 때문에 무기 없이 다닐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개인 호신용으로 총을 가지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로.

18.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앗수르에 의해서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가(7장 끝에서)?

머리털을 미는 것과 수염을 깎는 것(20): 유대인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이 없어지는 것: 죽거나 포로로 잡혀갈 것임: 한 어린 암소, 두 양은 지극히 작은 재산이다. 그럼에도 버터와 꿀이 먹고 남을 정도로 인구가 희박하다는 말이다. 맹수와 질려와 형극의 땅이 될 것이다.

[8장]

19. 8:3절에 태어난 아기가 바로 7:14절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많다. 그러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왜 그런가?

이사야의 아내는 처녀가 아니다. 이사야의 아내가 아이를 낳은 것은 징조(이적)가 아니다. 그냥 일상적인 일로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다.

20. 자신의 아이에게 이름을 붙일 때는 부르기 편하면서도 소중한 의미를 담는 법이다. ‘신중’, ‘리라’는 좋은 이름일 수 있지만 ‘성’을 잘못 만나면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다. 그러면 유명세를 타게 된다. 이사야가 아들에게 붙인 이름은 어떤가?

도저히 이름으로 쓸 수 없는 뜻이다: ‘노략이 속함’이란 뜻인데 우리 식으로 한다면 ‘망국’이 되지 않을까? ‘임신중’, ‘고리라’ ‘합작자’도 망측한데 ○망국이란 이름은... ‘안망국’은 괜찮은가?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심판이 속히 임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서판에 쓴 글도 요즈음 1인 시위처럼 간단한 글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인 셈이다.

21. ‘마헬살할하스바스’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야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널리 알려지도록 취한 조치를 찾아보자.

큰 서판, 통용문자, 유명인사를 증인으로 세움, 이사야의 아들: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큰 서판이어야 한다. 유명한 인물이 증인이 되면 그만큼 널리 전달된다. 우리야는 제사장이었고(왕하 16:10-16) 스가랴는 아마도 아마사의 장인인 것 같다(대하 29:1, 왕하 18:1-2). 이사야가 아들에게 이런 이름을 붙인 것도 이슈화시켜서 널리 알리려는 방법이다.

22. 아하스 왕 제 2년은 B.C. 734년이다. B.C. 722년에 사마리아는 함락되고 망해버렸다. B.C. 669년에 앗수르 왕 앗술바니팔은 주변의 여러 민족들을 사마리아에 이주시킴으로 사마리아는 혼합 민족으로 변하고 말았다(왕하 17:24, 스 4:2).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8:4절과 7:9절의 65년에 대해서 설명해 보자.

8:4절은 사마리아의 함락을 가리키고 7:9절의 65년은 앗술바니팔의 식민지 정책에 대한 언급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마리아는 더 이상 유대민족으로 대접받지 못한다.

23. 앗수르 왕이 침략할 시기는 태어난 아기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하기 전이란다. 왜 ‘아빠, 엄마’라고 하지 않고 ‘내 아빠, 내 엄마’라고 하는가? 시간이 더 걸릴 텐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아빠, 엄마’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 히브리어로는 ‘내’를 붙이는 것이 발음하기가 더 편하기 때문이다. 아빠는 ‘아브’ 내 아빠는 ‘아비’이다. ‘나의’를 뜻하는 접미사는 ‘이’이다(예, 로암미, 엘리).

24. 하나님의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하나님의 은총)을 버리고 무엇을 좋아하는가?

흥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앗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 그들이 좋아한 것은 르신과 르말리야의 아들이 아니라 그들의 파멸이다(7:1-2). 즉 그들을 파멸시킨 앗수르를 기뻐한 것이다. 자기들까지 파멸에 이르게 할 줄도 모르고... (문맥을 따라 해석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25. 흥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앗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꿀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일하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8:7-8)는 말씀과 같은 내용은 7장 어디에 있는가?

7:17 (혹은 7:17-25): 유다에 관한 앓수르의 침공을 말한다. 앓수르가 아람과 이스라엘을 치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지만 그 다음 차례는 바로 자신들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것은 이렇게 허망할 수 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6. 실로아 물은 예루살렘 동편 계곡에 흐르는 샘물이다. 이 물을 굴을 뚫고 끌어들이 만든 샘이 실로암 못이다. 예루살렘의 생명수 같은 샘이다. 이 샘물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앓수르는 어디에 비유하고 있는가?

홍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유브라테(유프라테스) 강을 가리키는 말이다. 홍수가 범람하여 마을을 휩쓸어버리고 강줄기가 수 십km 씩이나 변하기도 하는 무서운 강물이다. 천천히 흐르며 생명수를 제공하는 실로아 물은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고 홍용하고 창일하여 모든 언덕에 넘쳐흐르며 목까지 잠기게 하는 강은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이 당할 심판을 선명하게 대비하고 있다(대하 28:20-21).

27. 앓수르가 그렇게 무서운 세력으로 닥쳐오면서 아람과 이스라엘은 폐하여 버리지만 유다에는 희망이 있다. 유다는 그래도 희망이 남아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2가지)?

목에까지 물이 찼으니 다 죽지는 않겠다.

임마누엘의 날개가 편만하리라: 바로 이 때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다. 홍수로 온 천지가 물바다가 된 곳에 헬기가 내려오는 장면이나 마찬가지로. 유일한 희망은 임마누엘이라 불리는 아이에게 있다(7:14).

28. 결국 8장 앞부분은 7장의 마지막 부분과 동일한 내용이다. 다만 시기상으로 차이가 있다.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7장은 아이가 태어나 선악을 알 때 즈음(십여년 뒤), 8장은 아이가 태어나 엄마, 아빠라고 할 때(2, 3년 뒤), 8장의 예언이 10년쯤 뒤의 일이다. 그러니까 7장과 8장 사이에는 시간상으로 간격이 있다.

이사야 8:9~9:7

1. 이스라엘이 노략을 당하지만 결코 패망하지 않는다. 반면에 민족들, 곧 먼 나라 백성들은 필경 패망하리라고 노래한다. 곧 망해서 없어질 것 같은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고 온 세상을 휩쓰는 나라들이 오히려 패망하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10):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며 군사력이 얼마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더 중요한 관건이다. 강력한 힘을 가진 앗수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부지깽이일 뿐이다. 패망하리라는 비슷한 표현까지 연속으로 5번 반복되고 있으며 '말을 내어라'는 것은 '작전 계획을 말해 보아라'는 의미이다.

(추가) 난외주에 보면 '히, 임마누엘'이라고 되어 있다. 히브리 원어대로 발음하면 '임마누엘'인데 이것을 고유명사로 보면 '임마누엘 때문'이 되고 전치사(임, with) 접미사(마누, us) 대명사(엘, God)로 보면 개역성경의 10절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때문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2. 여호와께서 선지자로 하여금 '강한 손으로 알게 하시며' '경성'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11절)?

대적이 반드시 패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은 임마누엘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백성들이 전혀 듣지 않기 때문이다(12-15). 선지자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다. 듣지 않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 까!

3. 12절에서 맹약이라고 번역된 *kasher*라는 히브리어는 '모반, 반역, (불법적인) 동맹'을 뜻한다(대하 23:13절의 반역과 같은 단어임). 대부분의 영역본은 '이 백성들이 반역이라고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반역이라고 하지 마라'라고 번역했다. 정확하게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다소 불분명하지만 12-13절의 핵심은 명확하다.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는 말인가?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두려워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백성들이 선지자를 보고 반역자라고 말했을 가능성도 있고, 앗수르를 의지하면서 하는 말일 수도 있다. 요는 백성이 뭐라 하든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뿐이라는 말이다.

4. 하나님을 왜 돌, 바위, 반석이라고 표현하는가?

피난처가 될 수도 있고 정계의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거대한 바위산 위에 성을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실감나는 표현이다. 예루살렘도 거대한 산성이다. 적에게 쉽게 함락되지 않는 것은 거대한 바위산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정계를 받는 경우: 바위산이 무너져 뒤흔들면 피할 수 없다. 돌이나 바위 자체가 걸려 넘어지게도 하기 때문이다.

5.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14)이라는 표현은 신약에 두 번 인용된다. 판주를 보면 롬 9:33, 벧전 2:8에서 사 28:16절과 함께 인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약에서 이 표현이 무슨 의미로 인용되었는가?

메시아: 하나님께서 두신 바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거치며 넘어지며 부러지며 걸리며 잡힐 것이라(15)는 말쑤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며 이스라엘이 어떤 길로 갔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쑤이다. 하나님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다. 꿩고 밧음이 분명한 분이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벧전 2:7-8) 만인구원설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

6.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치며 넘어지며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15). 무슨 도구를 쓰시는가?

돌(반석), 함정, 울무: 거치며 넘어지며 부러지게 하는 것은 돌이나 반석일 것이며 걸리게 하는 것은 함정인가, 울무인가? 울무에는 걸리고 함정에는 빠진다고 번역해야 좋겠구나!

7. 증거의 말씀을 싸매는 것과 울법을 봉합하는 것은 야곱 집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낯을 가리우시는 일이다. 보기 싫다는 뜻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비극이 생겨난다. 두 장의 암울한 그림이 겹쳐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overlap). 좁게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아하스에 대한 앗수르의 심판을 뜻하는 것이겠지만 14-15의 상황과 연결해서 보면 또 어떤 암울한 상황을 그리고 있다고 해야 하는가?

메시아를 배척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신약시대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거부한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임박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먼 훗날 이루어질 메시아 시대를 향하고 있다. 메시아 시대의 이야기가 차츰차츰 오버랩 되어 오고 있다.

8.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17c)는 표현은 참으로 좋아 보인다. 하지만 눈을 조금 더 크게 뜨면 끔찍한 말이다. 왜 그런가?

바로 앞에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이란 말을 잘라내면 안 된다. 작가는 징벌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이다. 무서운 심판을 기다린다는 말이다. 합 3:2의 내용도 꼭 이런 식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부흥케 해야 할 주의 일은 심판이다. 문맥을 살피지 않고 한 부분만 떼내어 영통한 뜻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선을 좀 더 넓히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9.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어떻게 장래 일에 대한 징조와 예표가 되는가?

이름의 뜻이 그렇다: 이사야(=예사야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스알야숨은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마할살랄 하스바스는 '노략이 속함.' 노략이 속할지라도 남는 자가 돌아올 것이며 구원은 여호와로 말미암을 것이다.

추가로 생각할 점은 히 2:13에서 이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용된 점을 감안해 보면 이 구절이 직접적으로는 이사야 당대의 현실이면서 동시에 신약시대의 모습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자녀로 삼으신 것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기절할 만큼 놀라운 징조가 된다. (로마서 10-11장을 참고할 것)

10.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끝내 저버렸지만 구속 사역은 멈추지 않는다. 수많은 난관이 있었음에도 중지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노래하기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했다. 출애굽 시에 그렇게 반항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모세가 끝까지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라는 중보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끄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출 32:12)

11. 외국에 선교사로 간 친구는 거기서 아이들을 다섯이나 낳아서 고생을 무척 하면서도 열심히 선교사로 살고 있다. 무슨 낙으로 그럴까? 늙어서 귀국하면 어떻게 지내려고? 본문에서 답을 찾는다면?

그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이다. 사명감, 소명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분들에 의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다.

12. '젊은 돼지 머리 앞에 절하는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본문에서 찾는다면?

죽은 자에게 묻는 산 자(19): 신접한 자와 마술사는 죽은 자 즉 귀신을 통해서 점을 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물으면 답이 너무 힘들고 귀신에게 물으면 답이 쉬운가?

13. 우리나라에도 점집이 번창하고 점 광고가 많은 지면을 메우고 있다. 문명이 발달했다고 하면서도 미신적인 풍토는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문명의 이기를 미신이 먼저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보인다. 기독교인을 상대로 하는 점쟁이도 나타났단다. 복채를 내지 않고 헌금을 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이들이 앞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까?

지절거리며 속삭거리는 말일뿐이다(19).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이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은 이 땅으로 하여금 곤고하고 주리게 만들고야 말 것이며 애꿎게 자기의 왕과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21). 비열한 짓이다.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누구를 원망하는가!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힘들어도 그것이 확실한 방법이다.

14.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처럼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쫓는 경향이 분명히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는 것은 곧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는 것이다(20).

15.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는 말씀을 본문에 나타난 표현을 이용해서 10자 이내로 줄여보자.

아침빛을 보지 못함(20).

번조(煩燥): 신열이 나서 손과 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는 것

[9장]

16. 9:1-7절과 9:8-21절은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차라리 8장과 연결시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은 8장 끝에서 징계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9:8절부터 책망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시작된다. 반면에 9:1-7절은 ()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회복: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회복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결론은 항상 회복이다. 그러므로 책망과 징계와 회복을 하나의 단락으로 보아야 한다.

17.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와 어떤 관계일까? 함께 고생하던 관계?

같은 지역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갈릴리 바다를 서쪽에서 둘러싸고 있는 곳이 납달리 땅이고 지중해와 납달리 사이에 스불론 땅이 있었다. 군사적, 상업적으로 중요한 해변 길인 이들의 땅을 통과하였다. 군사적 요충지인 므깃도(요시아가 바로 느고의 진군을 막다가 죽은 곳)가 바로 스불론 땅 가까이에 있다. '요단 저편'이란 표현도 원어상으로는 '요단 건너'이다. 이 편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저 편이라고 할 수도 있는 표현이다. 이사야 시대에는 이 지역이 앗수르의 침략(BC 733-732)으로 초토화되다시피 한 곳이며, 이방과 접경지역으로 이방적 색채가 짙은 곳이었기에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했다. 이렇게 멸시받던 곳이 먼저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복음이 처음 전파되기 시작한 곳은 갈릴리이며, 예수께서 활동하신 대부분의 무대도 갈릴리이다.

18. '고통하던 자'와 '흑암에 행하던 백성'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는 동일한 표현이다. 흑암에 빛이 비칠 것이라는 것(1-8)이 핵심인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자. 다시 말하면, 흑암과 빛은 각각 무엇을 뜻하는 걸까?

흑암은 사망을 상징하는 것이고 빛이 비친다는 것은 메시야가 탄생한다는 뜻이다: 아담의 범죄이후 인생의 문

제는 사망이다. 한 아기가 태어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다.

19. 농사짓는 사람의 가장 큰 기쁨은? 전쟁을 치르는 병사의 가장 큰 기쁨은? 압제받던 자의 가장 큰 기쁨은?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기쁨은?)

추수, 탈취물을 나누는 것, 해방(무겁게 맨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에서 벗어나는 것) →이 모든 것의
종합(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에서 가능함)

20. 4절에는 두 개의 그림이 겹쳐져 있는 듯하다. 고통스런 압제에서 살던 모습과 풀려난 모습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사건을 가리키는가?

애굽의 노예생활: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야 할 고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면이다.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을 격퇴한 일(삿 7장):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장 극적으로 해방되던 기억이었
을까?

21.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것들을 전부 불살라 버릴 날이 올 것이
다. 누가 어떻게 이런 일을 가능케 하는가?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하심으로: 이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그 나라에는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다.

22.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과도한(?) 자유를 허락하신 탓에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일
썩었다. 타락하면 심판을 하면서도 노아를 부르셨고, 다시 아브라함,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구원 사역을 계속하
셨다. 하나님은 계속 부르시고 인간은 끝없이 거역하고, 끝내는 자신의 독생자를 죽임으로 쉽게 하나님의 자
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과정을 자세히 본 어떤 분은 ‘답답하다’고 했다. 인간이 어떻게 이렇
게 거역할 수 있는냐는 뜻으로... 아무리 그래도 구원 역사는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변동도 취소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러한 하나님의 노력을 본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만군의 여호와와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8)

23. 한 아기가 출생하는데 이름이 몇 가지인가?

4가지: 우리랄 성경은 5가지처럼 번역되었지만 히브리 원어는 4가지이다. 각각의 이름이 두 개의 단어로 쌍을
이루고 있다. ‘기묘자라, 모사라’는 말이 영문판에는 대체로 *wonderful, counsellor*라고 번역되었지만 히브리 어법으
로는 *the wonder of counsellor*이므로 강조되는 것은 ‘기이함’이다(모사의 기이함, 혹은 통치의 놀람).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도 강조점은 ‘전능’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결국
네 가지 이름 중에서 앞의 두 가지는 추상적인 이름(놀라움, 전능하심)이고 뒤의 두 가지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을 지칭하는 이름이다.

24. 이 아들의 기원은 인간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하다. 6절에서 그런 암시를 찾아보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났다는 뜻이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즉, 신적인 기원을 의미한다.

추가: 모사(신적)의 기이함(인간적) 하나님의 전능하심, 영존하시는 아버지(후원자), 평강의 왕(이스라엘의 왕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이방의 왕과 다르다. 백성들을 돌보고 책임을 지는 자이다)

25. 4복음서 중에서 한 권만 사 9:2절을 인용하고 있다. 마태는 왕이신 예수,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 누가는
참 인간이신 예수, 요한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라는 측면에서 복음서를 기록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9:2절을
인용한 복음서는 어느 복음서일까?

마태복음 4:15: 9:1-8절은 왕이신 아기가 탄생한다는 예언이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강조하는
마태가 인용함.

이사야 9:8-10:4

[9:8-12장까지 한 단락으로 보는 것이 좋다]

1.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라는 표현과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이란 말씀은 같은 내용의 반복이다. 사람들이 '말씀을 보낸' 경우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낸' 경우는 차이점이 있을까?

사람의 말은 무시되거나 아무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온다.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셨음을 뜻한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히브리어 '다바르'는 '사건'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면' 이스라엘에게 사건이 '임하는' 것이다. 영역은 *a word against Jacob*이라고 함으로 이 말씀이 심판에 대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곧 심판이 닥쳐온다는 선고의 말씀인 셈이다.

2.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은 항상 이스라엘의 범죄함이다. 뒤이은 것은 하나님의 징계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징계를 가하시는가?

벽돌이 무너지고, 뿔나무들이 꺾히는 것(1차 징계), 대적의 침입(2차 징계), 지도자와 선지자를 징계함(3차 징계), 불에 타듯이 모든 것이 깨끗이 사라짐(4차 징계), 굶주림으로 자기 살을 먹을 것(5차 징계), 형제가 서로 침(6차 징계)

3. 도대체 무슨 범죄행위로 인해 이런 징계를 받아야 하는가? 9-10절, 13절을 근거로 이스라엘이 징계를 당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자. 또, 그것이 그렇게 큰 범죄인가?

교만(9-10절), 고집(13절): 하나님에게 교만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벽돌 집을 무너뜨렸다? 좋다 이거야 다듬은 돌로 다시 지으면 될 것 아니냐? 간이 무척 크다. 자식이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불효가 있을까? 다른 모든 불효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릇된 고집을 빨리 푸는 것이 고생을 덜 하는 지름길이다.

4. 르신은 아람 왕이다. 이스라엘이 아람 왕과 동맹하여 유다를 침공하기도 했다(7:1-2).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시작하시면서 곧이 아람 군대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며, 의지할 것이 못되는가를 똑똑히 알라!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일시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이 징계의 수단이 된다.

5. 이스라엘에게 온갖 고난이 닥치지만 이것들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다는 징계라고 보는 것이 좋은 이유는 몇 절 때문인가?

13절: 여호와께서 치시는 이유는 이 백성이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아직도 회개하고 돌아설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6. 머리, 종려가지는 장로와 존귀한 자를 가리킨다. 그러면 꼬리와 갈대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왜 그들을 그렇게 치욕스러운 말로 부를까?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꼬리를 흔드는 개처럼 권세에 빌붙어 하나님을 파는 행위를 일삼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말에서도 꼬리는 부정적인 의미로 취급되고 있다. 종려가지는 귀한 식물로 대접받았지만 갈대는 숨지나 늪에서 자라나므로 그렇게 귀하게 취급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지만 가시면류관을 쓰고 수난을 당할 때는 로마 군병들이 갈대로 가시면류관을 치곤했다.)

7. 인도자가 잘못하면 백성은 용서해줘야 안되나? 16절에서 지도자들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찾아보자.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백성은 지도자를 잘못 만난 것이 죄라면 죄가 아닐까? 지도자의 말이라고 무조건 따르면 안 되겠다. 가장 좋은 것은 성경적으로 옳은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8. 지도자의 잘못에서 비롯되었을지라도 백성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을 받는가? 참고, 사 1:17, 출 22:22, 신 14:29

고아와 과부도 긍휼히 여기지 않을 만큼: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는 특별한 돌봄을 받아야 할 대명사다. 그럼에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예외가 없다는 뜻이다.

9.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이스라엘의 악행을 무엇에 비유하였는가?

산불: 악행은 질려와 형극의 뻘뻘한 수풀을 한 줌의 연기로 바꾸어버린다(18절). 악행이라는 것이 언뜻 보기에 는 성냥 한 개비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그것이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킬 거대한 산불이 될 수 있다.

10. 등교시간에 조금만 늦어도 몹시 심한 벌을 주는 경우에 5분이나 10분 늦으면 크게 혼이 나지만 차라리 많이 늦으면 벌을 덜 받는 수가 흔히 있다. 또, 잘못을 저질러서 부모님이 몹시 화가 나 있을 때보다는 시간이 조금 지나서 화가 좀 풀린 다음에 들어가면 야단을 덜 맞는다. 하나님에게는 이런 방법도 통하지 않는다. 왜?

'그렇지라도 여호와와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다(9:12, 17, 21, 10:4). 하나님은 함부로 노를 발하시는 분도 아니시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분노가 이유 없이 사라지는 분도 아니다. 선생님들 중에도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아이들의 나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매를 들어야겠다고 작심하고서 매를 드는 선생님이 매를 들 때는 피할 방법이 없다. 진짜 무서운 선생님이다.

11.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하나는 모든 것을 불살라 버린다. 또 다른 하나는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는 말인데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가?

동족상잔: 모든 것이 불에 타서 사라지고 나면 극심한 굶주림이 닥칠 것이고 결국은 자기 살을 뜯어먹는 처

럼 동쪽이 싸우게 될 것이다.

1. 여호와와 그의 손이 여전히 퍼지리라 = 계속되는 재앙을 의미한다.

[10장]

12. 10장을 9장과 구분한 것은 잘못이다. 한 장으로 다루기에 너무 길어서 나눈다고 해도 현재처럼 나누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꼭 나누어야 한다면 10장의 어느 부분을 1절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이유는?

5절: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잘못에 대한 질책을 계속하는 부분(1-4)은 9장과 연속된 것으로 다루는 것이 좋다. 9:17절의 마지막 부분이 10:4절에서 반복되는 것도 그래야 할 이유이다. 그 다음부터 앗수르에 대한 내용이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징계의 내용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9장과 연결되는 내용이다.

13.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본문이 말하는 어떤 경우에 생겨났을까?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는 경우(2): 재판이 불공정하면 죽어나는 것은 힘없는 자 뿐이다.

14. 빈핍한 자와 가련한 자, 즉,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지 않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그들의 권리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토색하고 약탈까지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잔혹한 일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3절): 하나님 없는 자가 무슨 짓인들 못하랴! 하나님 없이도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때로는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무섭게 달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15. 한때 잘 나가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들이 어느 정도로 낮아지는가?

포로보다 못하고 죽임을 당한 자보다 못하다(4절): 표준새번역은 이 부분을 '너희는 포로들 밑에 팔려 밟혀 죽거나, 시체 더미 밑에 깔려 질식할 것이다'라고 번역하고 있다.

이사야 10:5~34

16.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왜 앗수르를 책망하는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수단으로 앗수르를 사용했는데(5) 너무 기고만장해서 자신을 높였기 때문이다(11-14).

17. 하나님께서 앗수르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하고 약탈하게 하신 이유는?

9:9-11: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고 하나님께서 진노(10:5)하셨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확신했는데 거꾸로 사람 취급도 않던 이방인에게 오히려 매를 맞아야 하는 형편이 되고 말았다.

18. 사람은 듣는 대로 듣기도 하지만 때로는 듣고 싶은 대로 듣기도 하고 자기 수준대로 듣기도 한다.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앗수르 왕이 하는 말 중에서 이런 예를 찾아보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이라고 한 점(10:10-11): 하나님을 자기가 섬기는 신상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 절에 열심히 시주하던 사람이 교회에 오면 열심히 헌금을 한다. 잘 한다고 칭찬해야 하는가? 아니다. 헌금의 의미를 배우기 전에 열심히 헌금하는 것은 헌금이 아니라 시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처를 섬기는 짓이다.

19. 앗수르 왕은 이스라엘을 치고 무슨 말을 하는가?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자기 나라의 방백은 다른 나라의 왕과 같다. 그러면 자기는 황제가 되는 셈이다.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둘씩 짝지어져 있는데 앞의 도시가 나중에 함락되었다. 마음만 먹으면 어느 것이든 다 점령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자기의 신상이 하나님이라는 신상보다 더 낫다: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으며 신의 운명도 전쟁의 승패에 달려 있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그런 신 중의 하나로 여겨졌던 것이 앗수르의 비극이다.

내가 하는 일에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자가 누구냐(13-14)?

20. 기고만장한 앗수르 왕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앗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라(13).

너는 도끼 나는 짝는 자, 너는 톱 나는 켜는 자, 너는 막대기 나는 드는 자(15).

불에 타듯, 병든 사람이 쇠약하듯 하리라(17-18). 16절의 '알진 자가 파리해지는 것도 병으로 인함이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살이 그렇게 쉽게 빠지지 않는다.

21. 앗수르가 파멸을 당할 때는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는다.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는가?

17-18절: 형극과 질러는 앗수르의 하루 계층들, 삼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은 상류 계층을 뜻한다.

22.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앗수르는 무성한 삼림과 같은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휩쓸고 지나면 몇 그루정도 남을까?

10그루 미만: 아이는 손가락 숫자만큼만 헤아린다. 아주 똑똑하면 발가락까지 이용할까?

23. 하나님께서 징계를 말씀하시면 그 후에는 반드시 회복을 말씀하신다. 어디서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을 언급하시는가?

10:20부터 12장까지: 앗수르의 패망(10:5-19, 24-32)도 어떤 점에서는(간접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10:5절도 답이라고 할 수 있다.

24.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무조건적으로 모두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누가 돌아오는가?

남은 자만(21-22): 스알야술(7:3)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창 7:23)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롬 9:27)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못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25. 시온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왜 앗수르의 침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조만간에 하나님의 노가 이스라엘에게서 앗수르로 옮겨갈 것이기 때문이다.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손에 맞는 것은 회복의 길이 있다. 앗수르는 비록 이스라엘을 치고 이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버려질 도구일 뿐이다.

26. 앗수르의 압제를 받더라도 이스라엘이 기억할 두 가지 사건은 무엇인가?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투(삿 7:25): 가장 큰 특징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다. 300명으로 14만을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뜻이다. 앗수르를 그렇게 치겠다는 약속이다.

출애굽 사건: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한 일은 거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일이었을 뿐이다.

27. 앗수르의 압제가 애굽을 본받은 짓이란단(24). 그렇다면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회복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다. 어떻게?

애굽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다가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제 2의 출애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이나 마찬가지다.

28. 24절의 막대기와 26절의 막대기는 어떻게 다른가?

막대기를 드는 주체와 대상이 다르다. 24절의 막대기는 앓수르가 들고 이스라엘을 때린다. 26절의 막대기는 하나님께서 들고 앓수르를 때린다.

29. 애굽에서 바다를 향하여 막대기를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은 무사히 건졌고 애굽의 군대는 수장되어 버렸다(출 14장): 앓수르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렇게 되리라는 것이다.

30. 일반적인 이스라엘의 멍에는 두 마리의 황소 머리에 가로지른 막대 형태이다. 그러나 여기 멍에는 목에 고리 형태로 둘러놓은 것이다. 어떻게 해서 짐과 멍에가 벗어질까?

목에 살이 찢어서 멍에가 부러질 것(27): 일반적으로는 목에 살이 찢면 멍에로 상처를 입는다. 결국 멍에를 부러뜨리는 분은 하나님 yourself고 기름진 목의 살은 핑계거리일 뿐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견덕지로 삼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런 역설이 롬 11:17에도 있다. '또 한 가지 열마가 꺾여졌는데 풀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잔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즉 일반적인 접붙임과는 반대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바울이 무식해서?

31. 선지자는 엄청난 군대를 거느린 앓수르 왕이 빠른 속도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군하는 모습을 전황 브리핑처럼 묘사하고 있다(28-32). 거칠 것 없이 진군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떠는 자, 도망하는 자(29), 울부짖는 자와 적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다. 여기에 기록된 지명을 아는 사람에게는 시시각각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오는 이 묘사가 얼마나 두려울지 모른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앓수르의 군대는 마침내 어떻게 되는가?

뛰이고, 찢히며, 베어져 작별을 당할 것이다(33-34): 34절의 '철'은 별목꾼의 톱이다. 실제로 앓수르 군대는 하루 밤에 185,000명이 시체로 변하고 만다(37:36).

치중(輜重): 말에 실은 짐, 군대의 군수물자

이사야 11~12 장

[11장]

32. 11장과 10장을 별도로 구분하는 것은 좋지 않다. 왜냐하면 10:33-34절은 앗수르의 장래를 말하고 11:1은 이스라엘의 장래를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대조적인가?

앗수르는 작별을 당하겠지만 이스라엘은 새로운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새의 줄기(11:1)는 레바논의 백백한 삼림(10:34)과 대조를 이룬다.

33.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새는 누구인가?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다. 따라서 싹은 다윗을 가리킨다. 더 나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가리킨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싹이나 뿌리에서 나는 가지는 단순한 싹이나 가지가 아닌 것이 여호와와 신이 강림하신다고 하기 때문이다(2).

34. 이새라는 줄기나 줄기 없는 뿌리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출신이 미천하거나 화려하지 않음을 뜻한다(요 1:46, 마 2:23). 메시아는 줄기에서 나오나? 뿌리에서 나오나? 출신이 보잘 것 없음을 뜻할 뿐 줄기나 뿌리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더 이상 나무를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보라.

35. 우리에게 가장 즐거운 일은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몇 번째 즐거움일까?

우리에게는 먹고사는 것이 당장 시급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뿐이라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의 즐거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기본 바탕이 되고 그 위에 부수적이거나, 보조적으로 다른 즐거움이 더해진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를 원문대로 하면 '여호와 경외를 호춤한다'는 말이다. 좋은 향기를 즐기는 것처럼!

36.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 결실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이 나라의 특징은 무엇인가(2-9)?

하나님 경외가 즐거움이 되는 나라(3)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다.

공의로운 나라(3-5) 역으로 본다면 부패한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한 비판 아닐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눈과 귀로 인해 현혹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에도 심판하고 판단할 일이 있을까? 그 나라는 공의로울 것임을 뜻하는 표현이다.

모든 피조물 사이에 평화로움(하나됨, 6-8)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본래 모습이 회복된다. 해됨도 상함도 없이 사자가 풀을 뜯는 곳이다. 현실적으로 어린 염소는 표범에게 맛있는 먹이지만 그 나라에서는 동무이다. 범죄한 이후 분리되지만 하던 세상이 그 나라에서는 하나가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함(9)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행복의 근본이다.

37. 약육강식, 적자생존, 먹이사슬... 이것은 자연의 섭리를 뜻하지만 끔찍한 느낌이다.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됨으로 생겨난 현상이다.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동물의 세계를 보면서 깨달으라는 메시지 아닐까? 원래는 어떠했다고 하는가?

해됨도 상함도 없었다. 장차 그런 사회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어린 아이에게조차 모든 짐승들이 순종하는 새로운 자연세계 말이다(6).

38. 이스라엘은 망해버렸고, 2000년이나 나라 없이 떠돌다가 이제 겨우 작은 나라를 세웠지만 여전히 주변의 팔레스타인들과 싸우기에 여념이 없다. 언제 만민의 기호로 서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겠는가(10)?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는다. 예수는 인류의 유일한 소망으로 이미 우뚝 서서 모든 민족이 그 분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롬 2:28-29)

39. 메시아의 구원사역을 세 가지 단계로 정돈해 보자(10-14).

열방의 구원(10), 포로된 이스라엘의 구원(11-12), 분열된 이스라엘의 구원(13-14) 역사적으로 본다면 점점 범위를 좁혀가면서, 과거로 되돌아가는 방식이지만 비유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방인이 먼저 구원으로 나아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구원받을 것이다.

40.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10)는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지만 일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의 기호로 서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는 것은 어디를 가리키는가?

교회: 교회가 영화로운 곳임에 틀림없지만 이상하게 변한 교회가 많아서 현실적으로는 영화롭기보다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만 경우가 적지 않다. 어쨌거나 교회는 장차 세워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상으로 영광스러운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41. 에브라임 지파는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다(삿 8:1). 아마 애굽에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가졌던 자존심 때문일 것이다.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의 알력은 결국 나라가 갈라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메시아 왕국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투기는 없어지고(13), 유다와 하나 될 것이다(14절의 함께)

42. 그 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앗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

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사 11:11)고 하신다. 왜 '다시'(두 번째)라는 표현을 쓸까? 이전에 그런 일이 한 번 더 있었다는 말인데?

더 확대된 제 2의 출애굽이라고 보기 때문이다(15-16). (종말론 19P) 당시 강대국은 앗수르와 애굽이다. 바드로스(애굽의 북부지역, 애굽을 가리키는 원어 미츨라임은 애굽의 남부를 가리키는 말이다)와 구스(이디오피아 지역)는 애굽의 속국이고, 엘람(티그리스 강 동쪽)과 시날(두 강의 남쪽 평지)과 하맛(레바논 북부의 수리아)은 앗수르의 속국이다. 바다 섬들은 지중해의 섬들과 그 연안의 나라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모든 나라들에서 백성들이 출애굽 때처럼 돌아올 것이다. 초대 교회가 복음을 전하던 대상들이 바로 이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이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 있다.

43. 이사야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점점 발전하고 있다. 7:14-16이 밤하늘의 별이라면, 8:5-9:6은 새벽 같고, 11장은 한낮의 태양 같다(텔리치 P281). 11장에서 1) 메시아의 혈통? 2) 메시아의 무장? 3) 메시아의 통치 원리? 4) 메시아 왕국의 성격? 5) 메시아 왕국의 범위에 대해서 정리해 보자.

1) 다윗의 후손(1, 10), 2) 성령강림(2), 3) 공의, 정직, 능력, 성실(3-5) 4) 위의 문제 참조 5) 모든 열방 (10-12)

해고(海股, 넓적다리 고): 바다의 만 (여기서는 홍해를 뜻함)

[12장]

44. 12장은 길이를 봐서도 따로 떼어내는 것보다 11장에 연결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 왜 따로 떼어냈을까?

내용이나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일까?

45.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 하겠나이다'(1).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감사에는 '전에 노하셨던 것'도 포함될까?

회복된 이스라엘

당연히 포함된다. 노하신 이유와 당위성을 알기 때문이다.

46.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2). 비슷한 노래가 많이 있지만(시 18:2, 59:17, 118:14), 제일 처음 이런 노래가 불려진 것은 어떤 사건과 관련이 있을까?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출 15:2) 홍해를 맨 땅처럼 건너고 난 후에 한 때 그렇게 두려웠던 애굽 군사들이 수장된 것을 바라보며 부른 노래이다. 그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47. 물이 귀한 이스라엘에서 우물은 재산 1호에 해당하는 귀중한 것이다.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올리는 기쁨을 어디에 비기고 있는가?

구원의 기쁨: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으리라(3).

48. '여호와께서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

구원: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메시아를 야기 형태로 보내셔서 끝내 구원을 이루시는 것

49. 성도가 할 일을 4절에서 네 가지를 찾는다면?

감사, 이름을 부름(예배드림), 선포(전하는 것), 이름을 높임(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50. 12장은 7장에서 시작된 임마누엘의 이야기를 매듭짓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더 크게 보면 이사야가 전한 예언(1-12장)의 결말이라고 볼 수도 있다. 13-23장은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으로 전혀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으로 끝을 맺는다고 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의 구원과 찬송: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구원역사의 최종목표이며 남는 것은 그 구원에 대한 찬송뿐이다. 회복된 그 나라에서 할 일은 찬송뿐이다!

이사야 13 장

※ 13-23장은 주변 강대국들에 대한 심판 예고이다.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방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을 넘어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을 정복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예언적 전망: 서로 다른 시공간 속에서 제 각각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을 단일한 환상 속에서 보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13장의 묘사들 사이에는 시간적, 공간적 간격들이 뒤섞여 있다.

1.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가(2-5)?

징계함으로 노를 꾸심(3, 5) 싸우심(4) 온 땅을 멸함(5)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를 위해서 바벨론이 사용되지만 결국은 바벨론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2. 애매한 구절은 문맥을 잘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2절과 3절은 동일한 내용이다. 그렇다면 동일한 표현끼리 짝을 지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자.

너희 =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 곧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그들 = 용사들: 4절을 참고하면 열국 민족의 군대이다.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함 = 나의 노를 풀게 함: 그러므로 존귀한 자는 바벨론 귀족(약탈의 대상자)을 가리킨다.

3. 2-3절이 '목표'라면 4-5절은 2-3절의 내용과 어떤 관계인가?

준비 과정: 하나님께서 친히 먼 나라의 군대를 불러 모아 검열하면서 바벨론을 칠 준비를 하신다.

[6-16: 바벨론에 대한 심판]

4. 여호와와 날이라면 기쁨과 환희의 날 아닌가? 바벨론에게 여호와와 날은 어떤 날인가?

멸망의 날(6), 애곡의 날(6) 여호와께서 노하는 날(9, 13):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렇게 잔혹하게 취급하시겠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만 알고 들은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극치이기도 하지만 극렬한 질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인내력이 대단하신 분이시지만 끝까지 참기만 하는 무골호인이 아니다.

5. 여호와와 날에 바벨론은 임산한 여자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왜?

임산한 여인의 고통은 끝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벨론의 고통은 힘도 없고(=손이 피곤하며), 희망도 없고(=마음이 녹을 것) 괴롭고 슬플 뿐이다.

6. 하나님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은 몇 절부터인가?

9절부터: 6-8절은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의 요약인 셈이다. 전체적인 조망을 한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를 나열하는 방식이다.

7. 바벨론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분노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땅, 천체, 사람: 땅(9)을 황무케 하여 죄인을 벌함,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이 빛을 잃음으로(10) 사람을 벌함, 하늘과 땅을 흔들어 떠나게 함(13), 바벨론에 대한 징계를 말하면서 천체의 변동을 말하는 것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고가 단순히 바벨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 대한 최후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심판의 최종결과를 사람이 회소하게 되는 것이다.

8. 하나님의 구원역사는 어두움을 걷어내고 빛을 비추는 것이다(창 1:2-3).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다시 어두움이 임할 수밖에 없다(마 8:12, 25:30). 그래서 최후 심판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버린다(10, 겔 32:7, 욥 2:10, 암 5:18).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기 때문이다.

9. 바벨론이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하는 이유는 악하기 때문이다. 그 악함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단어를 두 개만 찾는다면 무엇일까?

교만과 강포(11): 오만이나 거만을 답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교만과 강포의 결과이며 될 구체적인 것 같다. 이사야 시대(BC739-680)의 강대국은 앗수르였다. 그런데 왜 바벨론(BC 619 이후, 메대는 BC 519 직전)이 먼저 등장하는가? 조만간 앗수르를 점령하고 거대한 강국으로 재등장할 것을 미리 내다본 탓인가(39장)?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바벨론은 '인간의 영광과 교만의 대명사'이기 때문이다(창 11:9, 계 14:8). 바벨탑, 고바빌로니아, 신바빌로니아로 끈질기게 명맥을 이어오다가 기어코 유다를 포로로 잡아끌고 간 후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만다.

10. 한창 때의 바벨론은 다민족 국가로 온갖 민족이 다 물려들어 있었지만 심판이 시작되면 이들이 본래의 동족에게로 뿔뿔이 흩어져 나갈 것이라고 말한다. 마치 무엇처럼?

꽃인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다민족 국가의 해체를 뜻한다. 노루가 도망가는 방법은 산지사방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흩어진다. 양은 흩어지면 모이지 않는단다.

[17-22: 메대를 통한 멸망]

11.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뇌물이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어쩌면 죄지는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유효한 방법이 뇌물일 텐데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징계를 피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메다가 바벨론을 치는 것이 전리품이나 영토 확장의 목적보다 불명예스러운 속박에 대한 보복이었기 때문에 은과 금이 통하지 않았다.

12. 바벨론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으며 무너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곤 했다. 그러나 메대에 패한 이후에는 제대로 힘을 써보지 못했다. 어떻게 되리라고 하는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황무하리라: 바벨론을 점령한 고레스는 바벨론을 파괴하지 않았지만 BC 518년의 *Darius Hystaspis*는 성벽을 50규빗만 남기고 완전히 파괴해 버렸다. 알렉산더가 바벨론을 부흥시켜 보려고 시도했으나 요절해 버렸고, 그 후 오랫동안 완전한 사막이었다가 최근에 들어서 석유가 발굴되면서 부흥의 기미를 보였지만 후세인이 바벨론의 영광을 꿈꾸다가 백성들만 처참하게 만들고 말았다. 한때는 갈대아인의 자랑거리(자랑하는 노래개)였는데...

13. 바벨론이 철저히 무너져서 들짐승만이 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아라비아 사람은 왜 들먹일까?

아라비아 사람들은 일정한 거주지 없이 떠도는 유목민을 뜻한다. 아무데서나 천막을 치고 잠시 머무는 아라비아 사람들조차 바벨론을 임시 거처로 사용하지 않을 정도이니 얼마나 철저히 무너졌겠는가!

14. 이사야서의 저자가 단일 저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비평학자들은 본 예언 단락(13-23장)도 다른 저자의 것이라고 말한다.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과 '메대' 때문이다. 본 단락이 기록된 시점은 아하스 왕이 죽은 해로 추정되는데(14:28, BC 716), 바벨론과 메대는 이 시대에는 아주 미미한 세력이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점령당한 해가 BC 722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BC 739-680)의 강대국은 앗수르였다. 바벨론이 니느웨를 점령한 것이 BC 612이고, 메다가 바벨론을 점령한 것은 BC 539이다. 말하자면 이사야는 100년 내지 160년 정도 후의 일을 예언한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가 쓴 것이 아니라 후대의 선지자가 이사야란 이름으로 쓴 것이란다. 무엇을 무시하고 있는 셈인가?

선지자의 예언 능력: 비평학자들은 예언이나 기적을 전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한다. 이적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 이적은 모조리 부정하거나 달리 해석하면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인가?

자산(?山): 민둥산

가석(可惜): 측은히 여김

바벨론 멸망에 관한 예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에게는 후일에라도 이사야의 예언이 헛말이 아님을...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는 것!

이사야 14 장

1. 원어에는 14장 1절을 '왜냐하면'으로 시작한다(KJV은 For로). 14장이 13장과 관련이 있다는 말인데 무슨 관련이 있는가?

13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말한 이유는 바벨론의 멸망이 곧 이스라엘의 회복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주제는 이 책의 후반부(40-66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룬다. 야곱 족속에 가입되는 '나그네'(1)는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일 수도 있고 개종한 이방인일 수도 있다(원어 상으로는 이방인, 일시 거주자를 뜻함). 대체적인 문맥을 따른다면 후자 쪽이겠다.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함께 놓여난 다른 민족들도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2. 이스라엘이 땅을 회복하고 압제자들을 노비로 삼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문자대로 다 이루어진 적은 없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의 일부만 포로귀환 때 이루어진다. 본문의 참된 성취, 곧 포로 된 자가 놓여나고, 신분이 뒤바뀌는 역전 현상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즉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것을 가리킨다(2:2-3, 눅 8:20-22). 오래 전부터 육적인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의미 있는 것이 아니며 영적인 이스라엘이 진정한 이스라엘이다(롬 2:28-29, 갈 3:28-29, 4:28-31).

3.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부르던 노래는 시 137편이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합이로다...' 그러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날에 부르는 노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또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4절 중간 '학대하던 자가...부터 20절 '...못하리로다'까지: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할지니라'에서 가운데 부분이 노래인 셈이다.

핵심 내용: 파멸당한 바벨론에 대한 조롱이다. '어찌'라는 표현이 반복되어(4, 4, 12, 12) 놀람을 나타낸다.

4.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 '학대하던 자', '강포한 성'은 각각 '강압적인 세금 징수자', '황금성'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이다(KJV 참고). 이스라엘을 학대하면서 그들이 쌓았던 성이 아름다울수록 파멸의 때에는 더 슬프다.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자랑스러운 성이 왜 폐하여지는가?

여호와께서 펴으셨다(5): 바벨론의 파멸이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 민족을 치고 억압한 것(6)에 대한 반발이거나 우연이나 자연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한 것이다.

5. 바벨론의 추락을 누가 기뻐하는가?

우리가(7): 온 땅이 평안하고 정온함으로 평화의 노래를 부름,

향나무와 백향목도 환영(8),

음부(에 먼저 와 있던 자들)(9-17): 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던 자가 자신도 죄수가 되어 갇히게 되는 것을 본다면 먼저 갇힌 자들이 얼마나 환영을 하며 고소해 하겠는가!

6. 추락하기 전의 바벨론의 모습은?

학대하던 자, 강포한 성(4)

여러 민족을 치고, 열방을 압제함(6)

교만의 극치: 높은 곳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고 하였음(12-14)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킴(16)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음(17)

자기 땅을 망케 하고 자기 백성을 죽였음(20)

7. 추락한 바벨론의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을 있는 대로 다 찾아보자.

퍽어진 몽둥이, 퍽어진 홀(5): 그래서 세상이 노래를 부름(7-8)

음부의 개선장군: 먼저 와 있던 자들이 환영함(9-10)

요는 구더기, 이불은 지렁이(11)

땅에 떨어진 별(12)

썩혀 쓰러진 나무(12)

무덤에서 내어 쫓긴 자(19, 20)

가증한 나무 가지(19)

칼에 찔려 돌 구멍이에 빠진 주검(19)

밝힌 시체(19)

이름(20, 22)과 후손(21-22)이 끊어짐

고슴도치의 굴혈, 물웅덩이, 멸망의 비(빛자루 broom)로 소제(23)

8. LXX(70인 역)이 '아침의 아들'을 Lucifer로 번역했다. 어떤 교부들이 눅 10:18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

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루시퍼가 사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설명을 하기도 했다. 개연성이 있는지 몰라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문맥을 너무 벗어났다. 본문의 계명성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교만한 바벨론 왕: 바벨론이 시날에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구절이 사단의 근원을 설명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아닐까?

9.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과 눅 10:18에서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은 어떤 점이 서로 상반되는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바벨론 왕의 통치의 끝을 뜻한다. 결과적으로 음부에서 조소를 당하지만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은 사단의 통치가 시작된 것을 말한다. 성도들마저 주의해야 할 무서운 일이다(렘전 5:8).

10. 바벨론 왕이 끝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무엇인가?

교만: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오르려는 교만이 그를 끝없는 추락으로 이끈다. 신들이 특정한 산에 모여 집회를 갖는다는 사상은 고대에 많이 있었다. 로마신화에서는 올림푸스산이 그랬다. 그런 집회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좌정하겠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음부, 곧 구렁이의 맨 밑에 빠지게 될 것이다(15). 여기의 북극은 고 유명사가 아니라 가장 북쪽이란 뜻이다. 신들이 모이는 산은 가장 북쪽에 있다고 여겼다.

11. 앗수르에 대한 경고(24-27)는 별 다른 내용이 없는 셈이다. 멸망의 내용보다는 다른 무엇이 강조되었는가?

내용(25)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는 확신(24, 26-27)에 대한 언급인 셈이다.

12. 앗수르에 대한 멸망을 말하면서(24-27)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무엇이며,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말인가?

경영(24, 26, 27):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나, 만군의 여호와)이 더 많을 수도 있으나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에 많이 쓰는 것임에 반하여 '경영'이란 단어는 그렇게 빈도가 높은 단어가 아님에도 여기에는 많이 쓰였다.

하나님의 주권사상: 여호와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역사적 사건의 궁극적 원인자시라는 것이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다.

13. 아하스가 블레셋을 치던 막대기였나? 솔로몬 이후 유다가 주변 국가를 치거나 다스린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앗수르를 의지하여 간신히 나라를 지탱하고 있던 아하스가 블레셋을 이겼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역대하 28:16-21에서 답을 찾아보자.

오히려 아하스가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하던 시기였다. 그렇다면 블레셋을 치던 막대기는 앗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라고 보아야 한다(대하 28:20). 아하스와 비슷한 시기에 죽었다.

14. 블레셋이 멋모르고 기뻐하는 이유는 비유권대 자신을 괴롭히던 뱀이 죽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기뻐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뱀보다 더 무서운 독사도 있고 나는 불뱀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블레셋은 앞으로 더 큰 위협을 겪게 된다. 디글랏빌레셀 사후에 사르곤 왕은 아스돗을 치고(사 20:1) 가사의 왕 카눈을 포로로 잡았으며, 산헤립은 아스글론과 에그론을 정복했다.

15. 블레셋은 기근으로 죽고,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한다(30). 그렇다면 먹고 평안히 누울, 가난한 자의 장자, 빈핍한 자는 누구인가?

유다: 유다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하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다. 하나님의 관심이 유다에 있기 때문이다.

16. 블레셋을 파멸로 이끄는 앗수르 군대를 연기로 표현하고 있다. 이 군대는 훈련이 잘된 막강한 군대라서 (X) (X) 가 하나도 없다.

낙오자

17. (아마도 블레셋) 사신들이 유다에 와서 다가오는 위협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하자고 동맹을 요청하거든 무엇이라고 대답하라는가?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시라

음부: 죽은 자의 영혼이 가는 장소로 여겨진 곳(창 37:35, 시 31:17, 민 16:30, 시 6:5)

아하스: 유다의 왕, 다메섹과 이스라엘의 연합 공격에 자기 아들을 인신 제물로 바치고(대하 28:3-4) 앗수르에 성전 보물을 조공으로 보내어 도움을 청하였다(왕하 16:7-8).

이사야 15~16 장

[15장]

- 모압에 대한 지명이 도대체 몇 군데나 되나? 이렇게 많은 지명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18곳: 심판이 전국적으로 행하여질 것이다. 처음에 등장하는 모압 알과 모압 길은 정치적인 중심지이고 다음에 나오는 바잇과 디본은 종교적 중심지였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전국으로 끌고루 심판이 임하였다.
- 모압인들이 애통함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울며 통곡(2)하는 것은 기본이고,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파괴(2), 굵은 베로 몸을 동이고, 지붕과 넓은 곳에서 애통하고 울었다(3) 고대 근동의 애도방식이란다.
-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심판자이시기도 하다. 일단 심판을 시작하시면 대강 해치우는 법이 없다. 얼마나 모진 심판이 모압에 가해지는가?
 ① 전국적인 심판이(광범위함, 수많은 지명과 8절에 곡성이 모압 사방에 돌렸고...)
 ② 모든 사람(전사(4), 귀인(5), 모압에 피난한 자,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임함, 전사마저 울부짖으며 혼이 뿜(4)
 ③ 선지자가 부르짖을 정도로(극심함, 모압의 심판을 오히려 기뻐해야 할 입장임에도 부르짖음)
 ④ 디본 물에 피가 가득한데도 재앙이 계속 되리라(절저함): 사자는 살아남은 자를 끝까지 벌하시는 도구이다.
- 모압의 애통함은 전쟁으로 말미암은 애통함 같은데 6절은 자연 재해 아닌가?
 일관성이 있으려면 모압을 침공한 적군들이 전략적으로 수원을 차단하였다고 볼 수도 있겠다.
- 모압의 심판과 비참함은 글보다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더 효과적인 것 같다. 어떤 장면을 그릴 수 있을까?
 애통하는 모숨들, 울며 비탈길을 오르는 모숨(5), 메마른 땅(6), 재물을 가지고 피난하는 모숨(7), 피가 고인 못(9), 피난민을 공격하는 사자들(9)
 모압 알: 알 모압(아르논 남단에 위치한 모압의 수도, 오늘의 랍바)
 모압 길: 길 모압(거대한 바위 위의 요새화된 도시로 모압 알의 남동쪽에 위치함, 오늘의 케레크)
 바잇과 디본: 바알 신당과 그모스의 산당이 있었던 곳으로 종교적인 중심지였다.
 헤스본과 엘르알레: 가장 북쪽의 도시들
 야하스: 중부지역
 소알과 예글랏 슬리시야, 브엘엘림: 사해 남단에 있다. 가장 남쪽의 도시들

[16장]

- '너희'는 누구인가?
모압: 4절의 '너 모압'이란 표현은 개역성경의 번역상의 오해일 수 있다(아래 질문을 참조). 이사야서의 원문이 어려운 탓에 구절하나가 번역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 이 땅 치리자는 누구이며 그에게 양을 드린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왕하 3:4)? 참고로 셀라는 모압 사람들이 도피하였던 에돔의 수도인데(왕하 14:7) 의미는 '바위'이다. 아마 바위로 뒤덮인 모압의 도시들을 지칭하는 말일 수도 있단다.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라는 말이다. 끔찍한 심판에서 벗어나려면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말라는 말이다.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간접적인 표현이다. 모압은 양들의 고장이라고 알려졌다.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칠 때 양털을 바쳤다.
- 얼핏 보면 '아르논 나무에서 떠다니는 새'라는 말은 여유롭고 한가로워 보인다. 그러나 정확한 의미는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라는 뜻이다. 표준새번역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있을 곳이 없어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털린 등지에서 흩어진 새끼 새들처럼, 모압의 여인들이 아르논의 나무터에서 해맨다.' 다른 대부분의 번역도 대체로 비슷하다. 일정한 거주지 없이 이리저리 떠도는 불안한 모습을 표현한 말이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아래 질문을 참조할 것)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단순하게 이스라엘을 의지하라는 외교적 충고가 아니라 이방인마저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라는 종교적 의미이다.
- 모압의 심판을 언급하다가 갑자기 엉뚱하게 '모압이 이스라엘의 피난민을 친절하게 대하라'(3-4a)는 것은 어색하다. 표준새번역은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애원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지 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여 주십시오. 뜨거운 대낮에 시원한 그늘을 드리우는 나무처럼, 우리가 그대의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피난민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곳에 우리를 숨겨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라고 번역하고 있다. 대부분의 성경도 이 부분을 모압 사람들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어떻게 되는가?
피난 생활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공평과 의로 다스릴 다윗의 왕위가 굳게 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토색하는 자가 망하고, 멸절하는 자가 그치고, 압제하는 자가 멸절될 것이다(46). 완전한 통치자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스라엘도 망해 가는 판인데 웬 다윗의 왕위?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고이다.

5.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는 어떤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리는가?

인자함, 충실함, 공평, 의(의) 메시아 왕국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단어들이다. 이러한 메시아 왕국에 동참하라는 권고이다.

6. 거만, 교만, 분노에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과장(6) 거드름을 피우거나 크게 분노하여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무너질 가능성이 더 크다. 자신의 약함을 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렘 48:42,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7. 모압이 교만한 죄로 인하여 얼마나 통곡하게 될지 모른다.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란 말은 바로 뒤의 '다 통곡하며'와 같은 말이다. 동일한 표현이 또 있을까?

헤스본의 밭이 말랐는데(8) 길하레셋 포도도 떡을 위하여 슬퍼하며 근심하는 것(7) 헤스본은 모압의 북쪽 지방이고 길하레셋은 남쪽 지방이므로 결국은 전국적인 고통을 표현한 것이다(15장 참고).

8. 모압이 당할 심판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다. 이 포도나무의 처지가 어떠한가?

잘 나갈 때는 가지가 바다를 건너더니 이제는 말랐고 가지가 떨어져버렸다(8) 결국은 포도원에 할 일이 없다(10)

9. 헤스본이나 엘르알레는 포도의 즙으로 적셔져야 했는데 이제는 동정심에서 나오는 선지자의 눈물로 적셔지고 있다(9). 비슷하게, 여름 실과나 농작물에는 원래 일하는 사람들의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가 나야 하는 법인데 웬 떠드는 소리인가?

아마도 적군에게 짓밟히는 소리일 것: 포도즙 대신에 선지자의 눈물, 수확의 환호 소리 대신에 적군의 떠드는 소리! 선지자의 문학적 표현 능력이 놀랍다.

10. 모압은 앗수르 군대의 침입으로 끔찍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모압 사람들은 그런 일을 겪으면서 무엇이라고 말할까? 군대가 약해서? 왕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반면에 하나님은?

내가 그리 하였노라(10c) 하나님을 멸시한 교만 탓이다.

11. 선지자는 모압의 처절함을 보며 애가 끊어질 듯하고 간장이 다 녹지만(11) 모압 사람들은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하는가?

우상에게 열심을 냄: 우상에게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소용없는 짓이다.

12. 여호와께서 정하신 징계는 무엇처럼 확실한가?

품꾼의 기한: 삯을 받기로 하고 일을 다 한 사람에게 기한을 어기는 것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임금을 착취하거나 떼어먹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는 요즈음에는 이 말이 별로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사야 17 장

1. 성읍이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양이 늪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란 표현과 같아 보이는데?

그만큼 한가한 곳이 된다, 즉 사람이 없어진다는 뜻이다.

2. 다메섹에 대한 경고라더니 왜 에브라임이 등장하는가(3절)? 여기 아로엘은 요단강 동편, 아르논 강가에 있던 성읍으로 르우벤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로엘은 이스라엘 땅이다. 다메섹에 대한 경고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아로엘, 에브라임, 야곱도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다. 북이스라엘이 다메섹과 동맹을 맺고(B.C. 735) 유다를 쳤기 때문에(왕하 15:29-16장, 대하 27, 28장) 다메섹과 동일한 경고를 받고 있다. 결국 다메섹(수리아)이 망한지 10년 후에 이스라엘도 망하고 말았다(B.C. 722).

3. B.C. 1000년 경, 다메섹은 수리아 연맹의 맹주로서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다가 B.C. 732년 앗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에 의해 함락된 후 이전과 같은 힘을 회복하지 못하고 말았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다메섹이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 다메섹의 몰락은 곧 수리아의 몰락을 뜻한다. 도시 하나를 가리키기보다는 수리아 전체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을 제유법이라고 한다. 다마스쿠스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 고대도시이긴 하지만 그 이후 한 번도 역사의 중심에 서보지 못했다.

4. 이스라엘의 영광은 무엇과 같다고 하는가?

멸절된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 정말 영광스럽겠다! 일종의 조롱이다.

5. 아로엘의 성읍, 에브라임, 야곱은 다 같이 이스라엘(유다를 제외한)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 날이 되면 찬란했던 이스라엘의 영광이 어떤 모습으로 변한다고 하는가(4-6)? 그것을 표현하는 세 가지 비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자.

살진 몸이 파리한 모습으로: 부유하게 살던 사람이 병들고 굶주린 모습으로 변한다.

풍요로운 들판이 베임을 당함같이: 추수하는 자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외적을 가리킨다. 추수 끝나고 이삭마저 다 주운 들판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수확이 끝난 감람나무 끝에 몇 개 남은 모습: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던 장면과 극적인 대조를 이룬다.

6. 다 없애지는 않겠다(6). 얼마나 남기는가? 그것도 남은 것인가?

남기겠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철저한 형편에 대한 조롱 같다! 그럼에도 7-8, 14절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남은 자'로 보는 것이 좋겠다.

7.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는 무엇인가(7-8)?

사람과의 관계가 전혀 다르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고(창조주), 사람은 우상을 만들었다(피조물의 피조물).

8. 그 날에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사람들(7-8)은 누구일까? 일반적인 사람일까, 아니면 ...? 그 날이 언제인지를 참고해서 답을 찾아보자.

그 날이 바로 앞의 심판 날이라면(4-6) 그 심판에서 겨우 남은 몇 사람을 가리킨다. 아무리 혹독한 심판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인류 구속의 역사는 끝을 보고 만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다.

9. 8절과 9절은 바로 연결되는 문장이 아니다. 9절은 새로 시작하는 문장이다. 이스라엘의 성읍이 버려지고(9),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열매가 없는 것(11)은 왜 그런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사람은 반드시 노력한 대로 거둔다' 이 말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진리겠지만,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쳐야 하지만, 하나님 없이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일시적으로 되는 것 같아도 결코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가던 요나가 옴바에 이르렀더니 '마침' 배가 있었고, 출항하지 말자는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출항했던 배도 '처음에는' 득의양양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초기 단계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다.

10. 이스라엘이 식물을 심으면서 '울타리를 두르고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한 것'은 잘못이 아니다. 무엇이 잘못된가?

자기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고, 이방의 가치를 이중(옮겨심기)한 것: 이방 종교를 심고 것에 대한 비유이다.

11. 17장은 다메섹에 대한 경고라더니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내용이 더 많다. 이스라엘이 다메섹보다 더 징계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메섹은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민족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 까. 똑같은 죄를 지어도 형이 더 야단을 맞는 것처럼.

12. 이사야 시대에 큰 물이 물려오듯이 세상을 휘저은 나라는 앗수르다. 그런데 왜 '많은 민족'이라고 할까?

앗수르도 다민족 국가다: 고대의 강대국은 전부 주변의 많은 민족을 점령해서 이루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민족 국가이다. 앗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13. 바다의 뛰노는 파도와 같이, 큰 물(홍수)이 밀려오듯이 세상을 뒤덮던 강대국도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 어

떻게 되는가?

바람에 날려 가는 거: 그것도 산에서 날려 보내면 꽤 멀리 날려갈 것이다.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산헤립의 군대가 하룻밤에 몰락한 것이 좋은 예이다(사 37:36, 왕하 19:35)

14. 대적이 파도같이, 큰 물같이 밀려왔으니 얼마나 두려웠겠는가? 그런데 아침에 보니 대적이 없어졌다(14). 바로 뒤에 이어지는 '분깃'이나 '보응'을 다른 말로 바꾸어 보자.

결말, 결국: 동일한 뜻을 비슷한 발음으로 묶는 것이 좋아 보인다. 어떤 성경은 운명이라고 번역하였는데 의미는 좋으나 아무래도 '운명'이란 단어는 성경과 어울리지 않는 듯하다.

이사야 18 장

1. 구스는 에디오피아를 가리킨다. 애굽의 남단, 나일강의 상류지역에 있으며 한때는 애굽을 지배하기도 했다. 날개치는 소리는 곤충이 웅웅거리는 소리로 구스가 무덤고 습한 땅에 곤충이 많은 지역임을 나타낸다. 이런 구스에서 사자들이 급한 일로 왔던 모양이다. 그들이 급하게 왔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내용이 있다면?

갈대배: 파피루스 갈대로 만든 배로 가볍고 빠르다. 요즈음 말로 하면 고속정에 해당하는 셈이다.

경첩한 사자: 경첩도 가볍고 빠르다는 말이다.

2. 2절의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라는 말은 ' ~ 보내는구나!'로 번역한 경우가 더 많다. 즉 구스에서 사신이 왔다는 말이다. 급하게 온 모양인데 무슨 용무인지 모르지만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대답하는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돌아가라고 한다. '너희 경첩한 사자들아' 부분이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이다.

3.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란 강이 지류가 많은 상류지역에 있는 나라란 말이고,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란 이디오피아인들이 키가 크고 당당했으며 한때 애굽을 장악하고 영토를 크게 확장시켰던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다. '슬프다'고 하면서 이런 나라와 백성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자들을 보고 그리로 돌아가라고 한다. 동맹을 맺자고 찾아왔을 수도 있으나 거절하라는 말이다.

4.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는 것은 세상의 거민은 물론이지만 구스의 사자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다. 그들의 요구를 거절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좀 더 쉽게 표현을 바꾸어 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구경만 하라는 것이다. 너희와 동맹을 맺거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계시는 선포이다.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심판하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는 말일 수도 있다(6절 끝에 '하셋음이니라').

5.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두 단계나 혹은 세 단계로 보일 수가 있다. 4-6절을 근거로 설명해보자.

중용히 감찰함: 있는지 없는지 분간이 안 되듯이 고요하게 역사가 이루어진다. 쪼이는 햇살처럼, 저녁의 이슬처럼 요란스럽지는 않지만 열매를 키우듯이 역사하신다. 자연의 섭리처럼 역사하시는 경우이다.

갑작스런 심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 갈 때에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짝어버리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자연의 섭리처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개입하시는 경우이다.

(**짐승들을 배불리게 함:**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양식으로 주겠다. 그들에 대한 심판이 다른 이들에게는 오히려 기쁨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성도들을 해하던 무리들이 성도들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더 고통스러워할 것이다. 다윗의 잔이 넘치는 것을 바라보는 원수들의 고통이다.)

6. 구스의 사자들을 그냥 돌려보내고 앗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켜보라고 했는데(2-3) 결국 앗수르가 몰락하게 되면 구스의 사자들은 무슨 일을 할까?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께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앗수르의 확장에 대항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으려고 했는데 동맹을 맺을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결해 버렸다면 구스의 입장에서는 예물을 가지고 감사를 표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경첩(輕捷): 가볍고 빠름.

과하(過夏): 여름을 남.

과동(過冬): 겨울을 남

이사야 19 장

1. 애굽에 대한 심판을 대별하면 세 가지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인재(1-4)와 자연재해(5-9), 지혜자가 사라질 것(10-15)
2. 하나님이 손오공인가? 웬 구름을 타고 임하시는가?
구름이 빠른 속도로 전국을 뒤덮는 것처럼 심판이 임할 것이며 피할 수 없음을 뜻한다.
3. 여호와와 심판이 시작되면 우상이 떨어지고 애굽인이 두려워 할 것이다(1).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기에 그럴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포악한 왕이 등장할 것이다(4) 각기 형제를 치며 이웃을 치며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2)은 내란을 뜻한다. 결국 포악한 왕이 등장할 것이며 이것은 엄청난 징벌이 될 것이다. 인재를 뒤이은 자연재해는 두려움보다는 슬픔과 근심의 원인이다.
4. 정신이 쇠약해지고 도모하는 것이 깨어진다(파하신 바가 된다)는 것(3)은 믿을 데가 없어지고 하는 일마다 재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면 애굽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묻는 것(3)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게 되면 정신적인 공황상태에 빠져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 대신 의뢰하는 우상들을 심판해 버리면 미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면서 초인을 의지하려던 니이체가 미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 어떤 것으로 인간이 지닌 두려움을 쫓아내기는 불가능하다.
5. 개역성경의 난외주를 보면 2절의 '그가'는 원문상으로 '내가', 3절의 '그가'는 '나의'라고 밝혀두었다. 말하자면 원문상의 직접화법을 간접화법으로 번역한 셈이다. 직접화법으로 고친다면 쌍따옴표를 어디에 붙여야 할까?
2절 "내가 애굽인을 (4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조금 어렵다. 4절의 '그가'도 원문상으로는 '내가'이다. 4절 끝 부분 '주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는 우리말로는 포함시켜도 될 것 같은데 원문상으로는 주어, 동사가 없는 문장이라서(이것은 ~ 이다'라는 표현이 생략된 형태) 선지자의 말로 보는 것이 좋아 보인다.
6.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는데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은 위아래가 없을까?
이것들을 찾는 사람들의 눈에는 뒤로 갈수록 더 무능하다. 답답하니까 능력이 없음을 알고도 매어 달린다는 뜻이다. 옹하다는 의사를 찾아다녀도 안 되니까 풀팔이에게 매달리는 꼴이다.
7. 아무리 가뭄이 극심한들 '바닷물이 없어진다'는 것은 너무 심한 표현 아닌가? '강이 잿아 마르겠고'라는 표현과 병행구절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설명해 보자.
5-6절의 여러 표현들이 강약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같은 뜻이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을 바다라고 불렀다. 따라서 이 바닷물은 나일강물을 가리키는 말이다. 사해나 갈릴리도 바다는 아니지만 바다라고 불렀다. 큰 강의 하류는 강인지 바다인지 분간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크고 넓은 하류까지 말라버릴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바닷물, 강, 시냇물의 순서로 언급되고 있음을 참고하자.
8. 6절의 '달과 같이 시들겠으며'의 원문은 '갈대와 골풀(파피루스)이 마를 것이며'이다. 왜 이렇게 엉뚱하게 번역했을까?
없어질 것이라는 뜻이다: 갈대와 골풀도, 초장과 곡식밭도 없어질 것이다. 그름에 달이 사라지듯이. 풀이나 곡식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으면 시내 자체도 없어진다. 날아 없어진다는 것은 말라서 바람에 날려갈 정도라는 말이다. 아무리 심한 가뭄이 들어도 농작물이 바람에 날려갈 정도로 마르진 않는데...
9. 나일강이 마르면 농부와 어부 중에서 누가 더 걱정이 많을까?
농부: 7절이 농부에 대한 언급이고 8절이 어부에 대한 언급이다. 애굽의 농사는 거의 대부분 나일강을 따라서 이루어진다. 어업이 주업이 아니라 농업이 주업인 나라에서 나일강이 농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10. 물이 말라버리고 없는데 물에 그물을 치는 자가 왜 피곤하지?
일감이 없으면 더 피곤하다: 손님이 많이 들락거려서 피곤하다는 것은 대부분 업살이다. 만약 손님이 전혀 없으봐라 훨씬 더 피곤하다.
11. 세마포는 가늘게 뿜은 실로 만든 고급 섬유이고, 백목은 대중적인 흰 모직물이다. 세마포와 백목의 관계는 그 다음의 기둥과 품꾼들의 관계와 비슷하다면 기둥과 품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고위 관리(고관들)와 하층 노동자(악일꾼들): 고급 제품을 생산하는 자나 하급 제품을 생산하는 자가 다 수치를 당하고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근심한다는 것은 애굽의 산업이 완전히 파헤칠 것이라는 말이다. 가난한 사람이야 죽어나더라도 부유한 사람은 '이대로'를 외치는 우리나라보다 더욱 피폐해질 것이다.
12. 소안은 애굽의 삼각주 북부에 있었으며 하애굽의 왕궁이 있었고, 희소스 왕조의 수도였다. 늪은 삼각주의 남단에 위치한 뽀피스를 가리킨다. 뽀피스도 한때는 수도였다. 애굽의 진골은 소안의 방백과 늪의 방백이다. 이들이 어리석은 짓을 하면 나라가 흔들린다. 이들을 가리키는 표현을 찾아보자.
소안의 방백은 지혜로운 모사(11), 옛 왕들의 후예(11), 애굽의 모퉁이 풀(13) 이들은 애굽의 지혜, 명예, 기초였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취한 자가 토하며 비틀거리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13. 애굽의 지도자들, 지혜로운 자들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14) 지도자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면 국가적 재앙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애굽을 심판하실 것이다.

14. 16절, 18절, 19절의 '그 날'은 같은 날인가?

16-17절은 심판의 결과 혹은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반면에 18절, 19절은 심판에서의 회복을 말한다. 밀접하게 연관된 날이고 하나 내용상으로 같은 날이라고 하기는 어렵겠다.

15. 애굽이 부녀와 같은 것이라는 말은 아무래도 여자를 무시하는 듯한 의미 같은데?

전쟁을 치르는 능력을 가리키는 말이다. 애굽이 싸울 능력이 전혀 없음을 말한다. 여자는 아무래도 근력(힘)으로 싸워 이기기보다는 부드러움으로 싸우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 의미에서 전쟁은 여자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16. 유다의 땅이 왜 애굽에게 두려움이 되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하도 혼이 나서 유다 땅의 소식이라면 간이 철령하는 것이다: 현실은 앗수르를 의지하나 애굽을 의지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을 벌하실 때는 애굽이 이스라엘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리라는 것이다.

17.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란 말은 그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실제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의반타의반으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어 나중에 수많은 수도원과 교회가 생겨났다. '70인 역' (LXX)이라는 최초의 번역성경도 바로 이곳에서 탄생되었고, 초대교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지역 중에 하나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였다. (640년 경 이슬람의 침입으로 기독교 문화는 사라지고 말았다. 그런 와중에도 기독교 전통을 이어온 콥트 교회가 있다? 확인요함.) 그런 문맥에서 보면 그 성읍 중에 하나를 장망성(將亡城)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왜?

장망성이란 것은 '장차 망할 성'이란 뜻이기 때문이다. 변연의 천로역정에서 기독교가 떠나가는 도시 이름이기도 하다. 개역성경 난하주에 보면 '일하해레스' 혹은 '태양성'이라고 주가 붙어 있다. 장망성을 뜻하는 글자(일하해레스)와 태양성을 뜻하는 글자(일하해레스)는 너무나 흡사해서 오기라고 보는 타이다. 태양성으로 본다면 '태양신을 섬기던 성읍조차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의미가 된다. 이것이 문맥상으로는 자연스럽다.

18. 애굽 땅에 제단이 있고, 변경에 여호와를 위한 기둥(창 28:22)이 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부르짖고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보내서 견지신다면 이스라엘과 애굽인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 날에는 애굽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차별이 없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진정한 구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애굽 땅은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북한 땅이나 중국 땅, 회교국가 이리라.

19. 애굽과 앗수르는 앙숙인데 어떻게 왕래하는 사이가 될까(23)?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 때문에 가능할 것이란 말이다. 주 안에서 지위고하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과 같다. 애굽과 앗수르가 손을 잡는다는 것은 세계평화가 이룩되는 것이다. 끝없는 전쟁의 한복판에 서서 온 세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가 되는 것을 내다보고 있다. 선지자의 현실에 서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말이다.

20. 당시의 초강대국인 앗수르와 이집트가 함께 세계 중의 복이 되는데 이스라엘은 왜 끼어드는가? 위치가 가운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중에서 답을 찾아보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창 12:3): 아브라함과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런 복이 주어진다. 결국은 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다. 이스라엘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다. 오늘 날 그리스도인들의 역할도 바로 이것이다. 지역과 신분을 초월하여,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할 일이다.

이사야 20~21 장

[이사야 20장]

1.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다? 귀한 신분의 선지자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 모든 사람의 관심이 집중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왜 이런 튀는 짓을 시키시는가?

애굽과 구스가 이런 모습으로 포로가 될 것이라고 행동으로 예언하라는 것이다. 실제로 BC 681년(에살하돈)과 669년(앗술바니팔) 두 차례에 걸쳐 애굽은 앗수르의 침공을 받아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다.

2. 아스돗은 블레셋의 도시로서 앗수르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 이 성을 중심으로 앗수르에 대한 반란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다. BC 713년경에 앗수르가 아스돗을 함락시켰다. 그 해에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행한 예언의 결론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5, 6절 참고) 애굽과 구스가 앗수르에 포로가 될 것이니 믿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란 뜻이다.

3. 선지자가 어떻게 전쟁포로와 같은 모습으로 3년을 지낼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는 자들은 이런 각오를 해야 한다.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없으면 굶고, 때리면 맞고... 이 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옛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그림다.

4. 5절의 '그들'이나 6절의 '이 해변 거민'은 같은 사람들을 가리킨다. 지중해 연안의 작은 나라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믿었던 나라가 망하는 것, 이런 나라를 바라고 자랑하고 믿었던 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지중해 연안에 있던 작은 나라들이 애굽을 믿고 연합하여 앗수르에 대항하려 했던 일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이사야 21장]

1. 바벨론은 범람하는 유브라테스강에 자주 침수되곤 했다. 강의 범람과 싸우다보니 문명이 발달하게 되었다. 바다와 같이 거대한 강의 물길이 자주 변경되기도 했다. 그래서 불은 별칭이 ()이다.

해변 광야: 9절을 보면 이 해변광야가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이 확실하다. 바벨론을 가리켜 굳이 이런 어려운 표현을 쓴 것은 마치 바다와 같은 강물에 잠겨 있는 듯한 바벨론의 모습이 결국 망해버릴 위험에 직면해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셈이다.

2. 남방 회리바람은 자연재해인가? 아니면 누구의 침입을 가리키는가?

엘람(현재의 이란 남부 고원지대, 바사제국의 근거지)과 메데(2)의 침략: 속이는 자, 노략하는 자, 마병대 등의 표현이 자연재해가 아님을 보여준다. BC 539년에 메대와 바사가 연합하여 바벨론을 멸망시킨다. 이사야 당시 (BC 739-680)에는 바사(엘람)가 잘 알려진 민족이 아니었음에도 바사가 바벨론을 침략할 것이라고 한 점과 메대와 바벨론은 BC 612년에 동맹하여 앗수르를 친 연합국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것은 시대를 미리 내다보는 예언이다.

3. 속이는 자, 노략하는 자는 아무래도 침략하는 엘람이나 메대를 가리키는 말로 보면 좋겠다. 그러면 '그의 모든 탄식'은 누구의 탄식이라고 보아야 할까?

바벨론의 압정에 시달리는 민족들의 탄식.

4. 유다를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의 멸망은 유대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다. 그런데 이사야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가?

바벨론의 멸망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영향'을 말하는 것(주관적인 입장)이 아니라 '멸망의 혹독함'을 표현(객관적인 입장)할 뿐이다.

5. 고통이 심하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가?

그런 모양이다: 어느 임산부가 '아파 죽겠는데 간호사는 무얼 하느냐?'고 고래고래 고향을 질렀더니 간호사가 무심히 하는 말이 천장의 환한 불빛을 가리키면서 '이 불빛이 보여요?' '예 하니까 '그러면 아직 멀었어요!' 하고 가버리더라! 산통이 진짜 많이 아픈가보다.

6.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는 선지자는 극심한 고통에 떠는데 정작 당사자인 바벨론의 방백들은 무엇을 하는가?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신다. 최소한의 전쟁 준비(방패에 기름을 바르는 것)도 하지 않은 채.

7. 군인들이 날마다, 혹은 여가만 있으면 하는 일이 꼬질대로 총열 내부를 닦고 총에 기름을 칠하고 닦는 것이다. 총의 성능을 가장 좋은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같은 이야기일까? 방패에 기름을 바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적의 칼이 미끄러지라고: 이권 정말 최소한의 전쟁준비인 셈이다.

8. 바벨론의 멸망은 하룻밤에 일어난 일이다. 단 5장

9. 바벨론의 방백들은 먹고 마시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여금 파수꾼을 세우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실제 상황이 아니다. 가상의 파수꾼을 통해서 예언을 실감나게 표현하는 수사학적 기법이다.

10. 이사야 시대에 바벨론은 힘이 미약하였고 실제 위협은 앗수르였다. 그럼에도 바벨론의 멸망을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유대를 망하게 하는 것은 바벨론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11. '타작한 것'이나 '타작'마당의 곡식'은 같은 것이다.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스라엘 백성: 개역성경은 좀 애매하다. 현대인의 성경은 '타작마당의 곡식처럼 짓밟힌 내 백성들아'라고 번역한다. 바벨론의 악함을 이스라엘 백성의 징계수단으로 사용하셨지만 결국 바벨론도 이스라엘을 억압한 죄로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이다.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이 싸우면 부모는 결국 자기 자식의 편을 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12. '두마'라는 이름은 흔하게 나오는 이름이 아니다. 이 말이 어느 민족을 가리키는지 알만한 지명이 본문에 있는가?

세일(11): 에서가 주무대로 삼았던 곳이 세일산이었다(창 36:8). 에돔에 대한 심판의 이유는 본문에 없다. 암 1:11-12, 오바댜서를 참고하라.

13. 자다가 일어나 '몇 시냐?'고 묻는다면 잠자리가 그리 편치 않은 셈이다. 밤중에 파수꾼에게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것도 상태가 그리 좋은 것이 아님을 말한다. 대답은 어떤가?

시원찮다(12): 곧 아침이 온다. 하지만 곧 또 밤이 온다. 묻고 싶으면 얼마든지 물어보렴. 얼마든지 대답해 줄게.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는 말인가?

14.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에는 세 족속이 등장한다. 드단 대상의 수풀에서 유숙함, 데마 사람들의 도피 장소 제공, 게달 자손의 감소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쟁의 상황을 은근하게 표현함: 그렇다면 사막을 다니는 드단 대상이 수풀에서 유숙함이 숙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은신해 있음을 뜻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의 위험을 피하여 데마 거민들에게 도망치라는 것이다. 게달의 자손에게서 할 쏘는 자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전쟁에서 많이 죽을 것이란 말이다.

드단: 에돔과 이웃한 족속(창 10:7, 25:3)

데마: 아라비아 북부

게달: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창 25:13)로 아라비아의 유목민족이었다.

이사야 22 장

1. 바벨론(13장), 모압(15-16장), 다메셋과 북이스라엘(17장), 구스(18장), 애굽(19장), 애굽과 구스(20장), 바벨론, 에돔, 아라비아(21장)를 향했던 이사야의 심판 예언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이 거의 마지막에야 나온다. 왜 그럴까?

원래 진짜 선수는 나중에 나온다.

2. 바벨론을 해변광야로 묘사하면서 무언가를 암시하듯(21장) 이상 골짜기가 예루살렘을 가리키면서 무엇인가를 암시하는 것이 틀림없다. 왜 예루살렘을 그렇게 표현했을까?

놀라운 이상이 있는 곳에 거하면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원래 예루살렘은 (시온)산으로 묘사되지만 골짜기(히논, 기드론)로 둘러싸여 있다. 산 위에서는 멀리 내다볼 수 있지만 골짜기는 시야를 가린다. 이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암시하고 있다(8). 압박한 재난도, 성이 무너진 현실도, 하나님의 징계도 알지 못한다.

3. 지붕엔 왜 올라갔을까? 슬퍼서? 즐거워서? (바로 뒤의 '원화하며 떠돌던, 즐거워하던'은 시제가 없는 형용사, 본사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번역할 필요가 없다. 현재형으로 이해하면 된다)

바로 뒤의 원화하며 떠돌며 즐거워하는 것과 같은 행위이다. 너희가 지금 그럴 형편이 못된다. 그래서 4절에 선지자는 대조적인 자세를 보인다: 가령, 앗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히스기야에게 많은 공물을 받고 철수하는 뒷모습을 보며 지붕에서 떠돌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그렇게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이다.

4.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이란 말인가?

포로가 될 것이다(3).

5. 관원들의 잘못은 무엇인가?

다 함께 도망함: 백성들을 돌보아야 할 관원들이 먼저 도망친다는 것은 배신이다. 그것도 다 함께 도망치는 것은 더욱 악한 일이다. 일부라도 죽을 각오로 지켜야지!

활을 버림: 전시에 군인이 총을 버린다는 것은 사형감이다.

6. 선지자는 자신을 '위로하지 말라'고 하면서 울기만 한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회개해야 한다. 민족의 앞날에 저렇게 슬픈 일이 닥쳐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함께 울어야 한다. 가장 나쁜 말은 '울고 싶은 사람은 실컷 울도록 놔둬야 한다'는 것이다.

7. 분요(紛擾: 몹시 떠들석함)와 밝힘과 혼란과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부르짖는 소리가 사무치는 것은 누구 때문인가?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이 범죄하므로 하나님께서 이방의 침입자를 허용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을 본문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서'라고 말한다. 원인제공자는 분명히 이스라엘이다(11).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바벨론이다. 역사는 '이스라엘이 국력이 약해져서 바벨론에게 망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다.

8. 이상 골짜기의 심판 날에는 들리는 두 종류의 소리는 무엇인가?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와 산악에 사무치는 소리: 산악에 사무치는 소리는 성벽이 무너지자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비명이다.

9.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앗수르 군대는 어느 민족, 어떤 부대로 구성될까?

민족: '엘람'과 '기르'(혹은 '길'이라고도 함, 암 1:5, 9:7) 엘람은 바벨론의 북동쪽에 위치한 바사의 중심지이고(현재의 이란), 기르는 카스피해 근처인 듯하며 아마 메대를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현재의 투르크).

부대: 군사(전통을 맨 자), 전차(병거를 탄 자), 기병(말을 탄 자), 보병부대(쌍패 든 자, '들어내었으니'라는 표현은 '드러내었으니'로 고쳐야 한다. 꺼내들었다는 뜻이다).

10. 눈에 뭐가 씩였으면 보아도 보지 못한다. 이스라엘 그랬던 모양이다.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었는가? 보고 난 후에는 무엇을 하는가? (8절의 '덮였던 것'을 대부분의 번역본들이 '방어벽'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본래의 의미는 '휘장,' '덮개'로 개역의 번역이 옳은 것 같다)

보지 못한 것: 적의 침입(7)

보고서 한 일: 병기를 꺼내고(수풀 곳간은 수풀에 감추어져 있는 병기고를 가리킨다), 성을 수축하며, 물을 저장함(전쟁을 대비하는 일이지만 늦었다).

11. 가옥을 계수하고 허는 것은 성을 튼튼하게 할 재료를 얻기 위함이고, 저수지를 만드는 것은 적에게 포위되었을 때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틀렸다.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존경하는 것: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이런 일은 생기지도 않았단(11절 하반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이런 노력이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할 것이다.

12. 좋은 말은 아니지만 '궁합'이 맞지 않는 셈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지만(12) 이스라엘의 대답은 무엇인가(13)?

내일 죽을 거라면 오늘 실컷 먹고 죽자! 반항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선지자의 외침에 대한 조롱일 수도 있다.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으라?’ ‘짧고 굵게 살란다’는 식이다. 이러니 결국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선언을 듣게 된다(14).

13. 본문에 언급된 심판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 그럴까?

심판하겠다는 것보다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기에 이스라엘이 돌이키는 시늉만 해도 심판은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다(출 32:14, 신 30:3). 산헤립이 침공해서 많은 피해를 끼치기도 했지만 결국은 하룻밤에 군사를 다 잃고 돌아갔다(왕하 19장).

14. 민족의 장래에 대한 예언을 하다가 갑자기 한 개인의 이야기로 바뀌는 이유가 무엇일까?

민족 전체에 영향을 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국고를 맡아 궁을 차지하였던 셉나가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다’고 한다.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보다는 권력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를 추구하였으며 아마도 친애급 정책(사 28:14-15)을 편 주동 인물이었을 것이다.

15. 셉나의 꿈은 무엇이며 결국은 어떻게 될까?

높은 곳의 반석에 처소를 마련하는 것(높은 산의 경사진 곳에 바위를 뚫어 묘실을 만듦)이 꿈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단단히) 맡아 싸서 (장사같이 맹렬히) 광막한 지역에 던지실 것이다. 그러면 가장 낮은 곳으로 굴러가겠지(=관직에서 쫓겨나며, 지위도 낮아짐)!

16. 왕하 18:18, 사 36:3... 등 여러 곳에 ‘힐기야의 아들 궁내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셉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라는 표현이 있다. 20-22절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

본문이 시기적으로 먼저이며, 이 때에는 셉나가 엘리야김보다 지위가 높았다. 16절의 ‘궁을 차지한’이란 표현은 궁내대신이라는 말과 동일하다.

17. 엘리야김을 단단한 곳에 박힌 못이 될 것이라고 하다가 곧 이어 그 못이 삭을 것이라고 하는 이유는 알기 어렵다. 어쨌거나 못이 단단한 곳에 박혔다고 믿을 일이 아니다. 거기에 걸린 것이 어느 날 한꺼번에 떨어질 날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떡하라는 말인가?

하나님을 믿는 수밖에 없지! 단단한 곳에 못이 박히게 하는 이나 그것이 삭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사야 23 장

두로: 베니게(페니키아)의 고대 해안 도시

다시스: 스페인의 타르테수스로 두로의 해상 식민지

시돈: 베니게(페니키아)의 해안 도시로 두로와 자매인 셈(두로 북쪽 40km), 바알과 아스다롯 숭배의 중심지, 해상무역을 활발

1. 두로에 관한 경고의 내용을 참고로 해서 다음 ()에 알맞은 단어를 찾아보자.

열방에 대한 경고는 바벨론(13장)에서 시작하여 두로(23장)에서 끝난다. 이 두 나라는 서로 대극점에 있다. 지리적으로 동에서 시작하여 서에서 끝난 점이 그렇다. 또, 권력에서 시작하여 ()로 끝났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재물: 두로가 경고를 받는데 사용된 단어들인 '다시스의 선척, 상고, 부요하게 된 해변 거민, 곡식, 추수, 운수, 열국의 시장, 취리, 무역, 이익' 재물과 관련된 것들이다.

2. 두로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다시스의 선척'에게 슬퍼하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시스의 선척은 두로에서 다시스를 오가며 무역을 하던 배들이다(2절의 시돈 상고나 마찬가지로).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가령, 항구)도 없음이다.

3. 깃딤 땅에서 전해진 소식이란 '두로가 망했고 돌아갈 집도 항구도 없다'는 것이다. 깃딤은 구브로(키프로스) 섬이다. 두로에서 가장 가까운 섬이다. 바다를 오가는 이들에게 깃딤은 어떤 곳이기에 여기서 슬픈 소식을 들었을까?

돌아오는 이들에게는 마지막 정박지이다. '다 왔다' 하는 순간에 엄청난 비보를 들은 셈이다.

4. '시돈 상고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해변 거민들'은 두로와 무역하면서 부를 축적하던 나라의 사람들이다. 이제 조용해야 한다. 왜?

두로가 망했으니: 삶의 든든한 후원자를 잃은 셈이고, 무역의 주인공이 몰락하는 것을 아프게 바라보아야 했으니...

5. 두로가 잘 나가던 시절에는 열국의 시장이었다. 주된 상품은?

곡물: 시홀은 나일강을 뜻하는 애굽어의 히브리 발음이다.

6. 바다 즉, 바다의 보장(요새)이 말하기를 '나는 구로하지 못하였으며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 남자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지도 못하였다'는 것이다. 바다가 문자 그대로 바다를 가리킨다면 자녀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두로(를 중심으로 한 세력): 두로는 바다가 낳은 자식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자식을 낳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난 너 같은 자식을 둔 적이 없다'는 것이다. 두로가 잘 나가던 시절에는 열국의 시장이었지만 이제는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자식이 되고 말았다.

7. 두로에 대한 경고에 시돈이 부끄러워할 이유는?

시돈은 두로의 자매 도시이므로 같은 경고의 대상이다. 경고를 부끄러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낳고 양육하지 못한 여인이 부끄러워하는 것과 같은 처지가 될 것이란 뜻이다. 바다, 바다의 보장이 시돈을 가리킨다면(위의 질문과 달리), '나는 구로하지 못하였으며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 남자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지도 못하였다'는 것은 무역, 장사가 소득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다.

8. 같은 내용을 표현만 달리해서 반복하는 히브리인들이 표현법에 따르면 '다시스로 건너가는 것'과 '슬피 부르짖는 것'(6)은 동의어다. 어떻게 이 표현이 같은 뜻이 될까?

두로가 멸망할 때 두로의 거민들이 이곳을 탈출하여 가능한 한 멀리 도망가라는 뜻에서 '다시스로 건너가라'고 한다.

9. 두로의 멸망이 특히 안타까운 것은 무역의 중심지였던 것 외에 또 무엇이 있는가?

오래 된 도시이기에(7): '희락의 성'이란 표현과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거하던 성'은 무역과 관련이 있는 표현이다. 즉 무역으로 인한 경제적 번영이 희락을 가져다주었을 것이고 바다를 건너 먼 곳까지 시장을 개척하고, 식민지를 건설하던 것을 말한다.

10. 두로에서는 어떤 사람이 가장 존경을 받았는가?

상고, 무역자들: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상인들이 귀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 나라를 부강케 하는 것은 농사보다 상업 같은데....

11. 7절과 8절은 두로가 강한 나라였음을 여러 각도(역사, 재정, 개척정신, 능력, 인재들)에서 말하고 있다. 두로가 그렇게 쉽게 몰락할 나라가 아니었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렇게 강성한 나라가 몰락하게 된 것이 우연이겠느냐는 질문을 하기 위함이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말을 하기 위함이다.

12. 잘 나가던 두로가 슬픔을 당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교만하였기 때문이다(9): 상업적으로 뛰어나 재물을 많이 가진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그 재물을 믿고 교만하였기 때문이다. 재물을 탓하지 말라. 재물을 가지면 교만해지는 인간이 문제지! 존귀한 자가 무조건 잘못이 아니라 교만해지기 때문이다.

13. 딸 다시스가 아무런 속박도 없이 나일강이 넘치는 것이 두로의 패망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무래도 딸이라는 표현은 어머니에게 속박을 받다가 벗어난 의미로 보인다)

다시스는 두로의 식민지였는데 해방된다는 말이다. 다시스의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1, 14절 참고) 역설적으로 두로의 패망을 말하는 것이다. 두로의 패망이 다시스의 행복이다. 10절은 원문 자체가 어려워서 번역본마다 제각각이다. 개역처럼 두로의 속박에서 벗어나 식민지인 다시스 백성이 나일강이 넘치듯이 돌아가라는 해석이 전통적이다. ‘땅이나 경작하라’는 번역(NIV)은 70인 역이 글자를 수정하여 시도한 번역이다(건너가다는 뜻의 ‘아바르’를 경작하라는 뜻의 ‘아바디’로 읽고).

14. 하나님께서 바다 위로 손을 펴시는데 어떻게 열방이 흔들리나?

두로와 관련된 나라들은 지중해 해상무역을 통해서 부를 추구하고 있었다. 이 바다를 흔들면 열방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15. 하나님께서 열방을 흔들어버리면 두로는 결국 어떤 처지가 된다고 비유하시는가?

다시는 회락도 없고 안식도 없는 학대받은 처녀 딸: 딸아이가 학대받고 쫓겨나 갈 곳조차 없는 참담한 모습이 두로의 장래 모습이다.

16. 드디어, 두로를 멸망시킬 민족이 등장한다(13). 여기서 망대란 적국의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다. 갈대아(바벨론)가 앗수르에 의하여 망해버린 것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앗수르의 공격을 갈대아(바벨론, 고바빌로니아) 사람도 견딜 수 없었거늘 무슨 재주로 두로가 견디겠느냐? 반대로 본문을 좀 수정해서 바벨론이 침공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는 모양이다.

17. 14절은 1절에서 나왔던 말이다. 왜 또 언급하는가?

수미상관법이라는 수사학적 기법이다. 혹은 양팔식이라고 하는 비슷한 방식도 있다. 말하려는 핵심을 처음과 나중에 배치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한다.

18. 두로의 회복을 말하는 것은 정말 뜻밖이다. 19장에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지만 그것은 좀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이 되는데 두로가 회복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 부분은 13장에서 시작된 이방나라에 대한 경고의 최종 결론부분이다. 이방나라에 대한 경고를 발하는 선지자의 관심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있다. 두로의 회복을 언급하는 진정한 의도는 무엇일까?)

두로의 회복은 영적인 회복이 아니라 물질적인 회복을 말한다. 두로가 회복되어도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을 것이다. 회복된 재물이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쓰일 것이니 ‘이스라엘아 두로의 막대한 부를 너무 부러워 말라!’는 것이다.

19. 70년은 대체로 하나님의 시간을 뜻하는 상징적인 경우가 많다(7×10=하나님의 사역×완전수). 두로의 멸망이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어느 시점을 말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탓에 이 70년도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즉 하나님의 때가 되면 두로가 회복될 것이다. 마치 기생의 노랫말처럼! 그 당시에 유행하던 기생의 노래가 어디에 삽입되어 있는가?

16절 끝의 ‘하였느니라만 빼고: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늙은 기생의 노래’인 셈인데 원어는 한 행이 2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3행 2연으로 된 것이다. 영역본은 대체로 행과 연은 구분한 형태로 번역되었다.

(NIV) *Take up a harp, walk through the city, O prostitute forgotten:*

play the harp well, sing many a song, so that you will be remembered.

20. 기생이 열방과 음란한 짓을 해서 번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도 되나?

여기서 열방과 행하는 음란은 열방과 무역하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두로의 회복을 잊혀진 기생의 회복에 비유한 탓이다. ‘기생, 음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로가 일단 상업적으로는 다시 회복될 것을 말한다.

통도(痛悼, 슬퍼할 도): 상통(傷痛), 상도(傷悼), 마음이 상하고 아픔

이사야 24 장

1. 이방나라에 대한 심판을 13-23장까지 선포한 선지자가 이제는 누구에게 심판을 선언하는가?
땅: 이전의 심판(13-23장)은 지역적이며 제한적이었지만 이제는 포괄적이며 보편적인 심판을 선언한다. 이제부터 선포하는 심판은 각 나라에 대한 심판의 결론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종말적인 심판으로 발전해 나간다.
2. 본장에서만 심판에 대한 선언이 몇 번이라고 할 수 있을까?
네 번 (1-2, 3-13, 16-20, 21-23): 꼭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심판 선언, 심판의 이유, 심판의 양상, 심판의 정도라고 정돈할 수 있겠는데 뒤로 갈수록 심판이 점점 엄중함을 더 하고 있다. 뒷부분으로 갈수록 종말론적이고 총체적인 심판의 모습이 분명해진다.
3. 땅이 공허하고 황무하다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인가?
사람이 없어진다(죽거나 포로로 잡혀간다): 땅을 공허하게, 황무하게, 뒤집어엎으시고, 그 거민을 홀으시는 것'은 동일한 표현이다.
4. 세상은 결코 공평한 세상이 되지 않는다. 본문에는 어떤 불공평이 존재하는가?
백성과 제사장: 종교적 불평등
종과 상전, 비자와 가모: 신분적 불평등
사는 자와 파는 자, 채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 경제적 불평등
5.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라는 말은 아래 위가 구분이 안 되는 세상이 될 것이란 말인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심판이 임한다는 뜻: 심판의 무차별(포괄)성이다.
6.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심판의 어떤 특징을 가리키는 말일까?
심판의 확실성
7. 땅을 공허하게 하고 뒤집어엎는다는 것은 땅을 그릇에 비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땅이 쇠약하고 쇠잔하다는 것은 무엇에 비유하고 있다면 이해하기 쉬울까?
식물: 가뭄에 시든 식물처럼 나라들이 쇠약해질 것이다.
8. 땅이 심판을 받는 것은 누구의 무슨 죄 때문인가?
거민들이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5)
9. 5절에 따르면 율법, 율례, 영원한 언약은 같은 것이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고, 영원한 언약은 조상들에게 주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약속이다. 이것이 어떻게 같은 것인가?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밋아야 하는 규정이 아니라 이 언약의 한편 당사자로 삼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다. 율법을 주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의 당사자가 되었다는 말이다. 그런 율법을 고의로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며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10. 심판의 양상(6-13)을 총괄적인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즐거움이 사라질 것(7-11): 포도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인데 새 포도즙이 슬퍼하는 정도이니 무슨 기쁨이 남아 있겠는가? '새 포도즙이 슬퍼한다'는 것을 많은 번역본이 '포도즙이 마르고' 로 의역했다.
11. 심판당한 모습은?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열매가 떨어지고 겨우 몇 개 남듯이 포도나무에서 수확한 뒤의 나머지 같이 몇 개 남을 것: 홍수 심판에서 겨우 한 가족이 남은 것처럼!
12. 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서 그 심판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14-16a)는 누구일까(분명하지는 않지만)?
이사야가 말하는 남은 자 아닐까? 끝내 버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계적인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반응을 보일 것이다. 심판이 세계적인 것이기에 찬양도 모든 곳(바다, 땅 끝)에서 드러진다. 그러나 선지자가 이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16b)을 보아서 아직은 심판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다.
13. 다음 설명에 적절하도록 ()를 채운다면?
17-20절은 또 다시 심판에 대한 선언이다. 땅의 거민아 두려움과 합정과 울무가 네게 임하였나니...'라는 것은 심판당하는 거민을 ()의 처지에 빗댄 것이고,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라는 표현은 극심한 ()을 묘사하는 것이다.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는 것(23)을 감안하면 결국 이것은 어떤 심판을 가리키는가?
사냥꾼에게 쫓기는 짐승, 지진: 최후심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14. 그 날에 여호와께서는 높은 곳과 땅에서 동시에 벌하신다.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높은 군대와 땅의 왕들은 무엇에 대한 상징일까?
높은 군대는 영계를, 땅의 왕들은 현실 세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면 범죄한 인간과 그 뒤에서 이들을 조종하던 사탄을 동시에 심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높은 곳과 땅에서 동시에 심판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역시 최후심판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15. 최후 심판 때에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는 것은 왜 그럴까?

자기보다 더 밝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때문이다. 해보다 더 밝은 것이 지금까지는 없었다. 그 해 옆에서 달도 품을 잡았는데 그들이 부끄럽고 무색하리만큼 밝은 빛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때문이다.

16. 형벌을 주려면 바로 주지! 왜 깊은 옥에 가뒀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주는가? 비슷한 어떤 구절이 생각나는가?

용을 결박하여 일정기간 지난 후에 심판하심(계 20:3, 뱀후 2:4)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은 결정적인 치명상을 입었다. 그러나 최종 심판은 최후의 심판 때까지 미루어진 상태이다.

이사야 25 장

[24-27은 종말적인 심판에 관한 것으로, 24-25, 26-27이 밀접함]

24장은 전 세계적인 심판에 관한 내용이었다. 25장도 종말적인 심판의 한 측면을 보여준다. 25장은 타락한 성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다. 26장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음에 대한 찬양이다.

[1-3: 본 장의 전체적인 요약에 위한 질문]

1. 기사(奇事)란 기이한 일이란 뜻이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사를 찬양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옛적에 정하신 대로 성실과 진실함으로 행하신 두 가지 기사는 무엇인가?

2절: 겠고한 성을 황무케 하심: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박한 나라들의 성음이 주를 경외하는 것은 일종의 행복이다.

6-8절: 연회를 베푸심: 자기 백성의 눈물을 씻기시는 일이다.

2. 사람들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은 무엇인가?

2절: 심판자, 4-5절: 보호자(폭풍과 환난을 막아주는 보장(=강한 요새, 토치카)과 피난처, 폭양을 막아주는 그늘)

3. 하나님께서 두 종류의 기사를 행하셨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두 종류가 있을 것이다. 어떤 부류의 인간이 있는가?

1, 9절: 하나님을 기뻐하는 부류,

10-12: 하나님을 향해서 이를 바둑바둑 갈 부류(눅 13:28) 이를 갈 겨를도 없겠다!

4.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때 기분 내키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어렵게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예정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을 쉽게 표현한 말은?

옛적의 정하신 뜻대로(1):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어느 누구도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작정이 곧 예정이고 실행이고 행하심이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란 없다.

5. 성음, 겠고한 성음, 외인의 궁성은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내용상으로 보면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성음, 하나님 백성의 원수들의 성음

6. 강한 민족이 언제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박한 나라들의 성음이 언제 주를 경외하는가?

심판으로 성음이 다 무너진 뒤에: 강한 민족과 포박한 나라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던 이방족속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큰소리치던 민족'을 가리킨다. 이들이 심판을 받아 성음이 들무더기가 된 뒤에야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7. 강한 민족, 포박한 나라의 성음을 무너뜨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빈궁한 자,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편을 드시는가?

일단은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을 가리킨다: 강한 민족과 포박한 나라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권력으로 압제하던 사람을 가리킨다면 그들에게 압제를 당하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이다. 다소 비현실적인 이 사람들은 현실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마음이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능력이 없고, 게을러서 가난한 경우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상황에 따라서 고려해야 한다. 가난하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편은 아니다.

8. 여호와께서 연회를 베푸시는 장소는 어디인가? 손님은 누구인가?

이 산(6, 7) 시온 산이다(24:23)

만민, 모든 민족, 열방: 하나님의 잔치는 항상 만민에게 열려 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 14:23)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마 22:9) 그럼에도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지는 못하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9.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연회에 여러분이 참석한다면 어떤 점이 가장 감동적일까?

하나님께 밥을 얻어먹는다는 점? 무엇을 먹고(갈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마시느냐(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보다는 누구에게 얻어먹었느냐는 것이 더 감동적이지 않을까? 칼국수도 칼국수 나뭇가지 청와대에서 칼국수를 먹었다면?

10. 다음 말씀과 맥이 닿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전 13:12)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막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7): 현재의 우리는 하나님과 어쩔 수 없는 간격을 가지고 있다. 가까이 갈 수 없으며 바라볼 수 없으며 그 분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날이 되면 이 모든 간격이 제거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창조하셔서 교제하시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사 11:9).

11. 사도 바울의 힘찬 승리의 외침을 들어보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전 15:54-55) 사도 바울이 인용한 구절이 본문 어디에 있는가?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직역하면 '그가 사망을 영원히 삼켜버릴 것이다'이다. 원래 사망이란 범죄

하기 이전에는 없던 것이다.

12. 하나님께서 씻기실 눈물은 웬 걸까? 하나님을 만난 감격의 눈물이라면 굳이 씻기실 필요가 없는데?

범죄한 이후 사망에 사로잡혀 고생하며 흘린 눈물이다. '저주 아래서 고생 많이 했다'는 위로의 표현이다.

13. 위의 질문들과 답을 참고해서 결론을 내린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실 연회에서 우리가 받을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이다. 범죄한 이후 잃어버린 자격과 능력을 되찾는 것이다. 인간을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하시고 온갖 험한 과정을 다 밟으시고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구속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다. 우리를 이런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함이 우리 삶의 근본 토대여야 한다.

14. 그 날에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전에는 무엇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몰랐다(사 1:2-3) 우상을 향하여 그런 말을 하기도 했다. 알지도 못했다. 그러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자랑스럽게 말할 것이다.

15. 이스라엘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은 건방진 것 아닌가?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친밀하게 여길 때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런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것이다.

16.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원수를 상징하는 모압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거름물 속의 초개처럼 헤엄을 친다. 말이 좋아 거름물이지 동물이다. 헤엄이 아니라 발버둥이다. 우리나라 애기라서 같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골 밭 한 쪽 귀퉁이에는 거름으로 쓰기 위해서 동물을 가두어두는 공간이 있다. 꼬이가 허리를 조금 넘는 정도인데 표면에는 건더기가 떠 있고 그 위에 밭을 매다가 뽕은 풀을 던져두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풀밭인가 하고 밟다가 빠지는 수가 혹 있다. 그 아래는 완전히 동물이다. 거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이다. 그러다가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헤엄치는 자의 손을 눌러버린다.

최후 심판의 모습과 최후의 승리자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룬다. 연회의 즐거움을 누리는 자와 동물에 잠수하고 있는 모습이!

이사야 26 장

[24장은 전 세계적인 심판에 관한 내용이었다. 25장도 종말적인 심판의 한 측면을 보여준다. 25:9-12은 타락한 성읍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26장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읍에 대한 찬양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견고한 성읍에 대한 찬양(1-6), 의인과 악인의 삶(7-14), 환난 중 의인들의 간구(15-18), 소망의 기도와 권면(19-21)

1. 이사야에 수없이 등장하는 '그 날'은 언제인가?

심판 받을 자는 심판을 받고 구원 받을 자는 구원을 받는 날,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가 몰락하는 날: 앞장에서 언급된 그 날의 계속이다(24:21, 25:9, 27:1, 2, 12, 13). 일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때로 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종말의 때로 보아야 한다.

2. 그 날에 부르는 이 노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알기가 어렵다. 공동번역과 NKJV를 참고하면 1절의 '우리...'부터 6절까지이다. 무엇에 대한 찬양인가?

여호와와 의로운 나라에 대한 찬양: 7-18절은 의인의 기도다.

3. 유대 땅에 성과 관으로 둘러싸인 견고한 성읍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여호와와 의로운 구원: 견고한 성과 관으로 둘러싸인 성읍이 난공불락이듯이 여호와와 의로운 구원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4. 이 견고한 성읍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신(信)'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이다.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

유대인 자신들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겠지만 신약적인 의미로 본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를 가리킨다. 믿음을 가진 자가 곧 의로운 자이다.

5. 세상살이라는 게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은가? 어쩌면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것이 세상인지 모른다. 이런 세상에서 걱정거리에 눌리지 않고 살려면?

심지가 견고한 삶을 사는 것: 신을 지킨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없이 이 땅에서 마음 편하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6. 사람이 신의를 지키는 것이나 심지가 견고한 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여호와를 의뢰함으로(3, 4): 여호와를 의뢰하면 주께서 그를 지키시며 평탄케 하시기 때문이다(7). 자신의 노력보다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이 쉽다. 그 분께서 영원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이다.

7. 주 여호와와 영원한 반석이시다. 다른 말로 만세반석? 이 반석의 용도가 무엇일까?

피난처, 요새: 심판과 관련지어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곳이란 뜻이다.

8. 정상적으로는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으로는 아무 것도 이를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발로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낮추신 높은 데 거하는 자와 솟은 성을 밟는다(5-6): 이전에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었던 높은 데 거하는 자를 이제는 발로 밟을 수 있을 만큼 변할 것이다. 스달린이나 후세인과 같은 독재자의 죽음으로 인한 변화도 그러하지만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감히 쳐다보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거하는 사람이 많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정말 허무하게 쓰러질 것을 말이다! 하나님의 성읍이 우뚝 서는 날, 의롭지 못한 성읍들은 이렇게 무너질 것이다.

9. 어디 기다릴 데가 없어서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주를 기다리는가(8)?

심판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이 있기 때문이다. 아니 오히려 원수들을 심판하는 것이기에 반가운 것이다. 그러나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마저 반갑게 기다리는 것이다. 오라, 세상의 종말이여! 이제야 세상 사람들이 의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의롭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그제서야 알게 될 것이다.

10. '여호와여'라는 부름이 반복된다. 어디서 어디까지 몇 번이나 반복되는가?

8-19절까지 7번: 의인의 묵상(기도)이다.

11. 10-11절을 근거로 악인의 가장 큰 특징을 말한다면?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는 것(위업, 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악한 일이다.

12. 한때 우리를 관할하던 주 외의 다른 주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죽어서 기억에서 사라짐(14): 다른 주란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이방나라의 왕들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13. 예전에 좀 긴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기도 시간에 성경 전체를 훑기도 했는데 이와 비슷하게 의인의 기도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오가는 셈이다. 편의상 11-19절의 내용을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해 보자.

과거: 13a, 14-15, 과거에 이방나라에게 당한 압제와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과 이스라엘이 한때 강력한 국가를 이루었던 것에 대한 회고이다.

현재: 16-18, 임산부와 같은 고통에 처했음에도 헛수고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한 비판이다.

미래: 11-12, 13b, 19, 장치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대이다. 어차피 미래를 말하면서 과거를 언급하는 것은 과거에 이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장래에도 그러할 것이라는 고백이다.

14. 잉태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어떻게 견딜까? 남들도 다 당하는 일인데? 하와가 잘못해서?

이 고통 다음에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기대감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고통 다음에 바람을 넣었으니... 이런 허망함이 이스라엘의 현실이다.

15. 이스라엘의 현실은 마치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과 같다. 새 생명을 탄생시키지 못하였으니 어떡하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마저 살려내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을 자를 살려서라도 실패란 없다.

16. 이스라엘이 문을 닫고 밀실에 들어가서 숨어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므로: 여호와와 분노가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는 세상과 단절한 채 하나님만 목상하라는 것이다. 온 세상이 물로 심판받을 때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갔던 것처럼! 온 애굽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던 그날 밤에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서 죽음의 천사를 피하던 것처럼!

17.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면 어떻게 될까?

증거가 필요하다면 빠짐없이 많은 증거가 나타날 것이다. 땅이 삼켰던 피를 내어놓듯이!

이사야 27 장

1. 그 날에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대상은 무엇인가?

리위야단과 용: 우리말 개역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대상이 두 가지다. 그러나 번역본마다 제각각이라서 단정지을 수 없다. 어떤 역본은 세 가지(날랜 뱀, 꼬불꼬불한 뱀, 용)로 표현하고 어떤 역본은 세 가지를 동격으로 보아 하나로 번역하였다. 리위야단이란 뒤뜰어진 것, 돌돌 말린 것이란 뜻으로 큰 뱀이나 악어를 가리키는 말이다. 지금까지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되었던 나라들을 총칭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들의 배후 세력인 사단으로 보면 될 것이다.

2. 뱀이나 용이 죽임을 당하던 날에 이스라엘은 포도원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앞에서는 슬픈 노래였는데 (5:1-2) 여기서서는 아름다운 노래란다. 이 포도원이 왜 아름다운 포도원인가?

포도원지기 때문이다: 포도원지기이신 여호와께서 마음이 바뀌어 결국은 아름다운 포도를 맺히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5:6과 비교).

3.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돌포도를 맺었을 때 분노하셨던 그 분이 포도원에 유감이 없단다. 포도나무가 바뀌었나?

하나님의 마음이 변했다는 말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실 다른 방법을 찾으셨다는 말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물을 주며, 간수하여 아무도 상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겠단다. 구제불능인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양보하신 것이다.

4. 하나님은 포도원에 유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찔레와 형극을 향하여 양자택일을 하라고 하신다. 무엇과 무엇 중에서?

대적하든지, 화친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던 자들도 하나님과 화친하는 것이 가능한가?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롬 3:22).

5. 멸망하여 없어질 것 같은 이스라엘이 장차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라고 하는가? 성장 단계별로 정리해 보자.

뿌리가 박히고, 움이 돋고, 꽃이 피고, 결실하여, 지면에 가득 할 것: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유대인의 이야기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의 이야기이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의 모습이다.

6. 세월이 지나면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하고, 앗수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할 것이다. 다 같이 망해도 이스라엘은 좀 다른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치신들, 아무려면 죽으라고 치셨겠는가? 망하라고 치신 것이 아니라 징계를 위협이므로 강도도 다르지만 끝내는 회복시키실 것이다(히 12:6-8,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 이스라엘은 이 소망을 가져야 한다. 현재의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림자일 뿐이다. 진정한 회복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것이다.

7. 근동지방에서 동풍이란 파괴적인 바람이다.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신 이유는?

가만 두어도 동풍에 모든 것을 날려버릴 가능성이 있는 때에 조금 더 센 바람으로 징계하셨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폭풍으로 잃은 것에서 동풍으로 잃을 것을 빼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없듯이 징계하시는 척하셨을 뿐이란 뜻이다. 그래서 '적당하게 견책'하셨을 뿐이다. 징계 후에 이런 진심을 털어놓으셨다.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가?

8. 야곱이 속함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우상제거: 헛돌이란 석회암을 가리킨다. 부서진 헛돌은 석회가루를 생각하면 되겠다. 우상을 이렇게 부수고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9.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없는 백성의 견고한 성음은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없어질 것(10) 아무리 거대한 나라라할지라도 가지가 마를 것(11) 이 견고한 성음이 예루살렘을 가리키는지 바벨론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백성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없으면 이렇게 버려질 수밖에 없다. 그가 누구이든 풀이키라는 것이다. 하나님과 화친하라는 것이다.

10. 하나님께서 흠어진 자기 백성들을 돌이키시는 모습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는가(21-22)?

과일 추수: 떨어진 열매를 하나하나 주워 모으듯이.

군대 소집: 나팔을 불어 군인들을 소집하듯이.

이사야 28 장

[28-35장은 이사야의 두 번째 메시지로 내용이 7-12장과 거의 같다. 시대는 다소 차이가 있다. 7-12는 앗수르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아하스 시대)을 꾸짖는 데서 예언이 시작되지만 28-35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히스기야 시대에 대한 책망으로 시작한다(30장)]

1.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 '술에 빠진 자의 성', '영화로운 관',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 가리키는 대상은 하나다. 무엇인가?

사마리아: 면류관은 왕의 머리에 있는 모자다. 옛날 성은 높은 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모습이 마치 왕이 모자(관)를 쓰고 있는 것으로 비유하면 잘 어울린다. 더구나 가까이에서 이스라엘 평원과 샤론 평야가 있어서 기름진 곳이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로 후손들은 다른 지파와 골짜기 마찰을 일으켰다. 가나안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을 차지하였다. 르호보암에게 대적하여 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이므로 에브라임이 북쪽 이스라엘을 뜻하게 된다.

2. 그가 취한 자요 술에 빠진 자라고 말한다. 왜?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본별력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버렸다. 예루살렘을 사모해야 할 사마리아가 과거에 다른 나라와 손잡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다.

3. 영화로운 면류관이 결국 어떻게 되는가?

땅에 던져져 밟힐 것: 보석으로 치장된 면류관이 던짐을 당하는 것조차 이해하기 어렵다. 어떻게 밟아 밟힐 수가 있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이다.

4. 2절 끝의 손은 바로 그 앞의 강하고 힘 있는 자의 손이다. 구체적으로 누구의 손인가?

앗수르의 손: 앗수르 군대의 모습을 우박, 광풍, 홍수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것이 주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지만(2절의 '주께 있는')

5. 에브라임을 가리켜 '쇠잔해 가는 꽃'이라 했다가 '처음 익은 무화과'라고도 한다. 이 둘은 전혀 다른 의미인데? 시드는 꽃과 가장 잘 익은 과일이 어떤 공통점이 있길래?

곧 끝난다는 뜻이다.

6. 우리말에 '먼저 보는 놈이 임자'라는 속담이 있다. 본문에도 그와 흡사한 표현이 있다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도다(4)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사마리아는 먼저 보는 놈이 먹어치우듯 먹히게 될 것이다. 무화과는 과일이 없던 겨울이 지나고 제일 먼저 맺히는 과일이다. 더구나 처음 익은 무화과는 크고 달다.

7. 정신이 올바르게 못하면 인물 잘난 것이 복이 되지 않는다. 거지가 인물이 잘 생긴 것은 사업(?)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 에브라임에게 이런 면이 있다면?

기름진 골짜기의 꼭대기에 있는 성(1, 4) 차라리 기름진 골짜기가 없다면 적군이 그렇게 달려들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기름진 골짜기가 복이 아니라 적군을 불러들이는 독이 된다.

8. 주변에 기름진 골짜기(평원)가 있는 높은 성은 그야말로 영화로운 면류관이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일은 적게 해도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 마찬가지다. 뼈 빠지게 일해도 얼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꿈 같은 곳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나은 직장이 있다면?

여호와(5) 농사가 사회의 근간이었던 고대에는 기름진 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에브라임에게는 기름진 땅보다 여호와가 면류관이여야 했다. 현실적인 모든 복보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더 복되다. 하나님이 가장 자랑스러운, 가장 귀한 것이 되어야 진정으로 복되다.

9. 재판석에 앉는 것보다 제대로 재판할 능력이 더 중요하다. 성문을 지키는 직책보다 지킬 힘이 더 중요하다. 그럴 능력도 없이 자리만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본문의 비유를 근거로 생각해 보자.

개판이 되는 거지(8) 술을 과하게 먹고 상 위에 토했던 풀이다. 그 정도가 되려면 상 위는 말할 것도 없고 방안도 엉망진창이 되었음이 틀림없다. 술을 많이 마신 분들이 그 자리에서 토했다는 질척질척하니깐 빵에 웬 물이냐?면서 고무신으로 물을 퍼낸다고 벽에다 퍼올리기도 했단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겔보기에는 그럴 듯하지만 실상이 그렇다는 말이다. 재판석에 앉는 것은 내치를, 성문을 지키는 것은 외치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게 엉망이 되었으니 결론이 뻔하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재판이고 싸움이고 간에 저절로 되게 마련이다(6).

10. 남쪽 유다도 술에 취해 비틀거리기는 마찬가지다. 그들도 술에 취했다는 것은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는 것보다 더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마땅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자들이 외세(애굽)를 의지하고 기뻐하고 있다. 누가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술에 절어있다! 선지자의 관심은 유다에 있다. 그러면서도 사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은 사마리아를 타산지석으로 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상황은 이렇다. 유다의 왕과 방백, 제사장, 선지자들이 연회를 열고 있는 장소에 선지자가 나타나 사마리아에 대한 예언을 한다(1-6) '모처럼 선지자가 바른 소리를 하는구나' 싶어서 경청하는데 느닷없이 "이 유다 사람도..." 하면서 충격적인 선언을 하는 것이다.

11.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는 그들에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가리켜 무엇에다 비유하며 조롱하는가?

젓 떼면 아기에게 도를 가르치려는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겠단다. 우리 식으로 하면 '가방끈이 짧아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겠는데...' 하는 식이다.

12. 10절과 13절에는 '별 뜻이 없는 의성어'가 있는데 이것을 뜻이 있는 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문맥이 이상하다.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아기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지껄어듯이 지껄이고 있다고 조롱하는 것이다. 원어의 발음을 그대로 옮기면 '차브 라차브 차브 라차브, 카브 라카브 카브 라카브, 제이르 삼 제이르 삼'이 된다. 우리 말 성경에서 그 부분에 따옴표를 찍어 보자.

'경계에 저기서도 조금! 굳이 우리말로 한다면 '이러쿵 저러쿵, 저러쿵 이러쿵 궁시렁 궁시렁...' 정도이다.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느냐니까? '쌀라 쌀라...' 한다면?

13. 이사야의 경고를 어린 아기들의 뜻 모를 말로 치부하고 들은 채 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막힌 방법으로 징벌을 하신다. 어떤 징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한 대로 자신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듣게 하실 것: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씀하시리라는 것은 낯선 방언을 쓰는 자들을 동원하여 징벌을 가하겠다는 말이다. 그들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여 더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일본 순사들의 말을 못 알아들어서(일본말을 우리말로 착각하고 들으면 이상한 발음이 더러 있다) 수난 당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 방법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와 관련이 많다. 말을 듣지 않는 백성을 징계하는 방법은 들어도 알지 못하게 하고, 징조를 구하라는 데도 끝까지 거부하는 아합에게는 놀라운 징조를 주심으로 징계하셨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 가게 하신 것은 그 땅으로 하여금 안식케 하심이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였으니 너희는 누구라도 종이 되지 말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거부하면 다른 주인을 섬기게 하신다.

14.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염라대왕한테 미리 약을 다 써놔오니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녀석에게는 대책이 없다. 어떤 놈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가?

예루살렘의 치리자들(14): 사망과 어떤 언약을 맺었으며, 음부와 어떤 맹약을 했겠는가? 걱정없다는 큰 소리다. 여기서 사망과 음부는 앗수르를 의미한다. 그런데 왜 거짓과 허위를 피난처로 삼았다는 것일까? 어차피 앗수르도 믿을 수 없는 나라지만 자기들도 앗수르에게 거짓으로 복종하는 채 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15. 사망과 언약을 맺고 음부와 맹약하였으므로 재앙이 닥칠 리가 없다고 하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처리하시는가?

우박으로 소탕하고 물로 덮어버린다.

16. 재앙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덮치는데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19) 어딘가 어색하다. 개역성경 난하주에는 '그 소문만 들어도 두려우리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해두었다. 어떤 번역은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오히려 두려움이라'고 했다.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앞에서 젓먹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과 관련지어 보면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이 차라리 행복하다는 투의 말씀 같다. 어떤 해석은 '두려움이 닥쳐야 비로소 선지자의 말을 알아들을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17. 사망과 맺은 언약과 음부와 맺은 맹약은 별로 효력이 없을 것이다. 마치 무엇과 비슷하다고 하는가?

몸을 펼 수 없는 짧은 침대, 몸을 다 덮지 못하는 좁은 이불: 있어도 불편 없어도 불편,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18. 사망과 맺은 언약이나 음부와 맹약한 것은 재앙을 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거짓 피난처요 허위일 뿐이다. 거짓과 허위에 기초한 건물은 쉽게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진짜 피난처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신 기초를 뿐이다(16): 이 돌을 기초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이 돌은 시험한 돌이다. 믿을 수 있는 돌이라는 말이다.

19. 튼튼한 건물을 세우려면 기초가 튼튼하고 수직으로 똑바로 서야 하며 각 부분의 규격이 정확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건물을 세우시는지 재료와 두 가지 도구를 찾으라.

시험한 견고한 돌로 기초를(16) 공평의 줄로 정확한 규격을, 의의 추로 수직을 맞추다(17) 거짓과 허위에 기초한 건물과 아주 대조적이다.

20. 브라심산은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친 곳이며(삼하 5:18-20) 기브온 골짜기는 여호수아가 남부 동맹군을 격파한 곳이다(수 10:10-11) 바로 그 전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실 것이다. 왜?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 때에는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이었기에 어떤 대적도 그 앞에 설 수 없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대적을 이끌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는.

21.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농부보다 못한 분으로 생각하느냐는 비난이다. 왜 이스라엘이 이런 비난을 듣는가?

어떤 농부도 밭을 갈기만 하지는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이 경고만 계속 하겠느냐?

22. 소회향과 대회향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들을 추수하는 도구는 무엇인가?

도리때나 수레바퀴가 아니라 작대기와 막대기로 떠다(27)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그렇게 어설플 줄 아느냐?

23.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농부의 일에 비유하고 있다. 농부는 파종하고 갈고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 한다(25) 뿌리며 심고(26) 떠다(27) 하나님이 농부보다 어리석지 않은 이상 곡식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

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한다. 도대체 앓수르라는 나라를 불러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파멸이 목표가 아니라 추수가 목표라는 것이다. 농부가 곡식을 거둔 후에 밟음으로 밟기도 하고 수레바퀴가 지나가게도 한다. 이것은 곡식을 부수기 위함이 아니라 알곡을 거두기 위함이다. 징계를 말하면서도 희망을 감춰두고 있다.

경만(輕慢)하다: 비웃다. 조롱하며 거만한 태도를 취하다.

우심(尤甚)하다: 더욱 심해지다.

이사야 29 장

1. '아리엘'은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번제단'이라고도 한다. 의미는 다소 애매할지라도 가리키는 것은 명확하다.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예루살렘 성: '다윗의 진진 성읍'과 같은 말이다. 하나님께도 예루살렘은 소중한 곳이다.

2. 1-2절에 나온 네 개의 아리엘 중에서 하나는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다. 어느 것이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문맥으로 따져보자.

4번째 것: 개역성경 난하주에 '하나님의 제단의 면'이라고 주가 붙어 있다. 제단의 사면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피가 뿌려지는 곳이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3. 하나님께서 아리엘을 괴롭게 하겠다는 말이다. 어떤 괴로운 일이 생겼기에 아리엘이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말소리가 나직하게 날까?

적군이 포위하고 공성을 높이 쌓았기 때문이다(3): 적군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낮은 것이고, 기어 다녀야 한다. 이것은 앗수르의 침입을 말하는 것이다.

4. 연부년이란 '한 해가 가고 또 다른 해가 연이어'라는 뜻이므로 아리엘은 적어도 몇 년간 이런 괴로움을 당해야 한다는 뜻이다. 고통스러운 일이다. 실제로 성전의 금을 벗겨서 공물로 주고 행복을 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회리바람과 폭풍이 날려버리고, 맹렬한 불꽃이 사르듯이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다(6). 적군들은 마치 무엇과 같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가?

티끌이나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을 것(5): 이렇게 당한 사람은 산헤립이다(사 37:36). 그 과정은 잘 알 수 없지만 이 일로 대제국의 위대한 왕도 죽음을 당하고 만다.

5. 아리엘을 포위하고 있던 적군들은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이제 곧 함락이 되기만 해봐라. 행복하지 않고 버틴 죄 값을 톡톡히 치르게 해 주리라. 이사야는 그들의 희망을 어디다 비유하고 있는가?

꿈: 배부르게 먹고 깨어났는데 여전히 배고픈 것처럼 허무할 것이다.

6. 눈은 선지자요, 머리는 선견자라? 그래서 어쨌다는 말인가?

감고 눈은 선지자고, 덮인 머리는 선견자라는 말이다. 눈이 감기고, 머리는 덮였으니 선지자와 선견자가 어떻게 백성을 제대로 인도하겠는가?

7. 하나님의 말씀이 책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무식한 자에게는 소용이 없다. 유식한 자에게도 봉한 책은 소용이 없다. 오늘 우리도 성경을 이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자. 오늘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는가?

무식: 읽어도 모르겠더라.

봉한 책: 그냥 품으로 갖고 다닌다. 읽기는 읽는데 몇 번 읽었다고 자랑하는 것이 목적이거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8.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눈이 감겼다면 여호와와 책임 아닌가?

여기서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는 것은 심판의 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 자체이다(6:9-10). 정신 차리고 심판을 피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말이다.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도록 했느냐를 따져야 한다.

9.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증거는 무엇이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입과 입술로 여호와를 존경했다는 것은 형식적일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들의 입과 입술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마음이 없는 경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마음이 없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 뿐!

10. 자식이 부모를 괄보면 패륜이 되는 것처럼 '패리'란 뒤집는다는 뜻이다. 유다가 무엇을 뒤집었다는 말인가?

진흙과 토기장이, 피조물과 창조주, 토기와 토기장이: 진흙이 토기장이와 맞먹는 것,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하여 '언제 당신이 나를 지었는가?'라고 하는 것, 토기가 토기장이를 향해서 '총명이 없다'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유다가 하나님에게 자기의 도모를 숨기려는 것은 패리한 짓이다.

11. 17절의 레바논이 무슨 뜻인지 문맥에서 찾는다면?

삼림: 두 표현,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는 것'과 '기름진 밭이 삼림으로 되는 것'은 서로 '역'의 관계이다.

12. 귀머거리가 말을 듣고 소경이 보는 일은 언제 가능할까? 성경의 어디에 이런 언급이 있더라?

마 11:5,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나이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쓰신 말이다. 요는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사역을 가리키는 말이다.

13. 겸손한 자에게 기쁨이 더하는 것은 정상 아닌가(19)? 이것이 어떻게 기이한 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가?

겸손을 영어로 *humble*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는 '비천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원어도 마찬가지다. 겸손한

자라기보다는 '비전한 자'이다. 그 다음의 '빈핍한 자'와 대등한 표현이다.

14.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이하고도 가장 기이한 일'이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는 것일까(14)?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무래도 기이한 일이기보다는 징계에 해당한다. 더 기이한 일이 또 있는지 찾아보자.

레바논이 기름진 밭이 되고 기름진 밭이 삼림이 되는 것(17-21): 레바논은 삼림이 울창한 지역이다. 기름진 밭은 유다를 가리킨다. 그렇게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다의 입장이 뒤바뀌는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원가진 이스라엘은 찍혀나가고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진액을 섭취하고 있다(롬 11:17). 이 접붙임은 본성을 거스른 것이며 기이한 일이다. 귀머거리와 소경의 예를 보면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임을 알 수 있다.

패륜아와 같은 유다에 메시아를 보내서 결국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22-24)이야말로 진짜 기이한 일이다. 지독하게 말을 듣지 않던 야곱이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과 그 분을 경외하는 것은 정말로 기이한 일이다. 언제 이런 일이 가능할까? 로마서는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에게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롬 9-11장, 11:25-26)을 말하는데 종말 직전에 일어날 일이다. 23절을 개역성경의 난하주와 *NTV*(원문의 단수 '그'를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들'로 번역함)와 비교해 보라. *NTV*가 의미를 잘 살려 번역(의역)하였다.

이렇게 기이한 일이 생기는 것은 이스라엘이 기이한 짓을 했기 때문이다(15-16). 이스라엘이 행한 기이한 일은 '패리함'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뒤집어엮는 방법으로 기이하게 갚으셨다. 그러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고,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을 것이다.

15. 본문의 문단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제목을 붙여보자. 1) 1-4; 2) 5-8; 3) 9-12; 4) 13-16; 5) 17-24:

- 1) 1-4: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
- 2) 5-8: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자들도 징계함
- 3) 9-12: 징계 받은 이스라엘의 모습
- 4) 13-16: 징계 받아야 할 이유
- 5) 17-24: 기이한 회복에 대한 약속

이사야 30 장

1. 계교를 베를 뜰, 맹약을 하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을 제쳐두고 애굽을 의지하다니!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더욱 패썹한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지도 않는 것: 하나님께 물어보았더라면 애굽의 도움을 구하라고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실 것이다. 그러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좌우간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의지하고 바라기는 쉬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렇게 어려웠던 모양이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 보다는 잔고가 많은 은행통장에서 더 큰 평안을 얻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없는 계교나 맹약은 패역일 뿐이다.

2. 하나님 대신 의지하려고 했던 '바로의 세력'과 '애굽의 그늘'이 결국은 무엇이 되는가?

수치, 수욕: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보다 바로의 세력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보다 애굽의 세력 밑에 들어가는 것이 시원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수치와 치욕으로 끝날 것이다. 현실에만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한다. 소안은 애굽의 델타지역으로 이스라엘에서 가깝지만 하네스는 나일강 상류에 있는 아주 먼 지역이다. 방백들과 사신들이 그리로 찾아갈지라도 얻을 것은 수치와 수욕뿐이다.

3. 남방 짐승에게 무슨 경고를 하는가?

없는 것 같다: 여기서 남방은 네게브 즉, 사막을 가리킨다. 사막의 짐승이니 낙타를 가리키는 말이다. 낙타가 많은 짐을 싣고 가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선언(경고라기보다는)이다. '경고'라고 번역된 단어는 '무거운 짐'이란 뜻으로 번역이 가능하다(남방으로 향하는 짐승의 무거운 짐이여!). '오호 통재라! 무의미한 일을 하고 있는 나귀여! 그대 이름은 유다니라!' 이런 느낌이다.

4. 이스라엘이 행한 위험하고도 어리석은 짓은 무엇인가?

재물과 보물을 어린 나귀와 약대에 싣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땅으로 간 것(6-7): 사자가 나오면 나귀와 약대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런 노력이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남는 것은 수치와 수욕뿐!

5. 애굽을 가리켜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하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종이호랑이'라고 번역하였다. 왜 그럴까?

본문의 라합(רַחַב)과 여호수아의 라합(רַחַב), 발음은 라합에 가깝다(은 우리말이나 영어로도 같은 철자지만 원문 상으로는 전혀 다른 단어다. 본문의 라합(רַחַב)은 신화에 나오는 바다 괴물이다(욥 9:13, 26:12). 모양은 그럴싸하지만 실체가 없다. 의역을 하면 '종이호랑이'가 적합하다.

6. 서판에 기록하고 책에 써서 영영히 있게 해야 할 것(8)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 내용은 무엇일까?

12-14보다는 6-7절 아닐까? 즉, 애굽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7. 성도들이 목사님께 '책망하고 치는 설교대신 은혜로운 말씀을 하시면...' 했더니 목사님께서 이 구절(10절)을 인용하셨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가?

유대 백성들의 요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말이고, 성도들의 요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해 달라는 것으로 전혀 엉뚱한 답변이다.

8. 심판을 설명하면서 사용한 두 가지 비유, 불쑥 나온 높은 담과 그릇을 휘파하는 토기장이는 각각 심판의 어떤 성격을 말하는가?

불쑥 나온 높은 담: 심판의 신속성, **그릇을 휘파하는 토기장이:** 심판의 철저성

- 9.安然히 처하고 잠잠하면 힘을 얻고 대적을 이긴다니(15)? 그런 법도 있나? 뭔가 노력하고 애를 써야 힘을 얻는 것 아닌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간적인 노력(하나님의 뜻과 반대인, 이 경우에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그만 두라는 뜻이다(7:4, 출 14:14). 이 문장에서 관심을 뒤야 할 단어는 '돌이켜'와 '신뢰'이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노력은 높에 빠지는 것과 같아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 든다. 그런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10. '安然히 처하라, 잠잠하고 신뢰하라'고 하는데도 '말 타고 도망하리라' 빠른 짐승을 타리라'고 하니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나?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정 그러면 '그렇게 해보라'고 하신다. 그래서 결국 말 타고 도망가는 일이 생기지만 너희보다 더 빠른 대적이 따라 올 것이다. 말은 맛있지만 기대와는 달리 사로잡히고 말 것이다.

11.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17절)' 이것은 참으로 슬픈 말이다. 왜?

복 받을 때는 이와 정반대의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레 26:8, 신 28:7, 32:30, 수 23:10) 역으로 자신이 당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자신들이 받아야 할 복을 원수가 받고 원수들이 받아야 할 고난을 거꾸로 자신들이 받는 상태이다.

12. 남은 자는 산 꼭대기의 깃대 같고, 영 위의 기호 같을 것이라는 말이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어떤 느낌일까? 하나님의 의도는?

거의 전멸되겠구나(유대인들) ↔ 그래도 남고다(하나님)!

13. 징계만 말하고 말아야지 그러면서 또 회복을 말하니 겁을 안내지! 징계 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는가?

기다리고, 일어서고(18), 응답하시고(19), 스승을 주실 것(20-21), 우상을 싫어하게 하실 것(22):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한 언급도 없이 느닷없이 회복을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이 어떤 식으로 회개를 할 것이라는 언급도 없다. 회복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14. 공의의 하나님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이 무슨 상관인가?

공의의 하나님이란 표현은 대부분 심판과 관계있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은혜를 받을 자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으로 쓰였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를 결코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뜻이다.

15. 회복이 만사형통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도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실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정로를 가르쳐주는 스승이라고 하면 되겠지만 여기서 스승은 선지자를 가리키는 셈인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비록 어려운 형편에 처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셈이다.

16.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입맛이 변한다. 예전에 그렇게 좋던 것이 싫어지기도 한다. 담배나 술, 도박이 그럴 수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그럴까?

우상에 사용되던 은과 금: 손에 물을까 겁낼 것이다! 녹여서 다른 것으로 만들든지 팔든지 하면? 아예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을 만큼 부정확한 물건(=월경대, 개역성경의 난하주)으로 취급하게 될 것이다.

17.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복인가(23-24)?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입맛이 변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비를 주사 곡식으로 살지고 풍성하게 하신다. 그래서(=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분명히 복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도 이 땅에서 고생만 한 사람은? 특수한 경우나 특별한 사명을 받을 경우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18. 소나 나귀도 주인을 잘 만나야 한다. 왜?

주인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으면 소나 나귀도 아무 것이나 먹지 않고 '키와 육지창으로 까부르고(고운 거를 뜻함) 맛있게 한 먹이를 느긋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19. 고산준령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른다는 것은 상전벽해보다 더 큰 변화이고 축복이다. 있을 수 없는 복이 주어질 것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그 날이 큰 살육의 날이라?

이스라엘의 회복의 문맥이니 원수에 대한 살육이라고 보아야겠다. 무너지는 망대도 원수들의 망대를 의미할 것이다. 어린 양이 등장하는 날 '산들아 무너져 우리를 덮어다오' 하는 핏박자들의 울부짖음(계 6:15-16)과 흡사하다.

20. 원수들에게 쫓겨 어두운 곳에 숨어 살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달빛이 햇빛 같을 것이란다. 햇빛이 7배나 강해지면 괴롭겠는데?

살갓을 태우는 뜨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밝기처럼 쏟아질 것이란 의미이다. 어둠 속에서 두려워 떨던 자에게 태양이 솟아올라 기쁨을 주는 것의 7배(완전함을 의미)나 되는 기쁨을 줄 것이란 말이다. 여기서 빛의 강렬함은 상처를 치유하는 힘을 나타내기도 한다.

21. 여호와와 진노가 불붙듯 하고 하수같이 넘치는데(27-28) 어떻게 노래하고 피리(저)를 불며 즐거워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의 대적(앗수르, 32)을 향한 분노이기 때문이다. 앗수르가 다민족 국가임을 염두에 두면 '열방', '여러 민족'도 앗수르를 가리키는 표현임을 알 수 있다. 대적을 향한 분노야 크면 클수록 좋은 것 아닌가?

22. 왕을 위하여 예비된 도벳은 깊고 넓은데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단다. 거기에 여호와와 호흡이 유향 개천 같단다. 하나님께서 불기만 해도 타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잘 타겠다! 그러면 1) 이 왕은 어느 나라 왕을 가리키는가? 2) 도벳은 무엇일까? 예루살렘 근처에 불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 있었다는데... 좀 생각해 보고 난 후에 왕하 23:10을 참조하자.

1) **앗수르 왕(멜렉):** 원래 도벳에서 몰록에게 인신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몰록 대신 멜렉이 드려질 것이라는 언어유희이다(원어에서는 멜렉이나 몰록이나 철자가 같다. 자음만 보라).

2) 예루살렘 남서쪽 힌놈 골짜기에 있는 화장터란다. 악인들이 쓰레기더미처럼 불태워질 것이란 뜻이다. 힌놈 골짜기에는 쓰레기를 태우는 연기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신약에서 지옥을 가리키는 개헨이라는 말이 힌놈이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이사야 31~32:8

1.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왕들은 '웃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이다(1:1). 이 중에서 애굽을 의지하던 왕은 누구인가?

히스기야(왕하 18:21, 24): 28-35장의 내용은 7-12장과 비슷하다. 다만, 7-12는 아하스 시대에 앗수르를 의지하는 것에서 예언이 시작되었는데 28-35에서는 히스기야 시대에 애굽을 의지하려는 것에 대한 책망으로부터 예언이 시작된다.

2. 우리는 6.25를 생각하면 전차가 생각난다. 그 놈의 전차 때문에 혼비백산했던 경험이 있다.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물어본다면 전쟁을 생각하면 무엇이 가장 아쉬웠을까?

말이 이끄는 병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모양이다(1절의 말, 병거, 마병): 실제로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인데 말이 더 크게 보인 모양이다. 앗수르 군대가 이런 병거를 이끌고 세계를 제패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애굽의 말에 끌린 모양이다. 아무래도 하나님보다는 현실이 다급한 모양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예상하고 미리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어야 했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신 17:16)

3. 하나님께서 유독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기껏 종살이 하던 곳에서 구해냈더니... (왕하 17:7: 북 이스라엘이 망한 원인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드러난다)

4.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지혜로우신데 왜 재앙을 내리시는가? '...도'에 주목해서 생각해 보자. 또 누가 지혜롭다는 말인가?

애굽이나 유다의 지도자: '애굽에게 도움을 구한다고? 하나님께서 애굽보다 못하시다는 거냐? 너희만 피가 있고 하나님은 없는 줄 아느냐?'는 느낌이다.

5. 여호와께서는 '그 말을 번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정말인가? 징계를 말씀하시고도 돌이키신 적이 적지 않은데?

정말이다: 그러나 '너희가 끝내 내 말을 듣지 않으면'이란 전제가 붙어 있는 말이다. 수도 없이 징계를 말씀하시면서도 결국은 회복을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의 백성들이 돌이키면 언제든지 복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6.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가장 강력한 힘이 애굽의 군대였다. 그들의 말이 부럽기까지 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무엇으로 보이는가?

사람과 육체(신과 영이 아닌): 애굽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사람이고 말이다. 그것들을 '신'과 '영'에 대비시키면 정말 보잘 것 없는 것이다. 마치 3차원과 4차원을 비교하는 것처럼! 3차원의 존재들끼리 비교시키면 대단할지 몰라도 4차원에서 보면 장난일 뿐이다. 사람과 신, 육체와 영은 도무지 비교 대상이 아니다.

7. 충분한 설명도 없이 돌연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는가(27가지)?

사자와 새: 1) 사자가 먹이를 빼앗기지 않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내용상 산헤립에게서 보호받은 것을 의미한다(39장 참고). 왜냐하면 이사야의 사역기간 중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던 때는 히스기야의 통치기간이었기 때문이다. 2) 새가 날개 치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같이(신 32:11)

8.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모습을 네 개의 동사로 표현하고 있다. 세 동사(호위하며, 갇치며, 구원하리라)는 이해가 쉬운데 '넘어와서'는 무슨 뜻일까?

새번역에는 '다치지 않게 뛰어넘어서'라고 번역하였다. 뛰어넘어서 새의 동지를 다치지 않게 보호하겠다는 의미이다. 출 12장의 유월절에도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넘어간다'는 것은 곧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9. 선생님이 이런 저런 말씀을 아무리 많이 해도 결론은 '공부 열심히 하라'이다. 학교의 서무과장이 이런 저런 얘기를 해도 결론은 '공납금을 빨리 내라. 유리창 깨지 마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저런 말씀을 많이 하셔도 핵심은?

돌아오라! '심히 거역하던'이란 말은 하나님을 단순하게 떠난 것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배역하였음을 뜻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과정에서 '부인', '부인, 맹세', '부인, 맹세, 저주'의 과정을 밟은 것처럼.

10.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면 은우상, 금우상을 던져버리겠지만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을 때는 그것이 어떤 물건이었는가?

가장 애지중지 하던 물건들: 예수 믿기 전의 술, 담배, 노름과 같은 것이었다. 이것 없이 어떻게 사느냐는 사람이 적지 않다.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돈에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예수 믿고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인가!

11. 앗수르는 어떻게 엎드려진다는 말인가?

칼에 엎드려진다. 표면상으로는 칼에 엎드려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엎드려진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 사람의 칼에 엎드려지지만 실제로는 한 분,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고 함락이 그랬고 여호수아와 기드온의

승리가 그랬다.

12. 8-9에서 평행구절(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이 몇 번이나 있는가?

4번: 1) 칼에 얹어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 칼에 삼키울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2)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 그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3)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 그의 방백들은 기호(군기)를 인하여 놀라리라, 4) 여호와와 불은 시온에 있고 // 여호와와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이런 방식으로 기록되었음을 이해하면 문맥을 파악하기가 쉬워진다. 9절의 '그의 반석'과 '그의 방백들'을 평행구절이라는 것을 알면 반석은 앗수르 왕을 가리키는 셈이다.

13. 예루살렘에 여호와와 풀무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여호와께서 불로 표현된 장면을 생각해 보자. 이 불의 특징이 무엇인지!

선별적으로 태운다(=죄악을 소멸시킨다, 말 4:1) 광야에 나타난 불기둥은 추위를 막아주는 불이었고 가시떨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불은 가시떨기를 전혀 태우지 않았다(출 3장).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죽은 나답과 아비후는 불에 타죽었지만 옷이나 성막은 전혀 불에 타지 않았다(레 10장). 그러므로 여기서 이 불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적만 골라 태우는 불이다. 예루살렘이 불타고 있다. 여호와와 백성은 아무 상관 없고 적만 불에 탄다. 만약 간첩이 숨어 있었다면?

[32:1~8]

14. 제대로 된 왕은 무엇으로 나라를 다스리는가?

의와 공평(1) 의(체데크)와 공평(미쉬파트)은 이사야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덕목이다(사 1:21, 27, 5:7, 16, 16:5, 28:17, 32:1, 16, 33:5, 40:14, 56:1, 59:9, 14). 이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원리이기도 하다(시 97:2, 98:9, 99:4, 잠 1:3, 8:20, 21:3, 렘 22:15, 23:5, 33:15, 골 4:1). '집이 곧 국가다'라는 말과 비교해 보라.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전제군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대리자일 뿐이다.

15. 그는 어떤 왕인가?

광풍을 피하는 곳, 폭풍을 가리우는 곳, 마른 땅에 냇물,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과 같은 왕이다: 위대한 업적을 남기거나 태평성대를 이끄는 왕이 아니라 어려움을 피하게 하는 왕이다. 지금 이런 형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라서?

16. 그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1)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지식을 깨닫고 말을 분명히 할 것: 6:9-10, 29:10과 대조적이다. 어설픈 설교에 불만이 많은 성도는 눈이 번쩍 뜨일 표현이다. 그 분은 왕이라기보다는 뛰어난 말씀이다.

2)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궤환한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고(5) 고명한 일에 서리라(8).

17. 이런 왕이 나라를 통치할 것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러하지 않았다는 비판이기도 하다. 그들은 어떠했다고 말하는가?

어리석은 자, 불의한 자(6), 궤환한 자(7): 간사를 행하며, 여호와를 거스르며 주린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애지게 하는 자이며(=어리석고 불의한 자),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빈핍한 자의 정당한 말(권리)을 무시하는 자이다(=궤환한 자). 궤환: 간사하게 속임

18. 이와 같은 왕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메시야: 31장 끝부분에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더니 의로운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메시야의 왕국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다가도 어느새 훗날 메시야의 왕국으로 관심이 옮겨가 버린다.

이사야 32:9~33 장

[32:9~20]

1. 아모스가 외친 말 중에는 '바산 암소들아'란 말이 있다(암 4:1).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 채 태평하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사야는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32:9-11)라고 심판을 선언한다. 걱정거리라고는 없던 여자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지 5자 이내로 요약한다면?

외적(앗수르의 산헤립)의 침입: 당황할 일, 수확이 없고, 추수할 계절이 없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야? 벼로 허리를 동인다(큰 재난과 슬픔의 표시)? 형국과 질려가 날 것이다(농사지를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 일년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외적의 침입뿐이다.

2.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극히 아름다운 땅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범죄하고 심판을 받는 날이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 어떤 땅으로 바뀌는가?

형국과 질려가 나는 땅(13): 실제로 어떤 고대 기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가나안이 문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땅이 버림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은 수도 없이 많다. 문자 그대로 그렇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3.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모든 짐승들과 땅이 저주를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또 누가 저주를 받는다?

땅, 성읍, 집(13), 궁전, 산, 망대(14):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기보다는 인간을 창조하셨다. 인간이 창조의 가장 중심에 있으므로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자, 그를 위해서 만든 모든 무대장치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이 함께 저주를 받는 것이다.

4. 장계인가 싶더니(9-14) 순식간에 회복을 말한다(15-20). 선지자를 보고 정신분열증 환자라고 하지는 않을까? 사랑과 공의라는 정반대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지니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징계도 해야 하고 사랑도 해야 하니...

5. 성령을 부어주시면 무엇이 어떻게 변하는가?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될 것(15) =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의 건설: 아름다운 밭을 삼림(공동번역, 수풀)으로 여기다는 것은 이전의 종된 것이 별 것 아닌 것으로 여기게 되리라는 뜻이다(표준새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은 완전히 다르게 번역함, 영역본들이 개역과 일치함). 성령이 임하여 물질의 복이 쏟아진다? 물질의 복과 영적인 복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공평과 의가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16-18).

6.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다는 것은 밭의 소출과 삼림의 소출을 비교해 보면 된다. 삼림이 못하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별 것 아닌 것으로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다. 성신을 부어주시는 일이 실제로 신약시대의 일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두 개의 아름다운 밭과 광야, 그리고 삼림을 신약시대의 일로 본다면 무엇을 비유하는 것일까?

아름다운 밭: 영적인 유대인(=그리스도인),

광야: 이방인,

2번째 아름다운 밭: 육적인 유대인,

삼림: 유기된 유대인.

7. 광야에 웬 공평이 있고 밭에 웬 의가 있는가?

결국 온 땅에 공평과 의가 편만할 것이라는 말이다.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구별이 없이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것이다.

8.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했는데(롬 6:23) 의의 삯은 무엇이라고 할까?

화평, 평안과 안전(17)

9. 회복된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쉬고 있는데 상하고 휘파되는 19절의 '삼림'과 '성읍'은 무엇일까?

이스라엘을 치는 외적의 삼림과 성읍이다. 애굽에 재앙이 내릴 때에도 고센 지방에는 개도 허를 놀리지 않았던 것을 연상하게 하는 일이다.

10.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는 의미로 표현한다면 어떤 곳인가?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곳: 물이 귀한 이스라엘에서는 물가란 물이 마르지 않는 참으로 이상적인 곳이다. 씨 뿌린 곳에 소와 나귀를 모는 것은 농부로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다.

11. 씨를 뿌리고 그리로 소와 나귀를 물면 어떻게 되나?

싹을 뜯어먹지! 짐승들이 어린싹을 뜯어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풍요롭다는 뜻이다. 산짐승들이 모종을 짓밟는다고 난리를 치는 우리나라 농부와 비교해 보라.

[33장] 33장부터 35장까지는 같은 주제(자연의 회복과 완전한 누림)로 이어져 있다.

1. 성경이 말하는 황충은 단순히 메뚜기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때를 지어 날아다니며 땅 위의 풀 한 포기도 남기지 않는 해충을 가리킨다. (왕상 8:37, 암 7:1, 욥 1:4) 4절 번역이 애매하지만 원문 자체가 그렇다. '황충의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 노략물을 모을 것'이란 말과 '메뚜기의 뛰어 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 오르리라'는

말은 같은 내용의 반복이다. 그렇다면 '황충이 모이는 것같이 사람들이 너희 노략물에 모일 것'이란 무슨 뜻이 되는가?

'사람들이 너희의 노략물을 빼앗을 것'이라는 말이다. 입장을 바꾸어 보면 '사람들이 모으는 것은 너희가 빼앗기는 것이다. 노략물을 사람들이 황충이 달려들어서 먹어치우듯이 없애 버릴 것이라는 말이다.

2. 본문의 역사적인 정황이 분명하지는 않다. 그러나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1) '노략한 재물을 몽땅 빼앗기는'(4) 이런 상황이 이사야 시대에 실제로 있었다. 어떤 경우인가?

산헤립이 침공해서 히스기야가 조공을 바쳤음에도 다시 침입하여 포위하고 있다가 하루 밤에 185,000명이 죽임을 당한 사건과 몹시 닮았다(왕하 18-19장).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회개하는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말씀 아닐까?

3. 학대와 속임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2절이라면 그 응답은?

3절과 5-6절이다: 현실은 속임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지만 그 속에서도 평안함이 있는 것(6)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이다.

4. 당시의 유대는 앗수르의 위협 앞에서 애굽의 도움을 기대했지만 허사였다. 그런 유대를 향하여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그 어떤 것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고 힘이다.

5. 다시, 징계를 받아서 슬픈 모습(7-14)과 회복의 모습(15-16)이 그려진다. 슬픈 광경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산헤립의 군대와 관련지어 보자. 용사가 부르짖고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조공을 다 받아놓고 또 침입하여 항복하란다: 수도 예루살렘이 이렇게 포위되었으니 대로에 행인이 없는 것이나 다른 성읍이나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가장 비옥하던 네 곳(레바논의 울창한 산림, 사론의 목초지, 바산과 갈렙)이 대표로 언급되었다. 이런 곳이 황폐화된다면 다른 곳이 말할 것도 없다.

6. 아무리 혹독한 징계 속에 버려둔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설 때가 되면 일어나신다. '내가 이제'를 세 번이나 반복하는 것은(10)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다. 그렇게 되면 온 세상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던 앗수르의 노력은 어떻게 되는가?

거를 잉태하고 짚을 해산하는 것(11):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죽자고 고생만 하는 격이다.

자기 호홉의 불에 살라질 것(11): 호홉이 불이 된다면 숨을 멈추는 것 외에는 불에 살라지는 것을 피할 길이 없다.

7. '민족들'(12)이란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앗수르 군대를 가리킨다. 이들이 불에 굶는 회돌(석회같이 무른 돌), 즉 석회를 불에 태움같이,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같이 힘없이 무너질 때 구원을 받을 자는 누구인가?

경건한 무리들(15): 이들은 시온의 죄인, 경건치 아니한 자들(14)과 대조적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합 2:4)는 말씀이나 마찬가지다.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혼란스러워도 결국 높은 곳에 거할 자는 이들이다. 시온에 거한다 해도 죄인이나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8. 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견고한 바위, 양식과 물을 공급하신다. 이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루살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

예루살렘은 높은 산 꼭대기(견고한 바위)에 쌓아올린 성이다. 외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에 가장 적절한 곳이다. 문제는 양식과 물이다.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포위를 당해도 양식과 물이 있다면 결코 함락되지 않는다. 몇 년씩이나 포위당해서 자녀를 잡아먹는 일도 있었다. 외부의 샘물을 퍼오기 위해서 바위산을 파고 내려가는 굴을 뚫어 두었다. 아득한 옛날 여부스인들이 뚫었던 모양이다(삼하 5:8). 후일에 히스기야도 터널을 뚫었다.

9. 경건한 자들의 회복을 소개하는 10-16절과 17-24절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16절 이하를 자세히 보면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절과 17-18, 23

너무나 당연한 현실처럼 소개하고 있다.

시점이 다르다. 10-16절은 미래형으로 선포하지만 17-24는 과거를 회상하는 형식이다. 이미 경건한 자들이 회복된 상태에서 앞으로 당할 이민족의 침략과 수탈을 이미 지나간 과거의 기억으로 묘사하고 있다(특히 18-19, 23). 제대로 된 왕이 없어서 나라가 망할 것을 선포하면서 오히려 위대한 왕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광활한 땅을 정복한 왕의 시대를 그리고 있다(17).

10. 17절 이하의 내용도 장차 있을 회복을 노래하는 것이다. 그러나 잘 보면 현실의 아픔이 반영되어 있다. 현실은 대체로 어떤가?

두려운 압제자가 설치고, 그의 하수인이 악랄하게 수탈하고(18), 말이 통하지 않는 강포한 이민족이 압제를 가함(19).

똥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배와 같았다(23).

11. 아무리 강대한 외적이 예루살렘을 둘러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예루살렘은 마치 어떤 도시와 같은가?

결코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20): 말뚝이든 줄이든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항상 떠돌아다니던 유목민들에게 영원한 장막이란 꿈과 같은 곳이다.

넓은 하수나 강이 둘러싸서 보호하는 성읍(21) 신라의 수도가 경주인 것은 한 쪽은 산이 막아주고 한 쪽은 큰 강이 둘러 있어서 외적이 침입이 어려운 탓이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큰 배를 타고도 건널 수 없는 강이 두르고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는 말이다.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에 있는 성읍인데 외적이 가까운 곳에서 포위하면 이런 성읍이 몹시 부러울 수도 있겠다. 이스라엘에는 이런 성읍이 없다. 아마도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바벨론을 염두에 두고 있을지도...

12. 하나님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방식이 있을 수 없으니 말이 길어지고 여러 가지 표현을 나열할 수밖에 없다. 다음 표현을 현대식 표현으로 고친다면?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22)

삼권의 조정자: 사법, 입법, 행정권을 다 장악하신 분이시다.

13. 고난의 때에는 가장 비옥한 곳도 황폐화 되었는데(9) 회복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되나?

저는 자도 재물을 취할 것(23) 이 재물은 전쟁의 승리에 따른 전리품이다. 저는 자가 어떻게 재물을 취할 수 있나? 전리품이 매우 많을 것이란 뜻이다. 저는 자마저 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란 뜻도 된다. 뜻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처럼.

사론: 지중해 연안 옴바에서 갈멜산까지 이어지는 평원으로 훌륭한 목초지가 있다.

이사야 34~35 장

[33장에서 계속]

12. 34장은 최종심판을 말하고, 35장은 최종 구원을 말함으로 이사야서 전반부의 실제적 결론을 내린다. 그러면 1절의 '열국'과 '민족'은 증인일까 심판의 대상자일까?

하나님께서 하늘이나 땅을 불러 증인으로 삼으신 적은 더러 있다(1:2, 신 32:1). 그러나 여기서는 증인이라기보다는 심판 대상자들에게 와서 심판을 선포하는 것을 들으라는 것이다.

13. 하나님의 진노는 완전한 진멸을 불러온다. '살육당한 자는 내어던진바 되며'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어던지는 것'의 상대어를 생각해 보자.

매장내지는 정상적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시체마저 버려진다는 뜻이다. 그러면 악취가 진동하게 되고 피가 강물같이 흘러 산이 팍여 나간다. 이러니 시체를 어떻게 매장하겠는가? 엄청난 살육이 있을 것을 의미한다.

14. 이 심판이 단순한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우주적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중요한 단서가 있다면?

하늘의 만상(일월성신)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는 것(4): 천체의 변동은 최종 심판의 표징으로 사용된다(마 24:29, 계 6:13)

15. 25장에서 열국의 대표는 모압이었다. 이제는 에돔이다. 에돔(에서, 야곱의 형)은 이스라엘과 혈통관계가 있음에도 끊임없이 대적하였다(음 1장, 겔 35장). 에돔에 대한 심판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암시하는가?

희생제사: 어린 양과 염소의 피, 수양의 콩팥 기름이란 제사제물을 뜻한다. 번제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깨끗이 태워 없애는 것처럼 깨끗이 사라질 것이다.

16. 에돔을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5)은 에돔의 멸망이 어쩌다가 생긴 일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라는 말인데 그에게 내리는 칼을 어디에 비유하는가?

목마른 사람이 갈증을 해소한 후에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는 것에 비유함(5절의 '죽하게 마셨은즉')

17. 어린 양과 염소, 수양 외에 들소와 수소와 송아지가 한 가지로 도살장에 내려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덩치가 큰 짐승들도 예외없이 도살될 것은 신분의 고위 여하를 막론하고 심판이 시행될 것임을 뜻한다. 특히 들소(7)는 제사에 사용되지 않는 짐승으로 크고 힘이 세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을 것임을 상징하는 셈이다.

18. 에돔이 이렇게 끔찍한 살육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수'이기도 하고 '시온의 신원'이기도 하다(8). 하나님이 이런 복수의 화신인가?

복수라기보다는 신원이란 단어에 주목하는 것이 옳다: 신원이란 보상, 복수의 의미인데 그 동안 시온(유대)이 당한 고통을 회복시키는 의미가 강하다. 최후 심판은 미루고 미루었던 하나님의 분노를 터뜨림으로 하나님의 위치를 회복시키는 셈이다. 이걸 누가 탓하랴! 그 동안 참아주신 것만도 감사해야지!

19. 역청과 유황의 공통점은?

불에 잘 타다: 밤이나 낮이나 끊임없이 불길에 치솟아 오르는 모습은 최후심판 이후의 모습이다(막 9:48).

20. 에돔에 온통 퍼지지 않는 불이 타고 있는데 웬 짐승들이 이렇게 번성하는가?

불이 퍼지지 않는다는 말이나 짐승이 번성한다는 말은 동일한 의미로 땅이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된다는 말이다. 논리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옛날에는 달을 쳐다보며 감상에 젖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다. 그런 것을 논리적으로 따지면 안 된다.

21. 줄과 추는 무엇을 하는 도구인가? 여기서는?

줄과 추는 건축 도구이다: 혼란스럽게 하는 줄과 공허하게 하는 추라면 파괴를 의미한다. 혼란과 공허는 창조 이전의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운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다.

22. 에돔이 심판을 받고 무너지면 살판 난 것은?

짐승들이다: 신났다. 짐승들이 동류를 만나서 쉬고, 깃들이고, 알을 낳고, 짝을 짓고.....

23. 제비를 뺏아 땅을 나눠주신 것은 가나안 정복 이후의 일이다. 그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 그렇게 땅을 나누어주셨다. 짐승들도 아무데서나 제 멋대로 사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거주지가 정해져 있다. 짐승들이 자신의 거주지를 빼앗기지 않고 영영히, 대대로 거하게 된다는 것이 에돔의 심판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짐승들이 번성하고 잘 산다는 것은 반대로 에돔이 깨끗하게 멸망했다는 역설적인 표현이다. 그렇긴 하지만 짐승들의 번성을 너무나 자세하게 그것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아담이 범죄하고 징계를 받을 때와 노아 홍수 때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좀 다르다. 그 때는 사람에게 대한 징계가 곧 자연에 대한 징계로 이어졌다. 그러나 여기서는 에돔은 멸망할지라도 자연은 번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다음 장의 회복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인다. 마치 에돔의 멸망과 자연의 회복이 오버랩(overlap)처럼 그려진다.

24. 전통적으로 16절의 '이것들'을 여호와와 말씀으로 보고 '성경은 모든 구절이 짝을 이루고 있기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리와 하반절을 성경의 영감설을 증명하는 본문으로 사용한다. 그런데 앞뒤 문맥은 그렇지 않다. 짐승들이 번성하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책을 해석하는 원리나 영감설을 말하는 이유가 뭘까? 아니라면 '너희는 여호와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구절만 삽입구로 가정해서 빼고 읽어보라.

‘이것들’이 여호와와 말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17절의 ‘그것들’이 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은 명확하다: 삽입구로 친다면, 애돔 사람들은 철저한 징계가 가해져 모두가 사라진 반면에 짐승들은 빠진(떨종?) 놈도 없이, 짝을 이루어 잘 살고 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이다(=여호와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래야, 15, 16, 17절이 문맥상으로 자연스럽다. 다만, 이 때 ‘여호와와 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아마도 창세기?).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확실하게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살펴보라는 도전이다(참고 55:11).

[35장]

25. 앞장 끝에서 말한 것처럼 짐승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날 것이다. 자연의 소생을 말한다. 2절 가운데의 ‘그것들’은 영어로는 ‘They’이다.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지 광야와 메마른 땅을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다. 생각해 보고 다른 번역본들을 참고해 보자. 비슷한 구절이 40:5에 있다.

아무래도 일반주어로, 즉 ‘사람들이’로 번역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 우리말 개역은 광야와 메마른 땅을 가리키는 것처럼 번역되었다!

26. 자연의 회복을 말하면서 레바논과 갈멜과 사론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참고 33:9)?

징계 받을 때 대표였으니 회복될 때도 대표 노릇해야지: 레바논은 향기로운 백향목으로, 갈멜산은 웅장한 상수리나무로, 사론은 꽃들과 비옥한 목초지로 유명했다.

27. 3-4절은 ‘연약한 자의 소생’이라고 한다면 5-6절은 무엇이라고 할까?

장애자의 소생

28.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사야 35:5-6 을 가지고 대답을 대신하셨다(마 11:5, 눅 7:22). 무슨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메시아 시대의 표징으로: 예수께서 앵무새를 고치시고(요 5:8-9)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요 9:6-7)은 ‘내가 메시아라’는 선언과 전혀 다르지 않다. 이사야의 예언을 아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런 이적을 단순한 기적으로만 본 것이 아니다.

29. 7-10절도 일차적인 의미와 이차적인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일차적인 의미는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

포로 귀환: 대로(7), 돌아오되, 시온에 이르러(10) 등의 표현이 이스라엘이 시온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대한 묘사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연약한 자와 장애자는 육체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징계를 받아 어려움에 처했던 이스라엘의 형편을 가리키는 것을 포함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야의 예언은 항상 그러하듯이 일차적인 의미를 넘어서 이차적인 의미, 즉 메시아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다. 만물이 회복되고(사막, 약한 손, 떨리는 무릎, 겁, 소경, 귀머거리, 저는 자, 병어리, 메마른 땅, 우매한 자, 사나운 짐승이 사라질 것) 더 이상 상함도 없고 해치는 짐승도 없는 평화로운 곳, 영영한 희락, 기쁨, 즐거움이 있는 곳은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이다.

30. 대로란 고속도로인 셈인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구속함을 입은 자들: 일차적으로는 포로에서 귀환하는 유대인들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31. 이렇게 아름다운 낙원을 언급한 것이 여기가 처음이 아니다. 또 어디에 있었는가?

11-12장: 이스라엘의 징계를 언급하는 두 단원(7-12장, 28-35장)을 파라다이스로 마무리 하였다.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이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과 선지자의 목표니까 자연스러운 결말이다.

32. 본문은 초림을 말하는가, 재림을 말하는가?

이사야의 메시지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초림과 재림이 겹쳐 있다. 그러나 초림도 재림을 위한 예비 단계라는 점을 생각하면 매사에 재림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한다. 하나님의 목표는 초림의 십자가가 아니라 종말에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사야 36 장

1. 사 36장은 왕하 18장에 있는 내용이다. 비교해서 차이가 있는가 보라.

왕하 18:14-16이 없음, 그 외에는 거의 같거나 약간 축소시킴(왕하 18:32, 34절 ↔ 사 36:16, 19) 이사야는 왕하 18-19장과 동일한 자료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 틀림없다. 37장은 차이가 전혀 없다. 그런데 유독 히스기야가 산헤립에게 항복하고 성전의 금을 갖다 바친 내용만 왜 삭제했을까? 특별한 의도가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것은 36-37장을 쓰는 의도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36-37장은 이사야를 통해서 주어진 약속과 예언의 성취이다. 이사야의 본론(7장 이하)은 아하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군에 대해서 두려워 말라는 것이지만 아하스는 이것을 거절하고 앗수르를 의지한다. 선지자는 앗수르를 믿지 말라고 경고하고 하나님께서 앗수르에서 유대를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36-37은 그 약속의 성취이다. 그런 점에서 히스기야의 실수는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이니깐.

2. 라기스가 어디길래 앗수르 왕이 라기스에서 군대를 파송하는가?

라기스는 예루살렘의 남서쪽 평지(세펠라 지역, 좁게 보면 평지지만 크게 보면 골짜기다)의 가운데 있는 중요한 요충지이다. 예루살렘은 산악지대의 꼭대기에 있고 라기스는 평지 계곡 가운데 있다. 만약 애굽이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원군을 보낸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요충지이다. 산헤립이 라기스를 먼저 점령하고 본부를 차린 다음에 예루살렘을 치는 것이다. 산헤립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두 가지 유물을 남겼는데 하나는 자신의 공적을 기록한 석비이고 또 하나는 왕궁의 벽화인데 라기스를 공격하는 장면을 자랑스럽게 그려놓았다. 산헤립이 라기스 점령을 자랑으로 생각할 만큼 중요하고도 튼튼한 성읍이었다.

3. 랍사게가 선 곳, '세탁업자의 터의 대로 뒤편 수도구 곁'이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데?

이사야가 아하스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곳이다(7:3). 아하스가 끝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결과 북 이스라엘과 아람의 침입은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앗수르의 침입을 당하게 되었고, 선지자가 섰던 자리에 랍사게가 서서 위협을 하고 있다(7:3-17).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이 이런 식으로 되돌아 온 것이다. 좋은 말로 할 때 듣는 것이 약이다.

4. 랍사게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다(10).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하게 끌어다 붙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다. 자기가 이렇게 쳐들어온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면서 자신의 말을 정당화시키는가?

하나님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축소시키지 않았느냐(7)? 이방인의 시각에서는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신을 모독하는 것으로 보였던 모양이다.

5. 랍사게가 유다의 대신들에게 한 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 그 중에 어느 말이 듣기에 가장 아플까?

- 1) 4-5; 2) 6; 3) 7; 4) 8-9; 5) 10:

1) 4-5: 뭘 믿고 까부느냐? 입만 살아가지고!

2) 6: 애굽을 의뢰하지 말라. 상한 갈대 지팡이는 오히려 사람을 상하게 하는 법이다.

3) 7: 하나님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축소시키지 않았느냐? 이방인의 시각에서는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신을 모독하는 것으로 보였던 모양이다.

4) 8-9: 말을 준대도 말 사람이 있겠느냐? 강남의 아파트를 가져 준대도 유지비라도 있겠느냐?

5) 10: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아니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그랬다고? 겁이 없구만! 그래도 이 말이 가장 듣기에 거북했을 것이다. 교회가, 성도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이런 말을 듣게 된다. 이 말이 거북스럽다면 그래도 희망이 있다.

6. 옛날 전쟁은 그래도 운치 있는 전쟁이다. 어떤 점이 그런가?

백성들이 못 알아듣게 아람 방언으로 말해다오! 왕의 체면은 세워다오! 이런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랍사게는 고약한 놈이다.....?!

7. 두 번째 랍사게의 말(13-20) 중에서 12절과 16-17절은 많이 달라 보인다. 왜 그럴까?

12절은 대신들에게 공갈치는 말이고, 16-17절은 백성들에게 유화책을 쓰는 것이다.

8. 두 번째 랍사게의 말(13-20)도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1) 14-15, 18; 2) 16-17; 3) 18-20:

1) 14-15, 18: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2) 16-17: 항복하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원문에는 '항복하라'는 말 대신에 '평화를 누리자'는 표현을 썼다.

3) 18-20: 앗수르 왕보다 더 강한 신은 없다.

9. 랍사게가 하는 다음 말은 아주 그럴 듯하다.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36:16-17)'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 것이 정상인가?

항복하면 잘 먹고 잘 살겠구나: 이권 바보다.

죽지는 않겠구나: 정상이다.

다른 지방으로 끌려가겠구나: 말귀를 알아듣는, 눈치 빠른 사람이다.

랍사게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장을 미화하여 항복하라고 백성들을 유혹하는 말이다.

10. 잘 모르는 지명(하맛, 아르밋, 스발와임)이 많이 나온다. 모르는 지명이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앗수르에게 점령당한 곳: 이 지역의 신들이 다 앗수르 신 앞에 굴복했으니 여호와인들 별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이런 앗수르인들을 가리켜 이사야는 '간 큰 도끼'라고 말했다(사 10:15).

11. 랍사게가 하는 큰 소리(18-20)가 자기로서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신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는 말은 옳지 않다. 어떤 반론이 있을 수 있는가?

사마리아의 멸망은 앗수르의 위대함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범죄함 때문이다(왕하 17:7-8).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자기가 위대하기 때문이라는 말은 취소해야 한다. 그것 때문에 앗수르는 반드시 징계를 받게 된다(사 10:5-19).

이사야 37 장

1. 사 37장은 왕하 19장과 거의 동일하다. 그래도 차이가 있는지 찾아보자.

2절의 '어른'(왕하에 '장로,' 원문은 동일함), 7절의 '신'(왕하에 '영,' 원문은 동일함), 36절의 '시체'(왕하 35절에 '송장,' 원문은 동일하나 이사야에 한 단어가 추가됨), 15절이 왕하에서는 16절과 구분하지 않아서 이후에는 1절씩 차이가 남: 15절의 '그들 사이에'가 왕하에는 '그들을 위에'로 되어 있으나 원문상 차이는 없다. 표현상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번역상의 차이일 뿐이다. 질문의 의도는 이런 차이를 찾으라고 한 번 더 읽어보자는 뜻이다.

2. 옷을 왜 찢는가? 짧은 벴옷은 어떤 옷인가?

옷을 찢는 것은 자신의 몸을 찢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만큼 애통하고...

거친 옷이다. 산양(염소)의 털로 짠 것이며 검은 색이다. 가는 새마포는 반대로 부드럽고, 고급이다. 옷감을 가리키는 말로 80수, 혹은 100수라고 한다. 실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 털이 몇 가닥 들어갔느냐를 가리키는 말로 80수라면 80가닥을 모아서 실 한 올을 만들었다는 말이다. 수가 클수록 고급이고 부드럽다.

3. 다음 중에서 누가 제일 높은가? 누가 제일 중요한 사람인가? 히스기야왕, 제사장 중 장로, 선지자 이사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높고 낮음을 따질 일이 아니다. 서로 협력해서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가야 할 사람들이다. 어느 한 쪽이 높아져서도 안 된다. 권력이란 측면에서 보면 히스기야 왕,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비상시국이라서). 평소에는 백성들을 가르치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더 중요할 것이다. 위중한 병에 걸렸을 때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보다 치유의 은사가 있는 권사님이 더 낫다. 병이 나아도 그러서는 곤란하다!

4. 아이가 임신(해산이 임박)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수술(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다! 때가 되면 저절로 태어나는 것 아닌가? 이런 소리하다가는 마누라한테 맞아죽을 수도 있다. 자칫 잘못하면 둘 다 죽는다.

5. 히스기야가 이런 상황을 곤란, 책벌, 능욕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곤란: 적의 침입, **책벌:**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능욕:** 자신들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함(4절)

6.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히스기야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휘방하는 랍사게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흑시라도 들으셨을 것(4): 히스기야의 기대는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조금 실망스러워 보인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지 않는다.

7.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전한 말에서 신앙인답지 못한 표현들을 지적한다면?

'당신의 하나님,' '흑시,' '...하실까 하노라'(4): 신앙이 좋았던 히스기야도 이런 식으로 말하는가? 고대에는 왕과 선지자의 역할이 분리되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오늘 우리와 비교하면 많이 부족했으니 그렇다고 이해해줄 여지가 있기는 하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은 전혀 신앙인이 아니다.

8.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응답: 풍성을 듣고 돌아가게 하되 칼에 죽게 하리라(9절)

실제: 구스왕 디르하가가 온다는 소문에 라기스에서 일단 물러났다. 그렇게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버티다가 군사를 다 잃어버렸다. 적당한 선에서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끝까지 버티다가...

9. 구스 왕 디르하가는 애굽의 25대 왕조의 세 번째 왕으로 애굽의 왕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왕으로 꼽힌다. 당시의 애굽은 여러 소국으로 나누어져 있다가 구스에 의해서 대부분이 정복되었다. 그래서 이름은 출신지를 따서 구스 왕이지만 실제로는 이집트 왕이다. 앗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가 싸우러 온다는 말을 듣고 왜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냈을까?

'구스 왕에게 기대어 내가 끝까지 나와 붙어보겠다'는 거지?' 구스왕이 오는 것이 히스기야가 요청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기스는 예루살렘 남서쪽 45km, 립나는 예루살렘 남서쪽 40km 떨어진 곳으로 라기스의 북쪽이다. 디르하가와 싸우려면 뒤쪽의 예루살렘의 항복을 먼저 받아야했을 것이다. 산헤립이 립나에서 누구와 왜 싸운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10. 산헤립의 말(11-13)은 지금까지 자신이 정복해온 나라들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서 하는 말이다. 틀린 말이 있는가(10-13)?

말이 틀리지는 않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있다. 열국을 정복하는 것은 제가 잘 나서 한 짓이라 해도 유다를 침공하는 것은 유다를 징계하시려는 하나님의 도구이지 제가 잘난 탓이 아니다. 자신이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모른 채 도끼든 사람을 무시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사 10:15). 열국과 유다가 다르다는 것, 열국의 우상과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을 산헤립이 알지 못했다! 지난번에는 돌아가서 자랑을 늘어놓았다(왕하 18장 해설 참조). 산헤립의 비문에 '나의 굴레에 복종하지 않은 유다 왕 히스기야.....를 새장의 새같이 그의 수도 예루살렘에 가두었다' 물론 조공으로 받은 내용도 기록하였다. 금 30탈란트, 은 800탈란트, 보석, 상아, 궁녀... 이런 일로 돌아간 후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11. 지난번에는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하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왜 직접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직접 기도를 드렸을까?

그만큼 더 다급해진 것 아닐까? 답답해야 옆드리는 병은 예나 지금이나...

12. 앗수르 왕의 편지 내용을 지난번 랍사게의 발언(18:19-25, 27-35)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길: 짧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만 비난함.

대상: 지난번에는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더니 이번에는 히스기야만.

앗수르 왕이 철수할 모양이다. 다만, 그냥 가기는 열없어서 해보는 소리 아닐까? ‘저 자식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당연히 항복해야 할 고테...’ 하면서.

13. 일본이 고대에 한반도에 식민지를 경영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다. 경제적으로 대국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역사를 훑어보면 일본은 오랫동안 한반도의 문화적 속국이었다. 그런 일본이 저렇게 큰소리를 치다니 나원참! 본문에서 비슷한 현상을 찾는다면?

산헤립이 앗수르의 열왕들이 열방에 행한 일을 들어서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 역사를 안다면 우스운 일이기도 하다. 이스라엘은 BC 1050에 나라를 세웠는데 히스기야 시대는 대략 BC700년경이다. 앗수르가 강대국으로 등장한 것이 겨우 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최근에 디글랏빌레셀(아하스 시대), 살만에셀과 사르곤(사마리아 함락)이 등장했을 뿐이다. 큰 소리 더럽게 치고 있네!

14.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성전에 들고 들어오면 되나?

하나님을 자국(?)하려는 의도인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라는 뜻이니 하나님께서도 가상히 여기지 않으실까?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다.

15. 히스기야의 기도가 어떤 점에서 훌륭한 기도인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 자신의 필요가 있어서 하는 기도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할 이유가 더 정당하게 표현된 기도이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자신들이 살아나는 것이면서도 그것은 접어두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강조하고 있다. 약은 고가? 지혜로운 고가?

16. 히스기야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과 앗수르 왕이 말하는 신은 어떤 차이인가?

유일하신 하나님과 신이 아닌 나무와 돌.

17.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했단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말씀(21-29)을 이런 식으로 요약해 보자.

들었노라(21-25), 아노라(28), 혼내겠노라(26-27, 29).

18. ‘쳐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21) 언제 그랬지?

앞으로 확실히 그럴 것이라는 예언이다: 히브리 어법에 확실한 미래는 과거형으로 쓴다.

19. 왜 이스라엘을 쳐녀 딸이라고 할까?

앗수르의 왕 산헤립의 범죄가 흉악함을 간접으로 지적하는 셈이다: 순결한 처녀를 짓밟은 것이 얼마나 끔찍한 범죄냐는 말이다.

20. 작은따옴표(‘ ’)를 사용해야 할 곳을 지적한다면?

24절의 ‘내가’에서 25절의 ‘말리리라’까지: 앗수르 왕의 말을 인용한 것이므로.

21. 26절의 ‘이 일’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좁게는 앗수르 왕이 말하는 각 나라에 대한 정복이지만 넓게 보면 각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을 뜻한다: 앗수르가 번성하여 많은 나라를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의 수단으로 앗수르를 사용한 것 뿐임을 알라는 것이다.

22. 들의 풀, 나무, 지붕의 풀, 자라기 전에 마른 곡초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앗수르가 멸망시킨 나라들: 고고한 성이 돌무더기가 된 나라들의 허약함, 수명이 짧음을 표현함이다.

23. 아무리 적국의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갈고리로 코에 꿰고 자갈을 입에 먹여 끌고 갈까’(29)?

앗수르 왕들이 하던 짓이다. 사로잡은 왕들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간 그림이 앗수르 왕들의 비석에 남아 있다. 못된 짓을 하는 놈들에게는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제대로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24. 징조치고는 어떤 점이 이상한가?

지나고 나야 징조인 것을 아는 점: 대부분의 하나님의 뜻은 지나고 봐야 안다(출 3:12).

25. 앗수르 군대가 물러가고도 정상적인 농경생활이 몇 년 만에 이루어지는가?

3년 만에: 앗수르 군대와 싸우느라고 토지가 황폐해지고 백성들도 잡혀가거나 죽었기 때문 아닐까?

26. 이사야서에서 남은 자 사상은 대단히 중요하다.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한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뿌리가 깊고 질기다는 말인가?

여호와와 열심이 이를 이룰 것(32): 원인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홍수 심판으로 끝내지 않고 구속사를 이어가는 것이나, 이스라엘이 그렇게 범죄하여 깨끗이 버려져야 했을 것 같은데도 계속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려는 의지 때문이다.

27.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그만큼 투자가치가 있기 때문일까?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35):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리하신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시 23:3). 다윗을 위한다는 것은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려고 하신다는 뜻으로 결국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원인이 있다면 이 일은 벌써 취소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에도 구속의 역사

는 계속된다.

28. 어떻게 하루 밤에 185,000의 군사가 다 죽을 수 있나?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다. 애굽의 장자를 선별해서 다 죽일 수 있는 분이라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다.

29. 사 37:38절을 보면 산헤립을 죽인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은 그의 아들이다. 다음 왕인 에살하돈도 아들이다. 도대체 무슨 애간가?

아들들이 극심한 후계자 쟁탈전을 벌였다는 말이다. 참혹한 일이다. 7, 21-22절의 성취다.

30. 에살하돈은 산헤립의 막내아들이다. 앗수르의 기록에는 산헤립의 아들 명단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없다. 본국에도 없는 기록이 성경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흔히 국회속기록에서 삭제하듯이 앗수르에서는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삭제했을 것이 틀림없다. 이스라엘에서는 삭제할 이유가 없다. 열왕기의 기록이 명백한 사실의 기록이라는 좋은 증거이다.

이사야 38 장

1. 히스기야의 병이 자연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간섭하신 것임을 알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사야를 보내서 살지 못할 것을 미리 전한 것: 히스기야의 기도문에서 스스로 그렇게 인식함(17). 히스기야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특별한 경우였다는 말이다. 히스기야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이 있었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럴 필요를 느끼셨다는 말인가? 미리 귀뜸을 하고는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게 하면 즉시 없드리자.

2. '그 즈음'이 언제일까? 히스기야는 병이 나은 후에 15년을 더 살았다. 29년간 통치하였으므로(왕하 18:2) 병이 든 것은 히스기야 14년이다(BC 701). 이 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산헤립의 침공(사 36:1, 왕하 18:14)과 히스기야의 경거망동(왕하 18:13-18): 히스기야의 병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을 무시한 것에 대한 징계의 의미이다.

3.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하고 감사하지 울기는 왜 우나?

(나라의 장래가 염려스러웠던 것은 아닐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히스기야가 죽을병이 들었을 때는 산헤립이 침공해 왔을 때의 일이다) 이론이야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 쉽지 않으니 평소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감사할 줄 아는 훈련을 좀 하자.

4. 우리는 기도할 때 눈을 감는데 히스기야는 왜 벽을 향하는가?

눈을 감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함이다. 낮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물리친다는 뜻이다. 결국 하나님에게만 매어달리겠다는 점에서 동일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5. 죽는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2) 이런 식으로 달라진다면 하나님의 예정도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인가?

'하나님의 예정이 변한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되도록 예정되어 있었느냐?'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문제다. 우리 소관이 아니란 말이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죽을 목숨이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일이다(신 29:29 참조). 히스기야의 태도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예정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우리의 결단에 더 관심을 가지자.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려다가도 뜻을 돌이키신 적이 여러 번 있음을 기억하자.

6. 히스기야가 스스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다고 말하는 것은 간 큰 소리 아닌가?

우리가 보기에 히스기야는 부족한 점이 적지 않았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모양이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살면서 그렇게 노력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날마다 죄만 짓다가 주일이 되면 예배에 참석해서 울기만 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서는 곤란하다.

7. 6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든 것은 앗수르 군대의 위협이 있을 때 있었던 일이다. 왜 그렇게 통곡을 했는지 이유를 알겠다. 히스기야에게 이런 위급한 때에 이런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 것은 누구를 위함인가?

나(하나님), 너(히스기야): 하나님께서 구원조자 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이 성'이고 그 이유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이다(5-6).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려는 의도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다음 질문 참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사 23:3,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은혜가 된다.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역사가 되는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8.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네게 이를 증거로 이 징조를 네게 주리라'고 하시는 것을 근거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이유를 생각해 보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히스기야만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도 그럴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히스기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근거로 과분한 은혜(15년이나 생명을 연장)를 베푸신다.

9.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간다? 실제 일이라면 엄청난 일인데? 자전하는 지구가 역회전한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세상이 뒤집어질 일인데?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다. 다만, 이 때 일로 인하여 지구 자전궤도에서 40분 정도(태양은 1시간에 15도 나아간다. 24시간에 360도 회전하니까) 지체된 것을 천문학자들이 발견했다는 보고가 있었다는데 이걸 아무래도 심하다. 왜?

여기서 10도란 말은 10칸이란 말이다. 아하스의 일영표의 10칸이 오늘날의 10도와 동일하다고 말할 수 없다. 가령, 낮을 12등분 했을 때의 10칸이라면 자그마치 150도(10시간)에 해당한다.

10.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나 물러가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히스기야의 병이 나을 것을 확신케 하기 위해서? 그것보다는 '여호와와 말씀이 확실하게 응할 것에 대한 보증'(7)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겠다. 구체적으로는 히스기야의 병고침보다는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해야겠다(6). 이전 산헤립의 침공 때 성전의 금마져 다 벗겨 주었던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하다. 예루살렘을 앗수르로부터 보호해주겠다(6)고 약속하고 증거를 보여주었음에도 후일에 하나님을 의지 않고 바벨론을 의지한 것이 결국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원인이 된다.

11. 히스기야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왜 하필이면 이럴 때 죽어야 하는가?'라고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중년에(원어상 의미는, 내 날들의 고요함 가운데), 여년을 즐기지도 못하고? 고생이 다 끝나고 인생을 즐길 만 한 때에 죽게 된 사람이 하는 말과 비슷하다. '중년에'라는 말은 '인생의 황금기에' 라는 말이다.

12. 흔히 하는 말로 '죽는 거야 두렵지 않지만 ...' 히스기야가 죽음을 아쉬워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생존세계에서 여호와를 뵈옵지 못하는 것, 세상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실컷 볼 텐데 그게 무슨 걱정이냐? 좀 이상하긴 하다. 둘 다 동일하게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다(사람들을 보는 것이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한다).

13. 인생은 흔히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고도 하고,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아침 안개 같다고 하는데, 히스기야는 죽음을 어디에 비유하는가?

천막을 걷는 것, 베들에서 천을 꿰어내는 것.

14. 히스기야가 제비와 학같이 지저귀고 비둘기처럼 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죽음이 두려워서' 이것은 상식적인 답이다. 본문을 공부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근거를 두고 대답해야 한다) 본문을 근거로 답을 한다면?

아침까지 견디었으나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았기에: 밤새 고통 가운데 뒹굴었다라도 새벽이 되면 고통이 좀 감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사자같이 모든 뼈를 펴으시니...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는 것은 눈이 쇠하도록 주를 앙망하는 것이다.

15. 고통 가운데 밤을 지새우던 히스기야에게 드디어 서광이 비친다. 어느 부분부터 얘기가 달라지는가?

14절 중간, '여호와여'부터, 혹은 '나의 눈이...'라고 해도 되겠다: 여기서 말하는 억압이나 중보는 둘 다 법정용어이다. 빛진 자가 빛에 시달리는 것이 억압이고 그 빛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는 것이 중보이다. 주를 바라보며 주께서 보증을 서주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시작이다. 자기 고통만 바라보던 히스기야가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린다.

16.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히스기야의 입에서 드디어 다른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온다. 기도와 찬양과 결단이 뒤섞여 있는 것 같아 보인다. 기도의 핵심은 살려달라는 것이 틀림없다. 찬양의 핵심은?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하나님께) 있고, 혹은 17절: '종신토록 각근히(우리말은 '부지런히'지만 원어는 '엄숙한 행진'을 뜻한다) 행하리이다'는 결단 혹은 회개라고 보면 되겠다.

17. '하나님께서 큰 고통을 주신 것은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는 히스기야의 고백이 맞는 말인가?

히스기야에게는 맞는 말이다. 아니, 히스기야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옳은 말이다.

18. 히스기야의 생각으로는 사망의 고통이 왜 자기에게 왔다고 생각하는가?

죄(17): 멸망의 구멍이 갸지셨다는 말에서 '멸망'이란 허무, 부정을 뜻하는 말이다. 즉,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한 데서 자신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는 고백이다. 산헤립의 침공을 받아서 다급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성전을 금마져 벗겨 주었던 잘못을 가리키는 셈이다.

19. 죽음에서 벗어난 히스기야는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하심을 자녀에게 전할 수 있음을 기뻐한다(19). 그냥 죽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주께 사례하지 못하며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할 뿐 했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죽은 자는 이렇게 비참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형벌로 죽을 수는 없었다.

20. 히스기야가 병이 나을 때 기록한 글의 요지는 철저하게 예배와 관련이 있다. 죽을 수 없는 이유와 죽음에서 벗어난 것이 기뻐 이유가 그러하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생명이 연장되면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는가?

여호와와의 전에서 찬양: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할 일이 찬양 아니던가!

21. 무화과 반죽이면 될 것을 가지고? 병에 대해서 무식한 탓 아닌가?

무화과 반죽의 위력이 아니다. 예수께서 소경을 고치실 때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고치신 것과 유사하다. 아마 비슷한 병이 다시 들면 무화과 반죽이 효험이 없을 걸...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케 함이다. 대하 32:24에 이 행위를 이적이라고 말한다.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안수를 하거나 능력을 행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좋아하신다.

이사야 39 장

[역사적 배경]

바벨론 왕 므로다발라단(부로다발라단 왕하 20: 12)은 BC 722년에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던 앗수르에 반란을 일으켜 바벨론을 통치하다가 앗수르 왕 사르곤에 의해 쫓겨났다가 다시 회복했으나 사르곤의 아들 산헤립에게 또 추방당했다. BC 702년에 엘람에 근거지를 정하고 앗수르에 대항하고 있었다. 이 때 히스기야의 병 나은 소식을 듣고 앗수르에 대항하기 위한 군사동맹을 목적으로 사절단을 보냈을 것이다. 아직은 단독으로 앗수르에 맞설 힘을 가지지 못했던 때이다. 산헤립이 히스기야를 공격하던 때(병든 때가) BC 701년이다.

1. 바벨론은 후일에 유다를 멸망시키는 나라이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대국이 무엇 하러 이 작은 나라에 사절단까지 보냈을까?

군사 동맹을 위해서: 바벨론이 후일에 강대국이 되지만 현재로서는 힘없는, 앗수르의 속국이기 때문이다. 히스기야가 거드름을 피워도 될 만큼 약한 나라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히스기야가 경험한 기적에 관한 것이었을 것이다(대하 32:31).

2. 앗수르는 위험 세력이고, 바벨론은 우호 세력이다.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보물을 보여준 것'은 초등학교 아이들의 맞는 답이고...

일종의 교만이다. 산헤립에게 쫓겨났던 그가(왕하 18:13-16) 좀 형편이 나아졌더라도(대하 32:22-23, 27-31)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했다. 돈 있다고 티내지 말고, 아는 게 좀 있다고 티내지 말자.

3. 이사야의 질문에 대한 히스기야의 답변 '원방에서 왔나이다'는 자랑일까? 변명일까? 가능성이 양쪽으로 있다고 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보자.

자랑이라면: 먼 곳에서 자신이 왔다는 것은 자신의 업적이 널리 알려졌다다는 자부심이 담고 말이었을 것이다.

변명이라면: 먼 곳에 있는 나라이므로 유다에 그리 위협적이지 않다. 이렇게 멀리서 왔으니 환대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4. '그들이 무엇을 보았느냐?'는 이사야의 질문에 대한 히스기야의 답변하는 태도는 어떠한가?

솔직하다: 이것이 철없는 태도인지 반성하는 태도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아무래도 전자 같아 보이는데... 병이 나은 것과 바벨론의 사자가 온 것에 대해서 다소 흥분한 것 같다.

5. 이사야의 선고를 히스기야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바벨론은 앗수르의 압제를 받고 있는 약소국인데 어떻게 유다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질까?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이었을 것이다.

6.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것이 결국은 히스기야의 잘못 때문이네?

전체적으로 유다 역사를 보면 그 일이 히스기야 때문이 아니라 민족적인 범죄행위 때문이다. 히스기야의 교만이 일조했음은 틀림없지만 전적으로 이 일 때문만은 아니다.

7. 끔찍한 선고에 기꺼이 순응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은 다윗의 어떤 모습을 연상시키는가? 아마도 이런 점 때문에 그의 생전에는 태평과 진실이 있었을 것이다.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바로 회개하는 다윗: 엘리도 그랬고, 다른 선지자들도 그랬던 것 같은데?

8. 무엇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히스기야를 넘어지게 하였는가? 질병? 전쟁?

자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위기를 넘기고도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공로인 양, 자신의 방법으로 살려나가는 태도 때문이다. 그럴 능력이 없으면 차라리 자랑할 것이란 하나도 없이 하나님만 바라고 사는 것이 더 복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의 방법으로 지키는 것은 위험하다. 없을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있으면 재물을 의지하는 비극! 월드컵에서 선제골을 넣고 흥분하다가 퇴장 당하고 결국은 시합에 지고 말았다(하석주). 받은 은혜를 잘 보관해야 한다.

이사야 40 장

1. 이사야서의 내용상 큰 특징은 책망, 징계, 회복의 반복이다. 40장은 어느 단계인가?

회복: 위로하라(1), 정다이 말하라,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입었고, 배나 받았느니라(2)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되어야 하는 존재가 된 것은 39장이다. 39장까지 1권으로 보고 40장부터 제 2의 이사야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39장을 별도의 책으로 나누어 버리면 40장은 근거가 없는 책이 된다. 느닷없이 위로하고, 징계가 끝이 났다? 앞쪽에 복역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 정상이다. 한 개의 양피지에 기록하기에는 엄청나게 큰 부피임에도 사해사본이 발견될 때 이사야는 두 개의 두루마리가 아니라 1개의 두루마리로 발견되었다. 제 2 이사야를 주장하는 주된 이유는 41장에 등장하는 고레스 때문이다. 고레스는 히스기야보다 100여 년 후의 사람이므로 이사야가 예언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비평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말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 다음 설명의 빈 곳에 알맞은 나라 이름은? 1-39장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사야 시대(웃시야, 아하스, 히스기야)이다. 37장까지의 내용은 ()의 왕 산헤립으로부터의 구원이라면 이제부터는 ()으로부터의 구원, 더 나아가서 메시아의 구원(초림), 최종적인 구원(재림)으로 나아간다. 40-56:8의 배경은 () 포로이다.

앗수르, 바벨론, 바벨론

3. 1-3절은 헨델의 메시아에서 첫 번째 서창(테너)의 가사로 쓰일 정도로 운율적인데(특히 원어) 우리 개역성경은 그 맛이 없는 셈이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를 빼고 나머지만 고쳐보자. 원어는 그 말이 먼저 나오기 때문이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영어(NIV)는 *Comfort, Comfort, My people*이고, 원어 발음은 '나하무, 나하무 암미'이다. 우리말은 음절이 길어서 어쩔 수 없네!

4. 이스라엘은 중도사면인가? 만기 출소인가?

만기 출소: 그러면 하나님께 굳이 감사할 것도 없네? 하나님을 배반하고 끝내는 이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형벌을 이 정도로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용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만기 출소하고 땃땃할 수 없다. 영영 버리지 않고 일정한 기간만 벌한 것에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 사형에 처할 죄인을 조금 맛만 보여주고 데려나오면서 '만기 출소 했으니, 수고했다'고 하는 셈이다.

5. '배나 받았느니라'는데 무엇을 배나 받았는가?

벌: 벌을 충분하게 받았다는 뜻이다. 자신들의 죄에 비한다면 결코 충분한 벌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말이다.

6. 3절의 '광야에서'라는 구가 무엇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진다. 본문처럼 '예비하라'를 수식하는 경우와 난외주처럼 '외쳐 가로되'를 수식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 자연스러운지 생각해 보자.

양쪽으로 해석이 다 가능하며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신약에 어떻게 인용되었는가를 살폈다면 잘한 일이다. 신약은 4번(마 3:3; 막 1:3; 눅 3:4; 요 1:23) 전부 후자이다. 그것은 신약이 구약을 직접 인용한 것이 아니라 70인역 헬라어 성경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약에서는 이 광야의 소리를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용하고 있다.

7.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었다. 백성들이 전부 포로로 잡혀가고 없는 광야에서 외로이 있던 소리가 드디어 할 일이 생겼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3) 그 외침이 유다의 고난이 끝난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호와와 길, 하나님의 대로를 통행할 자들이 바로 유다 백성들이다. 즉 유다백성들이 돌아오는 길을 위해서 대로를 예비하라는 것이다.

8. 외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두 가지를 지적하라.

골짜기마다 돌우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4) 대통령이 행차하면 없던 길도 생기고, 청소차가 요란스레 돌아다니는데 감히 하나님의 행차에 골짜기가, 산이 그냥 가만히 있어? 고속도로가 생겨날 것이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될 것임을 암시한다.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5) 겔 11장에서 사라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난다. 출애굽 시에 불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날 것이다.

9. 외치는 자의 소리가 다시 외칠 때 마르는 풀은 누구를 가리킬까(6)? 복역의 때가 끝나서 돌아오는 이스라엘이 풀처럼 마른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사라진 듯이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좀게 본다면 영원히 싱싱할 것만 같은 바벨론을 가리킨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내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며 영원히 쇠하지 않을 바벨론은 풀의 마름같이 시들어버릴 것이다. 포로로 잡혀 고생하는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바람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다.

넓게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못한 모든 인류: 이스라엘마저도 포함하는 인생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사 40:31)

10. 열심히 외치던 '소리'의 최종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보라: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왜 이렇게 묘사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앞장서시고 이스라엘은 뒤를 따르는 양때 같은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말한다(12).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보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성도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다. 범죄로 하나님이 떠나고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아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과 얼마나 대조적인가?

11.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임하셔서 친히 다스린다는 말도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그런데 여기에다 더 기분 좋은 일이 있다면?

상급과 보응이 그에게 있는 것: 매를 들고 다스려도 순종할 판인데 매는 없고 상급과 보답용 선물만 있다면야 더욱 좋지 않을까!

12.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12-26절까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하는지 한 단어로 나타내 보자.

절대자: 비교할 대상이 없다는 점이 강조된 점에서 창조자보다 절대자라는 것이 더 어울린다. '누가(누구와) 감히 ~ 하겠느냐?'는 표현이 7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비교할 자가 없다는 말이다.

13. 이스라엘의 회복을 외치고 노래하더니(1-11)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12-26)은 웬일일까?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면 확실한 것 아니냐? 누가 나서서 감히 방해하겠는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27)?

14. 하나님을 온순하게 양을 모는 목자라고 하더니(10-11) 갑자기 이렇게 대단하신 분(12-26)이라고 말하나?

그의 백성들에게는 온순한 목자, 대적자들에게는 이렇게 위대하신 전능자, 창조자이시다.

15.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나 큰지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했다(찬송가 404). 하나님의 높고 높음을 이와 비슷하게 표현한 말을 본문에서 찾는다면?

16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러면 레바논보다 훨 풍성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감당하나? 실제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지극히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이다. 진짜 예물인 독생자가 있기에 작은 예물도 기쁘게 받아주셔서 가능했다.

16. '손바닥, 뿔, 되, 명칭(어패저울), 간칭(손저울)'의 공통점은?

측량 도구: 하나님의 피조세계조차 측량할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측량하겠는가! 문명이 발달한 현대에는 좀 나아졌을까?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그건 우리끼리의 이야기일 뿐, 하나님께서 허락치 않으시면 문명의 발달이 하나님을 아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7. '물둥이의 물 한 방울, 저울에 얹힌 티끌 하나, 떠오르는 먼지'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당시의 내로라 하는 나라들: 흔들리는 나라의 운명을 바라보면 주변의 강대국들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면 이 나라들이 '붓고 남은 물 한 방울, 있으나마나한 티끌이나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

18.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시는가?

땅위 궁창에 앉으신 분(22): 높은 곳에 앉아서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자이시다.

19. 동물이든 식물이든 간에, 아니 아무리 작은 미생물일지라도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가 얹히고설켜 삶을 이어간다. 창조주의 놀라운 섭리 하에서 창조되고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본문에서 그것을 의미하는 표현은 무엇인가?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본질을 꿰뚫고 있다는 말이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하나도 빠짐없이 만상의 이름을 불러낼 자는 없다. 미물 같은 생물이라도 살아가는 지혜를 보노라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20. 야곱이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경우에도 이들이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생각해 보자.

자신들의 잘못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으로 생각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고 대답하신다.

21. 아이들이 설치는 것은 말리기 어렵다. 장정을 넘어뜨리기도 어렵다. 아이보다 장정보다 더 힘 있는 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이 이처럼 새 힘을 얻어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같이 회복될 것이다.

이사야 41 장

1. 바벨론에서 보면 섬들이란 육지가 끝난 다음에 있는 것이다(5절 참조). 땅 끝보다 더 먼 곳이다. '섬들이 잠잠하라'는 것은 '온 세상이 잠잠하라'는 말이다.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탄 소리하지 말고 힘을 다해서 토론하자고 하신다. 무엇에 대해서?

동방에서 사람을 불러 열국을 그 앞에 굴복케 하는 이가 누구냐(2-3)? 특출한 왕이 등장해서 이 모든 일을 할 지라도 그를 세워 이렇게 일을 하시는 이는 나 여호와라는 말씀이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세속 역사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2.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2)를 다른 한글 역본들은 '누가 그를 가는 곳마다 승리(=원문의 '의')하게 하였느냐?'로 번역하였다. 원문의 해석이 어려운 탓이다. '의가 누구를 불러 그의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누가 그 의를 그의 발 앞에 불렀느뇨?' 등으로도 번역이 가능하다. 이런 번역을 참고한다면 한글 개역의 세 동사(불러서, 이르게, 하였느뇨)의 주어는 각각 누구인가? (영역본들도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자기가 하나님을 가리킨다면 '하였느뇨, 불러서'의 주어는 하나님이시고 '이르게'는 의가 주어다. '자기가 동방의 한 사람을 가리킨다면 '불러서'의 주어는 동방의 한 사람, '이르게'의 주어는 '의', '하였느뇨'의 주어는 하나님이다. '의'라고 번역된 단어가 '승리'로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혼선이다. 동방의 한 사람의 성격이 '의로운 통치'에 있으므로(42:1, 42:6과 일관성 유지) 단순히 승리로만 이해하는 것보다는 '의'로 이해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개역의 번역이 적절하다는 뜻이다. 원문이 다소 애매하므로 번역이 애매한 것은 비난받을 일이다.

3. 동방에서 하나님께 불려와 열국을 굴복케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사야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몇 장을 계속 읽으면서 찾아보자.

고레스(44, 45 장): 고레스는 하나님의 선지자도 신앙인도 아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세우고 쓰셨다. 그러나 단순히 고레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 땅에 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메시아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

4.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만 터지면 어디에 매달리는가?

목공, 메질근, 금장색이 만든 우상을 의뢰한다: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온 세상을 정복하자, 민족들이 자구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상을 손질하는 것이다.

5. 금장색은 금을 얇게 펴서 우상을 만든다. 금을 고르게 잘 펴서 만든 우상과 솜씨가 좀 떨어진 금장색이 만든 우상은 어느 것이 값이 더 나갈까? 못질을 단단하게 해서 흔들리지 않는 우상과 좀 흔들리는 우상은 어느 쪽이 더 효력이 있을까?

다 소용없는 것이다: 요는 사람이 만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말이다. 잘 만든다고 더 나은 것도 아니고 잘 못 만든다고 애통해 할 것 없다. 애초에 효력이 없는 것이니...

6. 이스라엘을 가리켜 종, 택한 자, 벗이라고 하신다. 도대체 어느 말이 맞는가?

다 같은 말이다: 인관을 가리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노릇 하는 것이나 문지기나 동일하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은 종노릇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

7. 본문에는 야곱의 현실이 어떠한지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이 많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만 지적한다면?

지렁이(14): 땅 끝에 있다(9).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다(9). 두려워하고 있다(10). 전쟁에 패하여 압제를 당하고 있다(11-13).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갈증에 목말라 하듯 하나님을 찾고 있다(17). 실제로 바벨론에 포로로 가서 강도를 쌓은 대규모 토목 공사에 동원되어 고생하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지렁이나 마참가지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고 하신다.

8. 이스라엘의 구속자는 여호와라고 하신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란다. 그러면 2절에서 말한 '동방에서 불려온 사람'은 무슨 소용이 있나?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이다.

9.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겠다고?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만들겠다. 그러면 원수는? 이 기계에 부서지고 타작한 것처럼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일으켜 대적과 싸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므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였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는 것이 더 좋은 답이 되겠다.

10. 이스라엘 땅에는 강, 샘, 못이 별로 없다. 그런 땅에는 강과 샘과 못이 가장 귀한 선물이 될 것이다. 마참가지로 광야나 사막은 무슨 선물이 가장 귀한 선물이 될까?

무성하게 나무가 자라는 것: 광야에 백향목과 시땀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나는 것처럼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그제서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게 되리라.

11. 이스라엘의 구원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 전장에서는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다. 본장의 8-14도 그런 셈이다. 15-19는 원수를 깨끗하게 정복하는 모습과 산천초목이 완전히 변해버린 모습이다. 어느 쪽이 진짜일까?

둘 다 맞다: 이스라엘의 구속을 말씀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메시아에 의한 구속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15-19는 메시아로 인한 온전한 구속을 뜻하는 것이다. 사막에 물이 흐르는 것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메시아의 세상을 언급하는 표현이다(35장 참고).

12. 하나님께서 우상과 견주어(도무지 그럴 수 없는 것이지만)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장래사를 말할 수 있는 것: 과거사를 살피도 동일한 결론을 얻을 수는 있지만(22) 장래사를 말할 수 없으면 능력이 없는 것이다. 여기서 장래사란 복이든 화든 미리 말한 대로 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묘하게도 무당이나 점쟁이들도 과거는 잘 맞힌다. 장래에 대한 것은 두루뭉술한 것이 일반적이고 확률이 그리 높지 않다.

13. 앞에서는 동방에서 한 사람을 불러오신다더니 여기서는 '북방에서 오게 하며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신다'고 하는가? 두 사람을 가리키는가?

한 사람 고레스다: 바사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할 때 메대 군사를 동원한다. 바사는 동쪽이고 메대는 북쪽이다.

14. 바벨론에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진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 일을 이룰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어떤 모사도 어떤 우상도 그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회삼물(灰三物): 석회, 황토, 세사(細沙)를 한데 섞어 반죽한 것, 장례의 방회(傍灰: 관의 가장자리를 메움), 천회(天灰: 관의 위를 다지는 석회)로, 또는 건축에 쓰임.

이사야 42 장

1.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종, 나의 택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문맥상으로는 앞 장에서 말한 '동방에서 일으킨 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일차적으로는 고레스겠지만 일반적인 왕의 성격과는 다른 점이 많아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야 자연스럽다.

2.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종, 나의 택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졌는가?

공의(1, 3, 4) 유순함(2) 자비(3) 영원(4) 고레스가 주변 국가들을 점령하는 과정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힘으로 점령하기보다는 좋은 평판이 퍼져서 거의 자발적으로 항복하고 오히려 환영했다고 한다. 그런 유사점에도 고레스만을 가리키는 것으로는 온전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3.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종, 나의 택한 사람'이 일반적인 정복자나 왕으로 보기에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새로 정권을 잡은 자는 말할 것도 없고, 왕이 바뀌어도 요란스러운 것이 정상이다. 과거 정권과의 차별성을 소리 높여 외쳐야 한다. 별다른 것이 없는 비전이라도 요란스럽게 포장해서 내놓는 것이 정상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은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소리없이 힘없이 나타나신 메시아의 모습과 흡사하다.

4. 떠저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이유는 가만히 두어도 꺼질 것이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고약한 심보를 가진 사람이다. 여호와와 종은 연약한 자를 소중하게 돌아보시는 온유한 자이다. 죄로 인해 소망 없이 떠저가는 인류를 다시 소생시키시려고 자신을 희생하는 존재이다. 41장에서는 용맹스럽게 그지없는 용사였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온유하신 자이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런 묘사에 적합한 자는 없다.

5. 왜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는가? 육지는 가만히 있고?

'육지는 말할 것도 없고 섬들마저'라는 뜻이다. 온 세상이 빠짐없이라는 뜻이다.

6. 자식이 아버지를 부를 때는 간단한 것이 좋다. '우리 학교 동창회 회장이시며 모모회사 사장이시며 인자하고 너그럽기 그지없으신 우리 아버지...' 어딘가 이상하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이렇게 긴 적이 잘 없는 데 여기서는 왜 이럴까(5)?

사적인 관계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공식적인 자리에서 위엄을 보이시는 듯하다. 새 일을 시작하겠다는 엄숙한 선언의 순간이다.

7. 6절의 '의로'의 '의'는 목적일까? 수식일까?

다른 한글 역본들은 '의를 위하여' 대부분의 영역본들은 'in righteousness'로 번역하였다. 양쪽의 의미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즉, '의를 위하여 의로운 방법으로 너를 불렀다.' 공의를 이루시려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방법으로 일을 하실 것이므로!

8.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한다'는 것은 '너를 통해서 언약을 새롭게 체결한다'는 뜻이다. 언약을 새롭게 체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왜 이방의 빛이 되는 결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 포로가 되었기 때문이다. 무효화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고 관계를 계속하겠다는 말씀이다. 이방의 빛으로 세우겠다는 것은 그 언약에 이방인을 포함시키겠다는 선언이다. 과거와 비교할 때 더욱 확장된 언약이다.

9. 하나님께서 불러 세운 그 분의 역할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빛(희망)이 되는 것(7)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8)

10.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8) 누구나 다 아는 일인데 새삼스럽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가령,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동대문 쌍칼이다' 아는 줄개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와 비교해 보자.

이름에 걸맞은 행위를 한다는 말씀이다. 하고자 한 것은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는 의미가 담긴 표현이다. '전에 예언한 일이 이루어졌느니라'(9)는 말씀도 동일한 의미로 앞으로 될 일을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는 뜻이다.

11. 소경의 눈을 밝힌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 구절이 신약의 어떤 장면에 나오는가?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표징이다(마 11:5) 유대인들에게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였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라고 물었을 때의 답변의 서두이다.

12. 전에 예언했다가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가?

출애굽, 가나안 정복 등도 해당되겠지만 산헤립으로부터의 구원이 가장 적절하다. 과거의 확실한 경험처럼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일어날 것이다. 가깝게는 고레스로 말미암은 구원이었고 나아가서는 메시아로 말미암은 구원이 있을 것이다.

13. 새 노래를 불러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새 일을 이루시기 때문, 옛 노래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출애굽 때 부른 노래가 적절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은 출애굽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다는 뜻이다.

14.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사람들이 하필이면 왜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과 그 거민인가?

'땅 끝에 거하는 자들'이란 표현과 동일하다. 온 세상 모든 이들이 예외 없이 찬송하라는 뜻이다.

15. 추가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사람들과 그들이 거하는 장소가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개

달 사람의 거하는 촌락들, 셀라의 거민들, 산꼭대기에서'이다(11). 이들이 가진 공통점은 무엇일까?
한 두 사람이 거하는 곳에서도 예외 없이 찬양하라는 뜻이다.

16. 여호와와 모습을 '용사, 전사'로 묘사하는 이유는? 더 높은 왕으로 소개하지 않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분이시므로: 직위나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이 하시는 일을 말한다.

17. 오래 동안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고 일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해산하는 여인에 비유할까? 또, 누구를 향하여 무엇을 참고 계셨는가?

산통이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반드시 되어질 일이다.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없다. 결국은 위대한 생명이 태어난다.

우상의 득세와 이스라엘의 고난당함.

18.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신단다. 그러면 누가 혼이 나고 누가 좋아지는가?

혼이 날 대상: 큰 산, 작은 산, 그 곳의 초목, 강들, 못들. 한때 잘 나가던 이들이다. 우상을 조각하거나 부어 만듦과 그것을 신이라고 하던 자들이다(17).

좋아지는 이들: 소경. 왜 소경이 되었는지를 말하지 않는다. 소경이 무엇을 잘했는지도 말하지 않는다. 그저 은혜를 베풀겠다고만 말한다. 말하지 않아도 누구이며 왜 그러는지 알기 때문이다.

19. 소경들에게 베푸는 구원의 모습이 세 가지다. 특이점이 있다면?

알지 못하는 길,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함: 소경에게 은혜를 베푼다면 그들을 광명으로 이끈다거나 곧은 길로 이끄는 것은 당연하다. 알지 못하는 길이란 전혀 상상 밖의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말이다.

20. 18-25절은 책망하는 말 같다. 이사야의 논리 전개 방식을 따르면 바로 뒤이어 징계와 구원의 내용이 뒤따라 나와야 되는데?

이사야의 전반부는 앞으로 징계를 받을 것을 경고하는 책망과 징계와 구원의 이야기였지만 후반부는 징계중인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도 회복의 내용과 관련지어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42장의 앞부분에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 즉 메시아를 보내야 할 현재의 형편이 이런다는 말이다. 이스라엘의 현실이 귀머거리요, 소경이니 이들을 광명으로 인도해야 할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반부의 방식을 따른다면 이 부분이 42장의 앞부분에 와야 할 성격이지만 문맥이 달라지면서 순서를 바꾼 셈이다.

2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중, 사자, 친한 자(19)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데 이들이 어떻게 귀머거리 중에 귀머거리요, 소경 중에 소경이 되었느냐는 탄식이다. 종이면서 어떻게 친한 자(벗)이 되는가?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주종, 부부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 종이면서 대등한 부부의 지위를 지닌 모한 관계이다. 종도 되고 대등하기도 한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상상해 보라. 스스로 종노릇 하는 관계이기도 하다. 참고로, 하늘나라에서는 문지기나 왕이나 똑같이 행복하다.

22.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존귀케 하려고 하셨으나(21) 오히려 도적맞고 탈취를 당하고 굴과 옥에 갇히고 말았다(22).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무시되는 수도 있나?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니까(24). 하나님의 뜻이 변한 것일까? 짧게 보면 그럴 수도 있으나 길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는 변함이 없다. 이스라엘이 끝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스라엘이 끝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거부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뜻이 거부된 것 같아 보여도 종국의 문제가 아니라 진행 중인 한 과정일 뿐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만다. 패단지 못하고 마음에 두지 않아도(25)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이사야 43 장

1. 하나님과 야곱을 어떤 사이라고 하는가? 본문에 수없이 많이 나타나는 표현들을 종합하여 가장 적절한 관계를 설정해보자.

작사사랑하는 관계, 즉 이스라엘은 일방적인 사랑의 대상이다(4), 반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22-24) 창조자, 조성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야곱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별한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어야 한다. 너는 내 것이란 표현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자 '내가 물건인가?'라고 대답하는 것은 아직 될 사랑하고 자존심이 살아 있을 때의 이야기이다. 이 표현이 기분 좋게 들릴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단계였고 그렇지 않을 때는 무서운 주인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구속자, 네 하나님, 거의 거룩자, 구원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왕(15), 찬송 부를 자(21), 증인, 종 등 온갖 표현을 다 써가며 사랑을 구하는 하나님이 안쓰러울 지경이다.

2. 하나님의 종답게 살지 못하여 바벨론의 종으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시 애정 어린 고백을 쏟는다. 정말 끈질긴 하나님이시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가?

너는 내 것(1) = 사랑의 대상(4)이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이유라면 일찌감치 포기하고 새로 만드는 것이 나을 것이다. 고생 않으려면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한번 빠지면 고생이 뻔한 데도 온갖 경제적, 인격적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사랑이다. 끈질기신 하나님!

3. 물 가운데를 함께 하기보다는 아예 물을 지나지 않게 하시면 안 되나? 강을 건너 났을 때 물이 침몰치 않게 하 시려고 물을 붙들고 있기보다는 강을 건너지 않아도 되도록 하시지 않고?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지키기보 다는 아예 불을 통과하지 않도록 하면 될 것 아닌가?

그리로 가야 할 이유가 있다는 뜻이다. 인류가 범죄한 탓이다. 징계를 받을 짓을 했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함께 그 과정을 견뎌다는 황송한 말씀이시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인류가 당하는 아픔을 함께 겪으시며 온전 한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지극정성을 기억해야 한다. 시험을 없애 달라고 기도를 가 르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와 동일하다.

4.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려니 몸값이 필요하다. 이스라엘 대신에 누구를 몸값으로 지불하셨는 가?

애굽, 구스, 스바를(3) 사자에게 다른 먹이를 던지고 구해내듯이 이스라엘을 구해내시겠다는 비유적인 표현이 다. 그런 방식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구원하시겠지만 그런 과정을 밟겠다는 것이다. 바사제국(고레스)의 강한 정 복욕을 채우기 위해서 애굽, 구스, 스바를 치게 하고 이스라엘은 빼내겠다는 의미인데 훗날에 고레스의 아들 캄베이시스가 애굽을 치게 된다. 구스는 하애굽(나일강 상류 지역), 스바는 아라비아 반도 남쪽이지만 홍해를 건너 구스를 다스리기도 했으므로 넓게 보면 애굽이라는 지명 속에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5. 바벨론에 포로로 간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면 굳이 동서남북을 말할 필요가 없는데 동이나 북이면 충분한데? 강조법 내지 과장법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놓여나 돌아오듯이 먼 훗날 메시아 왕국으로 죄인들이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6.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고, 믿고 깨닫게 하려함(10, 21절은 부수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다). 꼭 그래야 하나? 뭣이 답답해서? 답답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이 정상인데... 사랑 때문이다. 사랑이 아니라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일이다.

7. 10절의 증인은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하나님을 위한 증인이다. 그러면 9절의 증인은 누구며 누구를 위한 증 인일까?

이방인들, 그들의 신 곧 우상: 10절과 대조시킨다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도대체 나 외에 누가 신이며 그것을 누가 증거하겠느냐?

8. (위의 질문의 답을 참고해서) 이스라엘과 열방과 민족들을 다 불러 모으는 이유는 무엇인가?

눈뜬 소경, 귀 있는 귀머거리인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려고(10) '이스라엘아, 어느 누가(신)이 이런 일을 했는지, 할 수 있는지 찾아보라'는 말이다. 표준새번역은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보이겠느냐?'를 '이런 일을 미리 고하겠느냐?'는 미래형으로 해석하였다.

9.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음을 받았다는 말인가?

핵심을 놓치고 엉뚱한 말꼬리를 잡는 독법이다: 나 외에는 신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다. 아예 고틀리가 없도록 공동번역은 '손으로 지은 신이 나보다 앞서 있을 수 없고...'라고 하였다. 이 문장만으로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다면 다른 문맥에서 그런 생각이 가능한지 살펴서 그렇지 않다면 무리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람의 말 이 완전하지 않은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다.

10.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목격한 바를 증거 해야 한다. 무엇을 목격했는가?

고하였고(=구원하겠다고 예고한 대로) 구원하였으며, 다른 신이 없음을 보였다(=원어상, 선포하였다)(12) 이스라 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이루셨음을 확연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옳다. 예수께 '하늘로서 오시는 표적을 보이랴'고 했다가 책망 받은(마 16:1-3) 바리새 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잘못이 무엇인가? 눈에 뵈지 보이는 것을 애써 외면하면서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눈 뜬 소경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영혼 구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한다.

1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일시적인 징계로 허용한 것이므로 조만간 바벨론에 큰 일이 벌어지겠지(14): 못한 자식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파출소에 잠시 집어넣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그 자식을 학대하거나 나쁘게 다루었다가는 큰 일난다.

12.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은 아무래도 옛적의 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일 같다. 무엇보다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걸까?

새 일은 출애굽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는 암시적인 표현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은 분명히 출애굽보다 더 큰 사건이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출애굽이란 전대미문의,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인데도 잊어버려도 될 만한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

13.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라는 이전 일이 무엇일까? 선지자의 의도가 진짜 과거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일까?

징계 받아서 고생한 일이나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포함하겠지만 핵심은 '과거에 얽매어 그렇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다. 자연이 아무리 위대해도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는 반면에 하나님은 과거와 비교해서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라는 말이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하고도 놀라운 일일까? 출애굽보다 더 놀라운 일일까? 아무래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자신을 희생해서 인류를 구원하려는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어울린다. 이사야의 메시지는 자연스럽게 이 메시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사 53장).

14. 왜 하필이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내는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길이기 때문이다: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내신다. 그러면 먹을 보는 짐승들이 하나님을 존경할 것이란다. 사람이 범 죄 했을 때 만물이 함께 징계를 받았다. 이제 회복이 될 때는 짐승들도 먹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에 감사하는 들짐승이 내 곁에 얼마나 되는가?

15.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얼마나 많은데 '예물(제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다' 하시는가?

기본적으로 제물은 죽어야 할 자기 대신 짐승을 바치는 것이었다. 짐이 아니다. 오히려 짐을 얼마나 털어주었는지 모른다. 더구나 가난해서 부담스러운 자들에게는 제물을 팔아주시지 않았는가(레 1장)?

16.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고 하시는 말씀은 아무래도 지나친 것 아닐까?

제사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한 채 형식적으로만 드린 제사는 드린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사야가 이런 투의 말씀을 처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삼상 15:22) 하신 지가 언젠데... 결국 이런 형식의 제사제도는 폐지되고 만다. 하나님은 무슨 제사제도를 도입하시려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제물로 대속하신다.

17.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백성들 지었더니 찬송은커녕 무슨 짓을 하였는가?

죄악으로 하나님을 괴롭힘(24).

18.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은 무엇인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리하셨다고 말한다(25, 21)

이사야 44 장

-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으시고 조성하시고 도와주시는 이유가 뭘까?
텍합: 야곱 편에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렘 1:5)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갈 1:15)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이란 말은 '내가 너를 종으로 택했다'는 말인가?
 '종'과 '텍합'은 동일한 내용이다. 종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하였으니 내 종이란 말이다.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하였으니 내 것'이라는 말이다. 같은 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감이 다르고 내용상 많이 다르다. 종으로 택했다는 말은 부려먹으려고 골랐다는 말이지만 '나의 택한 종'은 다른 용도일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은 애인, 신부이기도 하다. 야곱을 종으로 삼으신 것은 홀로 사랑하기 위함이다.
- 하나님께서 야곱(=속이는 자)이란 이름을 이스라엘(=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바꾸어 주셨다. 대조적인 뜻을 지닌 이름이다. 여기서는 야곱과 여수론이 대조를 이룬다. 무슨 의미일까?
의로운 자(정직한 자): 이스라엘은 속이는 자(야곱)이기도 하며 동시에 의로운 자(여수론)이기도 하다. 자신의 행위를 쳐다보면 야곱이고 그를 대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여수론이다(21-22).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러하다.
 [설교] 야곱과 여수론, 19번 포함 사 44:1-5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는 같은 말이다(36). 성령을 주시는 것을 어디에 비유하는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같은 자에게 물을 주는 것, 다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는 것: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솟아오를 것이며 시냇가의 버드나무처럼 자랄 것이다.
-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거나 복을 주시면 야곱의 태도가 많이 달라질 것이다. 어떻게?
자칭 야곱이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며,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자랑할 것(5): '손으로'를 '손에 기록하고'로 번역할 수도 있다. 그러면 손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란 문신을 새긴 셈이다. 아이들이 옷이나 몸에 글귀를 새기고 다니는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느낌으로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변성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많은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신약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 같다. 오순절 이후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비교해 보라.
- 하나님은 주관적으로는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객관적으로는 어떤 분이신가?
처음이요 마지막(6, 찬송가사로 한다면 He's everything to me, 수학적으로 말하면 필요충분조건), 유일신(6), 장래사를 말하시는 분(7): 이런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시니 두려워 말라! 롬 11:36
- 과거 일을 돌아보라. 나같이 고한 자가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택하시고 조상들과 언약을 맺어서 그것을 지금까지 지키고 이루어 오신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 하나님도 모르시는 게 있네(8)?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을 두고 이것이 하나님의 무능을 뜻한다고 생각 하는 사람은 국어공부를 다시 해야 한다. 남의 말의 꼬투리만 잡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식으로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렇다.
-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자들은 결국 수치를 당할 것이다(9, 11). 왜 그럴까?
무의하니까: 우상이 무능하다는 뜻이다. 무능한 우상을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바치면 수치 외에 돌아올 게 뭐가 있겠나! 그들이 함께 모여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들의 일로 인한 심판이 있음을 뜻한다.
 불리다: 불에 달구다, 팔다: 불길에 세다
- 철공이나 목공이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다듬고 만든다. 그것이 왜 어리석은 짓인가?
 자신이 그렇게 만든 것을 신으로 섬기니까! 다른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면 칭찬이라도 들지.
- 돼지머리도 웃는 놈이라야 더 영험하단다. 어떻게 하면 웃는 모습으로 살지? 어리석은 짓이긴 하지만 그런 원리라면 우상은 어떻게 만들어야 더 영험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야(13)
- 특별히 목공이 어리석은 이유는 무엇인가?
 동일한 나무로 불도 때고, 신상도 만들어 섬기기도 하니깐. 나무를 가지고 화목으로 쓸 건지 신상을 만들 것인지 결정을 자기가 하면서 그 나무로 만든 신상에게 절하다니...(15-17)
- 철공이나 목공이 이렇게도 어리석은 이유는 무엇인가?
눈이 가리워져 있고 마음이 어두워진 탓이다: 죄가 낳은 영적무지의 결과이다(롬 1:28). 하나님 없이 사는 자가 나름대로 영리하다고 하지만 결국은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는 자라는 것이다. 죽을 줄 모르고 꿀단지로 들어간 파리를 보고 절대로 맛을 제대로 아는 놈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 목공이 쓰는 도구가 몇 가지 등장하는가?
 4가지(줄, 붓, 대패, 정규=콤팩스)

15. 우상 앞에 부복하며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무엇과 같을까?
재를 먹는 것(20) 손에 거짚 것(자신이 만든 우상)을 들고서도 '나의 오른 손에 거짚 것이 있지 아니하냐'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재를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신이 만든 우상을 들고서 그것이 진짜 복을 주리라고 믿는 것은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재를 먹는 것과 동일하다는 말이다.
16. 우상을 만드는 자, 숭배하는 자,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9-20)?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거하기 위함이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염두에 둔 것을 감안하면 이렇게 강조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고대인들에게는 전쟁의 패배가 곧 그들의 신의 무능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참 신이 될 수 없음을 강하게 주장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17. 하나님께서 야곱을 잊지 못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지은 것이 어디 야곱뿐이든가? 이유를 말하지 않는다(21). 단지 하나님에게서 잊혀질 수 없는 존재라고만 말씀하실 뿐!
18. 이스라엘의 죄를 어떻게 하셨는가?
도발(구름, 만개의 사라짐같이), 구속(값을 대신 지불하고 속함)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말하지 않는다. 하늘이, 땅이, 모든 산의 나무들이 함께 찬양할 만큼 크고 위대한 일이다. 찬양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도 이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19. 구속과 회개 중에 어느 것이 먼저일까(22)?
구속이 먼저: 내게로 돌아오라(현재형)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이다. 이유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완료형) 때문이다. 일반적 상식은 회개해야 용서하는 법이다(=인간의 일). 교리적으로는 회개와 구원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회개라는 우리의 행위가 근본적으로 정당성을 지닐 수 없으므로) 구속(=하나님의 일)이 논리적으로도 먼저 있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불가항력적 은혜이다. 우리의 행위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다.
20.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다 아는 사실인데 왜 이렇게 강조하시는가?
 작정한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뜻이다. 이스라엘의 구속은 그만큼 확실한 일이다.
21. 거짚말하는 자나 점쟁이가 성행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기 때문일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징조를 폐하며 미치게 하시면 그들이 당장에라도 폐업을 해야 옳은 것 아닐까?
 미련한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이다(25).
22. 내 종의 말, 내 사자의 모략은 정말로 성취되는가?
 일시적으로 거짚말하는 자나 점쟁이가 득세를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한다. 애굽의 술객들과 아론이 이적으로 싸우는 형국처럼 처음에는 가짜들이 재빨리 힘을 쓰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한다. 다만, 기적처럼 해치우지 않아서 애매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아는 자는 알아보고 모르는 자만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23.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유다 성읍들이 근재한데 왜 예루살렘이 사람이 살 것이며 유다 성읍들이 중건될 것이라고 하는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이 다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을 내다보고 하는 예언이기 때문이다.
24. 강물이 마르는 것(=깊음에게 마르라고 하는 것)과 바로 뒤이은 고레스를 통하여 예루살렘이 중건되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루살렘의 회복과 고레스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그 사이에 끼인 깊음이 마르는 것도 동일한 사건의 한 부분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깊음은 유프라테스강을 가리키는 말이다. 포로에서 귀환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강을 말린다는 뜻이다.
25. 고레스는 누구인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갈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향으로 되돌아오게 할 바사(페르시아)의 왕이다. 적어도 100수십 년 이상 후대의 인물이다. 그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중건하리라는 약속이다. 비판자들이 이런 예언 때문에 이사야의 저작을 후대의 인물로 본다. 선지자는 그럴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사야 45 장

역사적 배경: 바벨론이 강성하던 시절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나라는 메디아였다. 메디아는 2대에 걸쳐 군비를 정비하여 바벨론을 칠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남쪽의 작은 나라 바사 왕 고레스에게 함께 바벨론을 치자고 제의했다. 고레스는 사전에 바벨론으로부터 정치적인 협상을 하고 있던 차라 메디아의 요청을 거부했다. 메디아 왕 아스티아게스가 분노하여 바사를 정복하도록 군대를 보냈는데 군대를 이끌고 간 하르파가스 장군이 번심하여 고레스에게 투항해버렸다. 메디아 왕이 직접 출정하였지만 또 장군들이 반란을 일으켜 왕을 체포하고 고레스에게 투항해버렸다. 고레스는 가만히 앉아서 거대한 나라를 통째로 얻고 메디아의 군사와 작전대로 바벨론으로 진격한다. 도중의 작은 성들은 싸우지도 않고 항복해버렸다. 바벨론은 워낙 강한 성이었기에 메디아, 바사의 군대가 포위를 해도 신경도 쓰지 않고 잔치를 즐기고 있었다. 마침 나보니두스 왕이 돌아와서 신년 축제를 벌이고 있던 때였다. 밤중에 고레스가 유브라테 강 of 독을 터뜨리고 물길을 돌리자 바벨론 성의 가운데로 흐르는 운하의 하상이 무릎에 찰 정도로 낮아져서 고레스의 군사는 운하를 따라서 무혈점령에 성공하였다(단 5:30). 고레스는 바벨론의 관리들을 그대로 앉히고, 유화정책을 폈으며 자신의 군대가 정복민들을 학대하지 못하게 했다. 정복한 민족들의 고유한 문화를 존중하였고, 바벨론 포로민들이 원거주지로 돌아가도록 허용하였다. 이런 일에 대하여 이사야가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다(44-45장).

0. 본 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대비해서 정리한다면 각각의 주제는 무엇인가?

2-6, 8, 9-10, 13-14: 구속(고레스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고레스를 세우는 일은 곧 자기 백성을 구속하겠다는 말이며, 8절은 의로움으로 가득 찰 메시아 시대를 말하고, 9-10의 두 가지 비유는 고레스를 통해서 행하는 이 일에 대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라는 뜻이다.

7, 12: 창조

성경을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보다는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해야 하고, 인간을 창조하셨다고보다는 인간을 구속하셨다고 해야 한다. 천지창조는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시작과정일 뿐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창조보다는 구속의 이야기를 세밀하게 말한다.

0. 본문에서 하나님과 우상을 어떻게 대비시키는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존재(15),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16-17), 하나님을 믿는 자는 헛되지 않을 것(18, 19, 23), 구원할 능력이 있음(21-22), 의와 힘이 있음(24)

우상: 보이는 존재(15), 우상을 섬기는 자는 치욕을 당할 것(16-17), 우상은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애매하게) 말함(19), 구원할 능력이 없음(20)

0. '나 여호와', '내가(나는)', 혹은 '나 외에'라는 표현이 각각 몇 번이나 나오는지 찾아보자.

나 여호와: 1, 3, 5, 6, 7, 8, (11), (13), (18), 19, 21, 22(나는 하나님),

(1 내가, 원문에는 없음), 2, 4, 4, 5, 7, 7, 12, 12, 13, 19, 21, 21, 23,

나 외에(밖에): 5, 6, (14), (18), 21, 21, 22,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는 나 외에 없다는 선언이다.

1. '기름 받은'이란 말의 히브리 원어에서 생겨난 고유명사가 있는데?

메시아: 그럼 고레스가 메시아인가? 메시아의 그림자(상징) 역할을 맡았다. 고레스가 육체적인 자유를 허용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자유까지 허용할 것이다.

2. 열국으로 항복하게 하는 것과 열왕의 허리를 풀게 하는 것은 내용상 동일하다. '허리를 풀다'는 것을 현대 군사용어로 바꾸면?

무장해제(武裝解除): 떠를 동인다(5절)는 것은 전쟁이나 싸움을 시작할 체비를 차리는 것이다. 그러니 허리를 푸는 것은 무장을 해제하고 싸움을 포기하는 것이다.

3. 고레스의 오른 손을 잡고 모든 적을 쳐부순다면 도대체 누가 싸우는 건가?

고레스는 자기나름대로 전쟁을 하지만 실제로 뒤에서 그렇게 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겉으로 보기에 자기 노력 탓이고, 행운이 따르는 것이고, 운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유로운 꼭두각시? 이게 말이 되나?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히 그렇게 모한 존재로 만드셨으니 어찌겠는가? 그래서 우리의 행위(주어진 자유)에 대한 책임을 물으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

4. 앗수르와 바벨론은 식민지 백성을 홀려서 국가를 세우지 못하게 하였으나 페르시아(바사)는 식민지 백성이 자신의 국가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우도록 유화정책을 펼쳤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고레스의 진군을 아무도 저항하지 않았다. 이사야는 고레스가 등장하기 150여년 전에 이런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1-3절: 하나님께서 고레스로 하여금 모든 나라를 수월하게 점령하도록 해주실 것이다.

5. 고레스는 결코 하나님을 섬긴 자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를 선택해서 온 세상을 주관하게 하시는 것은 누구를 위함인가?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4): 세계사의 번두리에 불과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계사를 움직이고 계신다? 믿기 어려운 말이지만 사실이다. 이 광대한 우주에 비기면 먼지보다 작은 인간을 위해서 하늘의 별과 달을 만드셨다(신 4:19)는 것도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한다.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의 탄생지를 베들레헴이라고 했지만 만삭의 마리아는 나사렛에 있었다.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구스드를 동원하셨다(눅 2:1)고 한다면 무리한 해석일까? 하나님의 자녀인 나 하나를 위해서 온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분

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자.

6. 고레스와 이스라엘(야곱)을 비교해 보자.

고레스는 당대의 최고 권력자, 온 세상의 정복자,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간 신세,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중요한 인물은 이스라엘이다.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7.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주신 복은 무엇인가?

열국을 정복케, 막대한 재물을 얻게: 고레스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레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고레스만 복이 터졌다고? 세속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그렇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고 본다면?

8.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는 이유를 고레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 반면에 하나님은?

고레스의 생각은 알 길이 없지만 일반적이라면 '자신이 잘 나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자신을 지명하여 부른 자가 여호와인줄 알게 하려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고레스에게 자신을 알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과정일 뿐이다.

9.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자로 이방인을 세우시는 이유가 있다면?

무리로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목적이다. 우리의 목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어야 하리라.

10. 고레스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책에 따라 돌려보낸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의도에 따른 것이다. 그것을 나타내는 구절은? 이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면 좋을까?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4, 5)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신의 일을 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자신의 의지대로 세상을 점령하고 다스린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한 것이다. 빛과 어둠은 처음 창조를 언급하는 것이지만 평안과 환란은 창조이후의 세계를 주관하시는(구속) 의미가 강하다.

11. 8절의 '들게'는 *hear*인가 *listen*인가?

rain(동사), *drop*이다. 옛날식 표현으로 '비가 온다'는 것을 '비가 들다'고 한다. 참고로 우리말 '들다'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액체가) 방울방울 떨어지다, (악, 기계) 효과가 있다. (소리) 귀에 들리다

12. 고레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2-7)과 8, 12-1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관한 것인가, 아니면 구속 사역에 대한 것인가?

문맥으로는 당연히 이스라엘의 구원(구속)이다. 그런데 창조에 대한 언급이 계속되는 것은 구속이 곧 창조 사역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구속사역이 완성되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창조가 완성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안식도 그 때에 완성되는 것이다(*cf* 요 5:17). 그런 점에서 창조와 구속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창조자인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속하겠다는데 누가 이의를 달겠느냐?'는 느낌도 포함되어 있다.

13. 하늘이, 궁창이 쏘아 붓고 땅이 움돋게 할 '의'는 무엇인가?

일차적으로는 고레스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귀환하게 되어 유대가 풍요로워지는 것을 가리키지만 나아가 메시아로 말미암은 구원의 풍요로움을 가리키는 말이다.

14.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말한 '너는 무엇을 만드느뇨?'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바꾼다면?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느냐? 그것도 숨쉴까?

15. 토기장이의 진흙이나 태어나는 아이가 유대인을 의미한다면 예상되는 그의 항의성 질문은 무엇일까?

왜 우리로 이 고난을 당케 하시며, 이방인의 손을 빌어 구원케 하시나요? 만약 이방인을 의미한다면 '왜 유대인들에게만 이렇게 복을 주시느냐?'는 불평일 수도 있지만 '엇장수 마음대로 아니냐?'는 뜻이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따라 된 일이므로 어느 누구도 불공평하다가 항의하거나 따질 일이 아니다.

16. 11절의 의미는 9절, 10절의 내용과 동일 선상에 서 있다. 장래 일이든 과거의 일이든 창조주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말이다. 내 아들들에 관한 장래 일은 무엇이며 과거 일은 무엇인가?

장래 일은 고레스를 일으켜서 백성을 해방하는 것, 과거 일은 포로로 잡혀간 것.

17. 내용상으로 보면 12-13절은 아무래도 앞의 어느 구절과 연결되는 것 같은가?

8절: 토기장이나 해산하는 아이의 이야기는 삽입절이다. 모든 것을 창조한 내가 고레스를 일으켰다는 말이다. 문맥은 고레스를 일으킨 것인데 창조 얘기가 끼어들고 토기장이의 이야기가 끼여든 것은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인 내가 이렇게 일을 하였다는 것이다.

18. 애굽의 수고한 것과 구스의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네게로 돌아와서 네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네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진짜? 언제 이런 일이?

여기서 '너'는 일단 고레스가 대표로 등장하는 바사(페르시아) 제국을 가리킨다. 페르시아가 이 모든 지역을 점령하고 대제국을 이룰 것이고 그 체제 속에서 이스라엘이 본토로 돌아올 것이다. 더 나아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다(60장 참고).

19. 고레스를 등장시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 왜 스스로 숨어 계시는 자라고 하는가(15)?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평소에는 유한한 인생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나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습을 감추고 계시는 뿐, 나타나셔야 할 때에는 분명히 나타나신다는 확신을 의미한다. 반면에 눈이 보이는 하나님 (=우상)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가짜다.
20. 하나님이 우상과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지 16-17절에서 근거를 찾는다면?
영원함: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은 영원한 반면에 우상에게서는 영원한 것을 기대할 수 없다.
21. 여호와와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누가 그걸 모르나? 여기서 강조점은 무엇인가?
헛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하기에 딱 알맞게 제대로 만드셨다. 지구가 사람이 거하기에 얼마나 적절하게 되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숨어계시는 듯싶어도 자신을 충분히 계시하셨다.
22.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한번 제대로 알아봐라.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것을 보든지 아니면 야곱 자손에게 한 말이 헛된 말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의롭고도 정직한 말씀만 하신 반면에 우상은 무엇이라고 말하였을까?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함(19): 어두운 곳이란 정체를 알 수도 없는 동굴 같은 곳이고 은밀히 말한다는 것은 의미가 분명치 않은 말을 가리킨다. 캄캄한 동굴 속에서 사람의 음성인지 바람소리인지 분간이 되지도 않는, 애매한 소리로 말하는 것이 우상의 답변이라는 말이다.
23.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20)이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걸까?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과 대비되는 것 아닐까?
그렇다면 전쟁 피난민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으로 박해받고 쫓겨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신다는 선언인 셈이다. 무지한 자들의 무지한 박해를 두려워 말라는 것이다.
24.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시면 도무지 알 수 없다고 하던데?
고하며 진술하고 피차 상의할 일을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함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들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만이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심을 알 수 있다.
25. 고레스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 같더니 어느 새 하나님의 구원은 온 세상을 향하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증거를 두 군데 지적한다면?
20절의 '열방 중에서,' 22절의 '땅 끝의 모든 백성아' 23절의 '모든 무릎과 모든 혀' 나를 양망하라는 것은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것이다.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참으로 쉬운 방법이다. 공양미를 삼백석이라도 바치라면 힘이 무척 들겠지만 그냥 바라고 돌아가면 되니까!
26. 하나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니?
'헛되이'를 보충해야 한다. 삼하 2:22에 비슷한 구문이 있다.

이사야 46~47 장

1. 벨은 누구이며, 느보는 또 누구인가?

우상: '그들의 우상들과 동일한 표현이다.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짐승과 가축, 혹은 사람에게 실려 다니면서 짐만 되는 것들,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기는커녕 잡혀간 것들: 벨(아람방언으로 '주'라는 뜻인데 히브리 식으로 하면 '바알'이다)은 바벨론의 우두머리 신(主神)이며 흔히 말둑(Marduk)이라고 한다. 느보(=나부)도 바벨론의 신으로 말둑의 아들, 혹은 사자로 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는 문학과 과학, 지혜의 신이란다(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나 나보니두스의 이름이 이 우상과 관련됨).

2. 벨과 느보를 가리키는 말을 있는 대로 찾아보자(대명사는 제외).

그들의 우상들,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웠던 것, 너희가 떠메고 다니던 것, 무거운 짐(1) 그 짐(2, 현대인의 성경은 이 부분을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내지 못하고'라고 번역함): 벨과 느보는 우상일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기는커녕 짐일 뿐이다. 얽드러졌고 구부러졌다고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것은 확실한 미래를 의미하는 히브리적 표현이다. 몰락한 독재자의 동상과 비슷한 처지다.

3. 벨과 느보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짐이었다. 그렇다면 3-7절의 내용과 어떻게 대조를 이루는가?

거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짐이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의 원문을 직역하면 '태중에서부터 운반된 자'라는 뜻이다. 짐승이 얽드러지고 구부러진 우상을 운반하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운반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이 하나님께도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닐 것이다. 독생자마저 희생시키셨으니 말이다.

4. 결혼식에서 흔히 사용하는 '흰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라는 표현은 참으로 명언이다. 문제는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는 것이지 마음이야... 하나님은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태중에서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실 능력과 뜻을 지니신 분이시다. 난 아직도 흰 머리보다 검은 머리가 더 많은데? 감사할 일이다.

5.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끝내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므로(4):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지으셨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을지라도 핵심은 자기 백성이요, 인간이다. 인간을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만드시고 그 인간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만드셨으므로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에게 있다. 그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방편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핵심은 어떤 의도로 인간을 만드셨느냐는 것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라는 말에서도 '인간을 교제의 대상으로, 마치 사랑하는 연인처럼' 만드시고 사랑하셨음을 은근히 표현하고 있다.

6.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왜 어리석은가?

재료를 자신이 대고(크기나 질을 사람이 결정하고), 자신(사람)이 만들고(그런데 어떻게 사람보다 뛰어나겠으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해서 사람이 메고 옮기고(자신도 의존적인 존재), 스스로 움직여 행동하지 못하고(능력이 전혀 없고), 대답하거나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에 절하고 섬기다니. 하나님과 얼마나 대조적인가를 보라는 말이다.

7.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길 때(6-7)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통탄하실까?

그렇게 무능한 우상과 나를 비교할 수 있느냐?

8. 이스라엘이 (대)장부가 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남자니까 남자답게 행동하라? 이런 말을 듣고 용감해진 사나이도 더러 있고 하겠지만 어딘가 약하다.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즉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니(8) 용기를 내라는 말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온 용기야말로 진정한 용기이다. 남자니까? 그것도 용기는 용기지만 약한 용기다.

9. 하나님은 우상과 어떻게 다른가?

종말을 미리 말하고 그렇게 이루시는 분이시다(10).

10. 동방에서 불려오는 독수리는 누굴까?

고레스일 것이다: 독수리처럼 빠르게 온 세상을 정복하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모략을 이룰) 사람이다.

11.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두 가지다. 어떤 두 가지 마음인가?

하나님의 창조물(특별한 관계를 가졌다는 뜻)로 버릴 수 없는 자식(3-4)인데, 한편으로는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12)이다.

12. 완악하고 의에서 멀리 떠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무엇인가?(13). 개역의 난하주와 다른 번역을 참고하여 확인해보자.

의, 구원, 영광: 13절을 요약하면 '나의 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속히 구원을 얻을 것이며 나의 영광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낼 것'이다. 이사야서에는 유독 난하주(欄下註)가 많이 붙어 있는데(원문의 독해가 어렵다는 뜻) 대체로 난하주가 더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구원과 영광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신 것이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인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하신 것을 감안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다.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반역자들(8), 완악한 자들(12)이라고 꾸짖으면서도 그들의 태도와 관계없이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이면서 동시에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보여준다.

[46~47장]

1. 바벨론과 갈대아는 어떤 관계일까?

동일한 대상을 가리킨다: 갈대아는 민족을 뜻하기도 하고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사이(시날)와 페르시아 만에 이르는 지역을 뜻하는 지명이기도 하다. 이 민족이 앗수르에 대항하여 세운 나라가 바벨론이고, 수도도 바벨론이다.

2. 바벨론의 멸망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는가?

여자의 일생: 곱고 아리따운 처녀(난공불락의 바벨론 성을 가리키는 듯)가 수치를 당함, 열국의 어미 노릇을 빼앗김, 자녀마저 잃은 과부로 전락하는 것에 비유함.

3. 티끌에 앉아 재를 뒤집어쓰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의미하는 것이다. 곱고 아리따운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어떤 수치를 당하는가?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가는 것(노예가 켜와 속살을 드러내는 것(포로로 잡혀감)) 맷돌을 돌리는 것은 여자 노예의 전유물이었다. 면박을 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는 것이 정숙하고 아리따운 처녀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4.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우리의 구속자' 얘기는 왜 나올까?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속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해방이라서 기쁘다는 것보다는 그분의 위대하심에 경의를 표하는 말이다.

5. 여기서 주모는 酒母가 아니라 主母이다. 열국의 여주인, 즉 어미이다. 얼마나 화려할까?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6.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신 이는 누구인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리하게 하셨을지라도 바벨론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했다(6).

7. 능력이 있어서 사치하고 편안함을 즐기는 것이야 능력 있는 자의 복이라고 치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도 안중에 없는 교만으로 치달는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8) 아마도 하나님마저 얕잡아보는 자세가 이 말 속에 담겨 있음에 틀림없다.

8. 바벨론이 이렇게 망하는 이유는?

네게 맡긴 내 백성을 돌아보지 않음(6-7), 교만함(8-10, 사치, 지혜와 지식)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이 때로는 오히려 화근이 되기도 한다(10) 그래서 홀연히 임하는 재앙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 타락한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은 악자를 억압하고, 사치와 안일에 젖어 하나님도 무시하는 교만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9. '진언과 사술을 사용해 보라'는 12-13절의 성격을 한 마디로 규정한다면?

조롱: 아무 소용없는 짓 아니냐?

10.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월삭에 예고하는 자들은 초개같아서 불꽃의 세력에서 자신을 구원치 못할 것이다. 초개가 불꽃 앞에서 무슨 능력이 있겠는가! 이들이 불에 타면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하는가?

혼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이 불은 더욱게 할 숯불이 아니요' 나무가 타면 숯불이라도 남지만 초개는 그렇지 않고,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라' 손이라도 쥌 만한 불씨조차도 없을 것이란 뜻이다.

이사야 48 장

1.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은 어떠한가?

좋은 이름은 다 가졌으나 하는 짓은 개차반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거루어 이꼴다'는 뜻으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이름이다. 유다의 근원(물줄기)인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나실 메시아를 염두에 둔 표현 아닐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백성이지만 성실치도 의롭지도 않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는데(2), 완악하고, 묵의 힘줄은 무쇠 같고(명예를 거부하는 완고함), 이마는 못(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감각)과 같다(4).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고 한다(8).

2. 하나님은 과거에도 장래사를 말씀하셨고 이루셨다. 그래서 어꼴했다는 말인가? (동일한 내용을 3절과 5절에서 반복하셨지만 말씀하시는 의도가 약간 차이가 있어 보인다)

3절: '홀연히'라는 표현에 주목하면 이스라엘의 구속(포로에서 돌아옴)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5절: 하나님은 우상과 대조적인 참 신이다.

3.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상과 구별됨을 알리려고 사용하신 방법은?

미리 말씀하신 것을 이루심(5): 5절의 '내 신'과 '내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신상'은 같은 말이다.

4. 하나님께서 우상과 분명하게 구별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근본 이유는?

이제 새 일을 창조(바라)하니 믿으라.

5.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 일은 이전에는 결코 들어보지 못한 일이다. 천지창조보다, 출애굽보다 더 큰 일이라는 말씀인데(43:16-18)?

문맥상으로는 이스라엘의 바벨론에서의 귀환이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설명이고 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뜻하기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출애굽이란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인데도 그것을 잊어버려도 될 만한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

6. 하나님께서 악하기만 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자신의 이름(영광, 명예)을 위하여(9, 11, 시 23:3):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있는 능력이 없는 죄인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유가 있다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나 근본 이유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일로 인하여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말씀이다.

7. 10절의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는 표현은 난하주에 고난의 '풀무로 시련하였노라'고 되어 있다. 은을 연단하는 것이나, 풀무에서 시련하는 것은 같은 말이다.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는 무슨 뜻일까?

이스라엘이 은처럼 제련되지 않았다는 뜻이 제일 무난해 보인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한 연단이나 시련이 전혀 소용이 없었다는 뜻이다.

8.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는(12) '내가 불러 낸 이스라엘아'라는 말이다. 불러냈다는 것은 택하였다는 것과 동일하다. '처음이요 마지막'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

본문의 표현을 이용하면 '하늘과 땅의 창조자'라고 할 수 있다(13): 어느 복음송의 가사를 빌린다면 '모든 것'이다. *He's everything to me!* 수학적으로 말하면 '필요충분조건'이다.

9. 새 일을 창조하겠다고 하시면서(6) 계속 뜬을 들이고 있다(7-13, 16-19). 새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나의 사랑하는 자(14)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20)이다.

10. 새 일을 창조하겠다고 하시면서(6) 계속 뜬을 들이고 있다. 다음 각 구절들이 새 일과 관련지어서 한 두 단어로 요약해 보라. 가령, 7-8절은 '새 일의' 크기 '처럼'.

7-8: 크기, 9-11: 이유, 12-13: 당위성, 16: 재당부, 17-19: 회한

11. 못난 아들에게 야단을 치면서도 해줄 것은 다 해주는 것이 아버지다. 그러면서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는 차마 말하기 싫으면 '너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애비 욕 얻어먹지 않으려고 해주는 거다'라면서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해준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럴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주는 구절을 두 군데 지적한다면?

9절과 11절의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 하리라'는 표현이 그것이다. 너를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러는 것이라 하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이다.

12. 바벨론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가 누구일까(14)?

고레스를 가리킨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에게 이런 표현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결국 이 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고레스가 메시아의 사역을 예표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었기에 이런 표현이 사용된 것이다. 자연인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다.

13.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않은 것, 즉 공개적으로 말한 것이 무엇인가?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

14. 16절의 '나'는 누구일까? 여호와? 이사야?

숨어있는 메시아: 문맥상으로 여호와일 수도 없고 이사야일 수도 없다. 16절의 '이제'는 이사야의 때가 아니라 100 수십 년 후 이스라엘의 상황이다. '그 말이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존재하시는 '나'를 이사야로 보기 어렵

다.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 일들을 진행시키시는 분은 누구인가? 이사야 전체 문맥에서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다. 휘장 뒤에 숨어 계시다가 49장 이후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49:5-6, 1-2절의 '나'는 이사야). 그 분은 7장의 임마누엘이며 8장에서도 유대를 지키는 역할을 이미 하고 있었다.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의 말이 전해질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거기 계셨다(16). '내가 새 일을 창조하리라고 하신다(6-7). 이스라엘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라면 천지창조보다 더 큰 일이다. 메시아의 사역 외에 이것에 해당할 일은 없다.

15.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에게 유익한 것이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이요 갈 길을 인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는?

평강도 의도 잃어버리고 후손이 끊어졌다(18-19) '갈았으리라'는 표현이 단순한 회한을 넘어서 앞으로 그렇게 풍성한 복이 회복될 것에 대한 소망이 담긴 표현이기도 하다. 평강과 의는 영적인 복이고 자손은 세속(육)적인 복을 의미한다면 영육 간에 복을 누리는 방법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는 것이다.

16. 어찌되었건 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21절은 과거일까? 미래일까?

둘 다: 출애굽 때에 있었던 놀라운 일이 다시 있을 것이다.

17. 22절은 웬 똥단지같은 말씀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자에게는 21절과 같은 놀라운 기적이 따르겠지만 이것을 끝내 거부하는 자에게는 평강이 없을 것이다. 선지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라는 충고이다.

< 이사야서의 2부(40-56:8)는 두 단락으로 나뉜다. 48장이 첫 부분을 마무리한다.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포로에서 귀환함)에 대한 예언을 마무리하는 장이다. 다음 부분은 먼 훗날에 여호와와 종의 이룰 영적인 구원에 관한 것이다. >

이사야 49 장

[2부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주제이다. 2부 1주제는 '고레스를 통한 바벨론 포로의 귀환이라는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회복'(40-48장)이라면 2부 2주제는 '메시아를 통한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49-56:8)이다]

1. 섬돌아 나를 들으라? *Islands! Lift me up?* 설마 그렇게 해석할 사람은 없겠지만 이것은 순수한 우리말 표현이 아니다. *Hear me!*를 우리말로 하면 '나를 들으라'가 아니고 '내 말을 들으라'이다. 그러니까 '나를 들으라'는 것은 '외국어에 감염된 우리말'인 셈이다. 각설하고 '섬돌아' '백성들아'라는 것은 온 세상이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인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기에 이렇게 호들갑인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스라엘의 회복마저 새발의 피(경한 일)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난다(6).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8-13)

2. '나'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하든지 찾아보자.

하나님께서 아주 잘 아시는 자(1), 하나님께서 쓰실 날카로운 무기(2), 제대로 된 하나님의 종(3),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자(4), 야곱과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할 존귀한 자(5), 그것보다 더 큰 일, 곧 이방인을 돌이키게 할 자(6),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7)

이런 조건에 가장 적합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3~8번] 예수의 출생과 삶에 관련된 다음 내용을 본문에서 찾는다면?

3. 세밀하고 많은 내용이 예언되었다.

하나님께서 아주 잘 아시는 자(1),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부르고 이름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신다는 뜻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예언의 성취라는 뜻이다(마 1:21, 눅 1:31).

4.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분이시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종(3)

5.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큰 복이지만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심판이기도 하다. 장차 이 땅을 심판하실 심판 주로 오실 것이다.

입이 하나님께서 쓰실 날카로운 무기(2)가 되었다는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위력을 말한다(히 4:12, 계 1:16, 19:15).

6. 예수는 3년간 이 땅에서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지만 결국은 모두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고 말았다.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자(4),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7)

7. 예수의 사역은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결코 실패가 아니었다.

정녕히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46)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원하시고 보응하신다는 고백이다.

8. 예수는 그를 믿는 모든 자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시다.

야곱과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할 존귀한 자(5), 그것보다 더 큰 일, 곧 이방인을 돌이키게 할 자(6, 42:5-7)

9.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황제: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7c)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며 이런 고난을 받는 자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귀하게 되는 자는 황제가 부럽지 않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고 밤새 고민하던 다리오를 보라.

10. 은혜의 때 곧 구원의 날이 되면 이 종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가?

나라를 일으킴(8), 백성을 양식이 풍부한 곳(자산이란 별거숭이 산이란 뜻)과 섬물 근원으로 이끄심(10), 원방에 흩어진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심(12, 18, 22) 은혜의 날에는 세상 각처에서 모여들 것인데 마치 영화 '원들러 리 스트'의 한 장면을 연상시킨다.

11. 하나님께서 사로잡힌 자와 흑암에 갇힌 자(9)를 구해내는 방식이 사람의 방식과 어떻게 다른가?

말씀만으로: 우리는 권물을 폭파하든지, 대적을 죽이든지, 돈을 들고 가서 사정을 하든지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오라', '나타나라' 하면 끝이다.

12. 길에서 먹는다(9) 거지인가?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먹으신다는 말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자산(민중산)의 풀'과 동일한 의미이다.

13. 시님이 어디를 뜻하는지 분명하게는 알 수는 없다. 다른 정보도 없다면 본문만을 근거로 생각해 보자.

동방 아니면 남방일 테니, 동방이 가장 가능성이 많겠다. 중국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은 모양이다(특히, 중국 사람들이나 중국을 통해서 서남아시아를 선교하는 분들).

14.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위로하셨을까? 위로하였으니 긍휼히 여긴다(13) 긍휼히 여겨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순서가 바뀐 듯하다. 비슷한 표현이 44:21-23에 있으니 이 본문과 비교해 보고 '위로'의 다른 의미를 찾아보자.

단순하게 슬픈 자를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의미이다. 이사야 전체를 살펴보면 고난 받는 메시아를 통

한 구속을 말하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 온 천지를 불러서 즐거이 노래하게 하는 것이다.

15. 후일에 있을 일이지만 포로로 잡혀 가서 고생하는 이스라엘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그리고 잊으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

결코 잊지 않았다(15-16)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잊어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다. 왜 하필이면 젖 먹는 자식일까? 아이를 길러본 여자는 잘 안다. 애기가 젖 먹을 때를 엄마는 저절로 안다. 그냥 두면 젖이 불어서 터질 듯이 아픈데 어떻게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는가? 도무지 그럴 수 없지만 혹시 그렇더라도 나는 너를 손바닥에 새기고 잊지 않았다. (손바닥에 쓰면 지워진다고 손등에 쓰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었다. 하나님보다 더 한가?)

16. 아이를 낳으면서도 '제대로 자라거나 하겠나?' 제대로 먹이지 못해서 '사람 구실이라도 하겠나?' 걱정하면서 키운 아이가 뜻밖에 크게 성공하여 훌륭한 인물이 되면 부모의 마음은 더 감사하고 기쁘다. 건강하게 자라주지만 해도 감사한데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이런 감사를 드릴 것이라고 한다. 어떤 자녀가?

고난 중에 낳은 자녀(20) 원문의 뜻은 '사별의 아들들'이다. 죽어서 헤어진 아이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다니! 요셉을 만난 야곱의 기분 아닐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차적으로는 대적에게 예루살렘이 망할 때 많은 자녀가 죽을 것이지만 이런 회복의 날이 올 것이라는 예언이다.

17. 이스라엘이 회복된 모습은 어떠한지 세 가지로 요약해 보자.

단장한 신부 같다(18) **땅이 비좁다(19-21)** **강성한 나라가 될 것이다(23)** 각종 노리개(줄아온 자녀들)로 단장한 신부가 얼마나 자랑하고 싶을까? 자식을 잃고 홀로 된 여인이 수많은 아름다운 자녀를 거느리게 된 것과 같다. 그것도 전직이 왕이요 왕비였던 양부와 유모가 떨어진 자녀를 두게 될 것이다.

18. 본문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21, 25).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23, 26) 인간을 창조하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고,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분과 교제를 나누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19.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자들은 포악하고 강한 자들이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그들을 이겨낼 수 없는 강한 백성들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까?

자중지란을 일으켜서(26) 아무리 강하고 힘센 군대라도 이렇게 되면 자신의 강함을 자랑할 수 없다. 유도가 자신의 힘보다는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상대를 제압하는 기술이라던가? 강하다고 용사라고 자랑하는 것을 아무 소용이 없게 만들어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자신의 자랑을 오만하게 내세우는 것을 접어야 할 텐데...

20.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한 1차적 의미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이다. 2차적 의미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회복도 본문을 온전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이스라엘이 열국을 시녀로 둘 만큼 강성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에 대한 궁극적 의미는 무엇일까?

신약시대에 교회를 통한 인류 구원: 민족과 나라에 대한 구별 없이 온 인류가 복음 아래서 하나 되는 것을 가리킨다.

21. 언젠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런 불평을 늘어놓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렸다'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49:14-50:3까지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1)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았다(15-16)

2)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17-26) 회복에 대한 묘사가 가장 자세하고 분량이 많은 것은 여기에 선지자의 메시지의 초점이 있기 때문이다.

3) 버림받은 것처럼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50:1-3)

이사야 50 장

1. 부정한 일로 아내를 내어버릴 때는 이혼증서를 써주어야 하는데 그게 어디 있느냐는 말은 무슨 뜻일까? 반드시 신 24:1-4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한글 개역은 약간의 혼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성경과 꼭 비교해서 볼 것)

너희 어머니가 버림을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로 말미암은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둔 말씀이다: 신 24장의 강조점은 이혼증서를 주고 이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이혼증서를 써주되 합부로 취소하지 말라는 것이다(핵심은 1절이 아니라 4절이다). 신중하게 하라는 것이다. 이혼증서 없이 이혼하게 되면 이 여자는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하다.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전남편이 이혼한 적이 없다고 하면 간음으로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혼증서는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좋다는 허가증이나 마찬가지다. 그게 어디 있느냐는 것은 다시 관계를 합법적으로 회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하나님께서 언제 찾아오셨나? 언제 불렀기에 대답하는 자가 없었는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반응이 없었으며 마침내는 독생자를 보냈지만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도 영접지도 않을 것을 의미한다(행 3:22-26, 요 1:9-11).

3.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마음대로 주무르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사로잡힐 수 있는가?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탓이다. 애굽에 베풀었던 기적을 보라.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왜 나타나지 않는가?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반면에 뒤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증은 어떻게 순종하는가?

4. 49장의 '나'가 4절부터 다시 등장한다. 이 '나'는 무슨 일을 가장 잘하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게 전하는 것: 학자의 혀는 잘 교육받은, 훈련된 혀라는 뜻이다.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그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얕잡아 보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히 달랐다고 한다(막 1).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고 말씀하라고 하신 것만 말한다고 하셨다(요 5).

5. 메시아가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가졌다는 것은 메시아가 두 가지 사역을 하리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메시아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도와주는 것과 듣는 것: 도와주는 것은 병자, 귀신,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사역이고 듣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순종하는 것 즉 고난, 죽음, 부활, 승천을 가리킨다.

6. 내가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으며 때리며 모욕하는 자가 있어도 피하거나 얼굴을 돌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었기 때문에(3):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었다는 말이다.

7. 온갖 모욕을 당하여도 부끄러워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이다(7).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정말 부끄럽지도 괴롭지도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나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는가(두 가지)?

얼굴을 굳게 한다(7): 얼굴을 부식돌같이 굳게 한다는 것을 우리 식으로 하면 얼굴에 철판을 판다는 말이 될 것이다. 쉬운 일이 아니다. 견디어 내겠다는 말이다(참고 겔 3:8-9). 부식돌이 다른 돌보다 단단한 모양이다.

나를 의롭다고 하실 이를 의지한다(8):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었기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그 분이 의롭다고 하실 것이기에 모든 수치와 모욕을 견딜 수 있다.

8. 본문의 '나'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예수님께서 눅 18:31-33에서 인용하신 '선지자'는 누구이었는가? '예수께서 열 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 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삼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본문 6절을 자신에 대한 예언으로 인용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본문에 적합한 인물은 없다.

9. 수염을 뽑으면 어떨까? 따갑지 않을까?

따가운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의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큰 모독이었다. 고려시대 무인들이 들고 일어난 것도 수염과 관련이 있다(정중부의 난).

10.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만 바라볼 때였다.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빠지고 말았다(마 14:29-30). '나'가 온갖 모욕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도 같은 이치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는 결과로 나와 다투는 자, 대적하는 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좁에게 먹히는 웃(9): 세월이 좁 먹나? 라는 말이 있었다. 세월이야 좁과 상관이 없을는지 몰라도 웃은 아무리 좋아도 좁이 쓸면 끝난 것이다. 아무리 강하고 무서운 대적이라도 좁에게 먹히는 웃일 뿐이다.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것이 이 모든 수치와 고통을 이기는 방법이다.

11. 예수께서 자신을 버려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했지만 재림 때에는 양과 염소로 나누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본문에서도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결과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와(10) 자신의 불을 피우고 햇불을 둘러 뜬 자는 자신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11). 불 대신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뜻이다.

이사야 51~52:12

1. 본문은 세 번의 '들으라'와 세 번의 '깨어라'로 구성되어 있다.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이것을 근거로 문단을 나누어보고 각각의 경우가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자.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1), 율법을 들으라(4), 사람을 두려워 말라(7)

깨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9, 대답은 12절 이하, 너희를 결코 잊지 않았다), 시온아 깨어라(17, 정신 차려라), 시온아 깨어라(52:1, 곧 포로에서 놓여나 돌아갈 것이니 일어날 힘을 내라)

2. '나를 들을지어다'는 말은 아무래도 외국말의 영향을 받은 표현이다. 순우리말로 '내 말을 들으라'이다. 개설하고 내 말의 핵심은 무엇인가?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향화하는 소리가 있게 하실 것이다: 49-50장에서 여호와와 종이 이를 구속을 노래하다가 51장에서 다시 포로의 상황으로 돌아가지만 채찍이나 슬픈 사연을 말하기보다는 위로의 말씀으로 가득하다. 의를 좇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찬 회복의 날이 있을 것이다.

3.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가 아브라함과 사라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반석이나 흙에서 너희를 빚어내는 것'이나 '죽은 몸이나 다름 바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후손을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죽은 것이나 다름 바 없는 너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서 자기 백성으로 회복케 하실 능력이 충분하시다. 지나가다가 우묵한 구덩이가 보이거든 저게 내가 누워 있던 곳이구나라고 생각해 보자. 저런 구덩이에 누워 있어야 할 나를 이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감격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흙덩이나 패인 반석은 내 형제요, 사촌인 셈이다. 인생이 그런 존재 아니냐는 말이다.

4. 광야를 에덴동산으로, 사막을 여호와와 동산으로 만드는 것과 동일한 개념을 본문에서 두 가지 더 찾아낸다면?

반석에서 너희를 떠낸 것, 흙구덩이에서 너희를 파낸 것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후손을 창성케 한 것: 반석이나 흙구덩이에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아브라함의 몸(롬 4:19)에서 후손을 번성케 하신 하나님이시니 죽어서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인 이스라엘도 그렇게 회복시킬 수 있다는 선언이다.

5. 하나님의 공의는 만민의 빛이요 구원이다. 그런데 왜 만민을 심판하시는가?

공의(율법)는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잘 하는 자에게는 상을, 못하는 자에게는 벌을! 만민을 위하여 빛을 비추었으나 끝내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무조건 만민을 구원하실 것이다? 지옥은 없다? 그렇게 한량없이 마음씨가 좋기만 하신 하나님은 아니다.

6. 어떤 불신 친구가 이런 소리를 했다 '내가 살아 있으니 하나님도 있는 것이지 내가 죽어 없으면 어쩔 건데?' 좋은 대답은 무엇일까?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구원과 의는 폐하여지지 않는다(6): 물론 그 대상(여기서는 불신 친구의 영혼)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한다.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죽어서 화장해서 깨끗이 사라진 자들도 다시 불러서 부활시킨다. 영벌을 주려고! 지독하신 하나님!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장애가 없는 쉬운 일이다.

7.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나 비난이 당사자에게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런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핍박자들의 권세나 힘이 결코 오래 가지 않는다(8): 인간의 권력이나 부는 썩이나 벌레가 파먹은 옷같이 곧 상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의와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옷이나 양털은 일시적인 것에 대한 예로 사용되었다. 질적인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8.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기의 때가 되면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무엇일까?

출애굽 때의 하나님의 역사하심(9-10):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던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그런 역사를 보여 달라는 것이다. 9절의 '깨소서'는 break가 아니라 'awake'이다. 자기들이 잘못해서 징계받는 줄은 모르고 하나님이 주무시는 줄로 착각하고 하는 소리다. 이런 멍청한 요청에 대해 답변을 주시기 전에 참고 발언이 12-16절이고 진짜 답변은 51:17-52:12절까지다.

9. 라합을 저미는 것이나 용을 찌르는 것은 내용상 동일한 표현이다. 라합이 무엇이길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애굽을 상징하는 바다의 괴물을 가리키는 말이다(사 30:7): 하나님께서 바다를 주관하신다는 표현이다. 용은 바로를 상징하고, 11절은 백성들의 기대사항이다(원어의 시제와 인칭이 12절 이하와 확실히 구별된다)

10.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자와 하나님을 비교하면?

죽을 사람, 풀같이 될 인자(12), 반면에 하나님은 하늘을 찌르고 땅의 기초를 정하신 분(13),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홍유케 하는 자(15): 학대자의 분노는 현실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멀어 보이는 탓인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의 근시안적인 시력이 문제이다.

11. 이스라엘이 '여호와여 깨소서' 했더니(9) 하나님은 '예루살렘이여 떨지어다'라고 하신다(17). 물론 그전에 다른 답변도 하셨다(12-16). 예루살렘을 향하여 깨라고 하시는 이유를 예루살렘의 형편에서 찾는다면?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인데다 그를 부축하거나 돌보아줄 자식도 없다. 정신차리라는 말이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깨어야 할 자는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라는 말이다.

12. 19절의 '이 두 가지 일'은 앞의 일을 가리킬까, 뒤쪽을 가리킬까?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을 가리킨다. 19절 가운데 '곧'이라는 표현이 그렇다.

13. 네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다(20)는 것은 죽었다는 말은 아니다. 무엇을 가리키는 비유인가?

포로로 잡혀 와서 제대로 구실을 못하는 것: 모퉁이라고 번역된 말은 '머리'를 가리키는 말이다(대부분의 영역 본들은 head로 번역함) 온 거리의 머리란 성 안의 모든 거리가 시작되는 출발점, 즉 성문을 가리킨다. 성문이 닫힌 후에 도착해서 들어오지 못한 나그네들은 밤새도록 성문 밖에 발이 묶인 채 날이 새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다. 것처럼 발이 묶인 채 꼼짝 못하고 있는 포로 신세를 가리킨다. 그러니 아들이 있어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18).

14. 이스라엘이 취한 술이 일반적인 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호와와 분노의 잔(17, 22)과 그로 인한 자식들의 능력 없음(20),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21 = 포도주 없이 취한 자)

15. 예루살렘이 깨어나면 그를 비틀거리게 하던 잔을 어떻게 하시려는가?

네 원수의 손에 두리라(23) 이 원수들이 너희를 땅바닥에 엎드리라 하고는 몸이 불편해서 웅크리길라도 하면 '꼭바로 안 펴?' 하면서 밟곤 했다.

16. '내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과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좋지 않다. 자기중심적이거나 이기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내(나)'라는 표현을 얼마나 사용하셨는지(특히 4-6) 왜 그러시는지 생각해 보자.

33번,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셨다. 능력이 비슷한 사람 사이에서는 이런 어투가 기피대상일 수도 있지만 포로로 잡혀가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서는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참된 위로자,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뿐이심을 강조하는 것이다.

[52장]

17. 세 번째 '펼지어다'(52:1)는 두 번째와 비교하면 어떻게 다른가?

일어날 힘을 내라: 두 번째 '깨라'는 말은 정신차려라는 말이었고 이제는 힘을 내라(=힘을 입을지어다)는 것이다. 힘을 내서 뭘 하는데? 떠나야지(11절)! 포로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니 준비하라(=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는 말이다.

18. 예루살렘에 들어온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민족들: 다시는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으리라는 말씀이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회복된 뒤에도 여전히 헬라,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다는 점에서 이 말은 사실과 다르다. 단순히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말세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진다.

19. 포로 선수들에게는 이적료라는 것이 있다. 일종의 몸값이다. 다른 구단에 팔릴 때는 선수에게 지불해야 하는 연봉 외에 소유 구단에 이적료를 따로 지불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팔려갔는가?

값도 없이 팔려갔으므로 몸값을 내지 않고 풀려날 것이다(3) 이것은 풀려나는 종의 입장에서 본 것이다. 아무 리 값없이 팔려갔어도 종을 소유한 주인이 값없이 해방시키는 법은 없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그냥 해방시키 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다.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값없이 풀려난 것 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고레스라는 사람을 사용하셨다. 오늘 우리의 구원도 우리 편에서 보면 값없이 주어진 것 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독생자를 희생시키신 일이다. 귀한 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지불하셨다. 그래서 속량 (값을 지불하고 속함)이라고 한다.

20. 이스라엘이 값없이 풀려난 전례가 있는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 백성이 기왕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였다는 것은 출애굽 이전 상황을 가리킨다.

21.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것이 정말 까닭 없는 일이었을까?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징계를 당했다 는 말이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지만 애굽이나 앗수르가 그래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애굽에 서는 우거했고, 앗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그렇다면 여기서 언급하는 포로 상황은 바벨론을 가리킨다. 하 나님께서 보시기에 애굽이나 앗수르나 바벨론이 한 짓은 까닭 없는 일이다.

22. '내가 어떻게 할까?'하는 말은 사람이 답답할 때 하는 탄식조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쓰실 때도 그럴까?

능력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탄식이겠지만 능력 있는 분이 이럴 때는 '내가 개입해야겠다'는 의사 표시로 보아 야 한다. 뒤에 나오는 '내 이름을 알리라' '나인줄 알리라'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이름값을 하겠다는 선언이 다.

23.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이름에 걸맞은 행동을 하실 것이라는 선언이다.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종일토록 모독을 해도 이 스라엘의 징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셨지만 이제 그 이름값을 하시겠다는 것이다.

24. 포로에게 석방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오는 전령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때가 묻었든 무좀발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은 무슨 의미로 사용하였을까?

복음전하는 자의 발걸음(롬 10:15)도 이와 같다: 여기서는 바벨론에서 해방될 날이 곧 올 것이라는 뜻이다. 특히 이 부분(7-12)의 히브리어는 아름다운 시란다! 바벨론 포로 이야기의 절정이요, 결론이다.

25.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파수꾼들이 어떻게 화답하는가?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8):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는 감격이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대면하여(눈이 마주봄) 보는 감격이다. 고대에 왕이 궁을 떠나 피해 있다가 돌아오는 것을 백성들이 환영하는 마음(아관파천에서 '전하께서 돌아오신다')이 그랬을까?

26.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구속하는 사건이 단순히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10절을 근거로 설명해 보자.

예루살렘의 구속은 '열방'과 '모든 땅 끝'을 염두에 둔 것이다. 단순히 구경거리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는 것이다(66:18-19).

27.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떠나는 것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놓여난다는 것은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12)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백성이 돌아온다고 보다는 여호와(여호와와)의 기구 = 법궤: 느부갓네살이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운반하여 갔던 것(8)에서 돌아오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단순한 개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다. 하나님과 분리된 삶은 있을 수 없다. 여호와와 기구를 메는 자만 정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래야 한다. 목사장로만 잘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구분이 없다.

28.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 발교 되지 아니한 반쪽을 메고 나온 것을 생각해 보면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애굽에서는 그만큼 황급히 나왔다. 그러나 바벨론에서는 천천히, 준비해서 돌아온다. BC 539에 바사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고레스 원년에 돌아가도 좋다는 명령이 나지만 2년 후(BC 537)에 1진이 출발하였다.

이사야 52:13~53:12

[53장은 네 번째 종의 노래로서 신구약의, 가장 복음적인 핵심이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가장 아름다운, 슬픈, 희망에 찬 노래이다. 4복음서의 요약이다. 그런데 잘못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장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것과, 히브리어가 어려워 본문을 잘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난외주가 유독 많다(난외주가 더 정확한 것으로 생각됨). 한 페이지에 한두 개 있을때마다 한 난외주가 무려 6개나 붙어있다. 아마 최고 기록 아닐까?]

1. 히브리 원문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표현 없이(개역성경의 작은 글자는 이것을 의미함) '보라 내 종이로다' 하고 시작한다. 하나님께서는 왜 메시아를 종이라고 표현할까?

종처럼 낮아져서 사명을 이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만 강조한다면 '사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낮아짐'을 강조하는 말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복수로 종이라 불렀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그들은 이 일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를 세우는 것이다. 곧 복수의 대표로서 단수이다. 복수는 실패자이나, 단수는 이 실패를 회복하는 존재다. 이 단수도 이스라엘인데 개인으로서 전체의 대표로서 전체를 회복시키고 구원할 자이다.

2. '형통하리니'라는 표현을 난외주에는 '지혜롭게 행하리니'라고 번역하고 있다. 다른 영어번역에는 '지혜롭게 행하다', '번영하다', '성공하다' 등으로 번역하고 있다. 원어가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 상반 있는 단어들이다. 정리한다면 '나의 종이 자기의 일을 성공적으로 마쳤나니'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은 무엇인가?

다 이루었다(요 19:30).

3. 위의 질문을 참고하면 13절은 한 구절로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요약하고 있는 셈이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해 보자.

낮아져 고난 받으심(=다 이루심)과 높이 들려서 장차 심판주로 오심.

4. 14절의 번역도 원문의 순서를 바꾼 것과 2인칭 대명사(난외주 2번)를 3인칭으로 바꾼 것은 잘못이다. 다시 번역한다면 다음과 같다. (적어도 이 부분은 한글 공동번역이 잘 되어 있다)

'우리가 너를 보고 기막혀 했었지! 그와 같이 그의 몸결은 망가져 사람이라 할 수 없었고, 그의 형체는 사람이 아니었다.' 1) 우리가 너, 즉 이스라엘을 보고 기막혀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2)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이 곧 누구의 모습인가?

1) 한때 정말 잘 나가던 이스라엘이다. 출애굽이나 가나안을 정복하던 모습이나 다윗의 시대를 보라. 그런데 지금은 머나먼 바벨론에 잡혀가서 유브라테 강의 독을 쑤느라고 흙 속에 파묻혀 지렁이처럼 살고 있기 때문이다.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어 그 윤택함이 마광한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애 4:7-8).'

2) 메시아가 이런 모습을 당한다는 것이다.

5. 15절의 '후에는'은 '그리하여'로 번역하고 '놀랄 것'은 난외주처럼 '뿌릴 것'이라고 번역함이 옳다(대부분의 영역본처럼). 메시아가 기가 막힐 고난을 당하고 '그리하여 열방에 (자신의 피를) 뿌릴 것'이다. 그러자 열왕이 놀라서 입을 봉하게 되는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일에 그렇게 놀라는지 본문의 표현대로 대답해 보자.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15) 듣도 보도 못한 일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이방인에게 성령이 주어지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처음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에게만 전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열왕(이방인들)을 구속하시는 그 방법, 하나님 자신이 낮아지고 자신의 피를 뿌려 구원을 이루는 이런 일은 어떤 종교도 철학도 가르쳐주지 않는,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들이 놀라면서 증거하는 것이 53장이다.

[53 장]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찾아보자.

6. 53:1의 난외주를 보자. '우리의 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들은 것'이다. 원문에도 분명히 '들은 것'이다. 우리가 들은 것을 (전한다고 하자) 도대체 누가 믿겠느냐는 말인데 그러면 여기 '우리'는 누구인가?

구속받은 열왕: 듣도 보도 못한 놀라운 일을 깨닫게 된 열왕들이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믿겠느냐면서 하는 말이다. 이 부분을 잘라낸 채 1절의 '우리'를 선지자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다. '여호와와 팔이 뉘게 나타났느냐?'라는 말씀도 같은 의미로 '여호와와 능력 있는 팔이 행한 것을 누가 듣고 깨달았느냐?'는 뜻이다. 이 열왕들이 무엇을 보고 놀랐는지 찾아보자. 출신 성분의 미약함(1-2), 사람들을 위한 희생(3-5), 완전한 순종(7), 그럼에도 씨를 보게 됨(8, 10), 악인과 함께 처형되었으나 부자의 묘실에 장사됨(9).

이 열왕들의 놀람이 곧 우리의 놀람이기도 하다. 복음송 '왜 날 사랑하나?'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 없다. 그저 놀랄 뿐이다. 복음이 그러한 것임을 선지자는 700여년 전에 이렇게 상세하게 예언하고 있다.

7.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고, 십자가에 죽어서 사흘 만

에 살아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을 믿은 사람이 있었는가?

아무도 없었다: 고향에서 배척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제자들조차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을 믿지 않았고, 메시아의 일에 대해서도 부활하신 후에까지 오해하고 있었다.

8.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소개했을 때 나다나엘의 대답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요 1:46)는 것이었다. 이것이 본문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

2절은 예수의 출신 성분이 보잘 것 없을 것임을 나타낸다. 연한 순이란 먹기 좋은 부드러움이 아니요, 힘이 없음을 말한다. 메시아의 특징은 볼품이 없고 연약하다. 어떤 모습으로 왔으면 사람에게 멋있었을까? 고운 모양, 풍채, 슈퍼스타, 연예인, 대중의 우상 같은 방법으로 왔으면 참 쉬웠을 텐데... 예수님의 사역 방법은 대중적이고, 조직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 교제였다. 사람을 가르치고 키우는 일은 경제적인 논리, 조직, 분위기가 아니라 인격적 교제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9.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말하자 유대인들이 30대 초반인 예수를 가리켜 '네가 아직 오십도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요 8:57)고 물었던 것은 이 본문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많이 겪으실 것이다(3절): 하도 고생을 많이 해서 30대 초반의 예수님이 40대는 확실하게 넘은 사람처럼 보였다는 말이다.

10. 기도해서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진 분들도 그냥 편하게 기도해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다. 환자가 하는 기침을 자신도 하고, 환자가 당하는 아픔을 자신도 당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다. 함부로 병 고치는 은사를 사모했다가는 얼마나 후회하게 될지 모른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실 것을 언급하는 말이 본문에 있는가?

질고를 아는 자: 병을 체험하신 분이라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온갖 병을 다 겪으셨단 말인가? 기도로 병을 고친다는 것은 그 병을 체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11. 메시아는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 1) 하나님, 2) 제자들 (베드로), 3)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4) 군병들, 5) 빌라도에게서 각각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정리해 보자.

1) **하나님:** 버림을 받았다(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마도 메시아가 겪은 가장 큰 고통일 것. 제자들이나 군중들에게 버림받은 것은 그럴 수 있다고 해도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난이다. 껌새마네의 고통(마 26:38)도 이것 때문이었을 것이다.

2) **제자들 (베드로):** 잡혔을 때 모두가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다. 다시 살아날 것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예수의 사역을 이해하고 알아주지도 않았다.

3)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반드시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고 실천에 옮겼다.

4) **군병들:** 아무 것도 모른 채 상관의 명에 따라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 광패 집단의 행동대장처럼.

5) **빌라도:** 소신 없이 결정을 내렸다가 만고의 역적이 되고 말았다. 사도신경에 이름이 올랐으니.

12. 다음 구절은 본문의 어느 구절과 가장 가까운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 '(요 1:10-11)

3절: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13. 3절의 '우리도'는 누구와 누구가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말인가?

먼저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유대인이다. 그 다음으로 '열왕들'(즉 이방인)이다. 구약에서 이방인이란 버림받은 존재들이었다. 그런 이방인을 위해서(4-5절의 우리) 하나님의 종이 고난을 당하다니... 그래서 열왕들이 놀라는 것이다.

14. 세상을 구하려고 오는 메시아가 투사나 위대한 장군처럼 등장하지 않고 고난을 당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한: 이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왜 인간을 만들고 그들을 사랑하사 이렇게까지 하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특한 사랑이다.

15. 다음 구절에서 마태는 이사야의 어느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마 8:16-17)

4절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疾苦)란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다.

16.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신 21:23 말씀을 생각했다. 본문의 말씀은 어떤 점에서는 그들의 생각과 동일하고 어떤 점은 다르다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누구의 허물 때문이라는 점(갈 3:13)이 다르다: 자기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이란 것을 유대인들이 알지 못했다(=8절).

17. 메시아가 당한 고난을 베드로는 본문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자는 것이다. 어떤 삶?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

스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꾀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 (벧전 2:19-24)

하나님 때문에 인내하는 삶: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의 종은 아무런 죄나 잘못이 없음에도 찢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지 않았느냐? 우리도 그 본을 따라 인내하자.

18. 그가 ...은 우리의 ...을 인함이요? 그가 ... 으로 우리가 ...를 누린다?(5-7) 사고낸 사람이 벌을 받아야지! 원래 이런 법이 없다.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방법이다.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대속: 생축이든 사람이든 초태생은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초태생을 죽이는 대신에 대속물을 내라고 하셨다. 대속이란 개념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우리 죄를 예수께서 대속케 하시려고...

19. 다 양 같아서? 양이 어때서? 순하고, 털이 희고 ...

양은 눈이 어두워 앞에서 이끄는 대로 따라간다. 선두가 길을 잘못 들어서 절벽에서 떨어지면 줄줄이 떨어진다나?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말이다.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갔단다. 켈빈의 말을 빌린다면 '전적부패'다.

20.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상대로 하신 '일(예수를 통하여)'을 기록한 책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신론)을 배우고 인간(인론)을 배우고 예수(기독교론)를 배우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요소(하나님, 인간, 예수)가 한꺼번에 나타나 있는 구절을 찾아보자.

6절: 주권자이신 여호와께서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분에게 대신 죄를 지게 하셨다.

21. 7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는 대제사장들의 심문과 빌라도의 심문에 정말 아무 대답도 않으셨는가? 병사들의 모욕과 채찍에 아무 말씀도 않으셨는가? 마 26:57-68을 근거로 생각해 보자.

변명이나 무죄선고를 받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아니 유죄 선고를 받을 만한 말만 골라 가면서 답변을 하셨다(마 26:63-64). 십자가 상에서 여러 말씀을 남기셨으나 병사들의 모욕이나 채찍을 피하기 위한 말씀은 한 마디도 않으셨다. '곤욕을 당하여'의 원어적 의미는 '그가 자신을 곤욕당하도록 내맡기셨다'는 뜻이다. 그 분은 스스로 고난을 받으셨다.

22. 8절은 원문 자체가 어렵다고 한다. NIV를 보자. *By oppression and judgment he was taken away. And who can speak of his descendants? For he was cut off from the land of the living; for the transgression of my people he was stricken.* 우리말 번역의 '그 세대'란 말이 다르게 번역되었다. 강압적인 재판을 받고 끌려갔으니 누가 그 후손을 생각했겠느냐는 뜻이다. 예수님께로는 혈육도 없고 제자들도 다 도망쳐버렸다. 육적이든 영적이든 후손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문맥상으로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한 이유를 바로 뒤에서 찾는다면?

10절에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23. 9절도 열왕들이 보고 놀라는 것 중의 하나이다. 왜 이것이 놀라운 일이 되는지 다른 번역을 참고해서 생각해 보자. 다음 두 번역을 비교해 보자. 접속사는 NKJV, 내용은 NIV를 보라.

[NKJV] *And they made His grave with the wicked--But with the rich at His death, Because He had done no violence, Nor was any deceit in His mouth.*

[NIV] *He was assigned a grave with the wicked, and with the rich in his death, though he had done no violence, nor was any deceit in his mouth.*

나무에 달린 시체는 저주받은 것이어서 정상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법이다. 그런데도 부자의 무덤에 들어갔다(9)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두 번역을 정돈하면 '그는 악인과 함께 무덤이 지정되었다(정상적인 장례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버려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의 주검은 부자와 함께 놓여졌다. 왜냐하면 그는 어떤 악행도 행하지 않았으며, 그의 입에는 어떤 속임수도 없었기 때문이다.'로 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문맥에도 어울리고 원어상의 순서에 가깝다.

24. 9절 말씀의 두 가지 양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원한 사람이 있다면?

강도 둘(마 28:38)과 아리마대 요셉(마 27:57-60):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느라고 악은 죄를 썼다. 공회와 사형을 언도한다면 스테반의 경우처럼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다. 백성들이 거부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일이다.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야 십자가 처형이 가능했다. 자기들의 법을 따라 돌로 쳤더라면 예수는 무덤에 장례를 치를 수 없는데 죄를 부린다는 것이 그만 시체를 처리할 권한이 빌라도에게 넘어갔고 요셉의 요구에 따라 부자의 묘에 장례를 치른 것이다. 당황한 그들이 무덤을 단단히 지켜달라고 요구하게 된다. 덕분에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었다는 증거만 더 늘었다(시체가 없어짐, 로마병사들이 지켰음에도 실패함, 돈을 주고 매수해야 했음).

25. '누가 예수를 죽으려고 이 땅에 왔다고 가르치는가?' 이것은 어느 사이비 교단에서 자기의 교주를 선전하기 위해서 신문에 대대적인 광고를 내면서 헤드라인으로 뽑은 구절이다. 죽으려고 온 것이 아닌데 세상의 판원들이 실수로 죽였으므로(고전 2:8을 근거로, 9절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데도) 예수는 임무를 다 하지 못하였다. 그 일을 완성하려고 자기가 왔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결정적인 구절을 본문에서 제시한다면?

1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다. 또 그런 고난이 결코 실패가 아님을 말하고 있다.

26. 희생제물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메시야는 왜 하필이면 ‘속건 제물’이어야 하는가(10절)? 번제도, 화목제도 있는데?

속건제는 부채에 대한 상환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종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담이 저지른 빛을 상환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27. 강포를 행치 않았음에도 질고를 당한 결과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만족스러울 것(11): 씨를 보게 되며, 날이 길 것이며, 여호와와 뜻이 성취될 것이다(10).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11).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할 것임(12).

28. 하나님의 종은 어떤 이유로 분깃을 나누어 가지는가(4가지 이유)?

자기 영혼을 죽음에 내어 놓았고(완료형),

범죄자 중의 하나로 취급받았으며(완료형),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졌으며(완료형),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심(미완료: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뜻)으로.

29. 하나님의 종은 존귀한 자, 곧 강한 자와 분깃을 나눈다. 강한 자가 혼자 독차지 하던 것을 빼앗아 가진다는 말이다. 그러면 강한 자는 누구인가? 눅 11:21-22를 참고하라.

사탄: 강한 자와 분깃을 나누어 가지는 자는 더 강한 자이다. 하나님의 종이 이런 고초를 겪고서 사탄과 분깃(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누어 가진다.

30.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자의인가? 타의인가?

자의(12): 자기 스스로 범죄자들을 위하여 자기의 영혼을 버렸다. 요 10:17-18에 동일한 말씀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31. 계속되는 두 가지 주제, 인간의 타락과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나? 53장이 이 질문에 어떤 해답을 주는가?

하나님께서 그(당신의 외아들)에게 대신 짐을 지게 하심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희생하셔서 타락한 인생을 회복시키신다.

32. 다음 단락에 각각 제목을 붙여보고 종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서로 관련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사 52:13-15, 사 53:1-3, 사 53:4-6, 사 53:7-9, 사 53:10-12

사 52:13-15: 높아짐, **사 53:1-3:** 배척당함, **사 53:4-6:** 고난, **사 53:7-9:** 배척당함, **사 53:10-12:** 높아짐

앞뒤가 서로 대칭이 되고 대칭축은 ‘종의 고난’이다. 고난이 가장 중요한 주제임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사야 54 장

1. 54:1-56:8은 '종'의 사역의 결과에 대한 설명이다. 잉태치도 못하고 생산치도 못했고 구로치도 못했던 남편없는 여인이란 누구를 가리킬까?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1차적으로는 고난 받은 유다 백성들, 2차적으로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원래 이방인) 갈 4:21-31(본문의 1절이 인용됨)을 보면 약속의 자손이 육체의 자손이 되고 육체의 자손이 약속의 자손이 되기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잉태치 못한 자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을 가리킨다. 신약의 상황에서는 그렇다. 구약적 상황에서는 바벨론 포로로 가서 고난당하는 유대인들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자식이 많을 것(1) 최고의 남편을 맞을 것(5) 낳지도 않은 자식이 어떻게 많아지는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리라(호 2:23, 롬 9:25)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뿐이다. 양자를 들이면 되지(요 1:12-13)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라는 것이다. 이스라엘 여인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수치인가는 사 4:1에 잘 나타나 있다.

2. 누구에게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시는가? 왜 그래야 하는가?

자식도 남편도 없는 여인에게 자식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나서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12 제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했는지 보라. 우리를 통해서 태어나야 할 자식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3. '장막터를 넓히며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는 말씀은 교회를 지을 때 터를 넓게 잡고 건물을 크게 지으라는 뜻인가?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후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것이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구절을 땅 사고 건물을 짓는 것에 바로 인용하는 것은 다소 억지이다. 건물을 크고 넓게 지어놓아야 사람이 모인다는 생각과 본문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거할 성읍마저 주신다(3절).

4.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회복시켜주신다고 하시는가?

자식과 성읍(3) 조상들에게 '후손과 땅'을 주리라고 하신 약속과 동일한 것이다. 후일에 보면 이 후손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다.

5. '청년 때 수치'와 '과부 때 치욕'이란?

청년 때 수치: 구체적인 어떤 행위라기보다는 '한창 잘 나갈 때 하나님에게 충성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만 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무난하다. 외적의 침입을 당하고 어려움에 빠지면 하나님을 찾다가도 살기 좋아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의 방종함을 뜻하는 것이다. 한창 때 바람피우던 남편이 늙고 병들어 부인을 찾아가면 듣는 말이 '한창 때는 제 멋대로 돌아다니더니 병들고 힘도 없으니 나를 찾아왔느냐?'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듣는 책망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과부 때 치욕: 아내로서 남편에게 신실치 못했다가 남편 없이 고생하던 것을 지적하는 표현: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해서 이민족으로부터 침략과 유린당한 모습이다.

6. 청년 때의 수치와 과부 때의 치욕을 어떻게 잊을 수 있는가?

자신의 능력이 아닌 남편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창조자, 만군의 여호와, 거룩한 자,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잊게하신다!

7. 소시에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유대인들: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을 의미하는 것이 확실하다. 2차적으로는 신약시대에 버림받은 유대인들이 종말에는 회복될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롬 3:1-3).

8.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지라도 회복은 풍성하게 주실 것임을 7-8을 근거로 설명해 보자.

징계는 '잡판'이지만 회복은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이다.

9.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다면?

다시는 노하거나 책망하지 않겠다고 하신 점(9): 홍수 이후에 다시는 물이 땅을 뒤덮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신 이유도 결코 사람이 좋아질 것을 예상하고 하신 말씀이 아니다(창 8:21). 마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함에도 다시는 그런 심판을 행치 않겠다고 하신 것은 일종의 한시적 포기이기도 하고 그만큼 마음이 아프셨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른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포기하신 것이다.

10. '산들이 떠나간다'는 표현이 성경에는 자주 나타난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마 21:21)라고 하셨다. 왜 애꿎은 산을 자꾸 들먹일까?

산이 옮기우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뜻의 히브리 관용어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도 일어난다는 뜻이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인자와 언약이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을 강조하는 의미이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럴 때 '해가 서쪽에서 뜬다 해도 ...'라고 할 텐데.

11.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은 마치 광풍에 밀려 요동하는 배에 탄 자와 같다. 엄청난 고생 가운데서 구해내어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

보석으로 화려하게 꾸민 성읍(11-12)과 평강(13-17): 이 묘사는 결국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묘사이다. 아름다운 곳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릴 그 날을 기대하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12.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란 무슨 뜻일까?

마치 스테인드글라스처럼 돌에 아름다운 테두리로 장식하여 지은 건물: 벽은 그러하고 기초, 성문, 성첩(성벽)

탑)은 더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지은 성읍을 주시겠다는 것이다. 황금보석으로 꾸민 12대문이 있는 성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다(계 21 장). 아름다운 테두리를 하는 풀은 일반적인 풀이 아니라 보석이어야 어울린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존귀함과 영광스러움을 잘 모른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석으로 꾸미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보석이 된 자신과 형제를 보라.

13.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은 단순히 거할 성읍만 주시는 것이 아니다. 또 무슨 복을 주시는가?

평강할 것, 공포가 없을 것: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서 평강할 것이며, 의로 설 것이므로 학대가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진작 그랬더라면, 복중에 가장 기본적인 복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만든다. 말씀으로 승부해야 한다. 결과로 주어진 것이 평강이다.

14. 회복된 이스라엘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 건드리면?

자기가 당한다: 이 복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아브람을 불러내실 때 약속하셨던 것이기도 하다(창 12:3).

15. 17절 끝의 '이'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무엇이 여호와와 종들의 기업(물려받을 몫)이라는 말인가?

자신을 치는 자는 도리어 화를 당하게 하고, 자신을 송사하는 자는 도리어 정죄를 당하게 하는 권리: 이러면 아무도 못 건드린다. 유도가 상대방의 힘을 이용하여 넘어뜨리는 경기라고 하든가? 그렇다면 압도적으로 힘이 강해도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말이다. 회복된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으로 모든 대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자격을 주셨다.

16. 전장에서 말한 종의 고난이 이 장이 말하는 '회복과 영화'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스라엘(이방인, 유대인)의 회복과 영화는 오로지 종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다.

17. 본 장에는 여러 개의 이미지(임신치 못하는 여인, 장막의 확장, 재결합 부부, 찬란한 성, 무력한 적)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잘 연결하여 메시지를 구성해 보라.

하나님께서 임신치 못하는 여인의 수치를 깨끗이 씻는 날에 자녀들이 아주 많아지겠기에 장막을 크게 확장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실 것이다. 이것은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한 비유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앞으로 찬란한 성처럼 재건될 것이고 이들을 포로로 잡아간 대적들은 무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교회의 확장과 권고함).

/ 54장의 내용은 55장 3절 상반절까지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다: 여호와와 백성이 회복되고 행복한 삶(54장)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 아름다운 곳으로 초대하는 글이므로 /

이사야 55 장

1. 돈없이 값없이 사라? 그저 준다는 애기가? 그러면 '준다'고 하지 왜 '사라'고 하나?

없는 사람의 형편이나 체면을 위해서? 반드시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다. 도움을 베풀면서도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는 것은 참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2. 목은 마른데 돈이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전적으로 부패하여 자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따라서 무조건적인 구원만이 유일한 해결책일 수밖에 없는 인류. 예수님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에게 복을 선포하셨다.

3.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값을 주고 수고하는 사람에게 물과 포도주와 젖을 무료로 주겠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임을 보여주는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인간의 어떤 행위에 대한 보답이 아니다. 그렇다고 이 물과 포도주와 젖이 값싼 것이 아니다. 53장 중의 고난으로 값을 지불한 것이기에 무료로 보일 뿐이다.

4.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해도 좋은 구절이 있는가?

2절 말씀을 담배 피우지 말라는 뜻으로 적용하는 것을 들은 적이 더러 있다. 적용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중요한 것(하나님의 구원)을 다루는 말씀을 그렇게 값싼 경우(담배)에 적용하는 것은 싫다.

5. 목마른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다. 물대신 포도주와 젖은 괜찮다. 이 물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

6. 명령형 동사를 다 찾아보자(1-3). 공통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아오라(오라), (와서)사라, 청종하라, 들으라: 전부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뜻이다!

7. 목마른 자가 하나님께 나아오면 어떻게 될까?

갈증 해소는 물론이고, 좋은 것으로 배부를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마음이 즐거울 것, 영혼이 살 것(3a)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바라고 기대했던 것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것이다. 단순하게 갈증만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살리신다. 병으로 고치려고 예수께 왔던 많은 사람들이 죄까지 용서 받았다.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8. 목마른 자에게 '영혼이 살리라'고 하면 달려올까?

아마 들지 않을지도 모른다. 목마른 자에게는 물을 주는 것이 옳다. 그러나 물만 주어서는 안 된다. 물 때문에 찾아왔어도 결국은 영혼을 적셔 주어야 한다. 영혼의 즐거움이 없으면 물도 양식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9.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시는 영원한 언약이란? (아래 두 질문을 포함함)

다윗 언약(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다윗을 왕으로 세웠으니 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알지도 못하던 나라를 부르고 너를 알지도 못하던 나라가 달려오리라. 다윗도 모형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상상도 못할 만큼 강성한 나라를 이루리라는 예언이다. 다윗언약의 핵심은 왕위계승이다.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다윗 왕조의 완성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윗의 자손)이시다. 그리하여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을 완성시키신다.

10. 다윗이 언제 만민의 증거가 되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가 되었는가?

역사적으로 그런 적은 없다: 다윗의 전성기는 메시아 시대의 그림자이다(1차적인 의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최종적인 의미). 그 분이 만민의 인도자며 명령자가 되신다.

11. 신약시대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세 음절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방인: 메시아의 때가 되면 이방인들이 달려올 것이라고 하시면서도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5절은 복음이 널리(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퍼져나가는 것에 대한 예언이다.

12.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고? 만날만한 때가 있다고?

때를 놓치지 말라는 뜻이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기회를 놓치면 만날 수 없는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13. 8-9, 10-11, 12-13절을 말씀하시는 이유를 6-7절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자.

8-9: 사람의 생각으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 **10-11**절은 용서에 대한 확실함, **12-13**절은 용서의 결과이다.

14.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

설명할 수 없다: 다르고 위대하다는 것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얼마나 위대하신지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롬 11:33-34에서 '누가'를 반복하는 것도 마찬가지 의미이다.

15. 비는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는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싹을 내고 열매를 맺게 하는 점에서(11):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일차적으로 6-7절이라고 보면 좋겠다. 확대하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요, 말씀이신 예수이기도 하다. 형통하리라는 말의 의미는 52:13절의 '형통'과는 단어가 다르지만 여기서도 성공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16. 악인이 그 길을, 불의한 자가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외에 또 누가 기뻐하고 환영하는가?

산천초목(12): 땅이 저주를 받은 것도 아담의 범죄 이후의 일이다. 인류가 회복되고 돌아오는 것은 모든 자연세계도 저주에서 풀려나는 것을 의미한다.

17.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팔레스틴 지역의 상록수)가 질려를 대신하는 것은 원상회복의 의미가 있다. 어느 시대를 돌아가는 것인가?

창 3:18절 이전으로:

18. 본장은 40-55장의 총 결론이다.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으로의 초청: 이것은 모든 선지자들의 결론이요, 하나님의 결론이다.

19. 다음과 같은 칼빈주의의 5대 강령(교리)가 본문과 어떻게 관계되는지 찾아보자. (영문 첫글자를 따 모으면 Tulip이 된다)

Total Depravity or Inability (전적부패 혹은 전적무능력): 돈 없는 자도 오라.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 값없이

Limited Atonement (Particular Redemption 제한된 구속): 만일만한 때에

Irresista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형통하리라(11)

Pre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 Security of Believers 궁극적 구원):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12) 끊어지지 아니 하리라(13)

이사야 56:1~8

1. 이스라엘이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과 의가 가깝기 때문이다(1) 1절은 신약시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과 흡사하다. 가까운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인간의 회개(여기서는 공평과 의를 행함)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가령 논문을 쓰는 사람이 어떤 주제를 잡았다고 하자. 실컷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차피 연구결과가 나옴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면 얼마나 허무한 것일까? 평생 쥐안 연구한 쥐 박사도 있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아무리 단순하게 보이는 것도 파고 들어가 보면 복잡하여 연구할 것이 무궁무진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전제가 없다면 이스라엘의 공평과 의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2. 하나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인데(1) 굳이 이스라엘이 공평과 의를 행해야 하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도 꼭 인간을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로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하셔도 될 일을 언약의 형태로 말씀하셨다(“하라. 그러면 ~ 하리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반드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있다. 내가 약속한 일을 이룰 테니 준비하라는 뜻이다. 그렇다고 그것이 공로는 아니다. 밥을 공짜로 주었더니 체면유지비로 100원씩 내더란다. 이렇게 모인 돈이 몇 억 넘게 모이자 다시 다른 외국기관을 도와주었다(다일공동체). 이스라엘이 행하는 공평과 의는 체면유지비인 셈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 천국이 가까워질수록 인간에 대한 요구 사항이 반드시 있었다.

3. 롬 3:21-22에는 '나타난 의'가 있고 여기 56:1에는 '나타날 의'가 있다. 이 두 구절을 연결해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의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예수 그리스도: 롬 3:21-22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4.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시대가 되면 '율법을 지키라'는 말 대신에 어떤 말이 더 널리 사용될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2, 4, 6절)

5. 공평을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2, 4, 6)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안식일 문제는 창조 때부터 언급되었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한 안식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날을 지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안식년, 희년이 그런 의미를 가진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온전한 예배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이기도 하려니와 포로기 이후에는 번제를 중심한 제의적인 율법이 폐지되는 것에 대한 간접적 암시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내는 것인 셈이다.

6.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이란 표현(2)은 아무래도 어색하다. 좀 자연스럽게 다듬는다면?

이것을 굳게 지키는 사람

7. 애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를 가리켜 석녀라고 하든가? 애기를 낳지 못하는 남자는 뭐라고 하나?

마른 나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표현이 없었다. 애기를 못 낳으면 무조건 여자 책임이었으니까.

8. 하필이면 왜 고자 이야기를 하시는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지 못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신 23:2). 이제는 그들을 막던 율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뜻이다. 고자와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던 것은 율법의 규정 때문이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4)는 누구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다(5, 7. 내 집, 내 성안)고 선언하신다.

9. 고자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일까?

자식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음을 주시겠다고(5). 그래서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고자는 당연히 대가 끊어지고 이름이 끊기는 법인데...

10. 전장 끝에서는 예전동산의 회복을 가리키는 듯한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새로운 시대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인가?

이방인(고자도 포함)이 갈라내어지지 않는 것(3, 6, 7, 8)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포함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인도될 것이다.

11. 이방인들과 고자는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

여호와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신 23:1-8)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새로운 시대에는 이들도 다 불러들이겠다고 하신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성전청결 사건이다(마 21:13).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만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여세를 몰아 성전까지 들어가셨다. 장사꾼들을 몰아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성전시대를 외친 것이다. 원래 이곳은 소경, 저는 자, 아이들은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다. 그런데 이곳까지 들어오게 하신 것은 바로 이 말씀(3-7)의 성취이다. 성전청결 사건을 단순히 윤리적인 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참 제물이 왔으니 거짓 제물은 나가라' '참 성전이 왔으니 거짓 성전은 무너져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12.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는 구절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단어는?

만민의: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기도'에 강조를 두셔서 성전 청결의 근거로 사용하셨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방

인플마저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13.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교회 시대(초림 시대), 재림 후의 시대에 대해서도 많은 예언을 남겼다. 새로운 시대의 총 결론에 해당하는 8절은 어느 시대에 가장 적합한 말씀인가?

교회시대(초림 이후):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고 불러 모으는 시대이다.

이사야 56:9-57 장

[어떤 학자들은 56:9부터 제3 이사야서라고 부른다. 메시지의 변화일 뿐 그렇게 주장할 확실한 근거는 없다. 1-39장은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면서 초림, 재림의 예수가 뒤섞여 나타난다. 40장 이후는 포로로 잡혀간 것을 전제로 하고 희망을 주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주로 초림의 예수를 다룬다. 56:9 이후에는 포로귀환이 이루어진 상태를 전제로 하고 귀환한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이다. 재림 예수가 주로 나타난다]

1. 들과 삼림의 짐승들에게 '다 와서 삼키라'고 하더니(9) 도대체 무엇을 삼키라는 말인가?

양이겠지: 파수꾼(개, 목자)이 전혀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잡아먹으란다.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전혀 무관심한 양치기 개나 목자(즉, 지도자)에게 경고하는 말이다. 이런 파수꾼이나 목자를 둔 양이 불쌍하지!

2. 파수꾼에게 가장 요긴한 능력은 무엇인가?

적을 발견해내는 눈과 발견한 즉시 경고를 발할 목소리: 지도자는 비난을 받더라도 앞날의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 일이 터진 다음에 '그럴 줄 알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IMF라는 괴물이 닥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미리 예측했어야 한다. 일이 터진 다음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해서는 안 된다.

3.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무엇을 못하는가?

보는 것과 짓는 것: 보지 못하는 소경이요 짓지 못하는 개와 같다. 이권 보신탕감이다.

4.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누워 자면서 꿈꾸는 것, 술 마시는 것: 누워 자기만 하고 술 마시기만 좋아하니 결과적으로 무능해지는 결과, 아니면 무능하니까 엉뚱한 일에만 관심을 가지는 결과? 잘 노는 것도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인데... 아무래도 생각이 잘못돼서 능력이 엉뚱한 곳으로 발전된 것이라.

5. 지도자가 무능하고 욕심만 부리면 밑의 사람들도 그렇게 되기 마련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패하기 마련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라는 뜻으로 쓰인 표현은?

어디 있는 자이든지(11): 지리적인 장소라기보다는 지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6. 술 마시는 사람들이 근배할 때 쓰는 용어 중에는 '위하여'라든가 '우리가 남이가' 정도는 준수한 것이다. 더러 시대상을 반영하는 경우가 있어서 민망스러울 때도 있다. 이스라엘의 정신없는 지도자들이 근배할 때는 뭐라고 했을까?

내일도 오늘같이(12): IMF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을 때에도 오히려 그런 상황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사람들이 그랬다나? '이대로!'

7. 남을 돕는 일에는 발발 떠는 사람도, 먹고 즐기는 일에는 손이 무척 크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도 탐욕이 심하고 족한 줄을 모르고(11) 자기 이익만 도모하지만(12) 매사에 그렇지는 않다. 어떤 때에 손이 클까?

술 먹는 일에(12):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는 말은 '오늘은 내가 한 잔 살찌'라는 말일 것이다. 자기 집 식구들 생활비조차 아까운 사람이 술 먹는 일에는 손이 크더라.

[57장]

8. 의인이 일찍 죽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악에 전여(from the evil to come) 취하여 감(1):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선한 사람이 일찍 죽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다. 남아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먼저 간 사람은 일찍 편안한 쉼을 얻는 것이다(2). 이 땅에서 겪을 화액을 미리 피하여간 행복한 사람이다(예, 왕상 14:11-13). 역으로 보면 죽은 사람이 행복하다고 느껴질 만큼 힘든 일이 닥칠 것이라는 선언이다. 군대에서 힘들게 훈련받을 때 아는 친구가 훈련병 사이에 있으면 험한 소리로 잡아낸다. 혼을 낼 듯이 불려내서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쉬게 하는 것처럼.

9. 의인이 죽든지 자비한(경건한) 자들이 사라지든지 도무지 관심이 없다면 도대체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

음욕(5) 우상숭배(6-9): 아이들이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면 이성교제나 인터넷에 몰두하고 있는지 살펴볼 일이다.

10.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고 하고선(3) 책망하는 것(4-12)은 뭐야?

불러 놓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른 자들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이다. 3절은 13절 끝부분의 말씀과 맥이 닿아 있다. 다시 말하면 3절은 4-13절을 간단하게 요약한 말씀이다.

11.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이런 자식들을 불러다 무엇 하려고? 사거리에 가서 아무나 불들어 오라는 말씀(마 22:1-14)과 마찬가지로인가?

복음(하나님의 초청)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3) '나를 외회하는 자만이 땅을 차지한다(13) 사거리에서 불려온 모든 사람이 잔치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예복을 입은 사람만(예복은 주회 측에서 제공하는 것)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12. 음욕을 피우는 것과 자녀를 죽이는 것(5)이 무슨 상관일까?

음란함과 우상숭배(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인신제사일 것)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음란함이란 우상을 숭배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면 필연적으로 음란해질 수밖에 없다: 5, 9절에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난다.

13. 원래 이스라엘이 '제비뽑아 얻은 것'은 가난한 땅(=하나님에 대한 상징)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버리

고 무엇을 기업으로 삼았는가?

끝까지 가운데 애그러운 돌: 원문에는 ‘돌’이 없다. 우상을 섬기는 제단 혹은 우상 자체일 수도 있겠다. 진짜 복을 차버리고 제 손으로 제 눈을 찔러 피를 보는 일이다.

14. 원래 이스라엘이 문과 문설주에 간직해야 할 기념물은 어린 양의 피(출 12:7)와 하나님의 말씀(신 6:9)이다. 이제는 어떤 장소가 되었는가?

우상을 세웠던 장소(8): 기념표, 기념하는 것이란 다를 아닌 우상이다.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정결케 되고 죽음을 벗어났던 그 숭고한 장소가 우상을 숭배하는 음란한 곳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기록된 바로 그 곳이 우상을 기념하는 장소가 되어버렸다!

15.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을 남편 아닌 다른 남자를 위해서 침상을 준비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 어떻게 침상을 준비하는가?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7), 벌거벗고(8), 침상을 넓히고(8), 향품을 더하고(9), 피곤하지도 않다(10).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남편에게는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하면서 남의 남편에게서 감격하고 온 정성을 다 하는 꼴이라니! 더구나 높은 곳이란 공개적인 장소이기도 하다. 수치심마저 잃어버렸다는 뜻이다.

16. 옷을 벗고 침상에 올라가서 무슨 ‘언약’을 하는 걸까(8)?

기뻐해야 화대밖에, 아니면 시시껄렁한 사랑타령이나! 잠깐 후 정신을 차리고 보면 너무나 허무할 것을!

17. 형식이 비슷하다고 내용마저 같은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기독교인도 기도하고 불교인도 기도한다? 기독교인은 이웃을 사랑하고 불교인은 이웃에게 자비를 베푼다? 그래서 같은 것 아니냐? 내용은 너무나 다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는 유향이나(레 2:1), 소금(레 2:13)을 부(副)제물로 드렸다. 유향이 없는 경우에는 굵거나 부치거나 삶는 노력이 더 필요했다(레 2:4-7).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면서 어떻게 비슷한 형식을 취하였는가?

기름에 향품을 더하는 데 ‘더욱’ 더하였단다(9) 우상을 섬기면서도 형식은 하나님께 하듯이 그대로 한 셈이다.

18. 사신을 보내다니(9)? 이 사신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책망하는 문맥에서 나온 말이므로 정치적인 임무를 띤 사신이 아닐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임무를 띠고 이렇게 자신을 낮추면서 피곤도 모른 채 열심일까?

외국에까지 사람을 보내서 옹하다는 우상을 찾는 행위 아닐까? 우리나라에서도 옹하다는 점쟁이나 무당은 아무나 함부로 만나지 못한다. 피곤해서 다 죽어가다가도 고스톱치자는 말만 나오면 벌떡 일어나는 사람처럼, 공부하라면 잠이 쏟아지다가도 재미있는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학생처럼, 우상 섬기는 일에는 그렇게 힘이 쏙는 모양이다.

19.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것이 하나님이 오랫동안 잠잠하였기 때문이었음을 하나님도 아시네! 그럼 잠잠하지 않으시면 될 텐데... 그런데 왜 너의 의를 보이리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벌써 죽었다. 의롭지 못함에도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서 오래 동안 참고 계셨다는 뜻이다. 경상도 말로 ‘가마이/가만히/있으니/있으니/가마이때고/가마니 인/줄 아냐?’

‘너의 의’는 ‘너의 소위’와 동일한 말(12)이다. 너의 의가 전혀 의로움이 아님을 드러내겠다는 선언이다.

20. 우상 숭배자의 말로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결말은?

우상 숭배자가 모은 것은 바람과 함께 사라질 것, 허망할 것이다. 길에서 치워 버려야 할 거치는 것일 뿐이다(14).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결코 바람에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21.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음부까지 스스로를 낮추었는데’(9) 그것은 겸손한 것(15)이 아닌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겸손의 기본이다: 높으신 하나님 때문에 나보다 못한 형제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다. ‘통회’란 ‘깨어지고, 부서져서 잘게 쪼개진 것’을 가리킨다. 결국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존재를 깨달은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앞에서 자신을 아무리 낮추어도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무지요 어리석음이다. 마땅히 낮출 자 앞에서 낮추는 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겸손한 자를 높고 거룩한 곳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겠다고 하신다.

22. 이스라엘이 구제불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징계를 해도 더욱 패역하고 자기 길로 행함(17): 이래도 하나님께서 고쳐 주리라고 하신다(18). 면제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19)고 하신다.

23. 하나님께서 영원히 노하지 않는 것(16)이나 징계를 하셔도 여전히 패역한 인생(17)을 고치시는(18) 이유를 본문에서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가리켜 나의 지은 그 영광 혼이라고 하신다(16). 천지창조라기보다는 인간창조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그래서 패역하고 제 길로 가는 자식임에도 ‘면제’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19)고 하신다(19). 창조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일이었지만 깨어지고 부서진 인간을 고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일이다. 구원의 이유가 사람에게 있지 않다. 이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는 것(창조보다 더 큰 재창조)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24.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입술이 맺을 수 있는 가장 큰 열매는 무엇인가? 이 입술이 이스라엘의 입술이라면 열매는 무엇일까?

찬양(참고 히 13:15 찬미의 제사): 백성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올만한 일을 하시겠다는 선언이다. 면제 있는 자

에게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을 주시면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의 찬양밖에 더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입이 뱃을 수 있는 가장 큰 열매는 찬양, 기도, 감사... 이다.

25. '징계를 해도 오히려 더 패역한 자'와 '악인'은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자는 '슬퍼하는 자(18)' 통회하고 겸손한 자(15)'이다. 비록 패역에 패역을 거듭할지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돌이킬 마음만이라도 있는 자(하나님 편에서 보면 택한 자기 백성이다)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고치시고 돌이키신다. 무슨 대단한 결단과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구원 사역에 회개라는 방식으로 참여하기만 하면 된다. 악인이란 끝까지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성령회방죄를 짓는) 인간을 말한다.

26. 악인은 바다와 같다. 어떤 점에서?

불안정함과 그 속에 더러운 것을 품고 있어서(20) 히브리인에게 바다는 결코 안식이 없는 불안정한 상태의 이미지이다(43:2). 이미지가 거대한 구정물통과 비슷한가?

이사야 58 장

- 야곱의 허물과 죄를 크게 외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 좋은 일도 아닌데...
야곱이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야곱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아주 이상적인 나라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 조용조용하게 이야기해서 될 일이 아닌 모양이다. 충격을 주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어서 '크게 외치라' 하시는가?
-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란 어떤 나라인가?
가상의 이상적인 나라: 실제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자신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야곱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무슨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인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판단을 구함(하나님을 기뻐함, 가까이 함), 금식: 열심히 할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외식적이고 형식적이다.
- 야곱의 생각에 하나님의 어떤 점이 이상한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지 않는 점(3)
-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곱의 잘못은 무엇인가? 잘못을 두 가지 형태로 정리해 보자.
금식의 모양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음(3-4):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음, 일을 시킴(3 난외주: 일꾼을 압제함) 금식하면서 싸움(마 5:23,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 금식은 회개와 성결(육신의 소욕을 억누름)을 위함이다.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는다는 것은 금식의 의미를 전혀 생각지 않는 형식적인 행사였다는 말이다.
금식의 모양은 잘 갖추(5): 갈대가 잘 휘어지는 것처럼 머리를 숙이고, 굽은 베(거친 천)를 두르고, 재에 앉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나타낸다. 문제는 이런 행위가 잘못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지적이다. 학교에 오지도 않는 학생(금식의 모양도 갖추지 않는 야곱)보다는 학교에 오는 학생(모양은 갖추 야곱)이 낫지만 야에 공부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 사장님이 안식일에 종업원들에게는 일을 하게 하고 자신은 예배드리러 가서 종일 봉사하면 안식일을 잘 지킨 셈인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3): 안식일에는 자녀는 물론이고 종도, 심지어 짐승까지 일하지 말라고 하였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뜻이다.
- 금식하는 날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5, 6)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 금식의 목표는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케 하는 것'이다(4). 금식을 통하여 육신의 소욕을 죽임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금식은 단순히 밥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육체를 괴롭게 하는 것은 겉으로 들어나는 표일 뿐 진정한 금식은 무엇인가? 6-7절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떻게 되나?
진정한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압제 당한 자의 결박을 풀어 자유를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얼마나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이해하면 왜 이것을 진정한 금식이라고 하는지 알 수 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셨다. 아들을 희생시키는 고난을 겪으신 주원인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만든 인간이 또 어디 가서 엉뚱한 결박을 당한 꼴을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
- 6-7절의 내용이 진정한 금식이라면 그것과 실제 금식은 어떤 상관(혹은 공통점)이 있는 걸까?
자신을 포기하는 것: 금식은 육체의 소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의미가 있다. 그런 점에서 6-7절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다. 확대 해석하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신 8:3)임을 확인하는 셈이다.
- 제대로 된 금식의 결과를 두 가지로 요약해 보자(6-12).
만사형통(8-11): 흔히 말하는 만사형통과는 다르다. 자신이 노력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가 주어질 것이란 말이다. '네 빛, 네 치료, 네 의, 너의 부르짖음'이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너의 노력'이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애쓰고 노력하는 것에 더 나은 결과를 주시겠다는 말이다.
위대한 자녀들을 주실 것(12): 자녀들이 수보자, 수축자, 개국공신, 개척자란 이름을 가지게 될 것이다.
- 사람이 복을 좇아다녀서는 안 되고 복이 따라와야 된단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실행시킬 방법이 없다면 아는 것이 아니다(소용이 없다). 본문에 혹시 방법이 있는가?
올바른 금식: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복이 나를 좇아오게 하는 방법이다(6-12).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마른 곳에서도 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 마른 곳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영혼(어려운 가운데서도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이나, 물이 별로 없는 근동지역에서 물뚝 동산, 끊임없이 솟는 샘도 예사로운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것을 누린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언제 이런 복을 주시는가? 혹시 과거에 그런 때가 있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던 때: 장차 누릴 복이라고 보는 것이 옳겠다. 예시처럼 보여주신 적은 있다.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에 이스라엘은 부족함이 없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았고 양식도 끊임없이 주어졌다(신 8:15-16). 오직 하나

님의 은혜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장차 그런 날이 올 것이다.

13.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왜 안식일 얘기를 하시나?

금식을 하는 자세나 안식일을 지키는 기본 원리는 마찬가지다.

14.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금식을 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동일한가?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함: 밭을 금하고 오락을 행치 아니하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셈이다. 대신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셈이다. 나 중심(네 밭, 네 길, 네 오락, 사사로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내 성일, 여호와와 성일)의 삶을 살라는 것이다.

15. 안식일을 잘 지키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것, 땅의 높은 곳에 올릴 것(이 땅에서의 번영일 수도 있고 포로에서 회복되는 것일 수도 있음), 야곱의 업을 상속받을 것(14, 약속의 땅을 상속하는 것)

이사야 59 장

1. 56:9-57장은 지도자들의 잘못과 음란한 우상숭배를 책망했으며, 58장에서는 형식적인 종교의식을 꾸짖었다. 그렇다면 본문은 어떤 죄악에 대한 책망인가?

백성들의 일반적인(사회적인) 범죄: 56:9-58장까지는 종교적인 부패에 대한 책망이라면 59장은 사회적인 부패를 지적함으로 이스라엘이 총체적인 죄악에 빠져 있음을 책망하고 있다. 하긴 이 두 가지가 따로 놀 수는 없다.

2. 백성들이 기도를 하기는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호와와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1) 형식적인 종교행위는 있었지만 그것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임을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다.

3. 백성들의 죄악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도를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죄악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인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기호(嗜好)의 문제이다. 부자지간에도 아버지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기분 문제인 경우가 적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 분을 기쁘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4. 백성들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라진 것은 무엇이며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3-8)?

사라진 것: 공의, 진리(4)

나타난 것: 피, 죄악, 거짓, 악독, 허망한 것, 잔해, 독사의 알, 거미줄, 죽음(독사의 알을 먹고), 독사, 벌거벗은 자, 강포한 행습, 행악하기에 빠진 발, 죄악의 사상, 황폐, 파멸, 굶은 길(3-8)

5. 입에서 술 냄새, 담배 냄새, 입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가까이 하기 힘들다. 이스라엘이 그런 형국이다. 비유컨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갔더니 손에서,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가? 발은 어떤가?

손과 손가락에서는 피 냄새, 입에서는 거짓, 악독이 악취를 뿜는다(3절). 발은 못된 짓 하기에 빠르다(7절)

6. 법이 공정성을 잃으면 무시당하게 마련이다. 그러면 법 대신 무엇을 의지하게 되는가?

허망한 것(4)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다는 것은 사법기관이 썩었다는 말이다. 그렇게 되면 법대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부정한 수단(뇌물, 미신, 사기)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그 비슷한 사회가 되다보니 탈주범이 한 마디 한 것이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7. 백성들이 죄를 범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함이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얻는다고 비유하는가?

독사의 알과 거미줄로 된 옷: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지어가며 많은 것(부, 명예, 높은 지위)을 얻었다고 해도 그것은 위험하기도 하고 허망한 것일 뿐이다.

8. (새가) 독사의 알을 품으면 독사가 나온다. 위험을 키우는 일이다. 거미줄로 천을 짜면?

아무 소용이 없다. 거미줄에 묶인다? 여기서 거미줄은 옷을 짜기 위한 것이다(6절). 따라서 투명한 옷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남을 해코지해서 먹을 보려는 짓이 결국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스라엘이 하는 짓은 위험하면 서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

9. 이스라엘은 공부에 별 흥미가 없는 학생 같다. 선생님의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지만 엉뚱한 얘기를 하면 귀가 번쩍 뜨인다. 이스라엘은 무엇에 재빠르게 반응하는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 흘리기

10. 이스라엘은 손, 손가락, 입, 혀, 발을 총동원해서 죄를 짓는다. 그러나 이런 부위는 말단 줄개이다. 진짜 죄가 많은 부위는 어디일까?

마음: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7).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평강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8). 마음이 징계를 받은 상태이다. 온갖 죄를 다 지어가면서 많은 것을 얻었다 해도 마음의 평강을 얻지 못하면 소용없는 것이다.

11. 갑자기 호칭이 변했다. '너희'에 대한 책망이 '우리'로 변했다. 내용은 어떻게 변했는가?

책망에서 회개로: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선지자가 앞장 선 회개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 특히 12절. 총체적인 부정으로 회개가 보이지 않을 때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앞장서서 회개하는 수밖에 없다.

12. 선지자가 보기에 자신들에게 없는 것은?

공평, 의, 빛, 구원, 성실, 정직: 그래서 낮에도 황혼 때 같이 넘어진다. 낮(안식)인데도 밤(고난)과 같다는 뜻이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이다.

13. 배가 고파도 같이 굶으면 참기가 쉬운데 남들은 다 잘 먹고 있는데 혼자 굶고 있으면 할 짓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꼭 이와 같다는 표현이 어디에 있는가?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10) 다른 사람들은 번영하고 복을 누릴 때(강장한 자) 이스라엘은 죽은 자와 같다. 모든 동기생들이 졸업하는데 혼자 낙제해서 남은 기분이랄까?

14. 9-10절은 징계 받은 모습, 11-12절은 회개, 13-15a는 회개 중에서도 구체적인 죄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죄악으로 인해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악의 세태에 물들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악인의 먹이가 된다는 뜻이다. 악의 소굴에서 '이제 이 일에 손을 씻겠다'면 그냥 끔게 놔두지 않듯이 악을 떠나는 자를 징벌하는 악한 사회라는 것이다.

15. 사람이 없더니(16)? 쓸 만한 사람이 없다는 말인가? 관주에는 사 51:18이나 사 63:5절과 비교해 보라는데?

중재자가 없다는 말이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죄의 문제인데 이것을 해결해줄 사람이 없다. 히브리인들은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을 써서 반복하기를 좋아한다. 사람이 없다는 말이니 바로 다음의 중재자가 없다는 것은 동일한 표현이다.

16. 이스라엘에 희망이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자기 팔로, 자기의 의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신다(16). 이스라엘의 의로 되지 않으니 자기의 의로! 그래서 독생자를, 아니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다.

17. 하나님은 무엇으로 무장하셨는가? 용도별로 분류를 한다면?

자기의 팔, 자기의 의, 구원, 보수, 열심: 팔과 의와 열심(도구)으로 이루실 일이 구원과 보수(독표)이다. 구원은 사랑의 결과이지만 보수(報償)는 공의로움의 결과로 다른 역본에는 의분, 응징으로 번역된 말이다.

18. 하나님께서 완전무장(?)을 해서 누구를 위해, 누구와 싸우시려나?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를 위해(20), 그들의 행위, 대적, 원수, 섬들에게 보복(18)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백성을 위함이다. 그러다 보니 부차적으로 보응, 보복을 당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다.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온 세상의 심판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19, 동방과 서방). '섬들'이 의미하는 것은 온 세상의 끝이다.

19.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방식(수단)으로 임하는가? 오늘날 우리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사역도 이와 같다는 점을 감안해서 두 가지 수단을 찾아보자.

성령(나의 신)과 성경(나의 말)(21)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전형적인 방법이다.

20.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면 이스라엘의 입이 어떻게 변하는가(3 ↔ 21)?

거짓과 악독이 뿜어지던 입(3)에서 여호와와 말씀이 떠나지 않는다(21). 냄새 나던 입에서 팔콤한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셈이다. 입 맞출 기분이 나지 않겠는가!

21. 56:9절부터 59:14절까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신랄하게 꾸짖었다. 이스라엘의 잘못이 많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책망하고 꾸짖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중보적인 개입을 말하려는 것이다(15-21) 너희들의 모습이 이 모양이니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으니 돌아오기만 하라'는 식이다. 책망이 주목적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22. 20절은 롬 11:26에 다음과 같이 인용되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본문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사 59:20은 구속자가 '죄로부터 돌아서는 자에게 임한다.' 그러나 롬 11:26은 야곱 중에서 경건치 않은 자를 돌이킨다.' 전자는 구원에 전제조건이 있는 것이고 후자는 구원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역이다. 전자는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하자가 없다. 후자는 70인 역이 문맥(15절 하반절부터 구제불능 이스라엘 대신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는 문맥임)을 따라서 그렇게 번역한 것인데 바울이 인정한 셈이다.

이사야 60 장

0.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고 각 단락에 제목을 붙이고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자.

1) **밋진 세상(1-9)** 이방인들마저 많은 재물을 들고 찾아옴. 1절의 '너'는 2인칭 단수 여성형이다.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다(60:14). 구속받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가리킨다.

2) **역전의 짜릿함(10-14)** 징계를 받을 때는 하늘갈린 자들이 이제는 우리를 섬길 것.

3) **하나님의 나라(15-22)** 더 이상 흔들림도, 징계도, 고난도 없는 튼튼한 나라가 될 것.

1. 어둠과 캄캄한 땅에 거하는 네게 여호와와 빛이 임하였다. 그러면 저절로 다 되는 것 아닌가?

일어나야 한다. 빛을 발해야 한다(1)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우리 힘으로 일어나야 한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이다. 여호와와 빛이 우리에게 임했으니 일어나자, 빛을 발하자. 그리스도인은 이런 자세로 살아야 한다. 현실이 어둡고 캄캄하더라도!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죄악에 따른 심판으로 포로로 잡혀간 처참한 상황 하에서 주시는 말씀이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귀환을 말하면서 동시에 메시아를 통하여 세상에 빛을 주시리라(요 1:1-5, 교회의 탄생과 확장)는 선언이기도 하다.

2. 땅을 뒤덮은 어두움, 만민을 가리는 캄캄함(2), 그 위에 비치는 하나님의 빛(1) 이것이 어떤 장면을 연상시키는가?

천지창조 직전과 시작(창 1:2-3) 혼돈스럽고 공허한 이 땅에 빛을 비추시면서 질서를 이루어 가신 모습과 닮았다. 동시에 요한복음 1:1-5, 9-10절과 유사하다. 전자는 자연 세계의 창조라면 후자는 영적 세계의 창조이다.

3. 열방과 열왕이 무엇을 보고 나아오는가?

네 빛, 네 광명(3)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빛이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빛이 아니라 네 빛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라고 해야겠지만 어쨌든 네 빛이다. 하나님께 받은 빛을 다시 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 빛을 보고 열방과 열왕이 나아오리라고 한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불러내신 이유는 아브람에게만 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람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이다(창 12:3).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만 예수 믿고 자기들끼리만 잘 살고 자기들끼리만 천국가면 되는 무리가 아니다.

4. 무엇이 나아오는가? 복이 터진 것인가?

(사면에서) 무리가,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네 딸들(은 안기위),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동의적 병행구: 같은 의미란 뜻), 허다한 약대(가마르, 쌍봉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베케르, 단봉 약대), 스바의 사람들의 금과 유향과 여호와와 찬송, 개달의 양 무리, 느바웃의 수양: 세상의 온갖 재물이 다 내 것이로다?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많은 재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6번 참고). 나아오는 무리와 네 아들딸들은 이방인이거나 유대인이거나 구별없이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뜻한다.

5. 많은 무리들과 자녀들, 많은 재물들이 몰려오는 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은 희색을 발한다(5). 10절을 참고하면 현실은 어떠한가?

책망을 받고 있으며, 돌이키지 않으면 끔찍한 외적의 침입을 당하게 된다. 10절도 아직은 현실이 아니다. 장차 이런 고난을 당할 텐데 왜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하는 걸까? 미리 그런 어려움을 피해가도록 하라는 것,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원인을 깨달으라는 것,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당대의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훗날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 아닐까? 오늘 우리에게 말이다.

6.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호와와 찬송이 전파되는 것(6), 제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7),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9)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 그로 인해서 다른 모든 것이 회복되기 때문이다.

7. 다음의 밑줄 친 부분을 뜻하는 본문의 표현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다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오래 동안 가슴앓이를 했다. 이제 그 날이 오면 1)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2) 빠를 것이다.

1) 구름같이(8), 그 외에 (열방, 열왕, 무리가 다, 섬들)도 가능하겠지만 구름이 가장 적절한.

2)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같이(8), 그 외에,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클 뿐 아니라 가장 먼 지역에서 오는 배들인데 먼저 이른다)도 가능함. 그 날이 오면 구약 시대처럼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오늘날 믿는 성도들을 보면 전체 인구에 비하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지만 구약의 경우와 대비해 보면 엄청나게 많아진 셈이다.

8.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10) 성도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불신자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뜻으로 이해하되 그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방인들을 통해서 주어졌던 것에 대한 역설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9. 하나님께서 노하셨을 때와 긍휼을 베푸실 때를 비교해 보면 다음 각 항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항목	노하셨을 때	궁핍을 베푸실 때
성벽	이방인들 헐어버림	이방인들이 쌓음
왕들	압제자	이스라엘을 위한 봉사자(11, 포로)
성문	굳게 닫음(적군을 막음)	열어둠(재물과 포로의 입성)
예루살렘	약탈의 대상	모든 재물의 집합소
대적자	괴롭힘, 멸시함	발 앞에 엎드림
이스라엘	버림과 미움의 대상	영원한 아름다움과 기쁨의 대상
양식	자녀를 잡아먹을 정도	열방의 젖을 땀

10. 성문이란 밤에는 닫아 잠그려고 만든 것인데 왜 주야로 닫지 않는가(11)?

적이 없다 혹은 완전한 통치가 실현되었다(예, 계 21:25-26)는 말이다. 로마의 국경이 튼튼할 때 백성들은 평지에서 평화롭게 살았다. 국경이 흔들리자 농토를 버리고 산꼭대기에 지은 성에 들어가서 살았다. 물론 밤에는 성문을 걸어 닫고.

11. 이스라엘을 섬기지 않는 나라는 정말 파멸될까? 역사적으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 곧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말하는 것이다.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을 하지만 어느 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선지자에게는 이 두 가지 미래가 반드시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는 중간지대가 없다. 영원한 삶이든지 아니면 영원한 죽음이든지 택일해야 한다.

12. 레바논의 영광이란 울창한 숲에서 자라는 질 좋은 나무를 가리킨다.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향양목이 왜 예루살렘으로 오는가(13)?

(상징적이긴 하지만) 무너진 성전의 회복을 가리킨다. 실제로 성전이 재건되지는 않았고 반면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 교회의 권위 앞에 대적들이 완전히 굴복하게 될 것이다(14). 온전한 성취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13.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들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신 6:3, 8:7-9). 이런 땅이 사람이 지나 다니지도 못할 만큼 황폐되고만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였기 때문이다(신 8:6을 뒤집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만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땅마저 버림을 받았다.

14. 열방의 젖과 열왕의 유방을 뺀다(16)? 왕은 대체로 남자인데 빨아봐야 나올 게 있을까?

양식이(은혜가) 풍성할 것이란 은유적 표현이다. 남자에게 무슨 젖이 나오겠느냐는 것은 괜히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고약한 버릇이다.

15. 회복될 이스라엘을 그려보면(17-18) 참으로 행복하다. 옛날 솔로몬의 영광스러웠던 시절이 다시 돌아오는 것만 같다.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훗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이 땅에서는 이런 모습이 전혀 없는 걸까?

복음이 들어간 곳은 대체로 모든 분야에서 발전하고 복된 곳이 되었다. 훗날의 상징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16. 큰 건물을 지으면 기념할 사람이 많다. 대체로 크게 공헌한 인물의 이름을 새긴다. 회복될 예루살렘의 성벽을 구원, 성문을 찬송이라고 이름 지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화제가 바로 구원과 찬송이다: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성도들이 당연히 기억하고 즐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구원)이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찬송일 것이다.

17. 해와 달이 소용없는 세상(19)을 성경 외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계 21장) 외에 해와 달이 없는 세상이 성경에 또 있는가?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세상(창 1장): 해와 달이 있기 전에 식물이 먼저 창조되었다.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은 태양 에너지로 삶을 유지한다. 그러나 성경은 태양조차 빛 되신 하나님의 그림자라고 말하는 셈이다.

18. 이스라엘의 회복을 노래하던 선지자가 어느 새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노래하고 있음이 확실하다(19-22). 여호와가 빛이 되시는 것 외에 하나님의 나라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인가?

슬픔이 끝나고(20), 모두가 다 의롭게 되고, 영영히 거할 것(21)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22): 천국은 마치 겨자씨가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는 것과 같다는 비유와 동일한 이미지이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는 셈이다(21).

이사야 61 장

1. 여기서 '내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선지자 이사야인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것은 이사야보다 훨씬 후대의 일이다.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자신에게 적용하셨다는 점이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눅 4:18-19). 그러므로 1-3절은 메시아의 사명을 말하는 것이다.

2.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기름은 왜 붓는가?

중요한 직책을 맡기셨다는 뜻이다. 선지자(말씀 선포), 왕(올바른 통치), 제사장(병을 고침)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메시아'다.

3. 왜 하필이면 가난한 자(고통당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가?

포로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나아가서는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을 발견할 수 없어 메시아를 기다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가리킨다.

4.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농임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가 권위주의 정부나 독재 정권과 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인가?

정치적인 농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울무에서 농여나는 것을 말한다. 성도가 개인 자격으로 그런 일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교회의 사명은 영적인 일에 우선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정치적인 현실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5. 1-3절의 모습은 구약의 어떤 것과 가장 비슷한가?

회반: 온 이스라엘 땅에 나팔을 울리면서 자유가 선포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기쁨의 해였다(레 25:9, 10).

6. 온 세상에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다. 또 무슨 일이 있길래?

은혜의 해이기도 하지만 신원의 날이기도 하다. 이스라엘에게 신원은 대적에게는 보복을 뜻한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만 원수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7. 짝지은 세 종류, 즉 재와 화관(花冠), 슬픔과 기름, 근심과 찬송의 공통점은 각각 무엇인가?

전자는 머리에 쓴다는 점, 두 번째의 것은 액체가 흐르는 점(슬픔의 눈물과 회락의 기름), 마지막 것은 소리가 난다는 점: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의미는 정반대이다. 갹아주신다는 점을 덧붙여지게 표현하였다. 이 경우의 기름은 축제 때 귀빈의 머리에 향내 나는 기름을 붓곤 하였다. 요즘으로 치면 향수를 뿌리는 셈이다.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한이 맺힌 사람에게는 맛있는 것을 선물하면 제일 효과적이고 공부를 제대로 못한 사람에게는 명예박사라도 학위를 받는 것이 가장 기뻐할 것이다. 재를 뒤집어쓰고 울부짖던 사람에게는 화관보다 더 기쁜 것이 없을 것이다. 정말 멋지게 갹아주신다.

8. 찬송을 왜 옷에다 비유했을까? 찬송과 대비되는 것은 근심인데 근심거리가 있는 사람이 무슨 옷을 입는지 생각해보자.

근심하는 사람이 입는 베옷과 대비시킨 표현이다. 거칠고 성긴 베옷대신 부드럽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것처럼 근심하는 사람에게는 찬송이 터져 나올 것이다.

9. 의의 나무라? 이 나무는 여호와께서 심으신 나무요, 여호와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왜 나무에다 비교했을까? 어떤 나무일까?

다시는 넘어지지 않을 튼튼한 나무라는 뜻일 것이다. 원문의 이 나무는 굵고 튼튼한 상수리나무(oak)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친히 심었기 때문에 다시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구속받은 이스라엘 (61:4-62:12)]

10. 4절부터 62:12까지 구속받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한다. 이스라엘은 가난한 자, 마음 상한 자, 포로 된 자, 가난한 자, 슬픈 자였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갹아주시랴(4:9)?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것 하나만 고른다면?

너무 많아서 정리 불가! 한 마디로 즐거움이 넘친다.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개인적으로는 '여호와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 가장 영광스러워 보인다. 4-9절은 메시아의 사역의 결과이다.

11. 무너진 성읍이 다시 재건되고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으며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이스라엘은 제사장 노릇을 한다는 말도 이해하기 어렵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주는 것을 결코 먹지 않을 사람이다(다니엘과 세 친구들). 언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도운 적이 있는가?

지나간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이스라엘은 본의 아니게 제사장 노릇을 했다. 복음이 이스라엘에서부터 나왔으니 말이다(출 19:5-6). 유대인에게 열심히 전하던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졌으므로 바울은 롬 15:27에서 곤궁에 처한 유대인 신자들을 도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3차 전도여행 때 엄청난 헌금을 거두어서 각 교회 대표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왔었다(참고, 롬 15:26, 고전 16:1-4).

12. 회복된 이스라엘이 받은 복은 질적인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적으로도 차이가 있다. 배나 얻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충분한가?

분깃을 배로 받는다는 것은 말로서 상속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분을 되찾는 셈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써 자격을 되찾는 셈이다. 종이라도 되겠다고 돌아온 탕자에게 반지를 끼우는 것과 같은 말이다.

13.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배로 갚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공의롭기 때문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불의의 강탈을 당했기 때문이다. 누가 언제 그랬다는 말인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이스라엘의 범죄함 때문이었지만 도구로 사용된 앗수르나 바벨론이 필요 이상으로 이스라엘에게 불의를 행하였다는 말이다.

14. 이스라엘이 받을 복의 큰 특징은 제삼자가 보아도 다 아는 복이란 점이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마 5:13-15) 복을 받고 사는 것을 세상 사람이 다 알게 하라고 하신다.

15. 어떻게 하여 이스라엘은 이런 복을 받고 기뻐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고 의롭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일이다.

16.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사역과 결과를 어디에 비유하고 있는가? 얼마나 효과적인 비유인가?

땅에서 쏟아나는 싹을 막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거대한 바위라도 막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의(구원사역)와 찬송(결과)이 쏟아나게 하신다. 10-11절은 메시아 사역의 또 다른 측면에서 본 결과이다. 4-9절이 구체적이고 현상적인 결과라면 10-11절은 근본적이고 내면적인 결과이다.

이사야 62~63:6

1. 62장은 60장과 내용이 거의 같다. 두 장 모두 회복된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 주된 내용인데 굳이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대체로 6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62장은 예루살렘 성의 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내용은 동일한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중간에 든 61장은 이 회복의 기초가 되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것이다.

2. '나'는 누구일까?

이사야로 보는 견해와 이 일을 이루시는 메시아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루어질 사역 자체가 메시아적인 사역임을 감안하면 후자가 옳아 보인다. 60장에서 같은 내용을 메시아가 말하였던 것을 감안해도 그렇다. 설령, 이사야로 보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이사야의 메시지라기보다는 메시아의 메시지이므로 결국은 동일하다.

3. 시온에서 빛이 나고 햇불이 나타나면 누가 득을 보는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뿐 아니라 이방에게도 구원이 전파되리라는 선언인 셈이다(2).

4.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왜 새 이름이 필요할까?

엄청난 변화(신분, 성격, 본질에서)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3) 신분이 달라지면 그에 걸맞는 이름이 필요하다. 교황이나, 고대의 왕이 즉위하면 이름을 새로 붙였던 것과 비교하면 되겠다. 특별한 물건에는 사람처럼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예, *Big Ben*).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도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노아 시대의 홍수는 말이 홍수이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그에 알맞은 단어가 없는 탓에 이름을 제대로 붙이지 못해서 당시 심판의 심각성과 끔찍함이 바르게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다. 홍수가 아니라 가장 끔찍한 재앙이라고 해도 표현이 부족하다. 이름을 제대로 붙이지 못해서 생기는 애로 사항이다.

5. 예루살렘의 본 이름은 '버리운 자' '황무지(버려진 땅)'였다. 바뀐 이름과 비교해 보자.

헴시바, 빨라: 헴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는 뜻이고, 빨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다(재혼을 가리키는 말). 실연을 당하거나 이혼 당한 것과 같은 이스라엘이 다시 애인이 되고 결혼하게 될 것이다. 기뻐할 권덕자가 별로 없는 곳이 황무지인데 이 곳에 다시 물이 흐르고 꽃이 피어나는 것과 동일한 이미지이다.

6. 예루살렘의 회복은 이혼 당한 여인이 다시 남편과 결합하는 것에 비유되었다(4, 호 3:1-5). 그런데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과 같다고 하면 어딘가 어색해 보이는데 무슨 의도일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겠다는데...: 이스라엘의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7. 5절의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는 직역하면 '네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겠고'이지만 '네 아들들이 네게 거하겠고'도 가능하다. 각설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결혼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기쁨: 그렇게 기쁘는가?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실 것이라는 말이다. 아마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신랑과 신부 사이에 있는 모양이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은 제대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다.

8. 파수꾼은 조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군에서 보초를 서는 사람들은 숨소리도 못 내고, 방구는 물론 기침도 참아야 하는데?

그런 보초도 있지만 시끄럽게 구는 경우도 있다. 예전에는 야경꾼이 야간에 순찰을 돌면서 짹짹 비슷한 걸로 '딱딱' 소리를 내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다녔다. 아마 그런 류의 보초였을 것이다. 예방이 주목적인 경우에는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어야 한다. 자동차의 과속을 막기 위해서 숨어서 사진을 찍는 경우와 미리 예고하고 찍는 경우를 비교해 보라.

9. 쉬지 않고 계속 떠돌아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파수꾼과 종교 지도자들: 6절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는 '여호와를 기억하게 만드는 자'란 뜻이다. 그래서 표준새번역은 '주께서 하신 약속을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라고 번역하였다.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에 세우신 파수꾼이란 백성을 제대로 인도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비유이다. 예루살렘을 구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혼자서 충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이 일을 위하여 쉬지 않고 떠돌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다. 누군가가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스에 응답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

10. 7절의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누구를 쉬지 못하게 하라는 말인가?

여호와: 예루살렘의 회복은 여호와로 말미암는 것이기에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다. 이들이 쉬지 않고 떠돌게 만드신 분이 그들에게 준 임무는 거꾸로 자신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

11. 예루살렘을 세워 온 세상에서 찬송을 받을 그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그러면 그 때가 언제인가?

자신의 식물을 빼앗기지 않는 것(8-9) 성소 뜰에서 마시는 것(9) 자신이 추수한 것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은 나라가 부강하여 안팎으로 위협이 없는 때를 말한다. 성소 뜰에서 먹는 것은 축제를 의미한다(신 16:11, 14-15). 즐거움이 넘치는 때란 말이다.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이 말씀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을 뜻하겠지만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셈이다.

12. 하나님께서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주지 않겠고...'라고 맹세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전에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얘기 아닌가?

그런 고난당할 짓을 이스라엘이 했으니가 그러셨지: 이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은 미리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인가, 아니면 잘못해도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겠다는 선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가우뚱 거렸겠지만 우리는 쉽게 알아듣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겠다는 선언이다.

13. 10절을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자. 왜 성문으로 나아가는가? 왜 대로를 수축하는가?

성문으로 나아가는 것은 환영행사를 위함이고, 대로를 수축하는 것은 돌아오는 길을 닦는 일이다.

14. 기를 드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행진의 시작을 의미한다. 선두에 기가 있게 마련이다. 단체로 여행할 때 기를 세우고 가는 이유도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고, 혹시 이탈했더라도 기를 보고 찾아오라는 뜻이다.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이 이제는 만민을 위하여 기를 든다. 만민의 인도자가 된다는 뜻이다. 언급생심 어떻게 이런 일이!

15. 11절의 '상급이 그에게 있고'에서 그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딸 시온으로 지칭되는 것을 보아도 여성인데 원문의 '그'는 남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상급과 보응을 가지고 오시는 분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가리키는 말이 틀림없다. 그래서 바로 앞의 '구원'을 '구원자'로 번역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 상급과 보응은 이스라엘에게 주려는 것(구원)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자체를 가리킬 수(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심을 의미)도 있다.

16. 회복된 이스라엘은 이름이 바뀐다. 무엇이라고 불리는가?

거룩한 백성, 여호와와 구속하신 자, 핫은바 된 자, 버리지 아니한 성읍: 4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객관적으로 성취될 것임을 확인하는 셈이다.

[63장]

17. 앞장에서 시온의 회복을 말하는 것은 곧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의미한다. 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몇 가지 종류의 붉은 색이 등장하는가(1-3)?

네 종류, 에돔(에서의 피부색에서 따온 표현으로 붉다는 뜻), 홍의, 포도즙, 선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저자의 탁월한 문학적 능력이다.

18. 에돔(수도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의 복장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선혈이 낭자함: 마치 포도즙 틀을 밟는 자의 옷에 포도 물이 튀듯이 피가 튀어 있다. 보스라는 좋은 포도가 많이 나는 곳이란 뜻이다. 쉽게 상상되는 모습이다.

19. 무슨 일을 하다가 오시길래 복장이 그런가?

만민을 심판하고 오는 길이다. 상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장차 이런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런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우리 편이기 때문이다.

20. 누가 그를 도와주었는가?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었다: 성도의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이다. 어느 누구와 상의한 것도 아니요, 어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21. 에돔이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처절하게 심판을 당하는가?

에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을 자의 상징이다. 실제로는 이스라엘에 인접해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망할 즈음에 못된 짓을 많이 했다(을 1:10-14). 중요한 것은 에돔의 심판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겠다는 선언이다. '원수 갚는 날'과 '구속의 해'는 같은 의미이다(4절).

22.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忿)이 나를 불들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전적으로 혼자 힘으로 감당했다. '나의 분노가 나를 지탱하였다'고 한다면 우리말 식으로는 '분노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뜻이겠지만 본문의 문맥은 '다른 이' 대신에 '나의 분노'가 그 일을 하게 했다는 뉘앙스가 강하다.

이사야 63:7-64 장

1. 본문은 근사한 기도이고 하지만 문제가 많아 보인다.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탄원을(기도를) 하면서 1)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거나 회개하는 내용은 몇 절인가? 2)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는 내용은 얼마나 있는가? 3)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위대한 역사를 다시 한 번 이루시옵소서라는 내용은 얼마나 되는가?

1) 64:5, 6(두 절): 10a는 회개라기보다는 과거의 사실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뿐이다.

2) 10b, 18-19, 64:5, 6, 7, 10, 11 (일곱 절 반):

3) 7-9, 11, 12-13, 14, 15, 16-17, 64:1-2, 3-4, 9, 12 (열여섯 절): 자신들이 회개하는 기도라기보다는 위대한신 하나님 이 어디 계시느냐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왜 우리를 이렇게 버리셨느냐? 다시 한 번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행동을 촉구하는 기도이다. 자신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자신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다. 이러니 이런 기도의 응답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63:1-7) 이런 이유로 본문을 이사야의 기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일반적인 기도나 생각을 이사야가 인용하며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2. 7-14절은 기도인가? 찬양인가? 아니면?

구원 역사에 대한 회고: '한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안을 주셨다. 징계 가운데서도 돌이켰을 때 구원을 베푸셨다'는 회고이다.

3.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제 멋대로 저주하거나 함부로 심판하시는 두려운 분으로 기억한다. 명백하게 구약을 잘못 읽은 탓이다. 이스라엘은 여기서(특히 7-9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기억하고 있는가?

은총을 베푸시는 자(7): 어쩔 수 없어서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자비, 긍휼, 구원, 사랑, 구속, 드시고 안으심' 이런 단어들에 어울리는 분이다.

4.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는 말은 누가 하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스라엘이 말함: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라면 좋겠는데 꼭 사고치고 아쉬울 때 이런 소리하는 것은 어딘가 아쉬움을 준다. 그래도 그렇게 말해야 한다.

5. 9절의 원문에는 부정어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예를 들면, 로암미의 '로'처럼)가 하나 들어있는데 전통적인 히브리인들의 독법에 따라(Qere, not Kethib) 많은 번역본들이 부정의 의미를 살리지 않는다. 굳이 살린다면 9절의 무엇을 부정하는 것이 좋을까?

그들을 구원하시며: 이 말을 부정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로 구원하시지 않고 친히 구원하셨다'는 뜻이 된다. 한글의 몇 가지 번역이 다른 이유이다.

6. 어려운 시절에는 과거의 좋았던 시절이 그리운 법이다. 이스라엘에게는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애굽을 나올 때가 정말 좋았던 시절이다. 그 시절을 회상하는 11-14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7. 예전에 좋았던 시절의 이스라엘을 묘사하는 두 가지 표현은?

광야의 말(13) 골짜기의 가축(14): 광야를 달리는 말에게는 거칠 것이 없다. 산지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이상적인 광경이다. 물이 흐르는 계곡의 가축은 편안하게 쉴 수 있다. 외적에 시달리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부러운 모습이다.

8. 하나님을 향한 애절한 기도가 시작되는데(15절) 대단히 현학적이고 화려한 수사법이 동원된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뭔가가 빠졌다.

회개는 없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울부짖을 뿐이다.

9.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다.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야곱이 이스라엘을 잊을 수 있는가!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잊어버리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신 어떤 말씀이 이와 비슷한가?

사 49:15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뜻이다. 훌륭한 고백이다.

10.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결단코 잊지 않았사오니 돌아오시옵소서(17절) 뭔가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떠나신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신들에게 있음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말하지 않는다. 마음을 강압케 하신 것이나 경외하지 않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화려하고 유창한 언변으로 기도를 시작하였으나 내용에는 문제가 있다. 양복에 고무신처럼!

11. 18절의 '땅을'은 작은 글씨체로 쓰여 있다. 원문에는 없다는 뜻이다. 이스라엘이 잠시 차지한 것이 주의 성소인지 가나안 땅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이 부분(16-19절)의 핵심은 '거룩한 백성이 이렇게 험한 물결로 살아서 되겠습니까?'라는 것이다. 그러니 어떡하라는 건가?

다시 한 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시옵소서(64:1-2)

[64장]

12. 하나님께서 무엇을 ‘불이 쉴 사람같이, 불이 물을 끓임같이’ 하시라는 말인가?

산들(1절) 하나님께서, 산이 진동하고 불이 불고 용암이 녹아 흐르는 장엄한 모습으로 강림하시라는 것이다. 마치 화산이 분출하는 모습을 염두에 둔 것 같다.

13. 이 기도(1-4)를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와 비교해 보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 기도는 우리 자신에게 맞춘 개인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반하여 본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화려히고 멋지게 그려내고 있다. 아무리 화려히고 멋진 말로 표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신 이유를 알지 못하면 헛일이다. 차린 모양은 진수성찬인데 실제로 먹을 것은 별로 없는 상과 같다. 문장은 화려한데 알맹이가 없다.

14.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땅을 진동시키는 일을 하라는 말인가(1-2) 하셨다는 말인가(3-4)?

시내산에서 보았던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 번 더 보여달라는 것이다.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던 모습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그 일은 이스라엘이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 아니라 전혀 뜻밖의 일이었다.

15.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신들의 오랜 범죄(5) 그러면 회개하는 셈이네? 이 부분에서 잠깐 자신들의 죄악을 언급한다. 그나마 다행인데 이내 다른 소리를 한다(7절).

16.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고 주를 붙잡는 자도 없는(7절) 이유는 무엇인가?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다(7) 곧 죽어도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자신들의 잘못을 말하는 것이 옳은데... 자신들의 의는 더러운 옷 같고, 쉽게 마르는 잎사귀와 같다(6)는 것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고백 같은데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다니...

17. 여호와와는 우리 아버지시고, 토기장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자이시다(8). 그러니 어찌란 말인가?

이대로 두고 보시겠나이까? 주의 백성이 이렇게 처참한 꼴을 하고 있는데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나타내는 데에 적합한 표현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라는 의미로 쓰였다. 문맥에 적절하지 못한 표현 같다. 주의 거룩한 성음, 시온이, 예루살렘이 성전이 불에 탔고 황무하였으니 이대로 두고 보시겠나이까? 이스라엘의 애절한 마음은 알겠는데 문제는 왜 그렇게 되었느냐에 대한 반성이나 회개가 없다. 이스라엘의 기도가 그럴듯하다가도 어딘가에 허점이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사야 65 장

1. 구하지 않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돌이켰다는 뜻인가?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다는 것은 스스로 돌켜주었다는 말인가? (참고 롬 10:20-21)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내셨다는 뜻이다. 세 번째 표현의 '여기 있노라'고 하였다는 말이 그런 점을 잘 보여준다. 세 번의 표현은 동일한 내용의 반복이다. 첫 번째의 '물음을 받았음'이라는 말의 원어는 '찾아지도록 허용 하였으며'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이다: 아무리 경고하고 징계를 해도 안 되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 하던 자', '찾지 아니하던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던 나라'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에게 친히 자신을 드러내신다. 신약에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주어진 선물이다.

2.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누구를 기다리고 계시는가?

패역한 백성들, 항상 노를 일으키는 백성들: 재산을 들고 나가서 다 날리고 거지꼴이 되어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눅 15)와 다를 바 없다.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3. 이스라엘이 어떤 점에서 가장 가증스러운가?

패역을 행하면서도(4절) 자신이 거룩하다고 여기는 점(5절): 술 취한 사람은 절대로 자신이 취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패역한 짓을 행하고 있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은 것은 아마도 죽은 자와 교제를 나누는 영매술이나 죽은 자에게 제물을 바치는 행위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돼지고기는 이스라엘에게 가증한 것인데 이것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버린 셈이다. 후일에 안티오크스에 피파네스가 이스라엘에게 배교를 강요할 때 돼지고기를 먹게 한 것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의 패역이 심각한가!

4. 이스라엘의 패역을 설명하는 구절(3절)에서 밑줄 친 부분을 () 안에 제시한 구절과 비교해 보라.

「곧 동산에서 (↔ 신 12:10-11)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 출 20:25)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 사 65:2)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후일의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섬겨야 했고, 다름은 풀이 아닌 자연석이어야 했다. 아마도 형상을 새기는 일을 금하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굳이 벽돌을 사용한 것은 모양이나 미신적인 모양을 새기던 이방인의 풍속을 따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종일 자기 백성을 기다리시는데 이 백성은 항상 노를 일으키게 만든다.

5. 이스라엘의 패역함은 마치 코에 들어가는 연기와 같단다. 코에 연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못 견딘다: 도저히 그냥 둘 수 없을 정도로 패역하다는 뜻이다. 코를 가리키는 단어는 '분노'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게 읽으면 이스라엘은 분노의 연기, 종일 타는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다.

6.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은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라더니 무엇을 하시는가?

보응: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던 다른 사람(이방인)에게 나타나시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을 버린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행한 죄악의 보응을 받을 뿐 아니라 조상 때부터 이어온 죄악을 감당해야 한다.

7. 사도 바울은 롬 9-11장에서 '이스라엘은 완악하여 넘어졌고 구원은 이방인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는 않았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 보응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데도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바울의 말이 옳은가?

8-10절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징계하는 와중에서도 '씨를 내며', '택한 자가 기업을 얻을 것'이며 '나를 찾는 자가 기업을 얻을 것'이라고 하신다. 롬 11장과 맥락이 같다.

8. 9-10절의 내용을 근거로 8절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8절은 농부의 어떤 행위를 엮두에 두고 있는가?

버릴 수밖에 없는 포도송이를 중에도 즙을 짜만 한 것이 있어서 일부를 가려내는 행위: 농부들이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다 멸하지 않고 일부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어가신다.

9. 65:1-12절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롬 9-11장과 동일한 내용이라면 '여호와를 버리고 갓(운수신, 행운의 신)에게 상을 베풀고 르니(운명의 신)에게 쉬은 술(악테일? 폭탄주?)을 가득 붓는 자들은 칼에 살육을 당할 것이다'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가?

예루살렘 멸망: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복음이 이방인을 향할 때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 엄청난 살육이 저질러지고 처절하게 무너지고 만다.

10. 두 종류의 인간으로 극명하게 갈라진다(13-14). 먹여 배부른 자와 굶주린 자, 마시는 자와 갈한 자, 기뻐하는 자와 수치를 당하는 자, 노래하는 자와 우는 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10)와 하나님을 버린 자(11)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어느 시대를 말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17-25절을 참고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종말론적 상황에 대한 묘사로 보는 것이 좋겠다.

11. 마 8:12절,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는 말씀과 마 24:40-41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는 말씀을 본문과 관련지어 보라.

동일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즉 이 본문이 종말의 상황에 대한 묘사라고 볼 수 있다.

12. 두 종류의 인간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름이 다르다. 여호와를 버린 자의 이름은 저주용으로 쓰일 것이고 택한 자들에게는 다른 이름, 아마도 영광스런 이름(가령, 성도)이 주어질 것이다. 이름이 저주용으로 쓰인 경우는 여로보암과, 바아사(왕하 9:9), 시드기야와 아합(렘 29:22)이 있다. '너희 집안이 여로보암 같기를 원하노라' 이거야말로 끔찍한 저주다(왕상 14:7-13). 그들의 이름이 저주용으로 쓰일 만큼 끔찍한 일을 당할 것이라는 선고이다. 지나간 시절에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라.

13. 아름다운 이름을 지닌 자들은 복을 구하든, 맹세를 하든 진리의 하나님께 할 것이다(16절). 이 말은 역설적으로 어떤 시대가 되었음을 말하는가?

더 이상 우상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 (우상에게 맹세하고 복을 빌므로 겪어야 했던) 환난이 이제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 하나님의 오랜 소원이 이루어진 셈이다. 16절부터 새로운 단락으로, 번역도 조금 달라져야 한다.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마다 진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구할 것이요 맹세하는 자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이전 환난이... (17절) 왜냐하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였기 때문이다.

14.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것은 재창조다. 첫 창조와 비교하면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의 관심이 천지만물에 있다기보다는 자기 백성의 회복에만 관심이 있다. 첫 창조에서 아담으로 말미암은 저주가 거의 사라지고 기쁨이 넘친다.

15.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짐을 짓고 거하는 것과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참고 신 20:5-6, 28:30)?

전쟁(23절의 재난)이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오래 산다는 것도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다. 전쟁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전쟁은 빼앗기 위한인데 그럴 필요가 없는 세상이란? 25절이 그 해답이 되는 것 같은데...

16.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않겠고'(23절)에서 '생산한 것'은 농작물이 아니라 자녀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면 무슨 뜻이 되는가?

아기를 낳아도 사산이나 조산 없이 잘 자란다. 바로 앞의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도 같은 의미이다. 1년이나 고생해서 낳은 아이가 죽는다면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

17. 여기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국은 아니다. 어떤 점에서?

오래 살기는 살지만 여전히 죽음이 존재하는 곳이다. 현세의 삶의 연장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서도 전쟁이나 질병이 없는 세상이다(21-23). 짐을 짓고, 농사를 짓는 것이나 짐승들이 등장하는 것도 그렇다. 그러므로 계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과는 좀 다르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범죄로 말미암은 저주가 사라진 세상이다. 아마도 이 세상이 계시록이 말하는 천년왕국인가?

18. 새 하늘과 새 땅의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드는가?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가 있는 것(24) 물질이나 수명에 관한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불려도 불려도 대답이 없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부르기 전에 응답하신다. 그렇게 되면 부를 필요도 없어지는 것 아닐까?

이사야 66 장

1.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는 것은 짓지 말라는 애긴가? 지으란 애긴가? 전에 누가 이런 말을 하나님께 한 적이 있는데(왕상 8:27)? 1) 후일 어떤 일에 대한 대답이 되겠는가? 2) 이 말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애통하는 자는 무슨 관련이 있는가?

1) **성전 건물에 그렇게 집착하지 말라(성전 건물의 무용성)**: 후일에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될 때 '왜 성전이 파괴되도록 버려두셨느냐?'고 묻지 말라는 셈이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한 것은 자신의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겸손하게 표현한 것이다.

2) 거대하고 웅장한 건물보다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애통하는 것이 먼저다.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 성전인데 영통한 자들이 와서 설치하고 있으니 그게 무슨 성전이냐는 말씀이시다.

2.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두려워 떠는 자'이다(2절).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자는 어떤 자인지 3절을 2절과 대조시켜 요약해 보자.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없는 자,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섬기는 자, 내용은 없이 형식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첫 표현이 가장 좋아 보인다.

3.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피비린내가 난다(=살인함)'고 하셨다. 전에는 '향기롭다'고 하셨는데(레 1:9, 13, 17) 입맛이 변하셨나?

본래부터 하나님께서는 제물 자체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제물처럼 드러지는 사람의 애통하는 마음을 향기롭다고 하신 것이다. 그런 애통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그저 형식적으로 짐승만 잡고 있으니 싫은 것이다.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소나 양은 개(더러움과 경멸의 대상, 신 23:18, 삼상 17:43)나 돼지(부정한 짐승, 레 11:7)와 마찬가지로.

4.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경배를 드렸다. 문제는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하였다는 점이다(3).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어야 한다. 자기 방식이나 자기 생각대로(3절의 자기의 길) 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가증한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26, 5a). 형식보다 마음이 우선이다. 반면에 우상이야 일정한 형식만 갖추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느라고 섬기는 것이었다.

5. 불려도 대답이 없다고 불평한 것은 이스라엘이었었는데(58장)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서로 길이 어긋났는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상에게 드렸다. 그러니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지 않았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음성은 귀를 하나님께 향하지 않아도 그냥 들리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지 않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귀를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6.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을 때 '가만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마 27:49) 고 말했던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 본문에 있다면?

5절에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하는 너희 형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성도를 비난하는 이런 자들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마 10:22, 요 16:2) 복음이 전해지는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답변은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는 것이다.

7. 시온의 회복을 무엇이 비유하고 있는가?

이상한 해산, 어머니의 품에 안고 어린 아이, 연한 풀의 무성함:

8. 로마는 하루 밤에 세워지지 않았다. 로마인들에게는 맞는 말이다. 그런데 하루 만에 시온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 뭐라고 할까?

어찌 이런 일이?(8):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뜻이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퍼져나가는 모습도 꼭 이와 같다.

9. 시온의 회복을 '해산'에 비유한 것은 무슨 의도인가(37가지)?

시온의 회복이 빠른 것(즉이한 해산이 의미하는 것)과 반드시 되어질 것(9)과 기쁨 것(10-14)

10. 10-14에 따르면 하나님은 () 이시다.

어머니: 흔히 하나님을 근엄하시지만 한 아버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했던 바리새인들이 여기 이 표현을 보고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머니시라? 그나마 하나님을 자비로우신 아버지로 가르치시고 부르께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11. 15-16에 따르면 하나님은 () 이시다. 위의 질문과 비교할 때 하나님의 모습이 왜 이렇게 다른가?

전사(戰士): 자기 백성에게는 어머니같이 자애로우시지만 대적들에게는 불과 칼로 심판을 행하신다. 어쩔 수 없다. 하나님에게는 이런 양면성(사랑과 공의)이 있다.

12. 애기가 젖을 배부르게 빨면 어떻게 되나?

자거나 놀지(엄마의 무릎에서) 젖을 넉넉히 뺀 아이가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랴! 예루살렘에 슬픔이 닥치기도 하겠지만 때가 되면 이처럼 시온은 강같이 흐르는 평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누릴 행복이 바로 이것이다.

13. 연한 풀이 자라날 때는 무섭게 자라난다. 뼈가 그렇게 무성하다는 것을 마른 뼈와 대조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진노로 마른 뼈같이 되었던 이스라엘이 왕성하게 생기를 되찾게 될 것이다.

14. 심판받을 자는 심판받을 만한 짓을 한다.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무얼 하나?

동산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목상의 뒤에서=우상) 돼지고기와 쥐를 먹는다. 돼지는 물론 쥐도 부정한 동물이다 (레 11:29).

15. 18절 앞의 '그들'은 누구일까?

15~17절서 심판당하는 자들: 18절의 절 매김이 잘못이다. '18절上'은 17절에 연결시키고 '18절下'는 19절과 관련된다.

16. '때가 되면 열방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다시 먼 곳으로 보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할 것, 그들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을 것이라'는 말에 제물을 붙인다면?

이방인을 통한 이방인 선교

17. 이방인들이 무슨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가(20절)?

너희 모든 형제들(온 세상에 흩어진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온 세상에 흩어진 이스라엘을 찾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듯 바친다는 것은 신약시대에 온 세상으로부터 이방인들이 영적 예루살렘, 곧 교회로 나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직접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는 뜻으로 쓰였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사장과 레위인, 즉 예배자를 세우신다.

18.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보고도 절망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패역함으로 인한 심판조차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럼 무엇이 끝인가?

예루살렘의 회복(20), 예배의 회복(23):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지닌 가장 큰 의미가 바로 예배의 회복일 것이다.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이 사라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날 시대가 있기에 선지자는 최악의 상황을 보면서도 좌절하지 않는다.

19. 선지자는 메시지를 마무리 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심판을 반복해서 외친다.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자.

4번 < 1-2 ↔ 3-4 / 5 ↔ 6 / 7-14 ↔ 15-17(18a) / 18b-21(23) ↔ 24 > 이사야 전체 줄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와 회복의 반복이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핵심을 거듭 거듭 당부하는 셈이다. 그에 알맞은 표어가 있다면 14절이 될 것이다. '여호와와 그의 종들에게, 그의 진노는 그 원수들에게!'